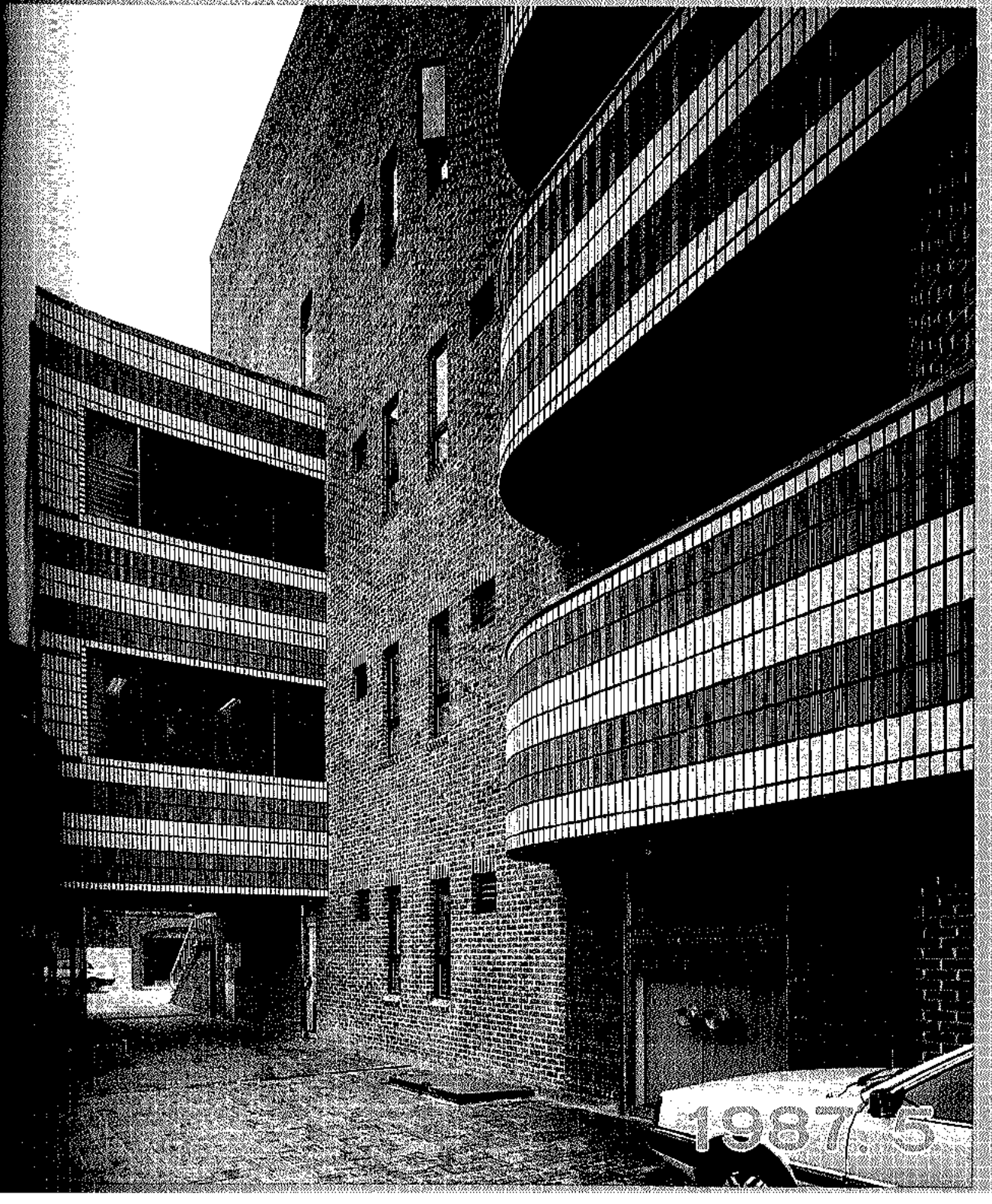
#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MAY 1987 NO 218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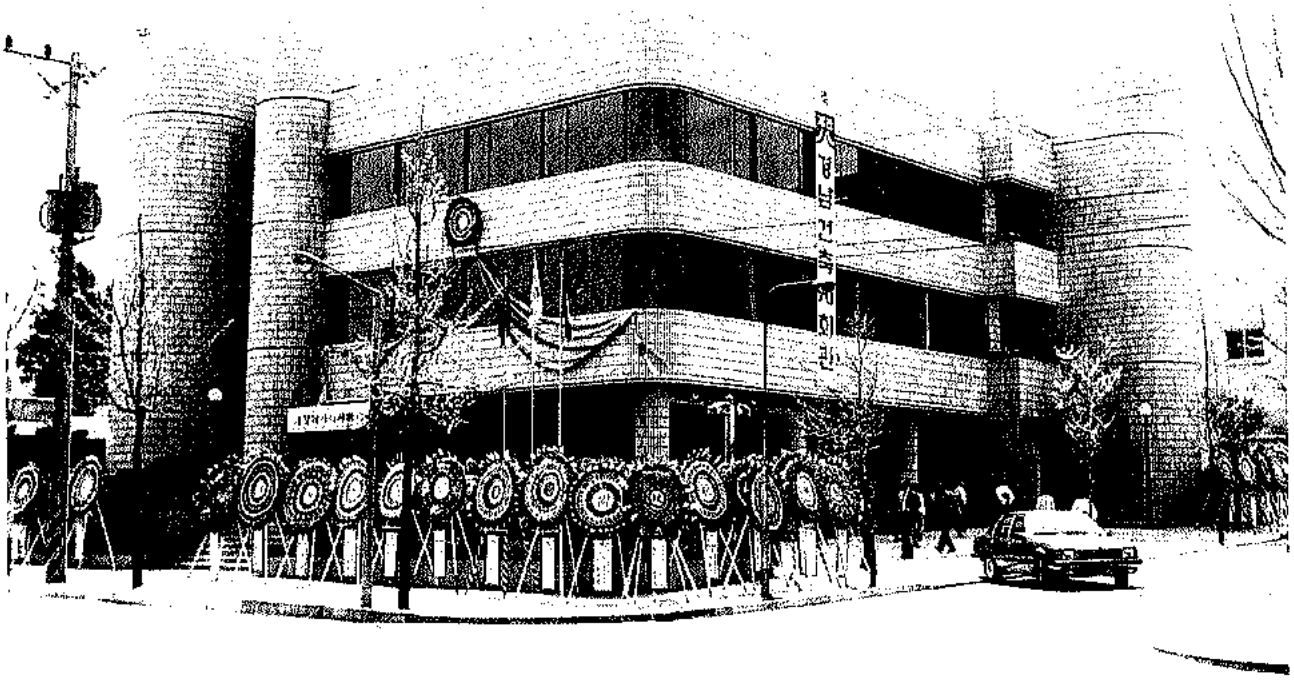
1987. 5. 15. 1985. 12. 31 第3種郵便物(나)級 認可 郵便番號 135



1987. 5

화학주식회
의도동43(미원빌딩 16, 17층)
성 암 동 45-25 TEL.
한 주거환경
건축용 단열재
,방습효과가 뛰어나
할을 합니다.
가 없는 위생적인
카스치로폴로 아
인하세요.
로폴에는 정부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실내보온
어나므로 난방비를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여름에는 열차단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외부 소음을 흡수하는
방음성으로 아늑한
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욕반과 절단이 용이하
공이 간편합니다
●우수한 원료를 채용하
하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5129

# 祝 慶南建築士會館 開館



## 人사말씀

많은 분들의 激勵속에 慶南建築士會館을 竣工하였읍니다.

이 建築物은 慶南建築士들이 團合된 意志로서 建立한 綜合藝術의 殿堂으로서 훌륭한 建築技術과 藝術性을 創出해 내는 文化의 場이 되도록 最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聲援에 感謝드립니다.

1987年 5月 日

大韓建築士協會 慶南支部長
慶南建築士福祉會 會 長 金 正 洙

建築文化를 慶南구석구석으로
1987年 4月 18日
建設部長官 李 [illegible]

## 건물개요

위치 : 마산시 중앙동 3가3번지(크리스탈호텔 입구)
규모 : 지하 1, 지상 3층 연건평 64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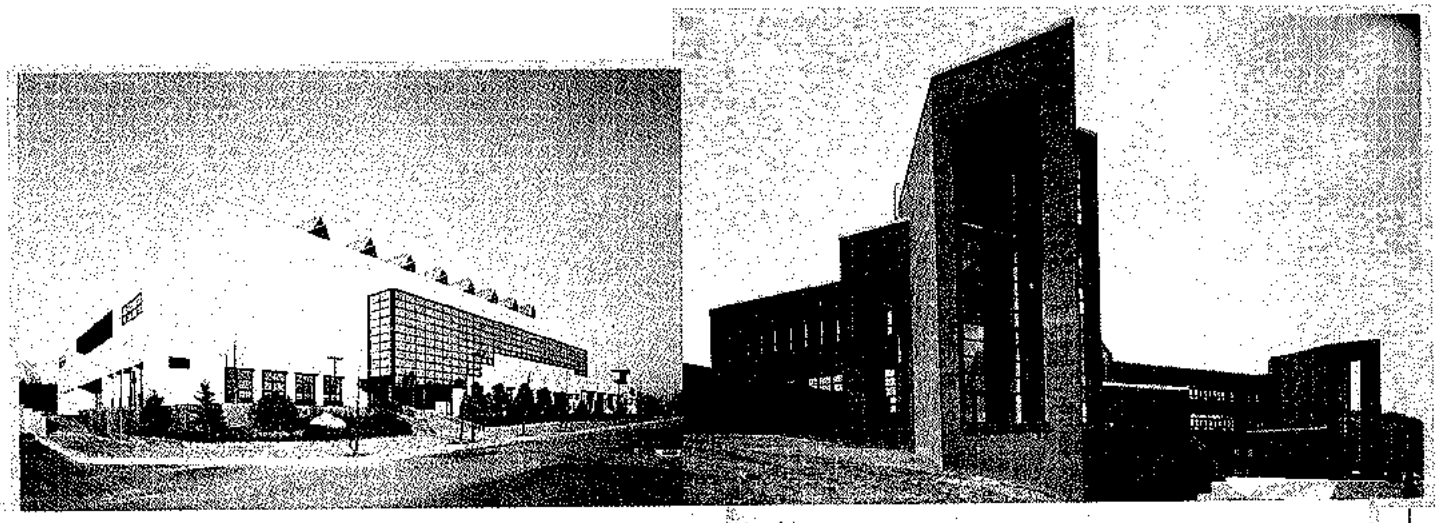
## 건물이용안내 및 문의

회의·강연회·전시회·집회·연극영화 등 문화행사

## 전화번호 안내

전화 45-3737

大韓建築士協會慶南支部
〒610/마산시 중앙동 3가3번지 전화 : (0551)2-4530,4531



# '87 建築士 設計作品展示會 出品作 公募

본협회에서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 아래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87년도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전시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회원으로부터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大韓建築士協會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출품요령

1984년부터 1987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패널크기 / 90cm×90cm (가로×세로)

2.제작요령 / • 패널에 게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유리, 스치로폴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패널수량 / 1작품당 3개 이내

4.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게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 · 설계개요 인물사진을 8월30일까지 제출(작품명, 사무소명 ·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패널은 9월20일까지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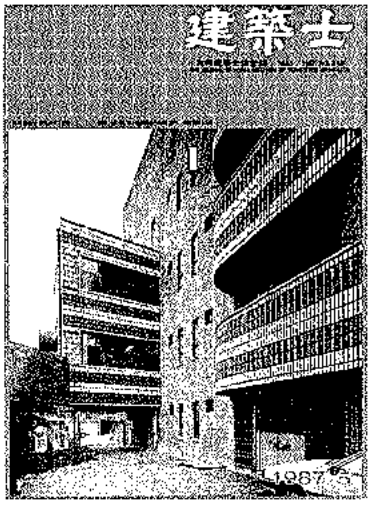
■ 시상내용

대　　상 (1) 건설부장관상
최우수상 (1) 협회장상
우 수 상 (2) 협회장상
장 려 상 (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1.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제출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




표지설명 : 미가람 사옥
설　　계 : 최영집/종합건축사사무소 탑
사　　진 : 정점용


발 행 인 안 기 태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안 장 원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강 태 석
위　원 변　　용
위　원 김 기 석
위　원 박 영 호
위　원 김 정 동

편　　집 출판사업부

발　　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　　화 :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 월23일
U.D.C. 69 / 72 (054－2) : 0612 (519)
인　　쇄 : 광문정판사
인 쇄 인 :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 建築士

## 차　　례

1987년 5월호(통권218호)


**論壇**
6 建築士補修教育 有感 …… 李丞雨

**會員作品**
7 로얄빌딩 …… 金正澈 · 金昶一
18 서울투자금융 …… 李相守
12 흥한건축사옥 …… 金泰雄
14 한효개발 …… 林承茂 · 金聖來 · 安俊洙
16 중외제약사옥 …… 金宗根
18 반도패션 …… 趙中衍 · 宋光燮
20 한일투자금융 …… 尹承重 · 卞　鎔
21 미가람사옥 …… 崔英集

**哲學的 散策/ 建築은 무엇인가** …… 安秉義
24 建築이라는 藝術(Ⅳ)

**建築批評 ②**
30 서울투자금융 …… 김광현

**寄　稿**
36 病院建築標準化의 諸問題 …… 柳運衡
대학도서관의 시설계획 …… 黃智顯

**일하며 생각하며**
61 수선을 멈추고 …… 金白浩

**企劃連載 ①**
40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Ⅰ) …… 金晶東

**이달의 詩**
50 나의 집 …… 趙鼎權

**設計競技**
52 '86신건축주택설계경기 작품 …… 동정근 · 박연심

**研究報告**
62 장애자를 위한 건축의 설계 …… 박용환
68 都市環境과 色彩 …… 朴墩緖
78 妙洞마을 조사 연구 …… 임충신

75 會員動靜
77 올림픽광장 ⑤
88 協會消息
92 新入會員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CONTENTS

*May 1987 Vol 218*

**PLATFORM**
The Thought of Architects' Repair Education ····· Lee, Seung-Woo 6

**WORKS**
Royal Building ····· Kim, Jung-Chul & Kim Chang-Il 7
Seoul Investment Finance Co. Building ····· Lee, Sang-Soo 10
Heunghan Architectts' & Engeneer's Building ····· Kim, Tea-Yeung 12
Hanhyo Development Building ····· Lim, Seung-Moo· Kim, Sung-Rae & An, Joon-Soo 14
Choongwe Pharmacy Co. Building ····· Kim, Chong-Ken 16
Bando Fashion Building ····· Joh, Joong-Yon & Song, Kwang-Sub 18
Hanil Investment & Finance Co. Building ····· Yun, Seung-Jung & Byun, Yong 20
Migaram Co. Building ····· Choi, Young-Jeep 21

**ESSAY**
Truth in Architecture ····· An, Byung-Ui 24

**CRITICISM**
Seoul Investment & Finance Building ····· Kim, Kwang-Hyun 30

**FEATURE**
Standardization in Hospital Design What to be met ····· Ryu, Un-Hyung 36
Library Facility Planning for Colleges and University ····· Whang, Ji-Hyun 54

**WORKING THINKING**
Stops a fuss over ····· Kim, Ja-Ho 61

**POEM**
My House ····· Cho, Chung-Kwan 50

**REPORT**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 by Kim, Chung-Dong 40
Architecture Design for a Deformed Person ····· Park, Yong-Whan 62
Urban Surrounding and Color Planning for Building ····· Park, Don-Soh 68
A Survey on a Myo-dong Village ····· Lim, Choong-Sin 78

**COMPETITION**
'86 Shin kenChiku Competition ····· 52

**OLYMPHIC PLAZA** 77

**KIRA NEWS** 88

**NEWLY ADMITTED MEMBER** 92

##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581 - 5715~8
서부분소/서대문구연희동169-16/333-1873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1 (부산데파트내)
(051) 23 - 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 72 - 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062) 521-759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 - 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0331) 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719-9/(0343) 2-2698, 2-0012
부천분소/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성남분소/성남시신흥동5512/(0342) 2-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의정부동182/(0351) 2 - 1083
송탄분소/송탄시신장동21/(0333) 4-6153
고양분소/고양군원당읍주교리36브릭16콘트/(0344)63-8902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0346) 63-8112
이천분소/이천군이천읍중리216-8/(0336) 2-3396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0361) 2-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0371) 42-3257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0391) 2-2262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468-66/(0392) 2-5081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0397) 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68/
(0431) 2-2752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673-1/(0441) 2-3082
제천분소/제천시의림동8-8/(0443) 2-6253
옥천분소/충북보은읍삼산리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042)
22-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0451) 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문리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 (대륙빌딩508)
(0652) 3-3881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2/(0653) 52-3304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
(062) 364-7567
목포분소/목포시호남동1/(0631) 2-7280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3/(0661) 2-7892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053) 4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96-70/(0562) 74-9713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9-1/(0561) 2-2680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356-2/(0546) 52-7903
안동분소/안동시삼산동125-19/(0571) 2-3641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문경분소/점촌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2가1-16/
(0551) 2-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0522) 74-8836
74-2555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5B-17L/(0594) 2-3155
밀양분소/밀양군밀양읍삼문동184-108/(0527) 52-3456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0523) 4-2669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가1동1289-6/(0641)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 62-3920

# 건축사 보수교육 유감

李丞雨
(주) 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Platform/The Thought of Architects' Repair Education
by Lee, Seung-Woo

어느새 6월의 문턱에 성큼 와 있는데, T. S. Eliot가 그의 詩集 "황무지"에서 그렇게 잔인하다고 노래하던 4월이 올해 우리의 경우엔 꽤나 긴 듯한 느낌이다. 경제적인 성장이 다소 눈에 보인다고 선진국에서는 수입규제다, 개방압력이다 하며 각종 압박을 가해 오고 대내적으로는 대형 경제사건, 정치적 격동, 어수선한 사회사건들이 신문의 제목활자를 2~3단 검은색 고딕으로 섬찟하게 장식한다.
신문의 편집만봐도 그 사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했던가.
나날이 변모해 가는 제반 여건속에서 우리 建築士 사회에도 그 사명이 이야기 되고 공정거래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같다.
더우기 "建築士 보수교육"이라는 현실에 접하게 되니 作品을 향해 꿈꾸던 모든 생각들을 이땅에 붙들어매야 하는 세속감을 맛보는 기분이다.
셰익스피어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다. "비록 당신이 세계적인 文学家지만 文学活動을 계속하려면 법에 규정된 대로 文法과 맞춤법, 작가의 자세등에 대해 연간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당장 면전에서 잉크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오랜 세월동안 애써온 건축계 최고의 전문가인 건축사들에게 "教育"이라는 어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하건 호소력이 없고 전제주의적인 방식이다. 언제까지나 지도니, 교육이니, 지시니 하는 일방통행식 用語에 숙달되어 있어야 할까. 대화, 토론, 협의 등의 좀 더 고차원적으로 신사적인 말들이 벌써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세계적인 추세와 업무자체의 전문성 및 사회 전반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 건축사사무소도 기업화, 전문경영화 시대에 돌입해 있으며 건축사는 각자의 哲學과 知性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作品世界와 思想을 충실히 닦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건축사들에게 技士보수교육과 다름없는 주입식 교육방식으로 사고의 범위를 미리 한정해 놓고 주어진 교재로써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시간만큼의 교육을 반복 실시해야 하는 까닭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까?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은 최소, 또는 최대한의 카테고리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 운영의 묘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 써비스업법이 종업원의 미소 종류까지, 친절의 범위까지 제한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강압이다.
보수교육이 실시해야 한다는 법이 있으니까 교육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대상과 교육효과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획일적인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학자나 전문가를 위한 교육처럼 좀 더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하겠다. 建築学会의 학술발표회처럼 각 분야별로 나누어 세미나식으로, 아니면 용도 건물별로 심포지움식으로 시행하면서 그 경우에 필요한 건설부의 방침, 적용법령 등을 삽입한다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서로 바쁘고 만나기도 힘든 建築士끼리 어떻든 한 자리에 모이니만큼 建築士 축제마당을 벌일만큼 흥겹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장소가 되며, 그러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전문단체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인간은 자신이 만든 굴레에 스스로 구속받는 오류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動物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우면서 가끔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지한 행동도 한다. 그러나 인간이 모인 집단 사회는 그 오류를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심히 끌려가는 나태와 무관심을 우린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지 않은가?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리고 고통없는 결실도 없다. 구성원이 성숙하면 단체도 성숙하고 사회의 제도나 법칙도 성숙해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소 아프더라도 수술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모든 것은 차츰차츰 좋아질 것이다.
어느덧 한껏 무르익은 봄의 푸르름을 마음껏 느끼고 그 풍만된 감동으로 올해를 사는 활력소로 삼자.
정직한 自然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자.

사진 : 김영호

회원작품

# 로얄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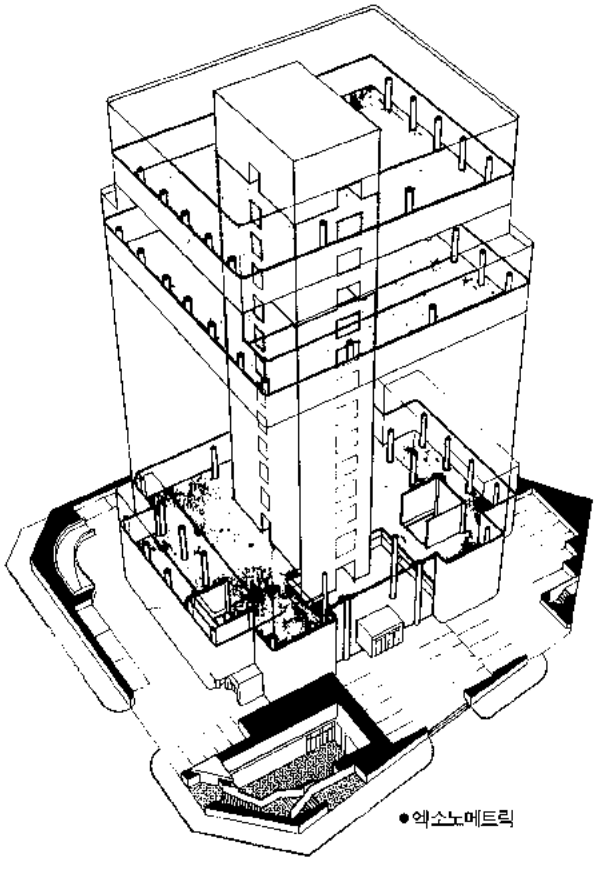
金正澈+金昶一/(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Royal Building
Designed by Kim, Jung-chul & Kim, Cha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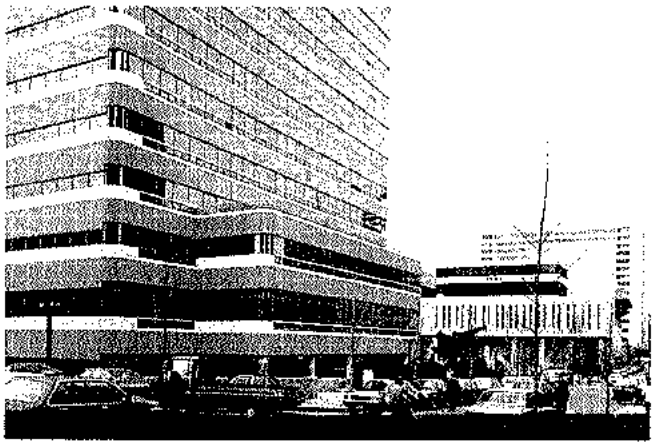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2 - 4
대지면적 : 4,189.6㎡
건축면적 : 1,861.13㎡
연면적 : 33,445.67㎡
규모 : 지하4층, 지상14층, 옥탑2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재 : PC위 자기질타일
후로로폰알미늄샷쉬+페어그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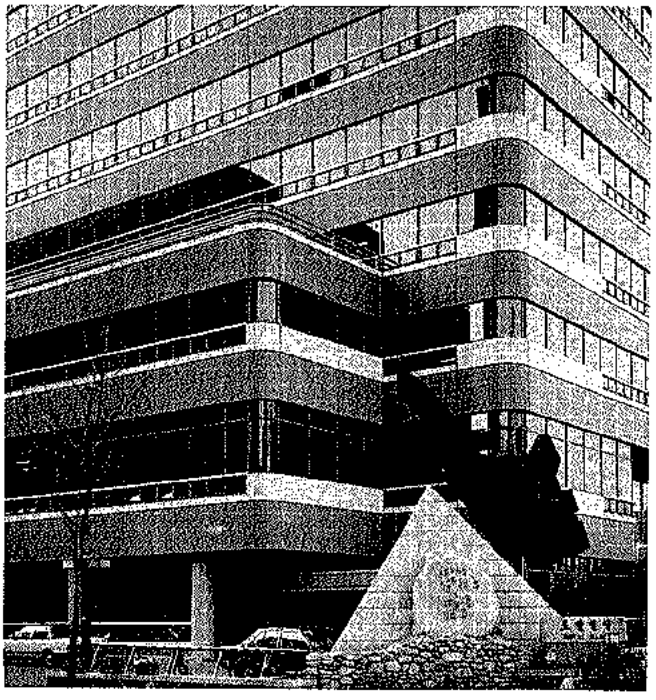
설계일자 : 1983. 2~1983. 9
준공일자 : 198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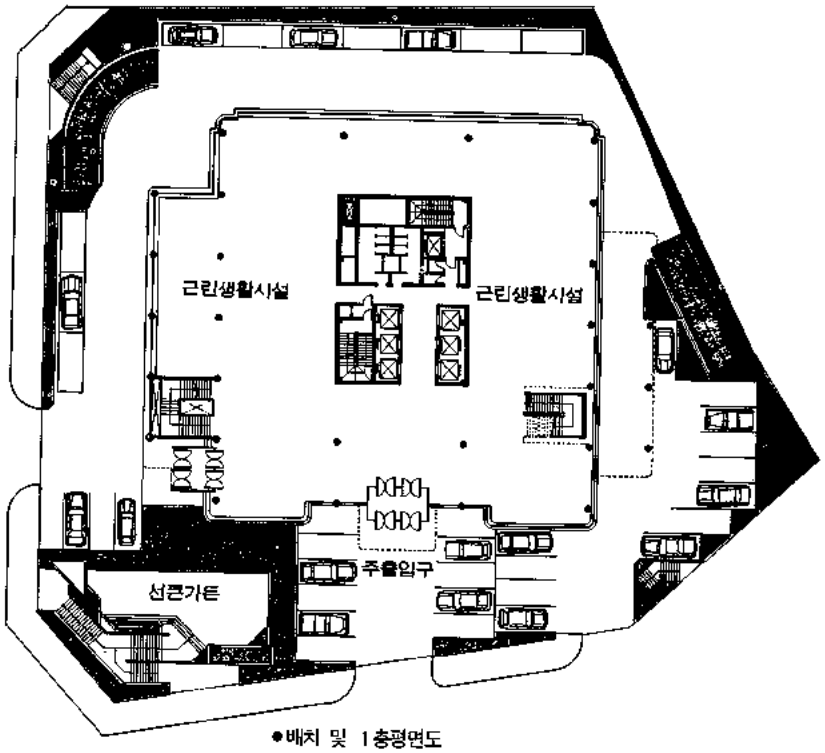
金正澈·金昶一/(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종로구 연건동187-1/762-96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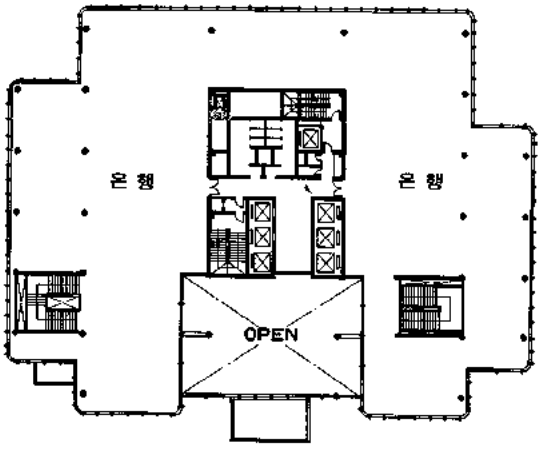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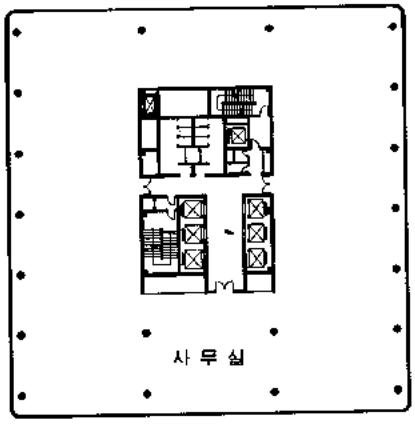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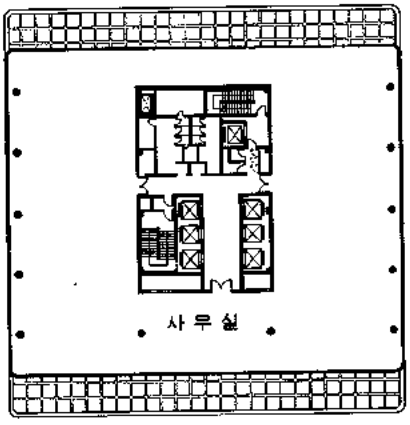

●배치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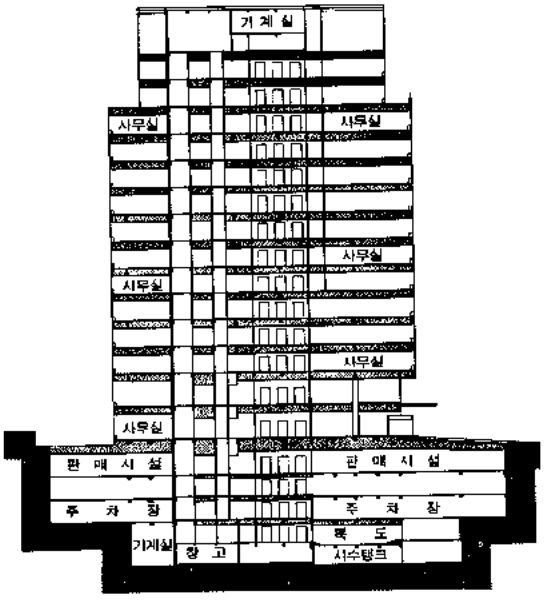

● 2층평면도




●기준층평면도




●13층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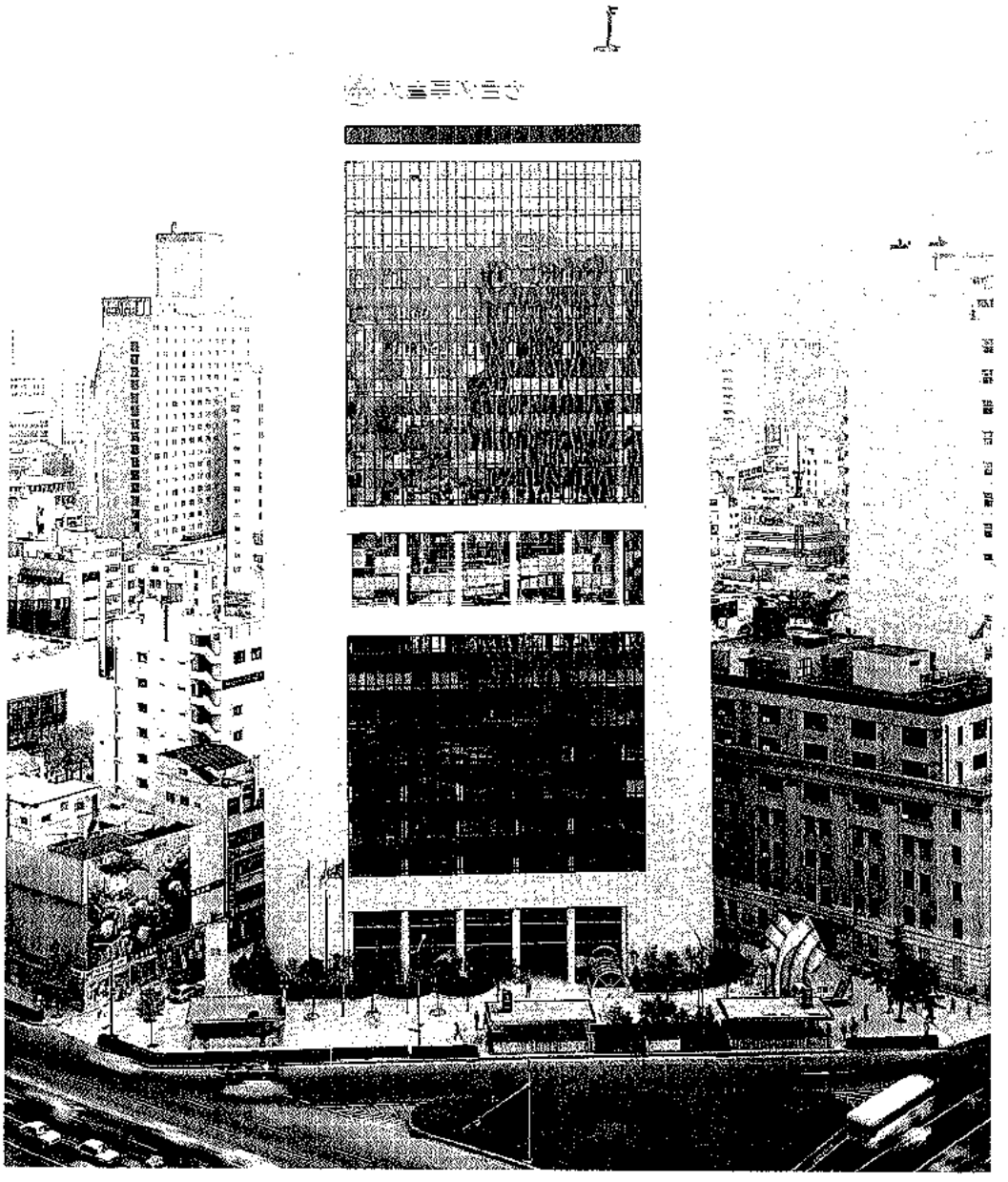
회원작품

# 서울투자금융사옥

李相守/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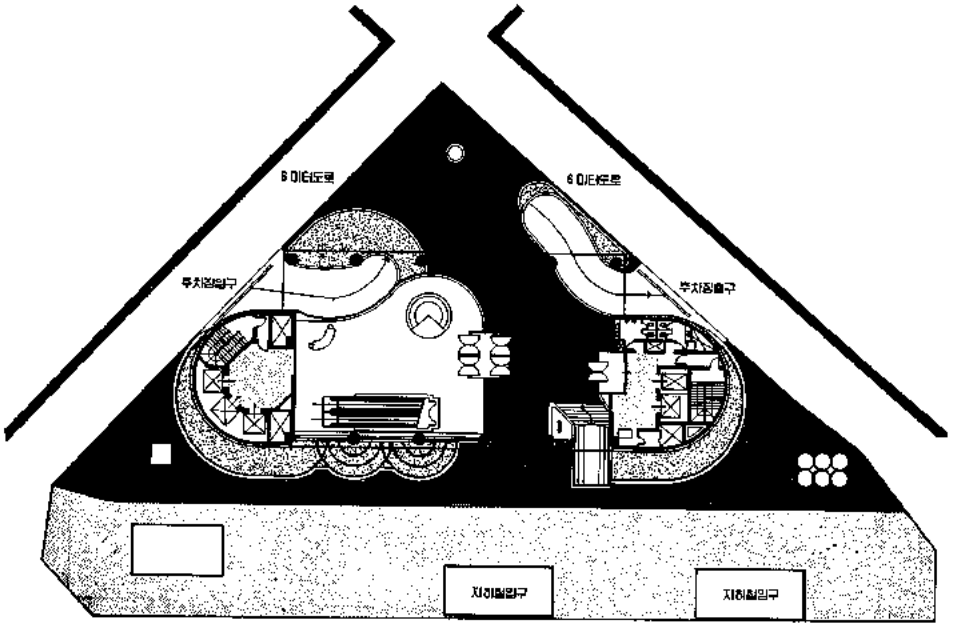
## ▮

Seoul Investment Finance Co, Building
Designed by Lee, Sang-Soo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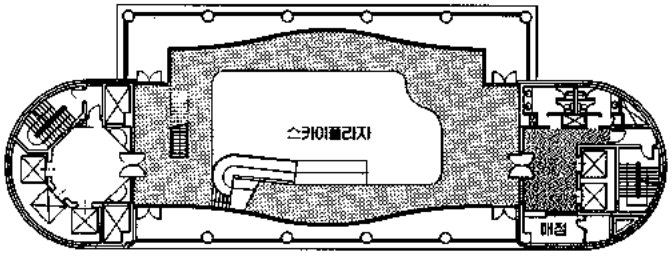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 · 중구 을지로 2 가198의5필지
지역 : 상업지역
지구 : 제1종미관+주차장정비+도시계획사업지구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사무실
층수 : 지하4층, 지상20층
대지면적 : 1,467㎡
건축면적 : 679㎡ (건폐율46%)
연면적 : 17,409㎡ (용적율 872%)
조경면적 : 231㎡
주차대수 : 92대(옥내)
내장재료 : 화강석버너마감+녹색복층유리
건축설계 : 김병율
구조설계 : 박영호
기계설비 : 심낙권
전기설비 : 권동안
조경설계 : 박승자
토목설계 : 박홍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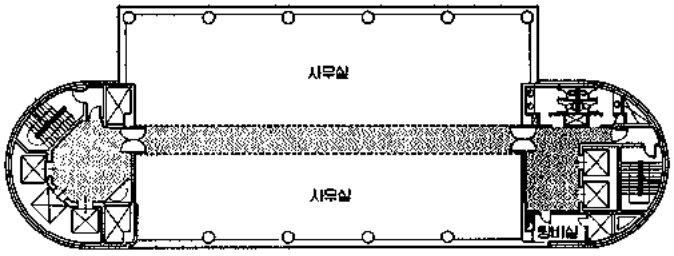

을지로입구비가리

● 배치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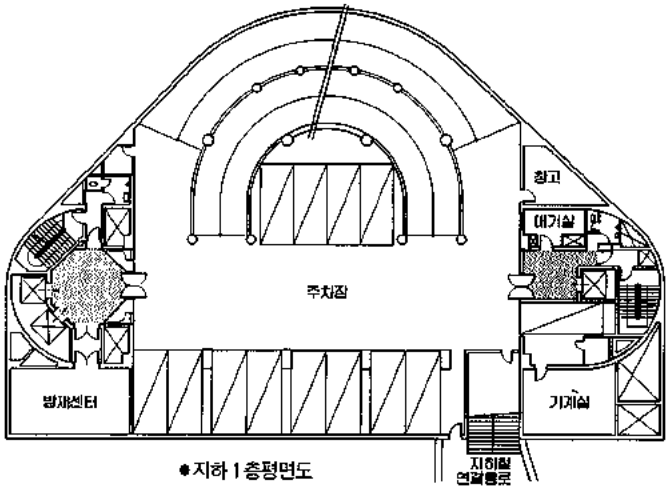
李相守/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4-11/783-5301




●10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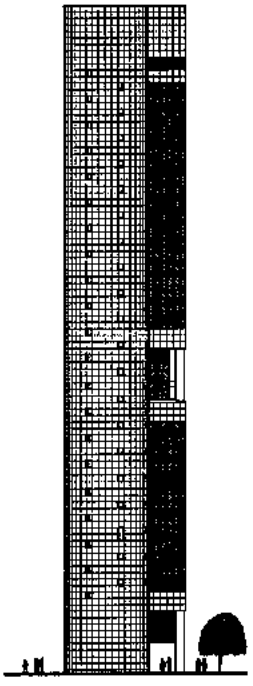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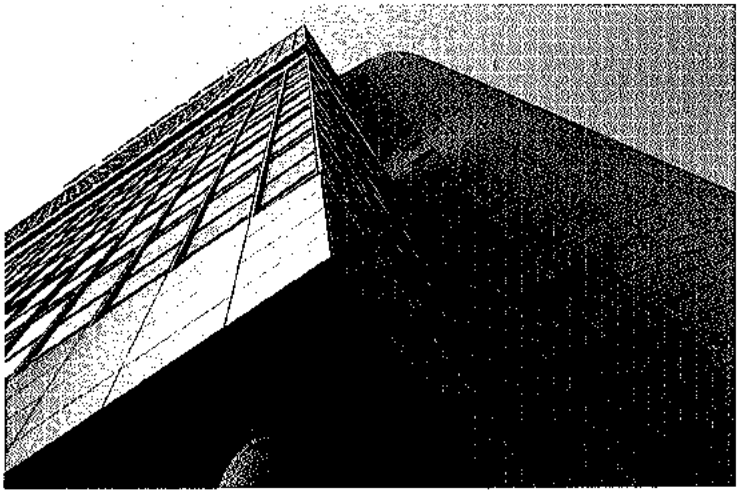

●지하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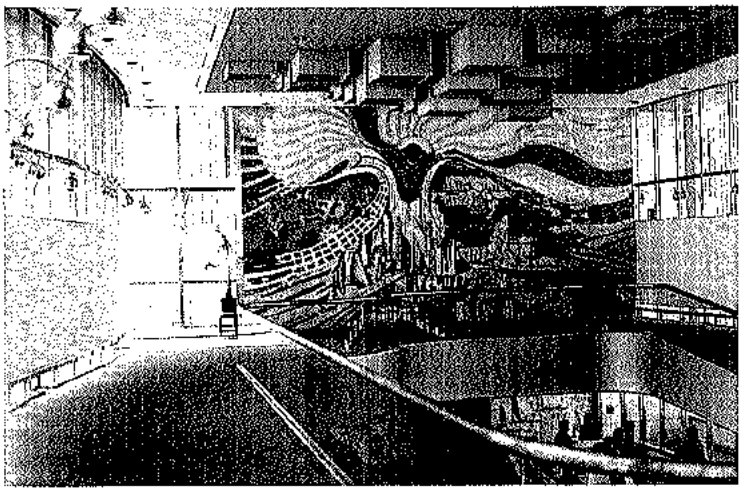
■ 설계개요

1. 코어를 이원화하고 1층을 공용통로로 개방
2. 지하층에서 지하철과의 통로연결
3. 협소한 대지의 최대한 활용
4. 도시설계기준에 의한 삼각형대지의 단점 극복
5. 곡면처리에 의한 가각의 유연한 흐름을 유도
6. 코어의 이원화에 따른 사무공간의 효율 극대화
7. 시민개방공간으로서 10층에 스카이 플라자 설치
8. 각종행사 · 전시회 · 공연장으로 스카이플라자 제공
9.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의장소 마련
10. 공용공간에 대한 예술적 조형요소의 적극적인 도입
11. 인테리어 · 조각 · 회화 · 그래픽 디자인과의 협동작업



●우측면도





회원작품

# 홍한건축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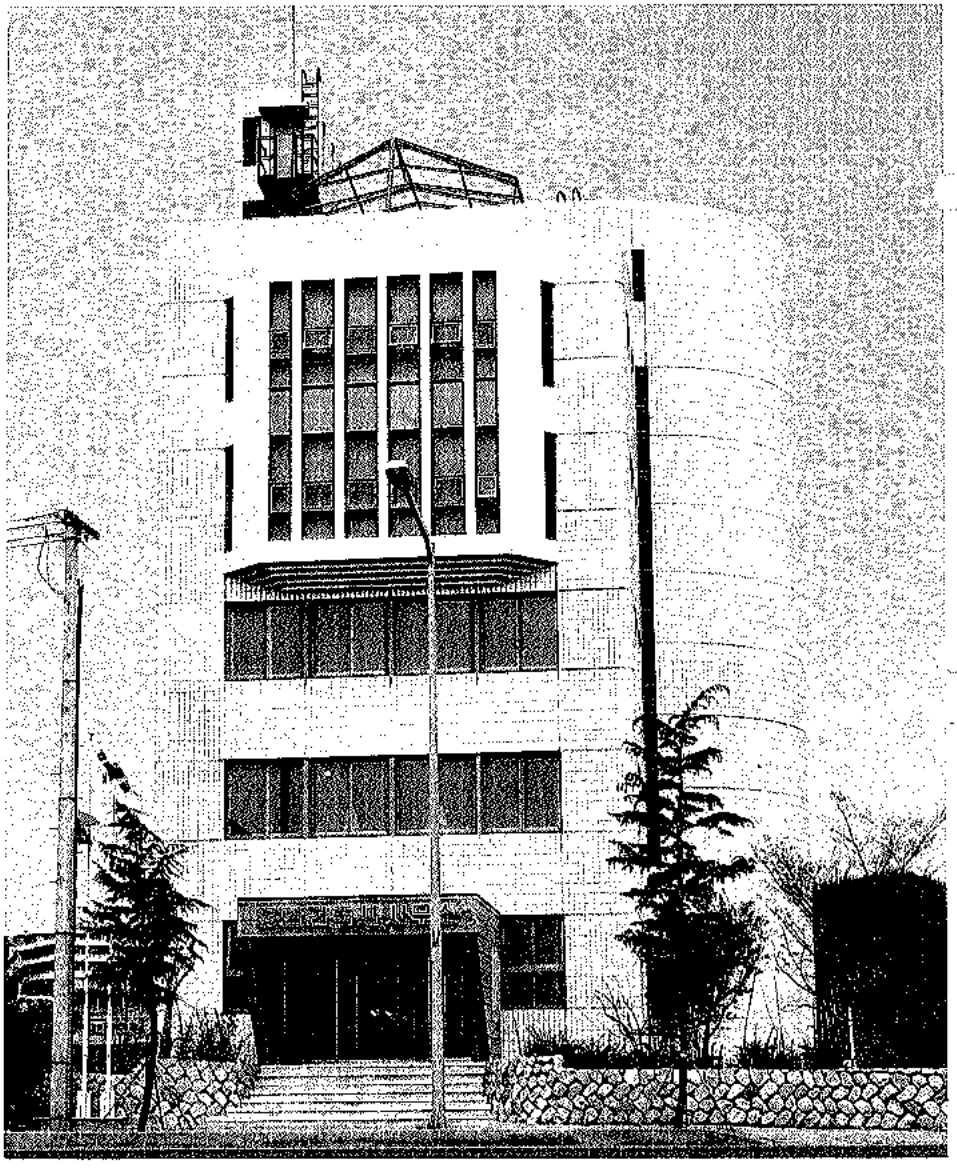
金泰雄/홍한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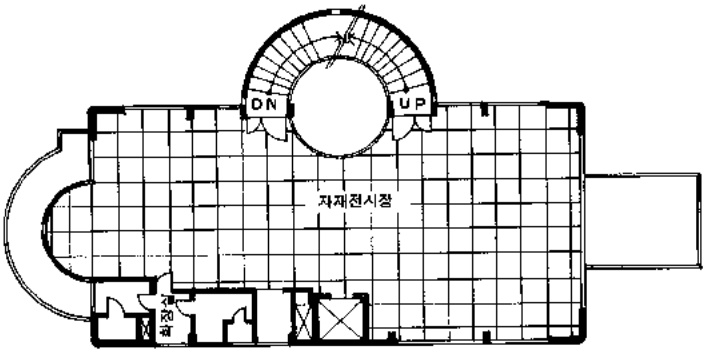
■

Heung Han Architecs and
Engineer's Building
Disigned by Kim, Tea-Y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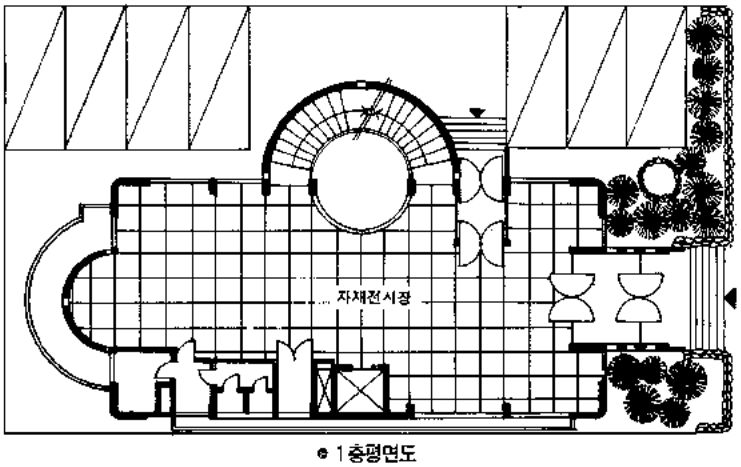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북 포항시 대잠동
대지면적 : 527.4㎡
건축면적 : 251.1㎡
연면적 : 1,433.48㎡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 주거지역
건폐율 : 47.61%
용적율 : 225.3%
주용도 : 설계사무실 및 자재전시장
건축설계 : 장재근, 이대호, 김호진, 강문열
전기설계 : 이석진
설비설계 : 김수주
외부 : 외장용타일 및 수성에폭시 마감
벽 : 석고보드위벽지마감
천정 : 암면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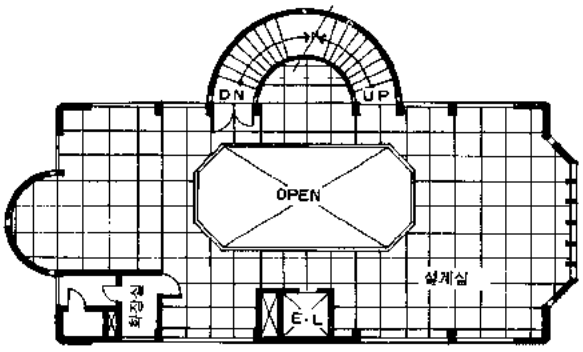



● 2 ·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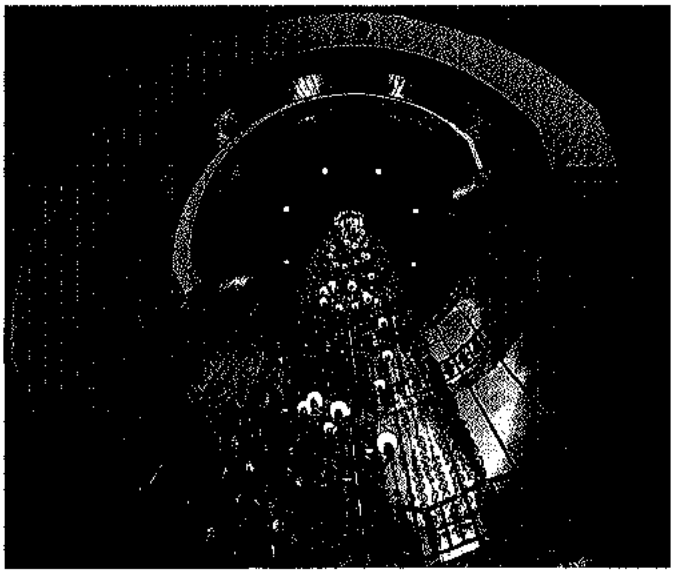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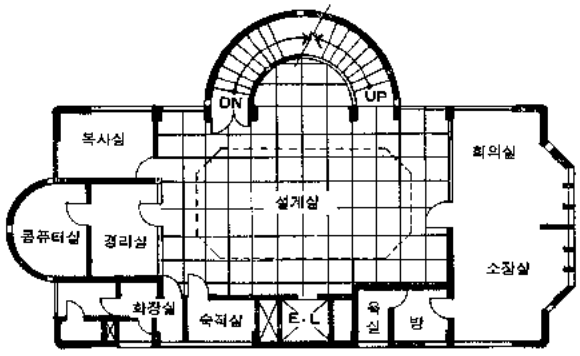

● 1층평면도

金泰雄/홍한건축사사무소/경북 포항시 대잠동
4브럭1로트/(0562) 73-4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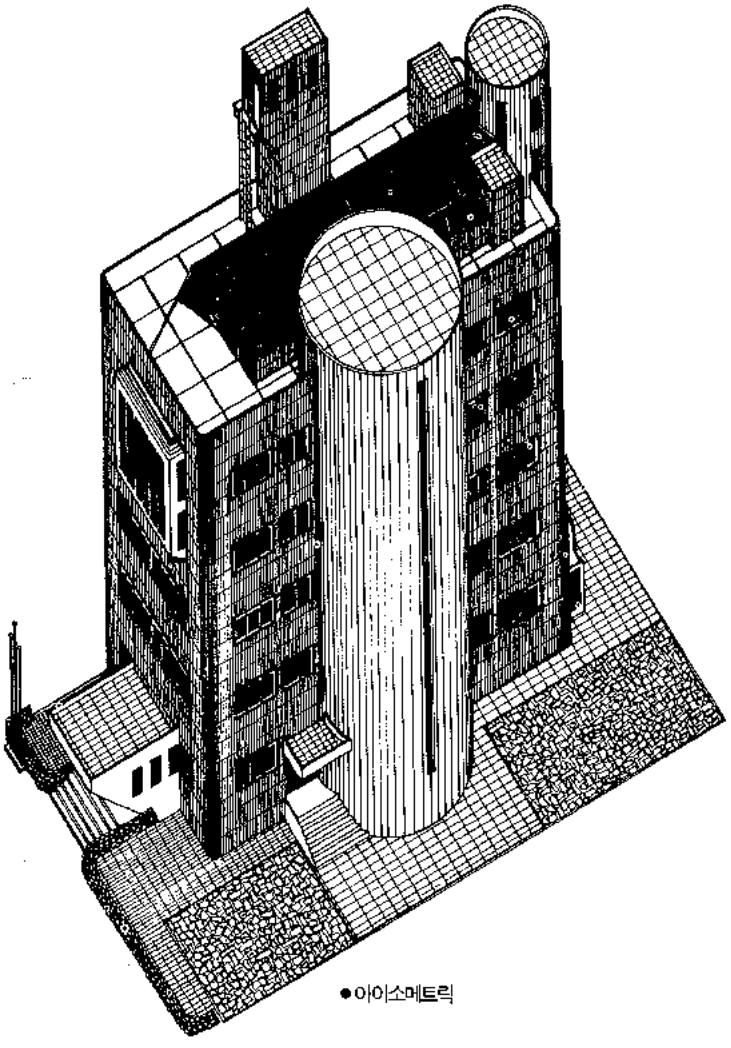



● 5층평면도






● 4층평면도



●아이소메트릭

■ 설계소묘

경주에서 포항시가지에 진입하는 30미터 간선도로변의 입구에 위치하고, 이 간선도로를 남쪽에 두고, 동쪽에 6미터도로를 낀, 남북이 긴 대지형태를 하고 있다.

후면에는 대잠못과 야산이 가까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포항 종합제철의 위용이 멀리 바라보이는 도시속의 시골같은 위치이다.

조용한 환경과 자연을 가까이 두고, 바쁜 마음을 쉬어가면서 설계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오래전부터 물색하고 있던 차에 이 대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3가지 기능을 수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지하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건축자재 전시장으로, 4,5층은 설계사무실, 6층은 세미나실로 계획하여 이 3기능이 합일 되도록 계획의 초점을 두었다.

각 기능마다 토인공간은 같은 기능의 장(場)으로써의 표현이며, 이 3기능은 모두 건축의 일환이며, 건축교육의 장(場)으로써 일체라는 개념에서, 동선이나 공간의 분리보다, 거쳐가면서 보고, 익히고, 참여하여 합일하는 동선과 공간의 융합을 기도해 보았다.

회원작품

# 한효개발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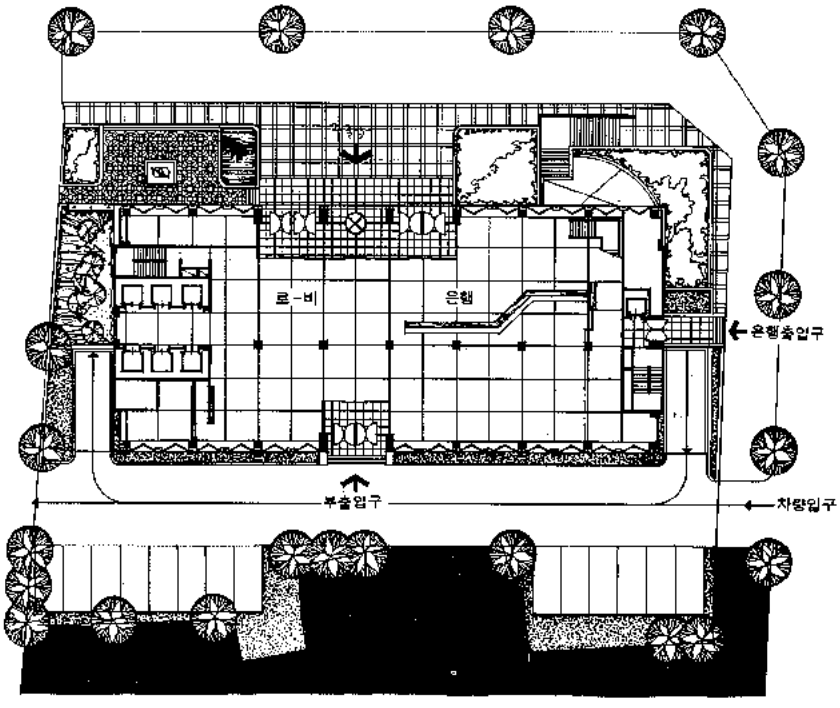
林承茂+金聖來+安俊洙/
(주) 예종합건축사사무소

■

Han-hyo Development Building
Designed by Lim, Seung-Moo
Kim, Sung-Rae An, J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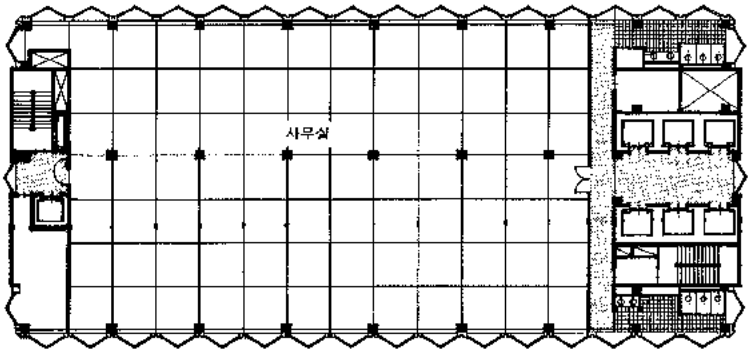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 종로구 서린동 재개발 제1지구
대지면적 : 2,690.7㎡
건축면적 : 1,093.69㎡
연면적 : 27,659.31㎡
규모 : 지하 5층, 지상18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데프론, 알미늄판마감
용도 : 사무실
주차대수 : 179대(옥내, 옥외)
지역지구 : 상업지역+1종미관지구
+방화지구+재개발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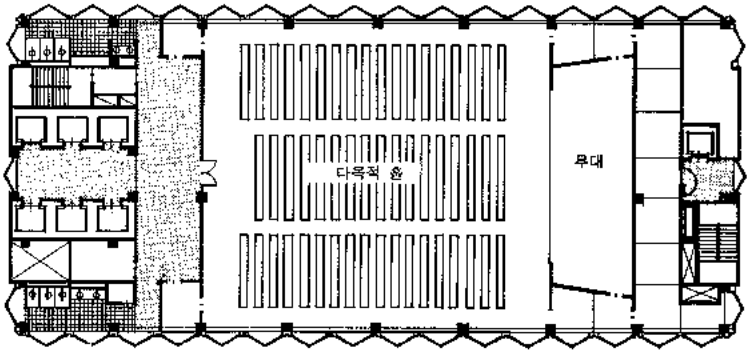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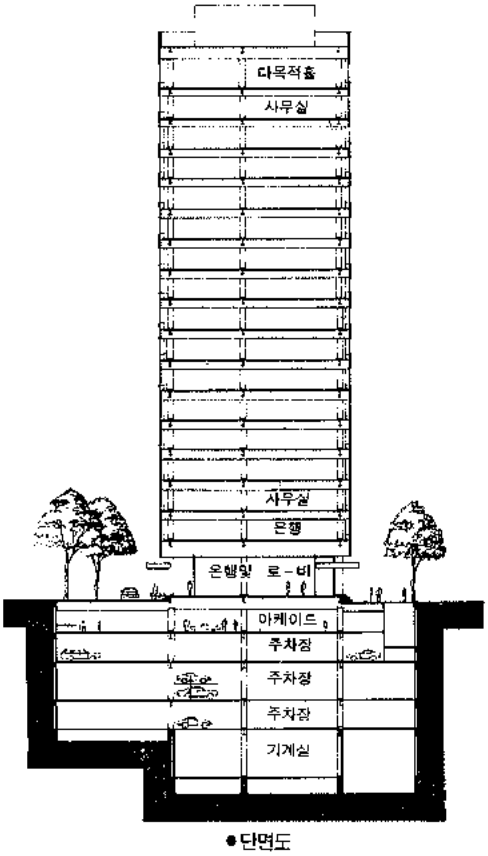
林承茂 · 金聖來 · 安俊洙 / (주)예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823/566-6007




●기준층평면도




●17층평면도




●단면도

회원작품

# 중외제약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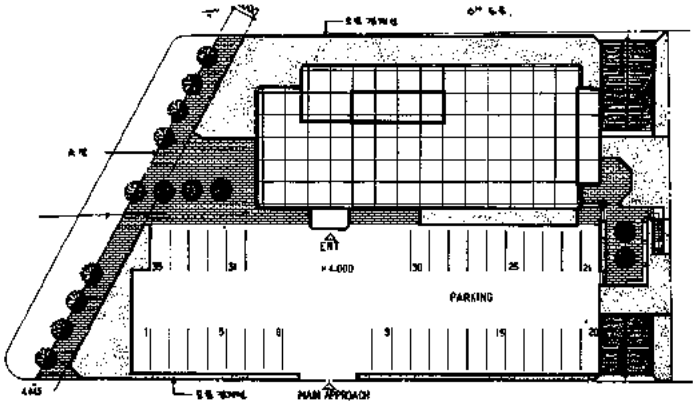
金宗根/종합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

■

Choong-we Phamacy Coporation
Designed by Kim, Chong-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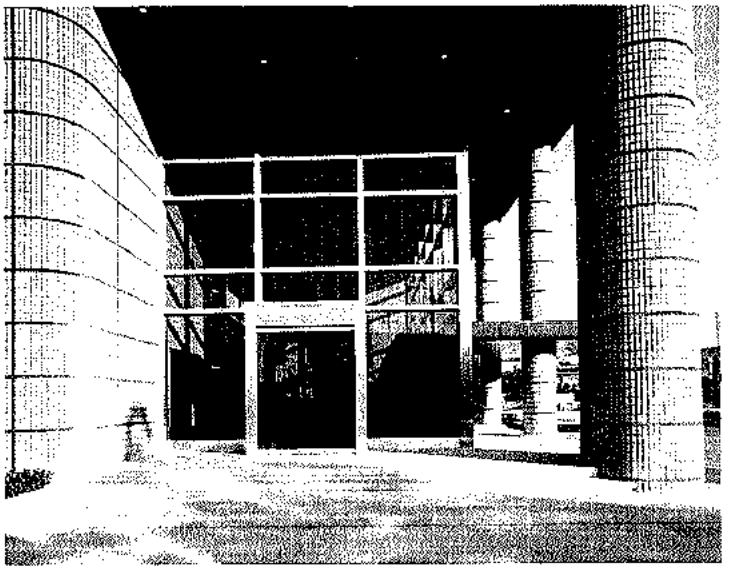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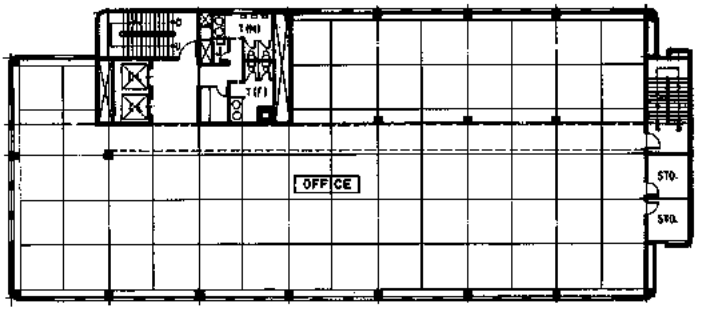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2종 미관지구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옥탑2층
대지면적 : 3,272.5㎡(991.66평)
건축면적 : 833.17㎡(252.47평)
건폐율 : 25.46%(법정50%)
용적율 : 263.54%(법정 300%)
연면적 : 8,632.55㎡(2,615.92평)
주차대수 : 55대(법정5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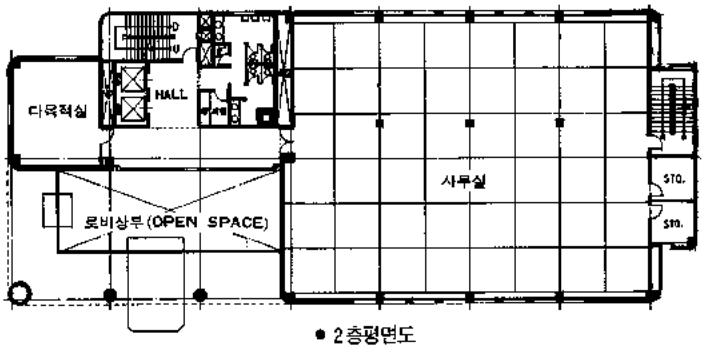

●배치도

金宗根/종합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서울·강남구
서초동1308-5/566-6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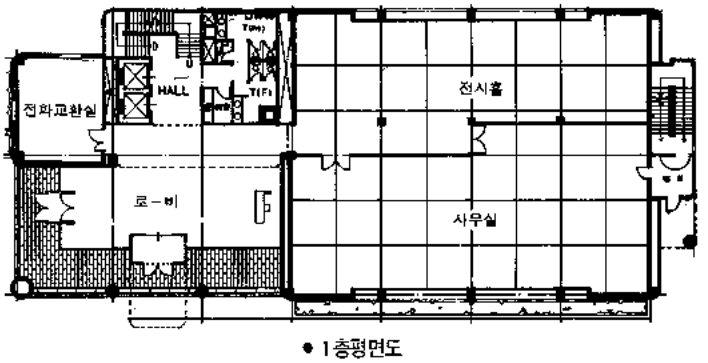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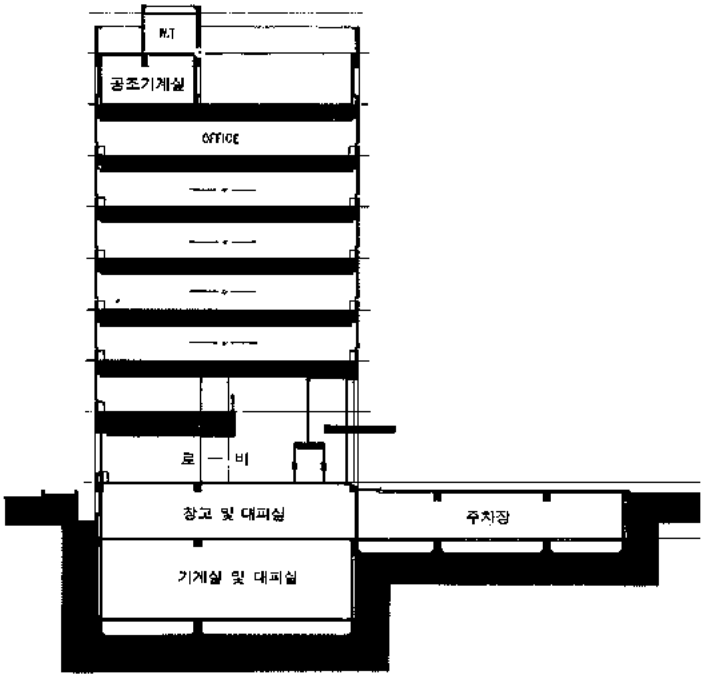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단면도

회원작품

# 반도패션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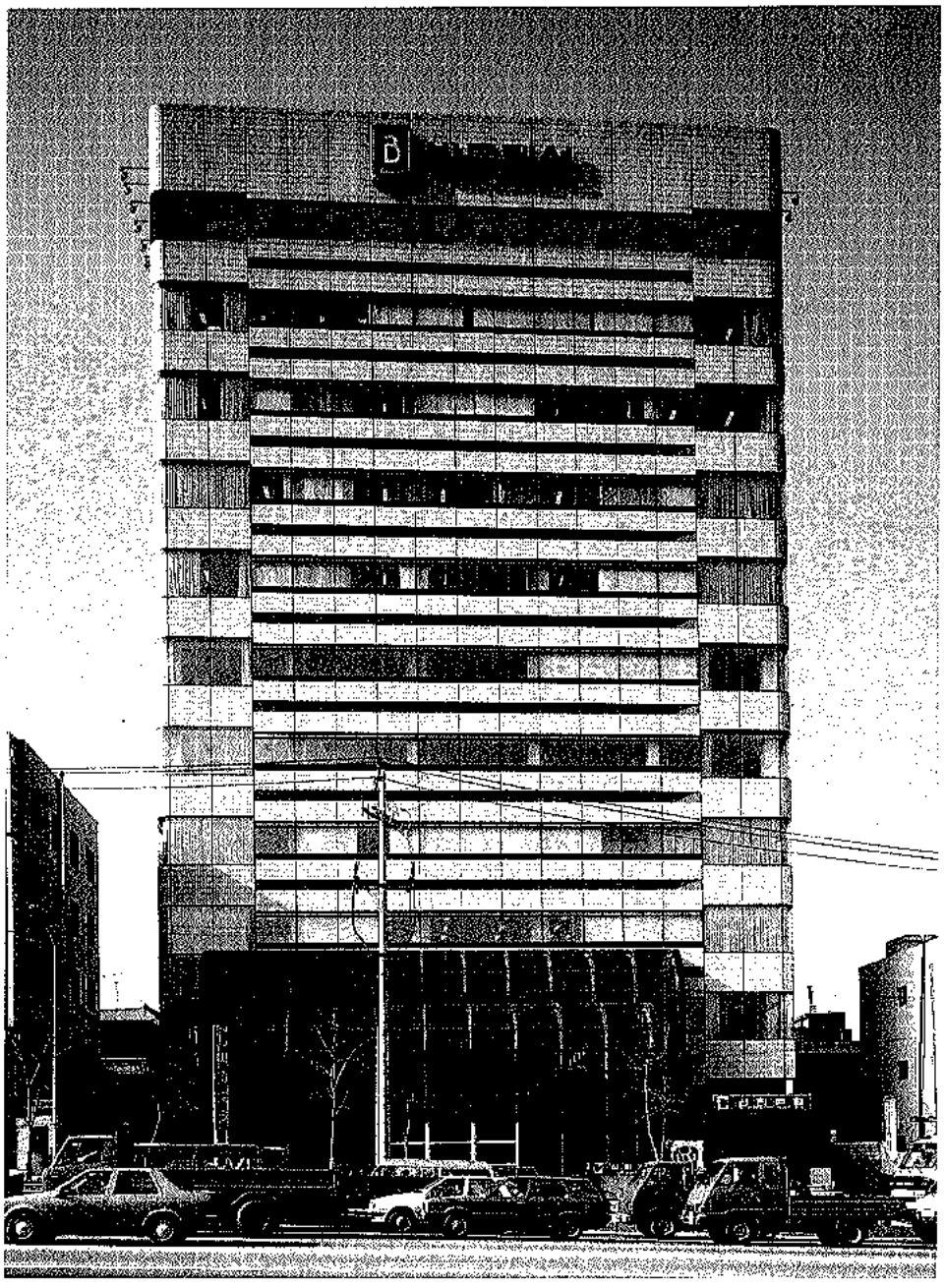
趙中衍+宋光燮/종합건축사사무소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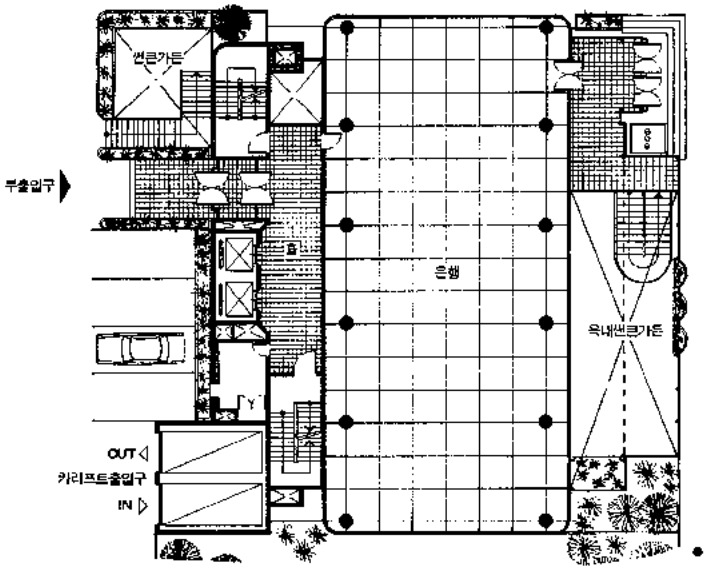
■

**Bando Fashion Building**
**Designed by Joh, Joong-Yon & Song, Kwang-Su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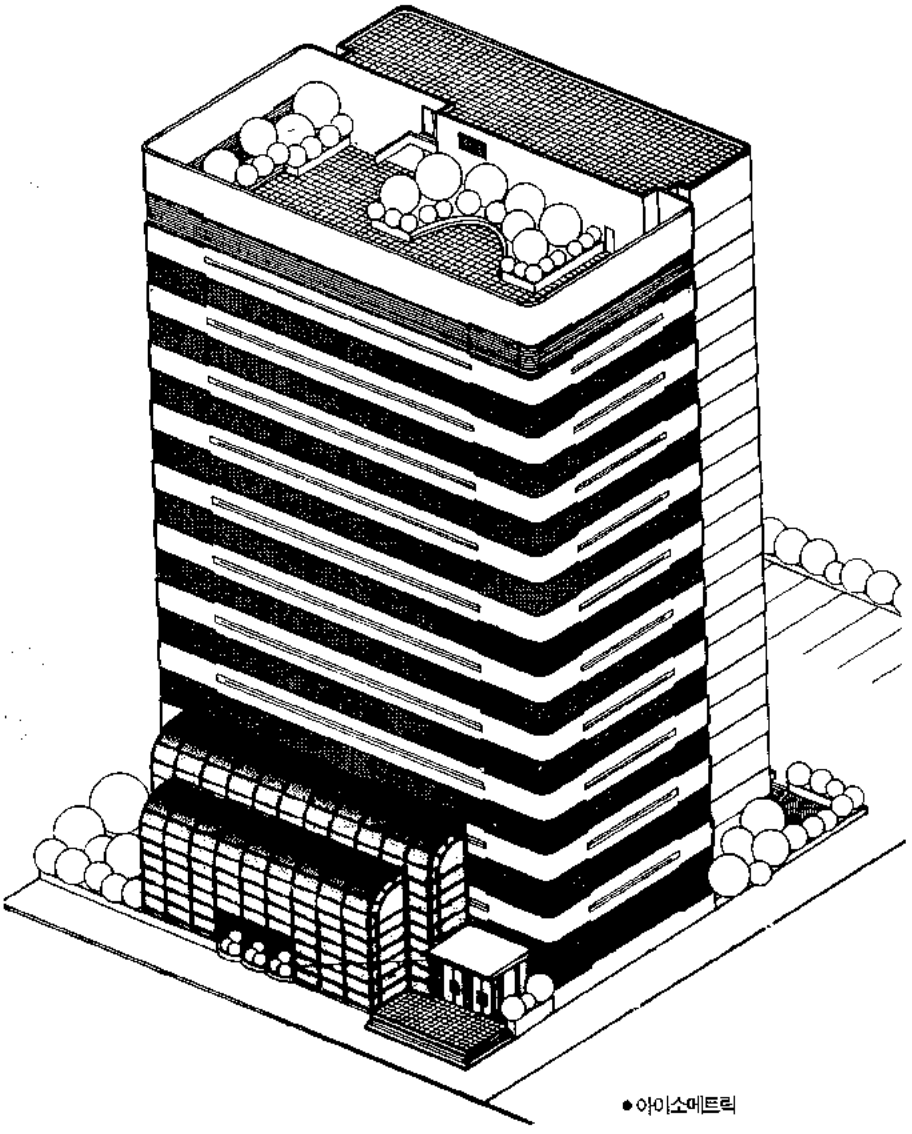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145
대지면적 : 1,725.6㎡
건축면적 : 679.11㎡
연면적 : 10,211.10㎡
규모 : 지하 4층, 지상10층, 옥탑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설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공조설비 및 자동제어설비
외부마감 : P.C판위 자기질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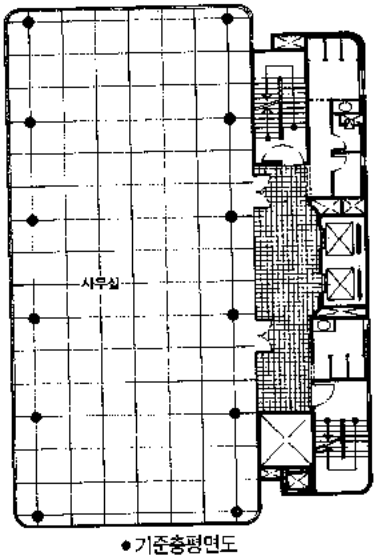



●배치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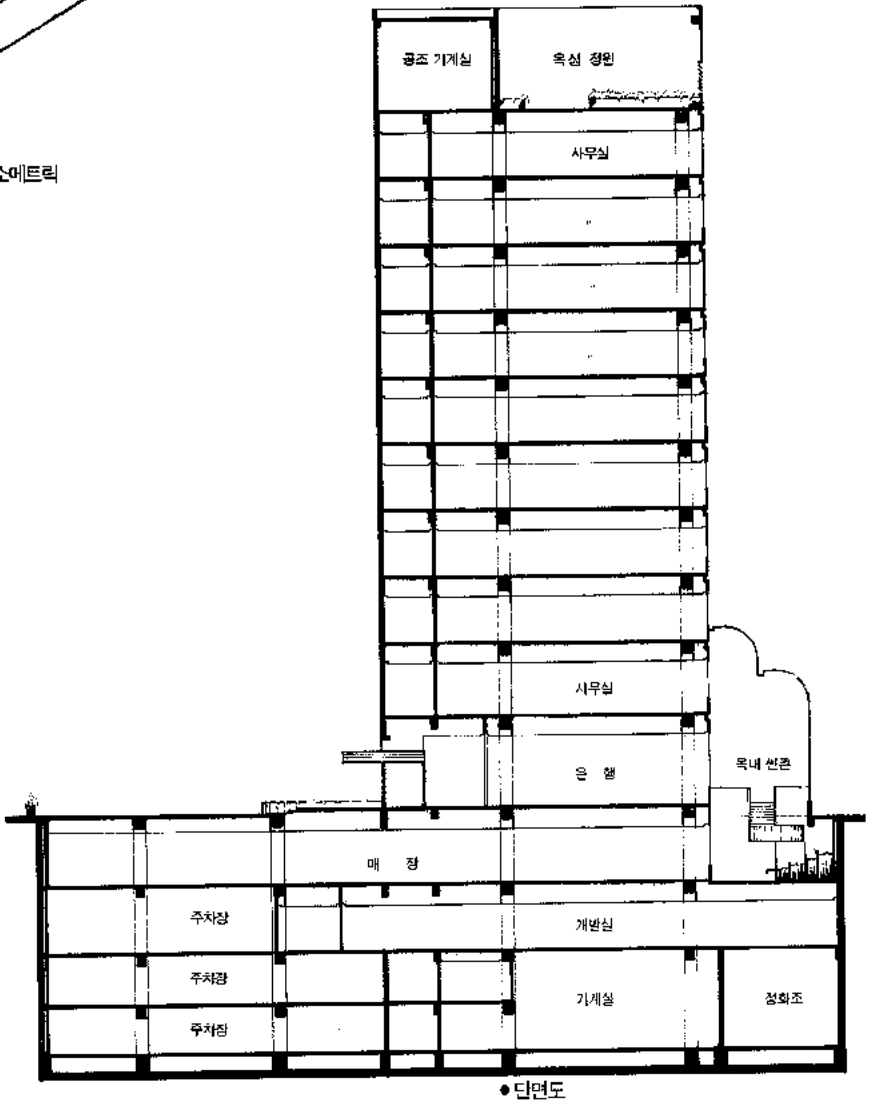
趙中衍+宋光燮/종합건축사사무소 환/서울·강남구 방배동924-19/583-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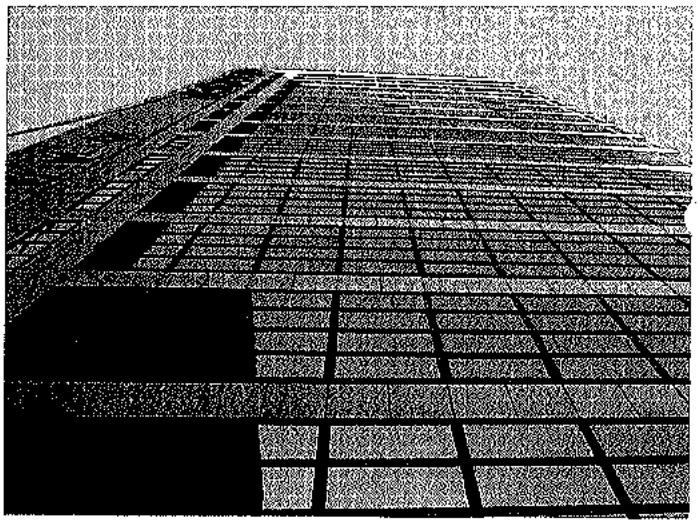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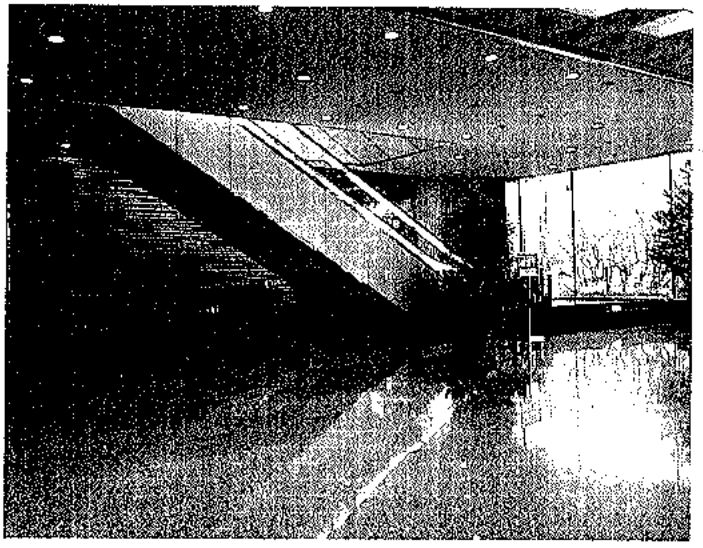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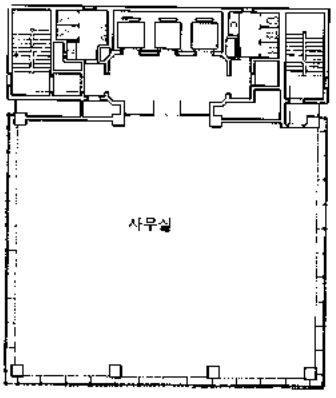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단면도








●기준층평면도

회원작품

# 한일투자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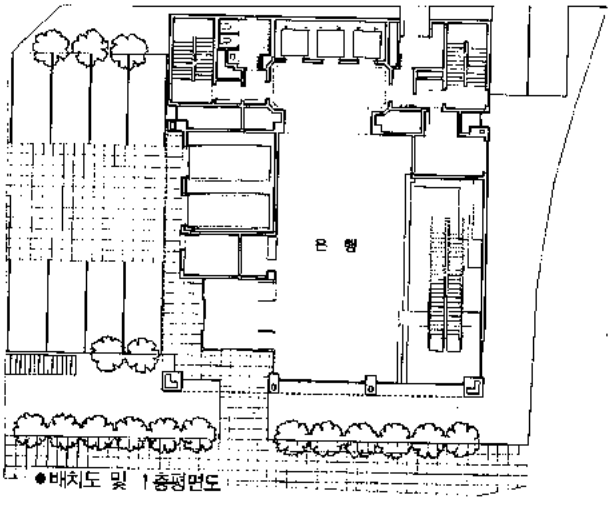
尹承重+卞 鎔/(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Hanil Investment & Finance Co. Building**
**Designed by Yun, Seung-Jung & Byun, Yong**

■

대지위치 : 서울 중구 다동111번지(다동19지구)
대지면적 : 1,138.6㎡
건축면적 : 509.08㎡
연면적 : 12,321.0㎡
용적율 : 667.69%
규모 : 지하5층, 지상15층
건폐율 : 44.71%
외부마감 : 상주석+A.L커튼월+24㎜페어반사 유리




●배치도 및 1층평면도

尹承重·卞 鎔/(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서울 용산구 한남동722-16 / 793-4977

사진 : 정정용

회원작품

# 미가람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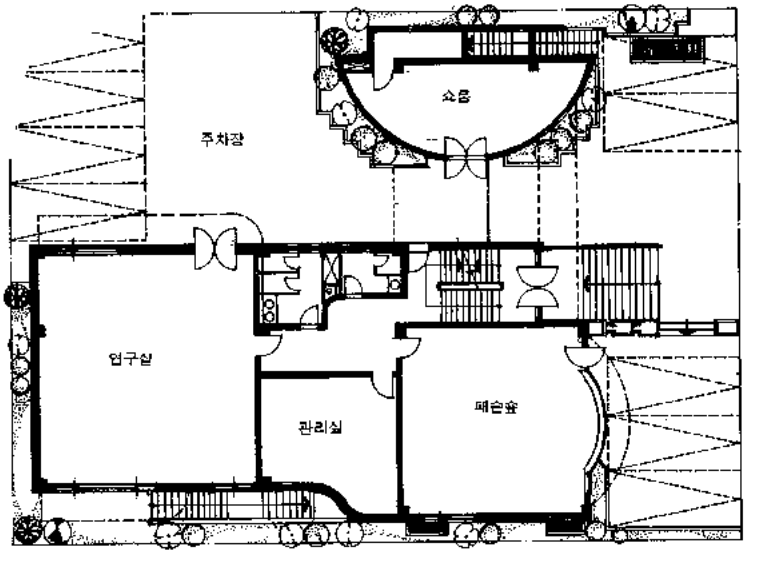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탑

■

MIGARAM Building
Designed by Choi, Young-J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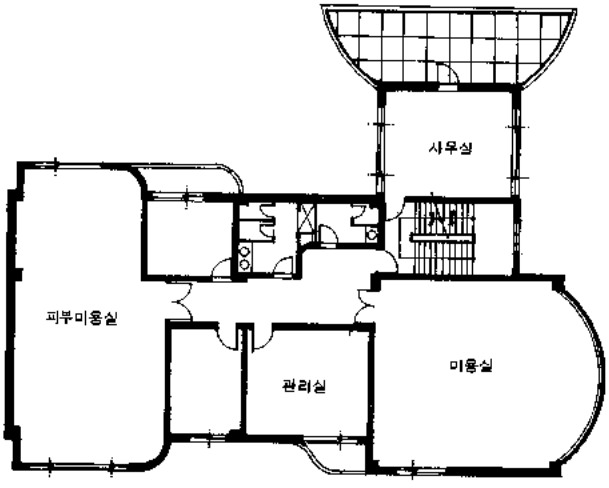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 강남구 역삼동668 - 24
대지면적 : 756㎡
건폐율 : 49. 25%
용적율 : 177.75%
건축면적 : 372㎡
연면적 : 1,918㎡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 13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장 : 적벽돌+토기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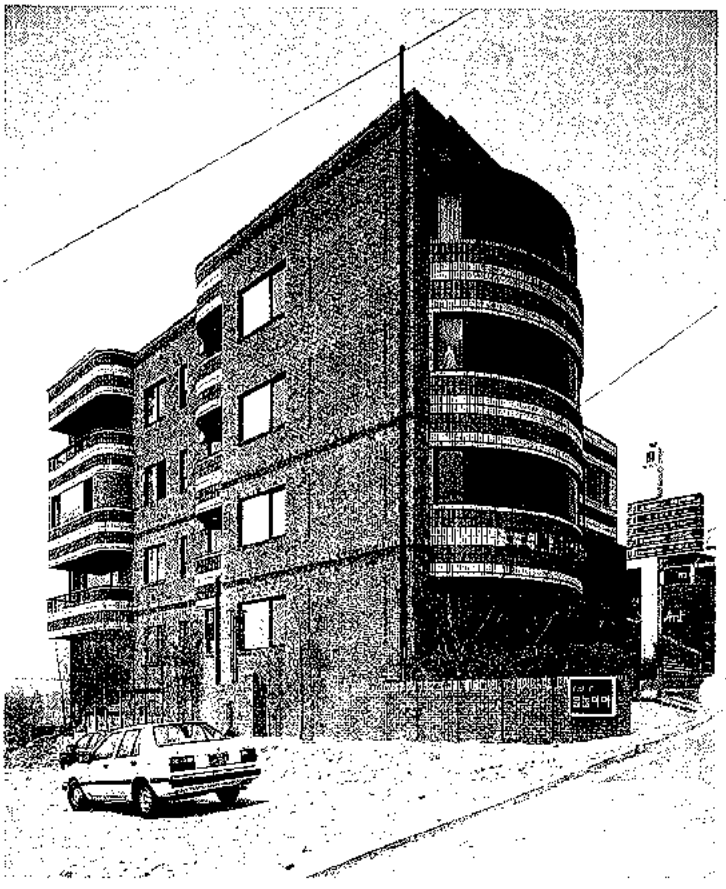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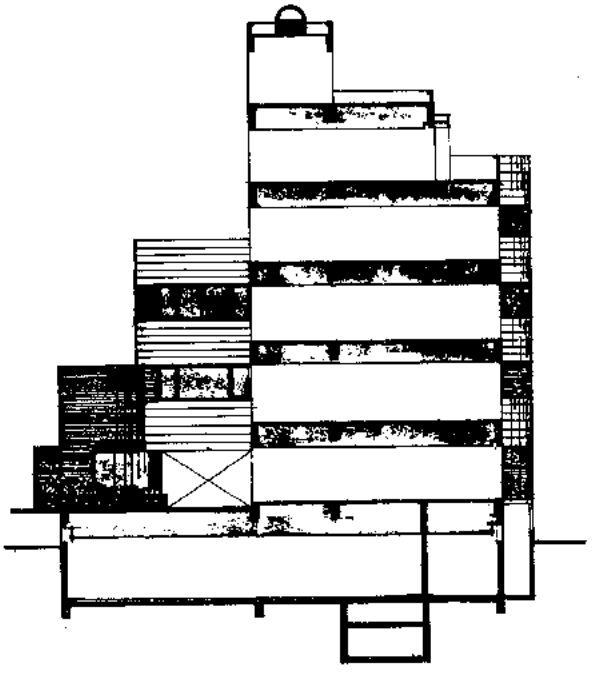

●배치및 1층평면도

崔英集 / 종합건축사사무소 탑/서울·강남구
청담동134 - 20/542 - 3721, 543 - 3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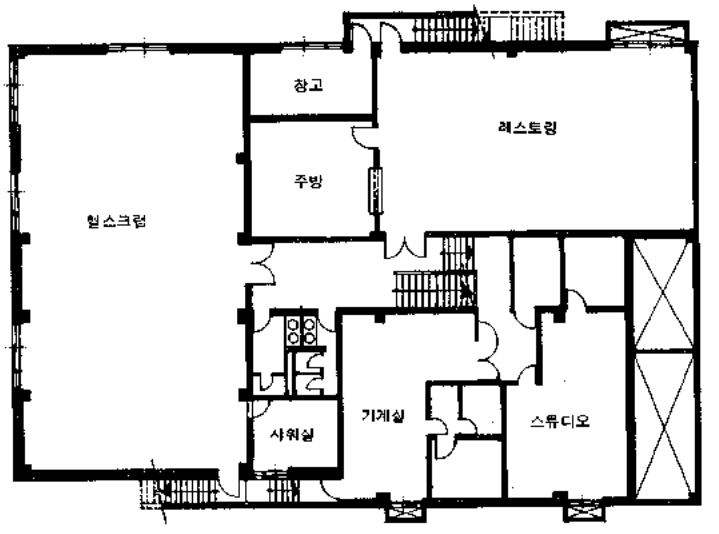



◆ 2 · 3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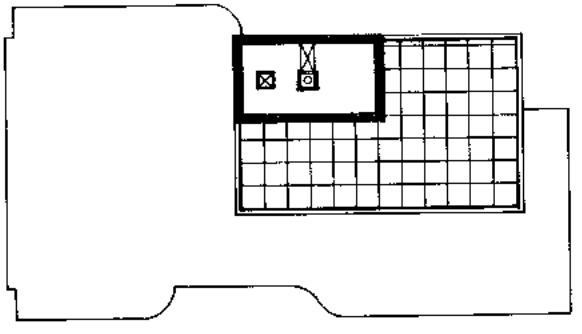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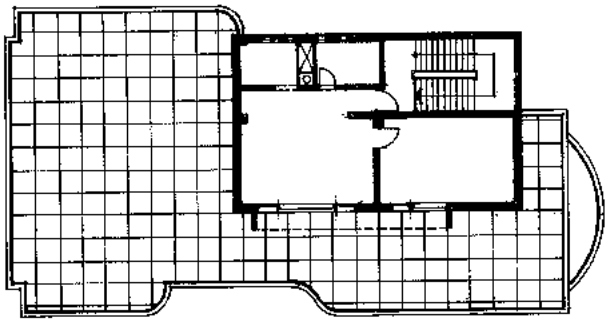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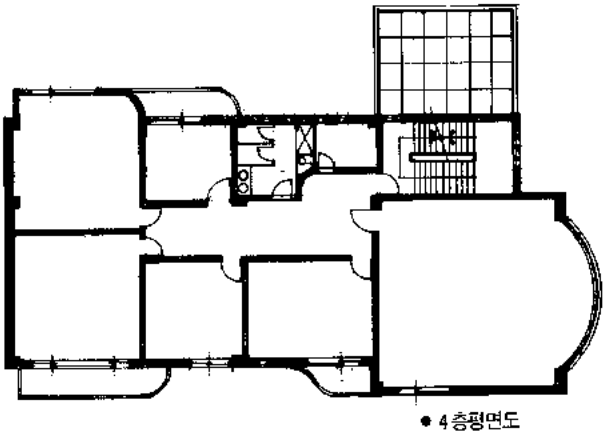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옥탑층평면도



● 5층평면도



● 4층평면도

## 작은 빌딩에 대한 애정

사람이 일생을 사는동안 자기집을 지어 본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하물며 그것이 서울 영동의 대로 부근이라 하고 또 작은 살림집이 아니라 여러가지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사옥일 경우 그 설레임과 뿌듯함은 더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랴.

피부미용 전문업체인 "미가람"이 한 200평 되는 대지를 마련하고 아담한 크기의 사옥 건설을 협의해 왔을 때 적지않은 특유의 부러움이 얼핏 마음을 스쳐간다. 그러한 부러움은 곧 내집 짓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계획에서부터 공사를 마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울인 건물이 되고 말았다.

연면적 500평 내외의 4~5층 건물들…이 얼마나 개성이 넘치며 생명력 있게 탄생시켜야 할 유기체들인가. 주요 가로가 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표정이 가로의 얼굴이며 그들의 생활이 바로 사람들의 생활이다. 보고, 먹고, 마시고, 배우고, 일하고, 놀고 모두가 그들로부터 나오니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배우듯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그들로 부터 구성을 배우고 형태를 감지하여 색감을 느낀다. 우리 생활의 거울이니까…. 이렇듯 사람들의 생활을 담으며 또 사람으로 인해 숨쉬며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무언의 대화를 전하는 그들을 우리는 어찌 대했던가. 기존 시가지까지야 얘기하지 않더라도 강남지역은 대부분 70년대 이후의 건물일텐데 얼마나 그 추한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80년대 들어와서 참으로 다행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의식이 팽배해져 건축주들의 안목도 높아지게 된 것이다. 군데 군데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 감각을 나타내는 건축작품들을 근래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짜로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리라.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미가람과 더불어 함께 했던 시간은 내 건축 수업을 다지는 좋은 기회였으며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끝까지 상쾌하게 매듭지었던 훌륭한 Project로 기억한다. 아쉬운 것은 계획을 좀더 되씹어 다듬지 못한 것과 원래 외도대로 외장재를 선정하지 못한 나의 불찰이다. 불러도 아쉬움은 남는 것….

(최영집)

# 建築이라는 藝術(Ⅳ)

■
Eaasy
Truth in Architecture
by An, Byung-Ui

**機能主義하면 「바우하우스」 그룹과 「르꼬르뷔지에」가 선두주자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이 없었더라도 기능주의는 어차피 탄생할 운명이었다. 그 까닭은 건축사조는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회의 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20세기란 바로 산업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科学萬能의 풍조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安秉義
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지금도 깊숙한 시골에 가면 옹기종기 모인 농가가 제멋대로 생겨난 듯한 꼬불꼬불한 좁다란 길을 따라 작은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돌과 흙을 빚은, 뜰이 들여다 보이는 얕은 담장 위로 열매를 맺은 감나무가 정다운 듯이 서 있는 그런 풍경을 말이다. 빈터가 있어 거기에 집을 지어 가정을 꾸미고, 또 다음 터에 딴 집을 짓고, 뜰을 꾸미고 담장을 쌓고, 그 남은 터가 좁다란 길이 되고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마을이 이루어 졌다. 즉 옛날의 시골은 애초에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자기집 식구에 맞추어 칸사리를 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뜰을 잡아 분수에 맞는 집을 꾸몄다. 이러한 마을을 찾으면 고향에 온 듯한 정다움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도시는, 예를 들면 서울은 삼각산 밑에 터전을 잡고, 성벽을 쌓아 「서울」의 한계를 정하고 명당자리에 왕궁을 자리잡고 가로망을 구성하고 區域에 따라 商街와 民家를 꾸몄다. 즉 서울은 애초에 계획된 마을이었다. 시골처럼 집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서울처럼 마을 자체의 테두리부터 결정하는 이 두가지 방법을 건축디자인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다.

前者는 말하자면 조각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덧붙여 가면서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경우이고, 後者는, 큰 덩어리의 대리석을 깎아서 버릴 것은 버리면서, 목적하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을 건축가의 예를 든다면 전자는 「알발·알토」이고, 후자는 「르 코르뷔지에」의 경우이겠다.

「알토」는 내부의 機能과 空間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組合하여 有機的인 건축으로 이끌어 간다. 내부에서 시작하므로 외부공간은 맨마지막 단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르코르뷔지에」는 주위 환경을 고려하면서 질서있는 外部造形을 구성해 놓고 그 내부에 機能을 집어 넣는다.

알기쉬운 예를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살펴 본다면 전자는 정부의 下部조직인 한계 단위부터 짜아나가 係가 모여서 課단위의 예산이 그것이 모여서 局, 部단위로 가산되고 전체의 部單位가 모여서 정부의 예산이 결정된다. 모든 계단위의 예산이 충실하므로 결국 정부 전체의 예산이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예산이 터무니 없이 커질 위험이 있다. 이와 반대로 후자는 정부 전체의 예산에서 각 部별로 쪼개고 다시 課단위로, 係단위로 할당되므로 조금은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못할 망정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건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알토」의 명예를 걸어 그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한 가정의 예를 들어 보자. 좋은 가정이란 부모, 아들, 딸 모두가 행복한 집안이다.

아버지는 온 집안의 권위로 존경받으며 가장이라는 자리를 떠난 그 자신의 행복이 보장되고 어머니는 집안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동시에 그 자신이 만족스러워야 하고, 아들 딸들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자매가 서로 위하고 이리하여 누구도 불평없이 온 집안이 행복해야 한다. 이런 집안은 발전할 수 있고 자랑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주택의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주택평면을 구성하는 것은 거실, 주방과 식당, 침실, 욕실 등이다. 좋은 주택이란 이러한 구성요소가 저마다 골고루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거실을 크게하는 나머지 화장실이 불편하여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안된다. 욕실은 욕실대로 알맞은 크기와 편리한 기능을 가지며, 주방은 또 주방대로, 거실은 거실대로 각자의 침실은 각자의 취미와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개개의 방이 모여서 한 주택으로 구성될 때 그것은 좋은 평면을 가질 것이다. 물론 대지의 넓이나 방향, 전체적인 모양, 예산 등 참작해야 할 요소는 많다. 다만, 평면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는 철학은 각단위의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좋은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즉, 국민 각자가 행복한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알발·알토」의 건축디자인의 방법은 매우 민주주의적이다.
「알발·알토」의 평면이나 조형을 보면 기능주의의 해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다. 우선 그는 軸, 특히 直交軸을 싫어하여 쓰지 않는다. 軸이 필요할 때도 変位를 시켜가면서 사용하고 벽면이 같은 線上에 일치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이상한 凸凹들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지어진 건물을 보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고 친근감이 간다. 「알토」는 평면의 「그릿트 시스템」이나 「모듈」 표준화 등은 건축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꼬는 듯하다.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의 라멘구조이지만 内部空間의 분위기에 따라 벽체구조도 같이 쓰고 기둥의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제멋대로 바꾼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분위기이지 「그릿트 시스템」의 라멘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機能主義의 거센물결로 인하여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스」 스타일의 영향도 더러 있으나 「라이트」나 「알발·알토」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다. 특히 「알발·알토」는 책도 별로 쓰지 않아 전혀 우리들에게 영향을 못미쳤고 아마 그의 이름을 모르는 건축가도 있을 것 같은 흥미를 끌지 않은 건축가이다. 그러나 「알토」의 건축디지인을 내부공간에서 부터 어프로우치해 나가는 哲學이라던가, 「그릿트」나 딱딱한 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평면구성의 방법 등은 우리가 좀 더 익히고 배워야할 건축가가 아닐까. 특히 어떤 轉換期에 놓여

르 꼬르뷔지에

있는 듯이 보이는 현시점에서 말이다.
매달 서너권씩 발행되는 건축의 월간지를 보면 그동안 지배해 왔던 機能主義의 단조롭고 딱딱한 건축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약 10년 전에 발간되어 우리나라에는 故 尹 珪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된 「피터·브레이크」의 「근대건축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은 매우 도움이 된다.
이 기회에 우리들이 기능주의 건축의 어떤 害毒에 물들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機能主義하면 「바우하우스」 그룹과 「르코르뷔지에」가 선두주자처럼 되어 있으나 그들이 없었더라도 기능주의는 어차피 탄생할 운명이었다. 그 까닭은 건축의 사조는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회의 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20세기란 바로 산업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어 科學萬能의 풍조가 팽배해 지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르코르뷔지에」는 마치 혁명가처럼 나팔을 불고 기능주의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다. 특히 「주택은 살기 위한 機器이다」라는 「케치프레이즈」는 새로운 창조를 찾는 건축가들에게 만능의 무기처럼 보였다. 언제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때는 그 사상이 지니고 있는 함정을 꿰뚫어보는 조심성을 가져야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성급하여 미처 소화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였다하여, 기능주의가 갖는 함정에 빠져 버렸다. 調一性, 단조로움, 인간성의 상실, 따위이다.
그러나 정작 우두머리격인 「르코르뷔지에」는 그 함정을 꿰뚫어본 듯 그의 작품은 결코 단조롭지도 않으며, 더러 비인간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강한 조형미로 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독창적인 멋을 풍긴다.

기능주의가 믿는 신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만 만족시키면 되고, 경제적이고, 그러면 건축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탄생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알토」 같으면 방 안의 가구배치와 사람의 動線부터 생각하여 한 방의 크기를 정하고 이러한 각 방들의 연관관계를 생각하면서 평면을 구성해 나갈 터인데 기능주의자들은 垈地의 크기와 주어진 면적을 가늠하면서 전체의 볼륨을 정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즉, 경제적인 「스판」을 마치 그래프용지처럼 기둥을 박고 나머지는 기둥에 따라 기능을 쑤셔 넣는다.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해온 방식이다.

또는 애초에 꾸미고 정하는 건물의 에레베이션이 머리에 박혀 있어 이러한 모양이 되도록 평면을 몰고 간다.

나 또한 눈이 뜰때까지 오랜동안 이렇게 해 왔다. 지금 생각해도 낯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다.

대학을 나온 지 3～4년이 되었을 즈음 나는 金重業 선생 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워낙 바쁜 분이라 내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도 미처 계획을 못잡아 날보고 스킴을 잡으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모던하지 않고 평범하게 잡으라 하신다. 나는 졸업작품으로 학교를 다루어 자신이 있었지만 그저 흔히 하는대로 교실과 복도를 연결시킨 기능주의적인 평면(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지만)을 꾸몄다. 다음날 학장인 독일계 신부가 하시는 말이 「이것은 학생들의 공장이 아닌가」 사죄 百拜하고 다시 金先生께서 잡으신 건물이 지금도 서 있다. 바로 서강대학 본관이다.

낯이 뜨거워졌던 그때부터 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학생들의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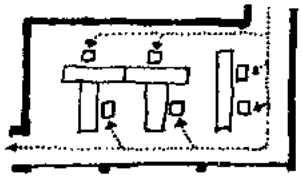
「루이 · 칸」의 空間論에 의하면 건축은 주인이 되는 공간과 이를 위해 봉사하는 말하자면 하인 역할을 담당하는 從空間이 있어 이들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종공간이라는 것은 주공간에 희생되는 뜻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그 주어진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건축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교실이 주가 되며 복도는 종의 자리에 선다.

복도는 어떠한 기능을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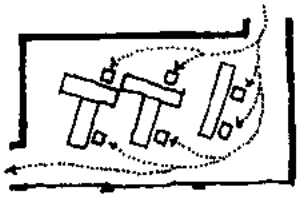
첫째는, 교실에 이르는 통로이지만 더 나아가서 교수와 학생 또는 학생들 끼리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면서 지나는 사람들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는 「알코브」 같은 것이 있으면 더욱 좋다.

미술학교의 경우는 복도는 그림이나 조각을 위한 간단한 전시스페이스도 겸해야 하고 따라서 복도폭도 넓어야 하며 생물학이나 이와 비슷한 학과의 복도 또한 진열장 스페이스를 겸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선으로 된 복도의 최장길이는 어느 정도일까. 아무리 길어도 30미터 이내일 것 같다. 이 이상되면 짜증스러운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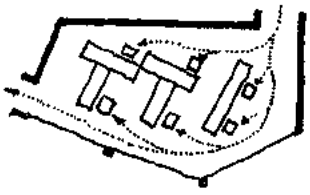
공간으로 도저히 인간을 위한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없다. 호텔의 객실층 복도는 좁고 길다란 공간의 단조로움을 피할려고 객실 입구에 알코브를 만들거나 천정 높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복도의 조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학교건축도 이를 본받으면 좋으련만.

기능주의의 해독을 가장 심하게 입은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흔히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콘크리트의 닭장이지 그게 어디 사람이 살 공간인가. 아파트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투자하는 자본주는 주어진 땅에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될수록 많은 단주세대를 입주시키려고 한다. 그래야 돈이 많이 벌린다. 설계자는 될수록 많은 세대를 집어넣는 작업부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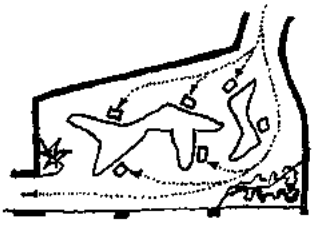
법정거리를 떼고, 높이 제한을 계산하고, 이렇게 국민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산수계산을 한 결과 두부 모양의 단위블럭의 칫수가 나오고 이것을 몇등분인가 하면 단위세대의 크기가 나오며 나머지는 여기에 기둥을 박고 거실과 침실,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쓸모없는 Size의 다용도실도 쑤셔 넣는다.

그 결과 피해를 입는 것은 입주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값으로도 자기 아파트보다 좋은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까닭이 없으니 이러한 행패는 여러해동안 계속돼 왔다. 덕을 보는 것은 물론 투자한 자본주이다. 설계자는 산수와 제도를 하고(창조적 설계가 아니라) 약간의 돈을 걸머쥔다. 자본주를 도와준 양심을 팔아버린 값치고는 너무나 싼 값이다. 그러나 설계자가 한 일에 비하면 그것도 많은 값이기도 하다.

왜 세대단위를 구성하는 각 방의 가구와 주방, 욕실 등의 시설배치에서 디자인을 시작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한 세대단위의 만족스러운 평면을 구상하고 이것을 이상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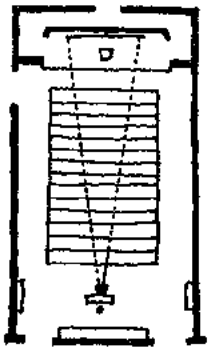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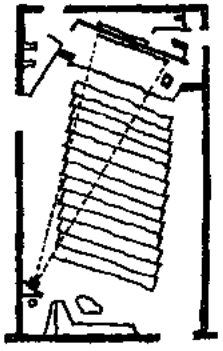


〈그림 4〉

한공간의 가구배치의 예



〈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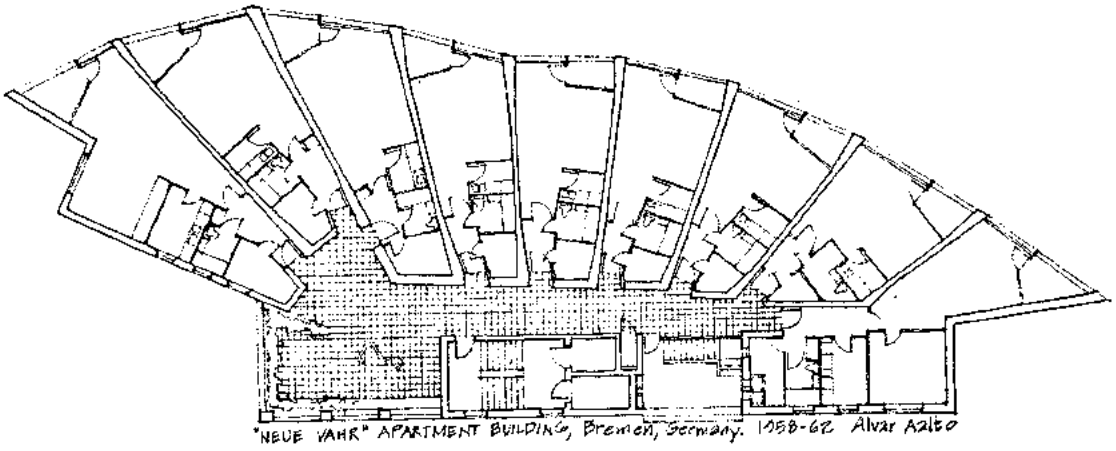
장방형 강당의 기능

수의 블록으로 조합하고 전아파트 단지로 전개시켜 나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다소 전세대수가 줄게 될지도 모르며 공사비 또한 늘어나겠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아파트단지가 탄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이를 위해 설계자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보람은 있을 것이다.
도시 건축가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 그들이 기쁨으로 지낼 수 있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市民會館, 美術館, 오피스빌딩 등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인간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다.

잘못된 기능주의가 가져온 함정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技術萬能의 思潮에 빠져 인간성을 저버린 데 있다. 그릿트시스템의 亡靈이 건축의 구조계획에 있어서 라멘조를 神主처럼 모셨다. 그리하여 우선 경제적 스판을 정하고 기둥이 박힌 그라프용지를 만들어버리고 이에 복종했다. 건축에 있어서의 구조계획이란 즉, 작가가 구상한 공간을 재료역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멘조에서 기둥의 크기나 모양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건축가이지 구조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구조전문가는 건축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할 따름이다. 기능주의의 왕초격인 「르코르뷔지에」도 「사보이」邸에서는 기둥의 배열을 바꾸었고 「산디갈」의 의사당에서는 그가 바라는 위치에 기둥을 불규칙하게 늘어 놓았다. 「알토」의 경우는 이 경향이 심해 더러 기둥을 빼는 것은 예사이고 한 건물에서도 여러종류의 구조계획을 섞어서 쓰고 있다. 중요한 것은 건축공간으로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기둥을 박는 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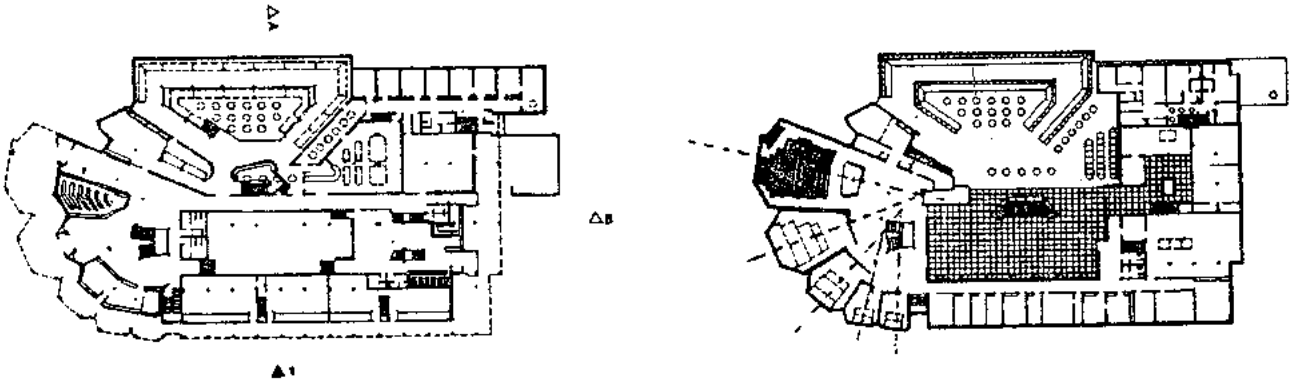
기능주의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세계 여러건축가들의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며 이제 우리들도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전신하는 경향이다.
어떤 방향으로 전신해야 하는가?
그 답은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건축가 각자에 달려 있으며 자기가 기능주의의 어떤 점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창조자세의 羅針盤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는 기능주의였는데 그것이 물러먹었으니까 앞으로는 「로버트·벤츄리」이다. 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작가를 맹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도 있다는 것의 보기로서 「알토」의 스킴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그림 1〉 부터(4)는 對角線上에 두 개의 출입구가 있고 한쪽에만 창이 있는 長方形의 방에 여섯개의 책상을 배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다. 〈그림 1〉은 관습적인 경우인데 사람의 동선은 직각이다.
〈그림 2〉는 책상을 경사지게 배치하면서 탁자에 앉았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Elbow Space를 확보하고 사람의 동선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린다.
〈그림 3〉은 벽을 순각으로 하므로서 보다 좋은 분위기의 방이 되며, 〈그림 4〉는 책상 자체의 디자인도 바꾸어 보다 자유스러운 공간이 탄생한다. 이것은 스페이스란 가구배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보기이며 진정 인간적인 스페이스의 디자인은 이러한 방안의 생활양식 — 가구 배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 5〉와 〈그림 6〉은 100인 수용의 長方形講堂의




〈그림 7〉

「알발·알토」의 서독브레멘 아파트



LOWER FLOOR PLAN

UPPER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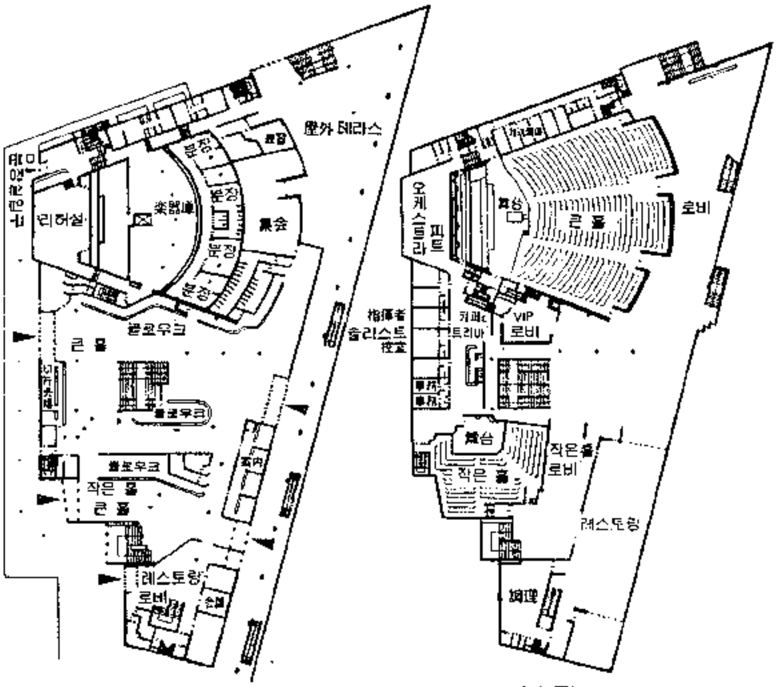
「알토」의 서독 볼후스블그 문화센터(알발·알토) 〈그림 8〉

경우이다. 〈그림 5〉는 관습적인 예이지만 〈그림 6〉의 경우가 더 인간적이다.
강연자와 映寫技師는 벽의 코너부분에 위치하므로서 강연자는 映寫光線의 눈부심을 느끼지 않고 청중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무대 뒤의 비스듬한 공간은 오히려 〈그림 5〉의 경우보다 쓸모있고 좌석의 비스듬한 배열로 하여 출입구와의 동선이 이상적이다.

〈그림 7〉은 「알발·알토」의 서독 브레멘에 있는 23층의 독신자용 아파트로 햇빛의 움직임에 따라 각 방의 방향을 잡았다. 복도의 폭이 한결같지 않고 각 아파트 유니트도 모두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알토」는 평면의 스케치에만 1년을 소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는 스킴이다. (1962년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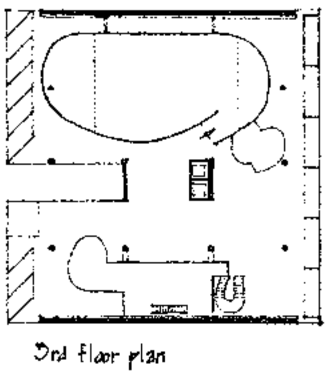
〈그림 8〉도 역시 「알토」의 63년도 작품으로 자그마한 문화센터이다. 중앙부의 안뜰을 중심으로 마치 다섯개의 발가락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청년학급, 중심부에 있는 도서실 그리고 밑부분의 ㄱ자로 꺾어진 청소년들을 위한 크럽과 관리부분으로 되어 있다.
다섯개의 강의실의 軸을 그려보면 한점에 모이지 않아 일부로 변위시킨 것을 알 수 있다. 華嚴寺의 中庭에 서면 지리산의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개의 전각들이 약간씩 그 축선이 변위되어 이상하리만치 시각적으로 안정된 안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역시 「프로」들은 다르구나" 하고 안심이 된다.
이 文化센터는 58년의 현상설계당선작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이상한 평면과 조형으로 하여 명함도 못들일 것같은데 이러한 자유스러운 사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서구사회가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더우기 「서독」과 「핀란드」는 다른나라인데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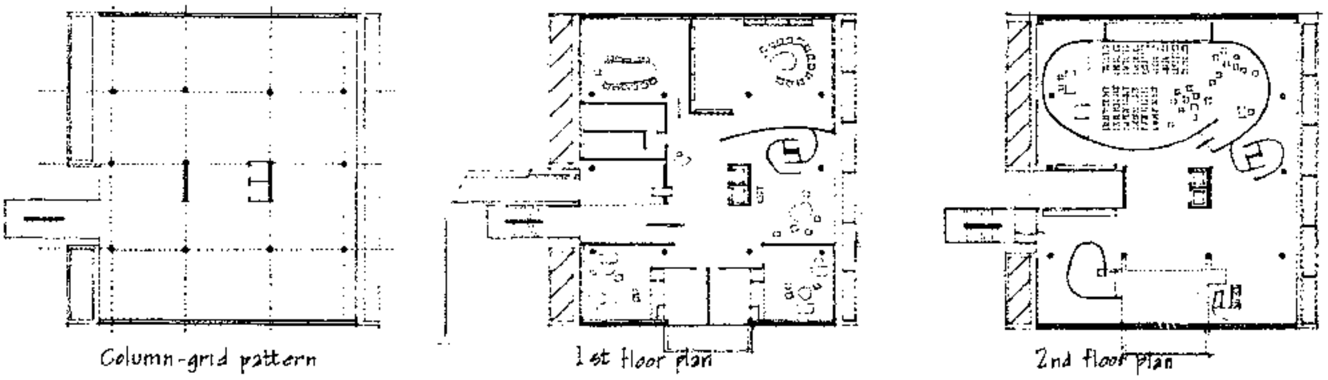
〈그림 9〉는 1971년에 완성된 필랜디어 홀로 「알토」의 최후기 작품으로 원숙기에 들어간 그의 실력이 유감없이 나타나 있다. 바닥면적 약 4,000평의 大小 두개의




1 層(出入口層)　　2 層(홀主層)　　(그림9)

(그림10)　인도의 Mill Owner 회관(르코르뷔지에)




콘서트홀로 최대수용인원 2,100인.
자세히 보면 矩形에서 벗어난 자유스러운 평면으로 계단의 배치나 모양, 공간구성에 따른 기둥배치, 명확하면서도 원활한 동선계획 등 매우 기능적이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이 있다.

〈그림10〉은 인도 「아메더받」에 있는 「르코르뷔지에」의 Mill Owner회관으로 기능주의를 제창한 장본인은 기능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층은 피로티와 길게 뻗은 램프, 그리고 엘리베이터 뿐이다. 자세히 보면 「피로티」도 완전한 등간격은 아니다. 2층이나 3층에서는 방안을 한정짓는 간벽은 철저하게 기둥과 떨어져 있다. 이것은 그가 제창한 「도미노시스템」 즉, 하중을 받드는 것은 기둥이며, 방안을 꾸미는 間壁은 자유스럽게 평면을 구성한다 라는 신조를 고집스럽게 말해 준다. 또한 그는 방안에 기둥 한 두개가 노출되어 있는 力學的인 感動美를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의실, 그 옆에 붙은 화장실 등 모두 자유스러운 곡선이다. 이 건물에서 Public Space의 넓이를 보면 시각적으로도 굉장한 크기인데 기능주의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것이란 결코 피상적으로 면적을 줄이는 것, 적은 공장비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차라리 그것은 이만한 크기의 집이니까 이만한 크기의 퍼블릭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라는 비례에서 오는 감각이다.

우리들은 이지적으로 건축을 구상하는가, 또는 感性에 의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전자에 속하는 것같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교육도 지적인 것일뿐 감성이 키워지지는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해서 建築構想에서 감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서 건축이라는 예술의 작은 글을 마무리할 생각이다.

〈다음호에 계속〉

# 都市의 境界, 都市의 場

■
Criticism
Seoul Investment
and Finance BLDG
by Kim, Kwang-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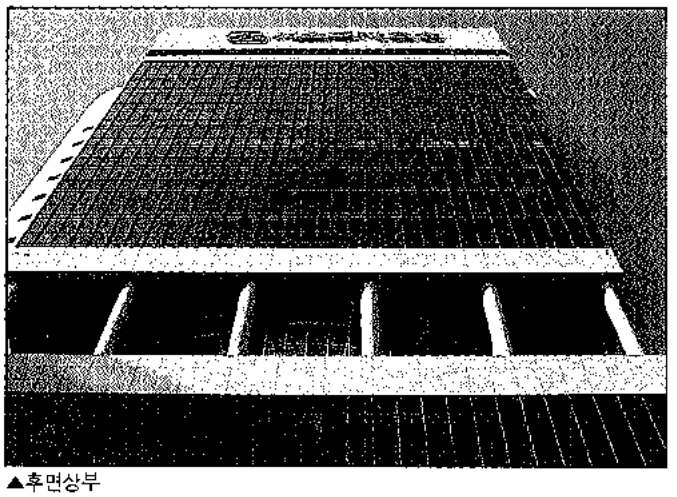
▲전경

서울투자금융 사옥은 앞으로 지어져야 할 사무소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시사해 주는 秀作이다. 부분적으로는 미완결된 채로 남아 있는 요소가 눈에 띄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결·명쾌하게 처리된 조형감각과 신선한 매스 처리는 을지로 입구 금융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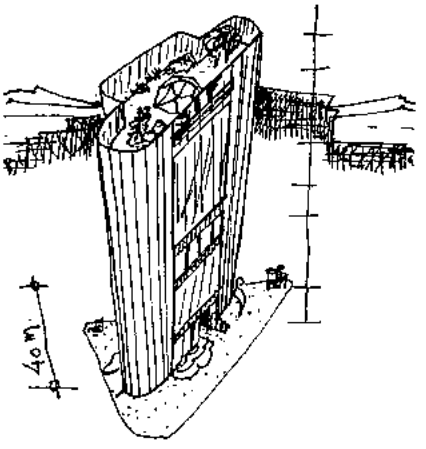
김광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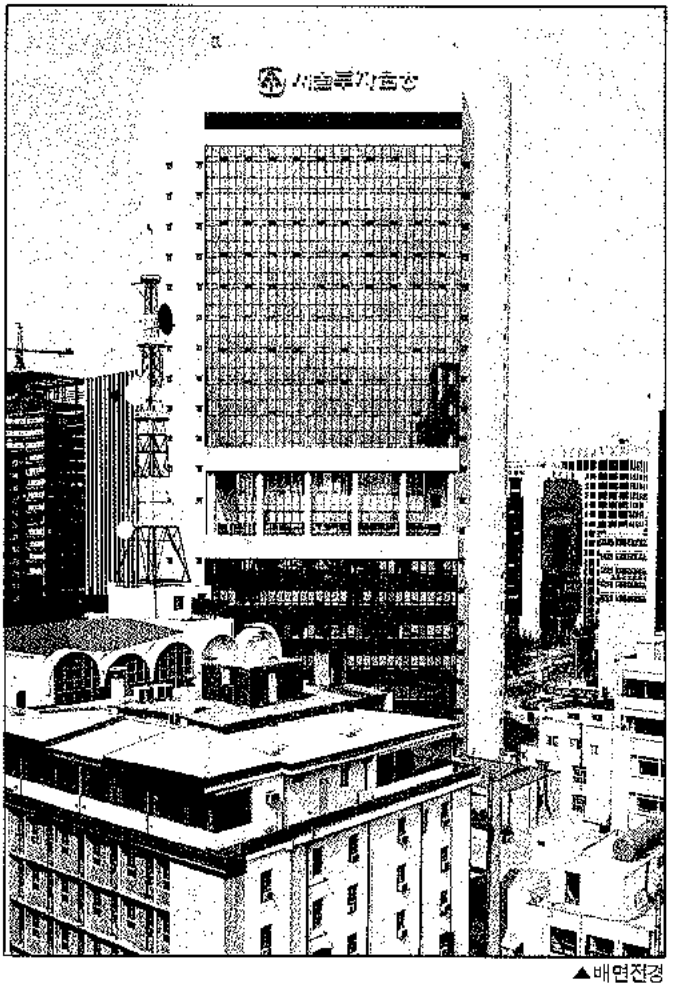
## 1.序

'86년도 서울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한 서울투자금융 사옥은 무교동·다동 재개발 지구에 새로이 나타난 여러 사무소 건물들과 함께 광교에서 을지로 입구에 이르는 가로의 풍경을 새롭게 해 주고 있다. 도시환경이나 창의성 등의 기준에 의해 가장 우수한 건물로 선정된 이 서울투자금융 사옥이 도시와 가로에 대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은 주변에 이미 신축되었거나 공사중인 다른 사무소 건물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신선한 조형감각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미건조하게 수직선만을 강조한 두산빌딩이나 내외빌딩, 커튼월을 주제로 삼기는 하였으나 그 형상이 다소 불안하게 보이기도 하는 동아빌딩 등과는 달리 내부로 응축된 간결한 형태가 특히 돋보이기 때문이다.
도시환경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이 중시되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사무기능의 수용이라는 실용적 역할만이 아니라 도시의 壁을 구성하는 주체이며, 혈맥과도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변의 동선을 정리함으로써 보다 활기있는 환경을 재정리해야 할 건물 유형이기 때문이다. 즉 사무소 건축은 다른 건물과는 달리 큰 건축면적을 차지하면서 도시의 중심부를 형성해 갈 뿐만 아니라, 그 파사드의 구성이 도시환경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해 준다는 의미에서 도시 조직이라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소 건축은 대지와 그 경제적인 활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기능상의 효용만을 추구하기가 쉽고, 그 결과 자칫하면 기능적 요구에 따라 대지내의 배치나 파사드 구성이 그대로 표면에 반영되기가 쉬운 건물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 그 건물 형태를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거나 과감하게 일부의 토지를 할애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서울투자금융



▲후면상부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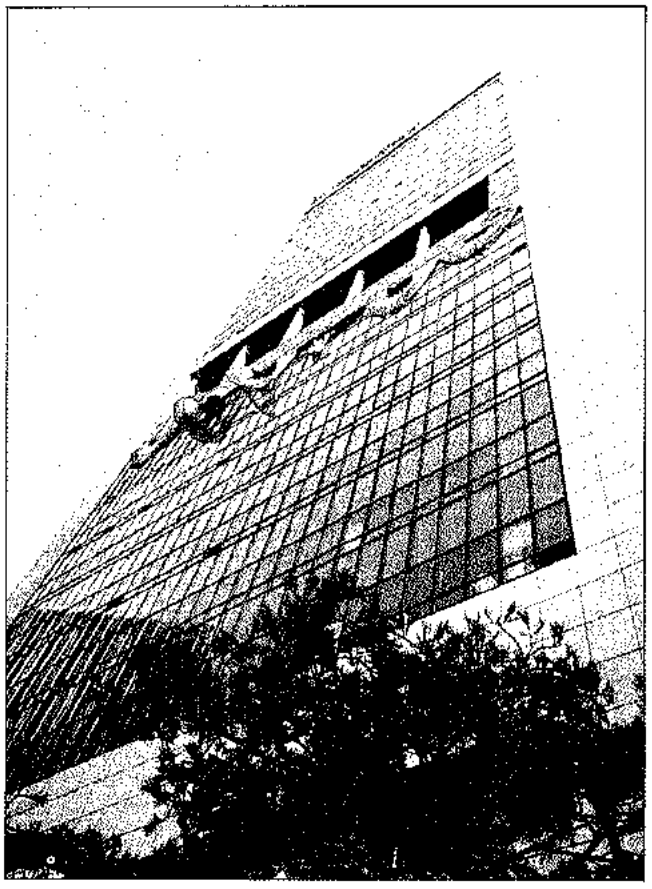
사옥이 추구하였다고 생각되는 바를 주로 건물 배치의 도시적 의미와 파사드의 표현 방식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근거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단, 다른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을 글이라는 형식으로 비평할 경우보다 소중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비평자의 견해가 설계자의 의도에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비평자란 설계자의 장기간에 걸친 설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한정된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진정한 비평 행위는 설계자 자신이 설계 과정에 얽힌 데이터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고민한 제작과 구상의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비평하는 것, 그것이 현재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최상의 비평행위가 될 것이다.

## 2.都市的 境界

서울투자금융 사옥은 을지로 입구의 3각형으로 남겨진 대지에 대하여 다른 건물들처럼 도로에 평행한 해석을 가하지 않고, 파사드를 그 3각형 대지의 가장 긴 변에 평행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그 결과 가로의 형태에 최대한으로 적용하려 하였고, 동시에 교차로에 대하여 45°로 배치함으로써 을지로 입구의 풍경을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켜 놓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을지로 입구 부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즉 이 건물은 화신에서 명동을 향하여 바라보는 풍경에 대해서는 斜角으로 배치된 사옥의 매스가 시각적 초점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동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전체의 매스를 한정시키고 있는 両端의 반원형 코아는 건물의 모뉴멘탈리티를 더해 주고 있다. 때문에 이 건물은 코너가 커튼월로 처리되어 있거나 4각 개구부가 직교하는 건물과는 다른 강한 응집력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3각형 대지의 장변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볼륨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강력한 화강석 마감의 양단 코아로 좌우를 한정시킨 형태는 주변에 있는 외환은행 본점 건물보다도 더욱 포만감 있는 볼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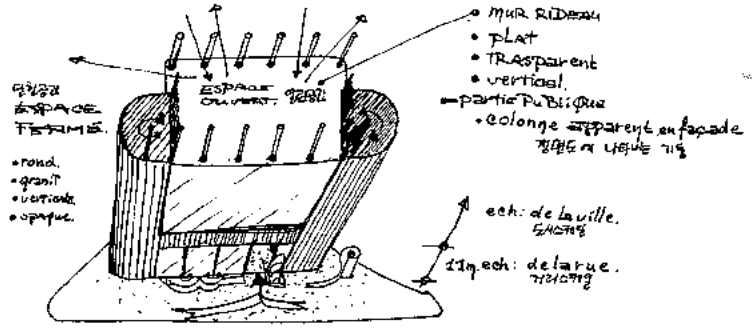
또 이 건물의 다른 특징은 지하철 을지로 입구와 건물 배후지역에 대한 연계성에 있다. 대지의 장변을 극대화하여 볼륨감을 강조하면서도 사무소 건축 중 가장 중요한 接地層의 중간 부분을 과감하게 개방시켜 지하철역으로부터의 통과동선을 이 건물 배후의 금융가 지역으로 연결시킨 수법은 이 건물의 최대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통과동선의 유연한 흐름을 위하여 1층 홀을 両分시키고, 홀의 유리면과 植栽, 그리고 지하 주차장 입구의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명동 쪽으로의 공지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 결과 배후의 삼각형 대지는 직교하는 후면 도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넓게 확장되어 있고, 환경 조각들 뒤에 2~3층의 규모의 낮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낮은 스케일의 건물이 그대로 연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즉 이 건물은 을지로라는 간선도로와 저층의 배후 건물군 및



▲전면상부

▲1층 Hall




하늘공원 공간 개념

그것들로 둘러싸인 오픈 스페이스를 구획하는 하나의 커다란 경계물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계의 역할은 이 건물 좌우의 반원형 코아를 끼고 길게 전개되는 가로의 풍경을 완만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건물은 무교동·다동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여러 금융 사무소에 대해서는 을지로 입구 부분을 구획하는 건물이지만, 이같은 배후의 오픈 스페이스를 끼고 나타나는 기존의 투자금융 건물군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가의 현관과도 같은 공간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지하철 출구로부터 이어지는 대각선의 오픈 스페이스 및 통과동선의 도입은 사무소 건축설계에 더욱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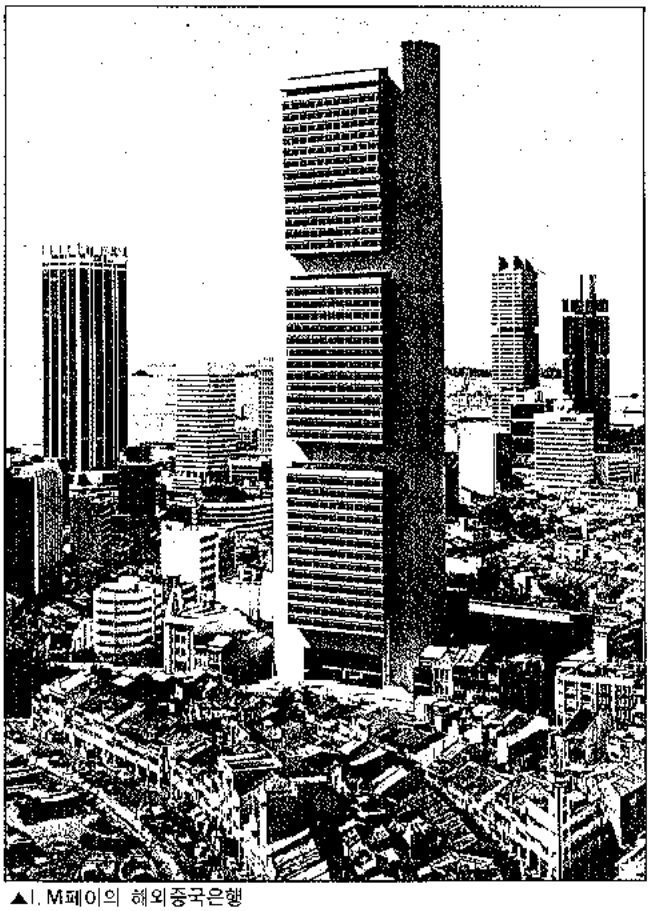
## 3. 파사드의 問題

이 건물의 전체적인 매스는 팽팽한 볼륨감으로 가득 차 있다. 전면에 밀착한 커튼 월과 그것을 좌우에서 한정시키고 있는 화강석 마감의 코아, 그리고 전체를 크게 2분할하고 있는 수평 분할선, 중간 부분을 크게 절단시키고 있는 「하늘 공원」과 노출된 기둥들, 최상부를 가볍게 가로지르는 슬리트, 더우기 커다란 타일면처럼 정방형으로 분할된 화강암판 등은 표면의 질감을 삭제하고 밀착된 표피와도 같이 건물 전체의 볼륨을 감싸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의 처리가 곧 주위에 있는 내외 빌딩이나 두산 빌딩처럼 수직 커튼 월을 솔리드(Solid)한 벽면으로 후퇴시킨 수법과 다른 점이며, 서울투자금융 사옥과 비슷하게 코너 부분은 솔리드하게 처리하긴 하였으나 커튼 월의 윤곽에 요철을 둠으로써 面의 긴장감이 없이 정면과 측면이 분리되어 보이는 동아빌딩과도 구별되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파사드 중간 부분에 노출된 2층분 높이의 기둥은 자칫하면 무미건조하게 커튼 월로만 처리하거나 아니면 중간 수평띠 정도로 분할하여 을지로 입구의 교차로를 압도할 수도 있었을 과도한 높이를 분절해 줌으로써, 건물 전체의 높이를 2분할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두 개의 건물이 연속되어 있는 듯이 지각되고 하부의 절반은 도로측에 대하여 인간적인 스케일로 표현되어 있다. 중간층의 파동하는 벽면 역시 상하의 팽팽한 사각 커튼 월에 대한 반대 요소로서 분절 효과를 더욱 강조하려 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후면의 파사드는 정면의 설계개념과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모퉁이의 기둥이 3각형의 단변에 접하는 곳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후면의 커튼 월이 양단의 반원형 코아의 연결선으로부터 돌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면의 표면 감각과는 대조적으로 유니트 박스를 프레임에 삽입시킨 결과, 대등하던 화강석 표면과 커튼 월이 이제는 반대로 코아의 표면이 유리면에 종속되어졌다. 바로 이 때문에 몇 차례 건축잡지에서 이 건물이 싱가포르에 세워진 I.M.페이의 해외중국은행과 비슷한 구성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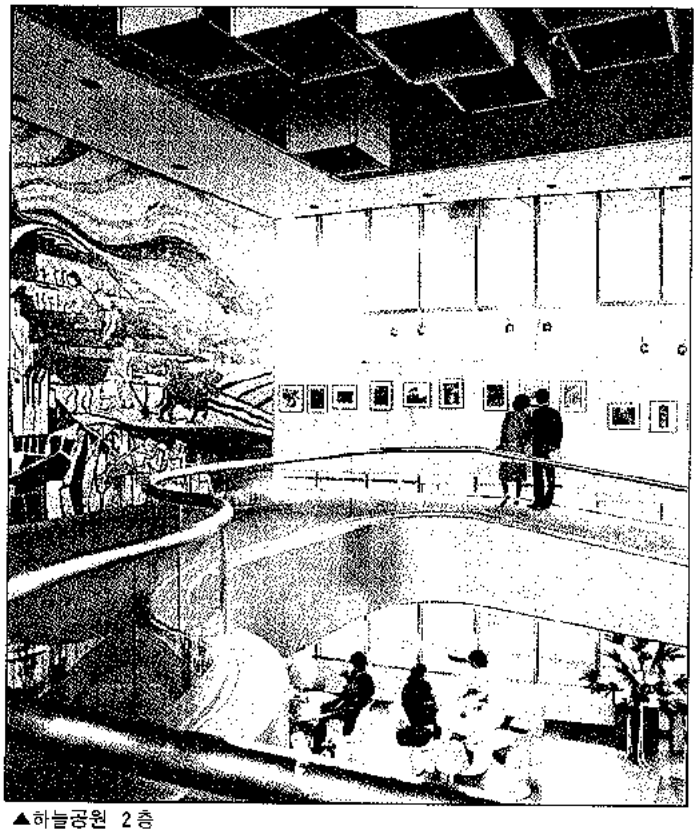
▲주출입구


▲I. M페이의 해외중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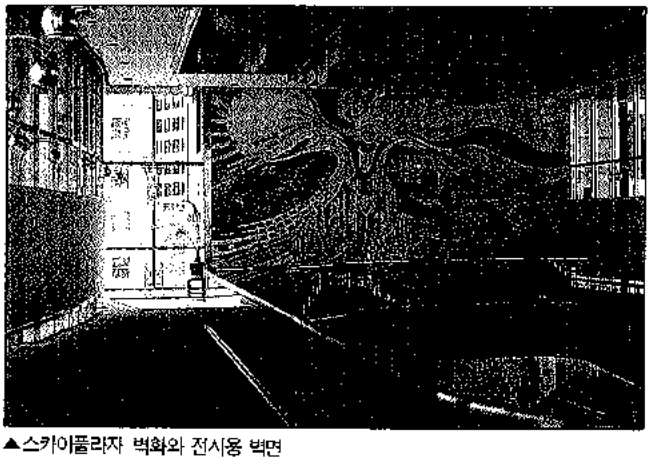
한편 이 후면이 유감스럽게도 진밀하게 구성된 정면과는 달리 다소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불규칙한 위치에 나 있는 코아의 개구부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돌출된 커튼 월에 바짝 붙어 나 있는 개구부는 계획상 무척 고심했을 부분으로 생각되나 결과적으로는 코아와 커튼 월의 접선을 애매하게 해 버리는 요인이 되었으며, I.M.페이의 해외중국은행과 같이 구조적인 샤프트의 균질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 측면에서 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일 배후면의 돌출부분이 없었다면 시각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한 좁고 긴 장변 방향의 파사드만이 타워처럼 솟아올라 시선은 반원형의 곡면을 따라 그대로 흘러 버렸을지도 모른다. 정면 중간부분의 파동 벽면은 곡면 그 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조형의 재미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파사드 구성상으로는 보통 1층에서 후퇴되는 경우와는 달리 공간의 깊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극단적인 예는 르 코르뷔지에의 가르쉐(Garche) 주택의 정원 쪽 파사드로서, 우측의 밀착된 유리면에 대하여 좌측의 보이드(Void) 부분은 주택 전체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투자금융 사옥의 정면에 있는 파동 곡면은 솔리드한 코아가 좌우에서 한정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커튼 월의 전체 길이에 대하여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나, 배후면에서는 좌우를 한정시켜 주는 코아가 연접해 있지 않으므로 노출기둥 안쪽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면의 건물 높이를 분할해 주고 있는 것은 파동 벽면이 아니라 노출된 6개의 원주이다. 그 반면에 파동 벽면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못하여, 상하부의 돌출 커튼 월을 연결시켜 보는 한 중간 부분이 왜소하게 축소되어 불안한 느낌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건물을 수평 분할하는 몇 개의 흰 벽면의 형태적 효과에서도 나타나 있으나 그 모습은 전후면에서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면의 수평선들은 구조적인 긴장감에 가득 차 있는데 반해, 후면은 돌출된 입면을 정면과 같은 수법으로 분할하고 있다. 그 때문에 상부 수평선은 힘을 잃은 장식적인 마감선으로서 하부 수평선은 커튼 월의 무게를 지지하는 구조적 프레임으로 읽혀져서, 같은 파사드 안에 있는 수평선이 다른 의미로 지각되기도 한다. (페이의 해외중국은행은 상단부가 돌출된 벽면으로 분리되지 않고 코아 벽면과 연결되어 있다.) 정면의 구성에 있어서도 옥외 티라고나 할까 코아 간의 길이가 정확하게 5등분되어 있지 못하고 「하늘 공원」 우단이 커튼 월로 메꾸어져 있는데 반해 1층의 오른쪽은 화강석으로 메꾸고 있어 파사드의 우측 접합부가 어설프게 처리되어 있다.

## 4.室內와 오브제

이 건물이 지니고 있는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하늘 공원」이라는 이름의 공공적인 공간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무소 건축안에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이 「하늘 공원」은 높이가



▲하늘공원 2층



▲스카이플라자 벽화와 전시용 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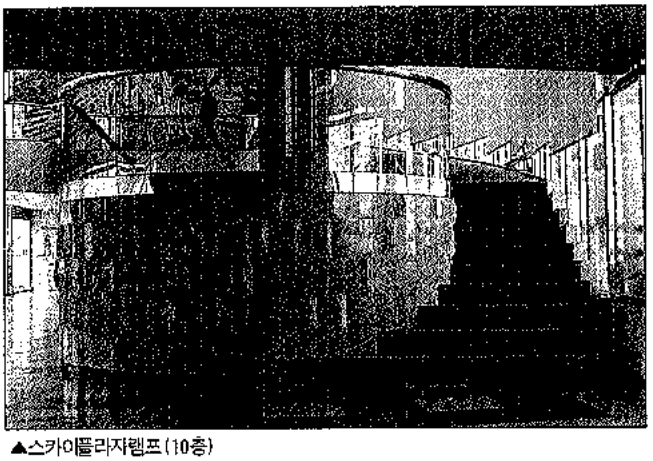
2층분으로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시켜 휴식 공간이나 각종 전시회에 사용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내부는 램프를 이용하여 전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였고 그 아래인 10층은 휴식 공간으로 할애되어 있다. 파동 곡면 양끝의 거대한 벽면은 돌과 색채 유리, 자연 석재를 혼합하여 만든 모자이크 벽화로 가득 채워져 있다. 비교적 대규모의 스페이스를 실내화된 외부공간으로 계획하려는 의도가 가득 차 있는 층이기도 하다. 바닥은 옥외공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비교적 커다란 패턴의 문양으로 디자인 하였다.

그러나 공간 전체에 비하여 파동 벽면을 제외하고는 전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순수 벽면 면적이 적은 편이며, 「하늘 공원」에 장식된 벽화가 너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경중이 뒤바뀐 인상이 있다. 더우기 모던한 감각으로 처리된 단순한 파동 벽면 사이를 부정형 패턴의 벽화가 구획하고 있어서 공간 전체의 통일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강화 유리와 연속적인 스텐레스 핸드레일의 단순한 처리를 경계로 하여 천정과 바닥의 패턴이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공간의 크기도 2층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편이나 그에 비하여 난간이나 천장, 바닥의 패턴이 너무 두드러지게 제작되어 있어 전시물이 압도되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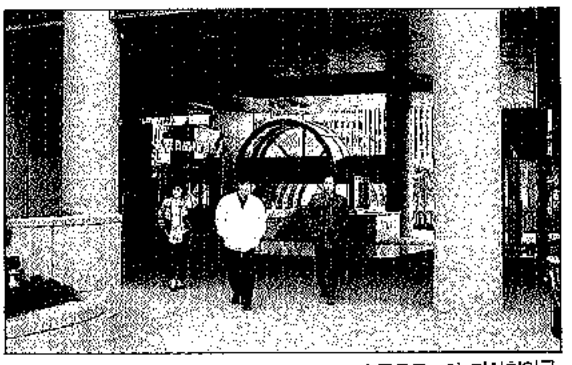
반드시 적절한 예라고는 볼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이「하늘 공원」이 설계된 의도는 마치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쇼쇼과 버기 설계의 I. D. S. 센터(1968~73)의 내부와도 같이 몇 층의 격자를 통하여 내려 비치는 채광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있게 오가며 쉬기도 하는 분위기를 연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하늘 공원」의 하부는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아직은 목적없이 이리저리 걷다가 되돌아 가게 되는 공간으로 처리되어 있다. (물론 테이블로 가득 메꾸어진다면 모르지만) 앉아서 쉴 수만 있게 만들어졌을 뿐 무언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공원」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전시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시장을 이 스페이스의 주목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공허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모처럼 사무소 건축에 마련된 이「하늘 공원」을 보다 활기있게 활용하려면, 화려한 인테리어의 장식이나 건축의 디테일만이 있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공원」의 형태에 대응한 물리적인 처리를 소규모나마 마련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한편 원형의 곡면 유리가 감도는 로비는 이제까지 공연히 큰 면적을 할애하여 앉아 기다리거나 통과해 버리는 로비가 아니라, 보다 공공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비교적 작은 로비 공간을 콤팩트하게 처리하여 지하철 입구로부터 명동으로 이어지는 통과 동선에 대해 개방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층의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공공적인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 설계자의 의도와 건축주의 결정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높다란 스케일에 압도된 채 내부로 진입시키는 통상적인 방법을 거절하고, 일차적으로 한 층 높이의 반외부적(半外部的)스페이스로



▲스카이플라자렘프(10층)

▲우측하부상세



▲1층공용통로와 지하철입구

▲공용통로와 환경조각물(명동쪽)

사람을 끌어들인 후 건물의 배치방향과 평행하게 진입시키는 도입 부분의 처리 수법은 통과부분의 공원화라는 설계개념을 연장시킨 것이어서 배울만한 바가 많은 부분이다. 예를 들어 로비의 부분 부분에 조각물을 전시한다든가, 유연한 곡면 유리와 동심원을 이루며 배치된 원형 의자 등은 외부의 공공적 성격과 로비의 공간적 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울투자금융 사옥에 후면에 설치된 「조그마한 승리」라는 제목의 환경조각은 배후에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의 개념과도 어울린 소재를 가진 오브제이다. 종래의 환경 조각은 굳이 건물 앞에 놓을 필요도 없이 전시장에서 전시되어도 무방할 작은 환경조각으로 사용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이 환경조각은 마치 사옥의 後庭안에서 뛰어 노는 어린아들의 모습을 담은 채 인간적인 스케일의 오픈 스페이스를 활기있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환경」조각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조각이란 환경을 독점하려는 듯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융화하려는 겸허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은 또 하나의 오브제는 조각물처럼 친숙하게 처리된 환기 타워이다. 이처럼 환기 타워를 조형화한 오브제는 최근에 신축된 건물에서 제법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반원형의 코아에 근접하여 자칫 솔리드한 매스로 남아 있기 쉬운 위치에 서서 명동에로의 진입구를 유연하게 해 주고 있다.

## 5. 結

이와 같이 서울투자금융 사옥은 앞으로 지어져야 할 사무소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시사해 주는 秀作이다. 부분적으로는 미완결된 채로 남아 있는 요소가 눈에 띄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결·명쾌하게 처리된 조형감각과 신선한 매스 처리는 을지로 입구 금융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형적 측면에서의 세련된 처리 수법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도시조직속에 위치해야 할 사무소 건축의 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도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를 간결하게 해결하였다는 점에 있다.

도로변에 면하여 사선으로 배치되어 최대한의 용적과 파사드의 크기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接地層의 거의 대부분을 공공적 성격의 것으로 할애함으로써 지역의 경계물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얻게 된 것, 그리고 그 배후의 오픈 스페이스를 도시의 場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정면과 배후의 공간적 특성을 명확히 설정한 것. 이러한 것들은 이 건물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가치이다. 동시에 이것은 부분을 버림으로써 더 많은 부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삭막한 우리의 도시 속에서 반증해 준 작품이며, 마치 그것이 안국동 로타리로부터 광교에 이르는 거리의 풍경에 대해 랜드마크가 되어 있듯이, 사무소 건축이 지녀야 할 귀중한 시도를 현실화시켜 놓았다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사무소 건축의 설계개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끝〉

# 病院建築 標準化의 諸問題

柳運衡
서울대학교 병원연구소 의료시설부장

Feature/Standardization in Hospital Design What to be met ?
by Ryu, Un-Hyung

…모든 병원시설계획에 관련된 표준은 특히 경직된 수준의 표준일수록 표준의 개정과 현실화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겪는 표준화의 폐해가 바로 이러한 기준의 결여에서 온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르 꼬르뷔지에의 MC는 표준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MC는 건축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유의 지평을 열어 주는 것이다.』

## 머리에

1850년대에 근대병원건축과 간호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저서 '병원에 관한 소고(Notes on Hospitals)'에서 최초로 병원시설에 관한 요구사항에 언급한 이래로 병원건축은 병원 표준화 노력의 산물로 여겨져 왔다. 병원건물의 반복되는 창호에서부터 어느 의료기관에 가든지 동일한 질병에 대한 균질의 의료서어비스를 받고자 기대하는 의료의 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규칙이 있으리라 믿고 있다. 바로 그 점이 표준에 관한 일반적인 기대감을 설명한다. (그림 1)
그렇다면 과연 표준이란 무엇인가? 그 용어가 병원의 디자인에 쓰여질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등의 물음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본고에서는 표준이 병원계획과 디자인에 적용되는 다양한 사용법과 현대병원 건축이 발전해 온 금세기의 의료시설 건축계획에서 목격된 표준화의 일반적 현상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 투자효과를 위한 표준화

오늘날 병원을 하나 건립한다는 것은 점점 더 복잡한 계획과정을 요하는 것이며, 잘못하면 값비싼 실수의 댓가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는 대부분 사전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계획과정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복잡해져만 가는 계획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된다.
병원계획에 참여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점도 바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원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병원의 건립을 위하여 쓴 투자비가 적정한 수준이었는가에 관한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요컨대 표준을 이용하여 투자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다른 병원의 건립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경험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결과로서 얻어지게 된다.

## 의사소통의 표준화

병원의 건립과 계획이 의료진, 경영진, 디자이너 그룹의 다직종 계획팀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임은 널리 알려진 병원 계획의 원리이다. 이것은 병원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계획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팀 내에서의 의사소통기술이며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결론에 다다르는 테크닉이 숙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한다. 동일한 언어, 동일한 용어의 사용시에도 계획팀 구성원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커다란 상이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게 되고, 계획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영국의 병원계획에서 계획팀의 회의시작전에 각자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선서를 하는 것이 이 점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된다. 따라서 계획진행을 위한 의사소통, 정보의 수집,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방법론이 또 하나의 표준이 된다.

## 시간절약을 위한 표준화

표준의 효용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가장 가시적인 항목에서도 나타난다. 그러한 표준을 개발하는 데 쓰여진 시간은 고려치 않고 일단 표준을 쓰게 된다면 시간은 당연히 절약된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아예 표준화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400병상의 지역병원(district general hospital, DGH) 건립에 불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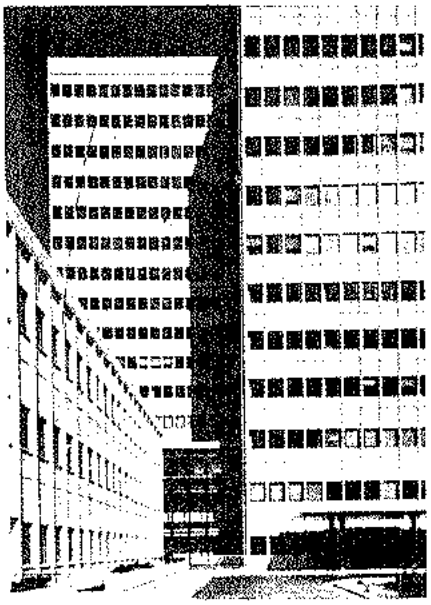
밖에 소요되지 않는 영국의 'Nucleus' 병원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표준화되기 이전에 영국에서의 병원건립은 부지하세월이었던 것이다.

## 표준화의 원리

이제 표준에 관한 개념의 근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글을 읽는 그 누구도 '표준'에 관하여 동일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해 온 그 용어가 너무도 다양하여 때로는 상반되는 의미까지를 포함하여 쓰여져 왔기 때문이다. 때로는 '진리의 한 형태'로도 쓰여지고, '어떤 물음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대답에 이르는 과정 자체'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흔히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을 가르킬 때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개념(which can be anything or nothing)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혼란은 표준의 두 가지 특성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표준에는 서로 다른 차원이 존재하며, 둘째는 이러한 다른 차원들이 상호연관된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건축에서는 크게 네개의 차원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것은 관념적, 광역적 의미로 부터 가시적, 국소적 수준으로 좁혀져 가며 이들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하급의 표준에 가까와 질 수록 표준은 부동의 형태로 굳어져 가는 특성을 보인다. 즉,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직된 표준이 되어가는 것이다.
건축가가 하나의 디자인을 도출하기 까지는 위에 언급한 네개의 차원을 쉴 새 없이, 반복적으로 거치게 된다. 병원시설에서 하나의 작은 방, 또는 복도 한 켠에 계획된 작은 알코브까지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또는 인류에게 건강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표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병원을 디자인하는 건축가의 철학과 보건의료에 관한 이해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병원 시설에 집약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병원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건축가의 사고과정에 보건의료에 관한 해석이 표준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 국제적 차원의 표준화

위에서 말한, 보건의료제공에 관한 건축가의 이해가 하나의 표준이 된다면, 이런 종류의 표준은 대부분 무형의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한 예가 세계보건기구의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전략같은 것이다. (그림 3)
1970년대 후반 WHO가 21세기의 목표로 정한 '전인류의 건강획득'을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이 전략이 채택되어 현재는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의료시설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은 이어 몇 개 지역에서 보고서로 작성되어 출간되었다. 여기서 촛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전략이 표현된 방법이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취득가능한 의료자원의 최대한 활용을 위한 조직의 재편성'으로 요약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표준은 숫자로서 표시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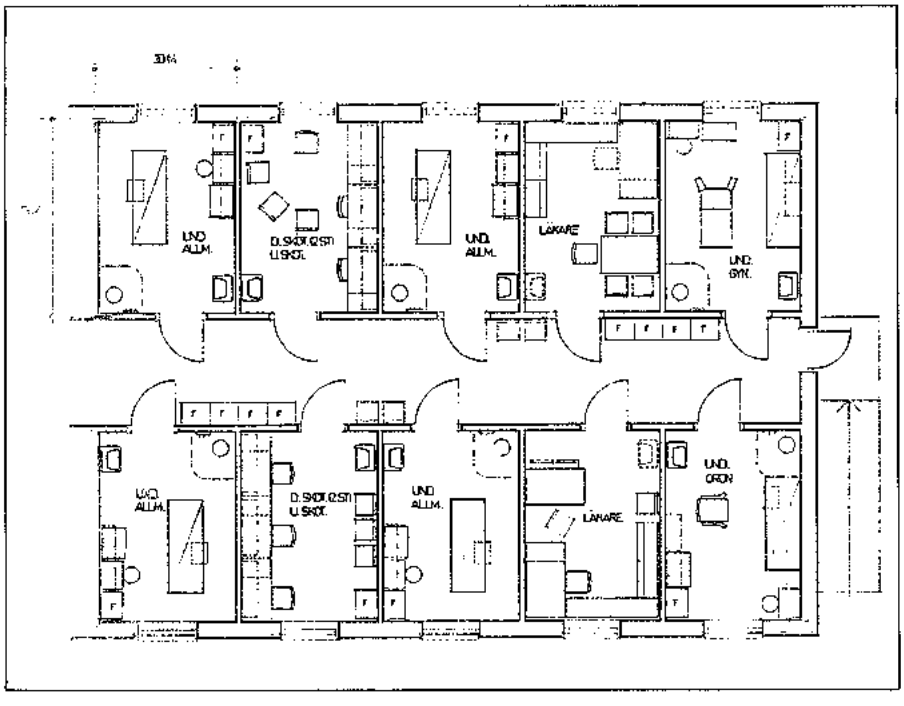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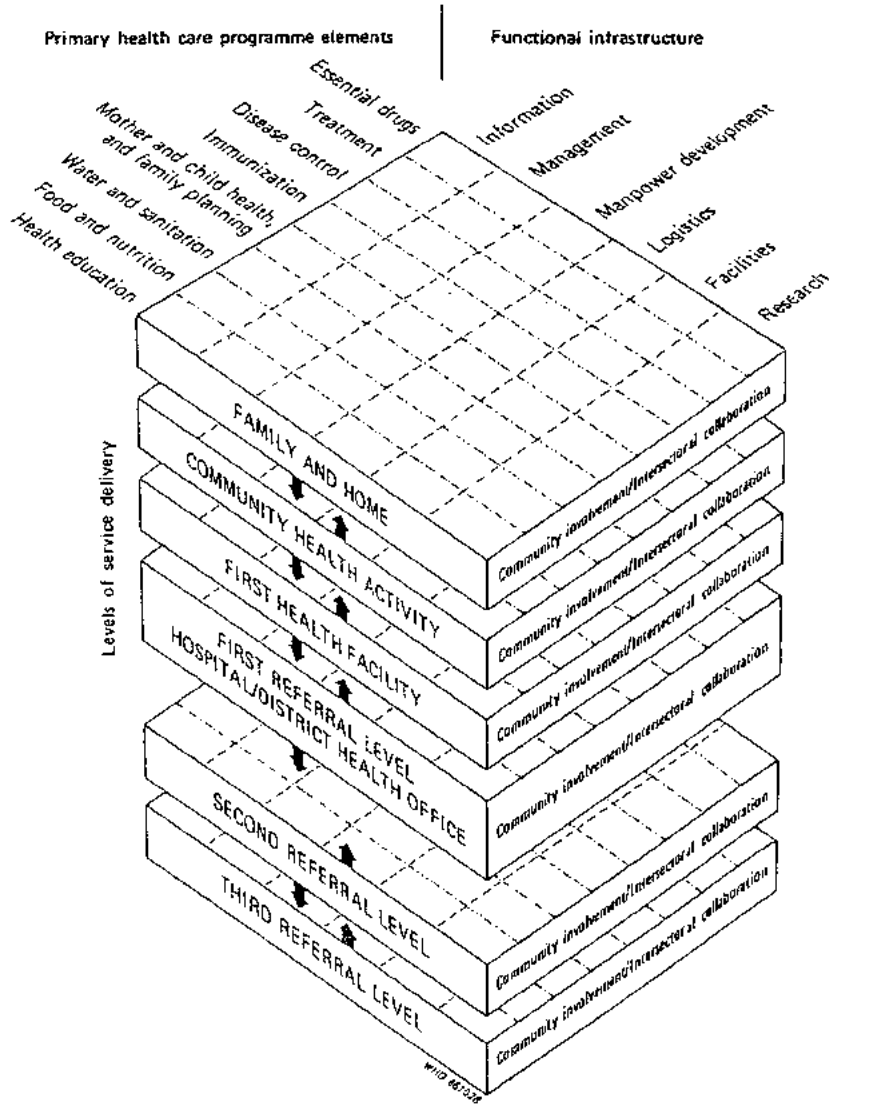
(그림 1) 현대에 와서 병원시설은 상당한 표준화 노력의 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의 국립의료원.

## 국가적 차원의 표준화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몇가지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계획과 의료시설 계획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표준은 대개 적정치(norm) 또는 적정치의 범위로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의 정비를 위한 표준의 설정이 의료시설 표준화에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현상이다.

(그림 2) 의료시설에서 하나의 작은 방, 공간 단위에도 설계자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집약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림은 스웨덴의 표준화병원의 외래진료실.






(그림 3) 세계보건기구는 '일차보건의료' 라는 상위개념의 표준을 제시하였으나 좀처럼 수치로 표시된 표준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림은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포괄의료체계의 개념적 모형.

1946년 미국의 힐·버튼 법안이 그러했고, 1962년 영국의 'Hospital Plan' 법이 그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보건의료망편성연구' 가 80년대의 병원표준화사업 등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제도의 재정비가 병원계획가나 건축가들이 보다 활발히 병원시설표준화연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각기 '최소요구시설기준' (미국), 'Hospital Building Note' (영국) 등이 제정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의 시설기준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디자인 차원의 표준화

병원차원에서의 디자인표준화에 관련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병원계획에 관여하는 사람들 간에 표준화의 몇가지 목표중 비용절감이라든가 원내감염을 포함한 의료의 질관리(the quality assurance) 등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별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진행도중 보다 가시적이고, 만져질 수 있는 수준의 결론도출 과정에서는 훨씬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게 된다. 예를들어 병원수술장의 평면도이거나, 미국의 의료비지급제도인 DRG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들은 보다 확고한 해결방안을 원하게 된다. 즉, 보다 결정적인 수치와 총량으로 표시된 표준을 알고 싶어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예외를 더욱 와틀이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병원계획과정이 흔히 관련부서간의 '면적쟁탈전' 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치상의 표준이 그들 계획비전문가가 가진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 시스템으로서의 표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급 표준간의 위계질서가 어떤 표준의 개발과 적용시에도 규칙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영국의 병원표준화에서 나온 유명한 격언은 '표준이 없는 시스템은 존재할 수 있으나, 시스템 없는 표준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표준화시스템' 으로 부를 수 있고, 영국에서 최근 30년간 개발된 표준화병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을 중심으로한 이러한 표준화 시스템의 개발과정은 방대한 양의 병원내 행위, 환경, 기능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하나의 체계로서 구축한 조직적 표준화의 좋은 예이다. 그 결과로서 '표준행위정보은행' (ADB), '표준운영계획', '표준설계안' 으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British Sequence' 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표준화 시스템은 문헌과 컴퓨터 화일로 잘 보존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이 밖에도 셀 수 없는 많은 표준화 가능영역이 병원계획에는 존재한다. 예로서, MC를 이용한 면적배분, 병원특수 환경과 관련된 설비시스템, 의료장비의 사양과 안전관리(방화, 감염 등)에서 부터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요즘에 이르러서는 CAD의 이용으로 한층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설계안의 평가와 계획과정 전반의 투자과정 평가까지가 표준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결어

여기서 세 가지의 병원시설 표준 이용상의 문제영역을 밝힘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나라, 다른 의료제도를 그 바탕으로 하는 표준의 직접적인 도입이 개발도상국의 제한된 의료자원 이용에 큰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그 도입된 표준이 하드웨어일 경우 더욱 불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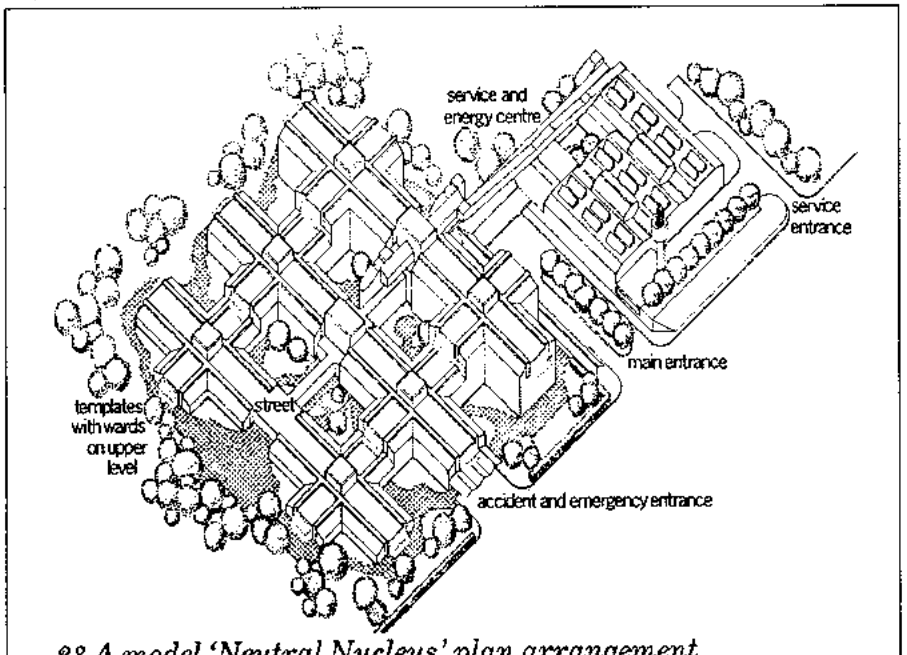
결과를 초래한다. 영국의 'Nucleus'가 최고수준의 표준화시스템일지라도 그것은 영국이라는 의료환경의 산물일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모방하는 일본의 병원건축표준은 일본 의료제도에 관한 단편적 이해만으로도,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케 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표준에서 배울 것은 그 표준의 개발에 관한 논리체계이며, 그 표준이 제시된 방법론이고, 그들의 표준화에 관한 확고한 믿음인 것이다.

둘째로 상위개념의 표준이 결여된 채로 하위개념 즉, 하드웨어로서의 병원시설이 표준화된 경우이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표준화가 경직된 수준에 가까와 질 수록 실수의 결과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디자인이란 문제의 해결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답을 내기전에 문제 자체를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요구된다.

셋째로 나라에 따라서는 의료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아주 세부적인 의료시설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 근거를 알기 어려운 '명확한 한계' 수치로서 표시된 것이 많다. 표준은 그 표준의 목적 차원에 맞지 않는 단위로 표시될 경우, 본래의 장점인 가이드라인으로서가 아닌 '부정적 통제'로 작용하여 보다 나은 계획의 장애요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림 4) 사람들은 가시적 단계의 표준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아진다. 이것은 '면적'이라는 지표가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표준인 때문이다. 그림은 계획팀 구성원간의 갈등과 고민하는 설계자의 모습.

(그림 5) 표준화 시스템이란 각급의 표준을 개발하는 논리체계와 그 연계결과를 말한다. 그림은 'Neutral Nucleus' 병원의 예.




*28 A model 'Neutral Nucleus' plan arrangement.*

끝으로 모든 병원시설계획에 관련된 표준은 특히 경직된 수준의 표준일수록 표준의 개정과 현실화에 필요한 제도적 규정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겪는 표준화의 폐해가 바로 이러한 기전의 결여에서 온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MC는 표준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MC는 건축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유의 지평을 열어 주려는 것이다.'

본 고는 1986년 9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세계병원연맹 지역총회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본으로 편역한 것이다.

#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I)

金晶東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근대건축물을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무단히 철거되는 抗日의 현장, 新教育의 場所들을 보며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타의와 자의에 의한 훼손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새것만 좋다"는 인식은 또 어떤 건물들을 헐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심을 이 영역에 쏟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 작업을 위한 한 단계로 시도되는 것이다.

## 연재를 시작하며

1876년, 開港이 되며 韓国의 近代建築은 새롭게 출발하였다. 그 시대 이후의 건축들은 新文化, 新文明의 엄청난 세력에 맞부딪혀서 이겨낸 결과물로 나타난 것들이었다.
물론 그 시기는 새로운 기대,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하던 때이기도 했다.
도시에 관청, 은행, 학교, 호텔, 극장 등이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부끄러웠으나 경외로움도 뒤따랐다.
"Europe의 種子"인 初期 洋風建築은 일본, 중국, 동남아에도 스며들어 갔다.
한국에서는 神父, 宣教師, 外交官들에 의한 이입이 시도되었다.
한국의 開化建築期를 선점한 主勢力은 日帝보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이후로는 신건축을 배운 일본의 건축가들이 그 "식민의 도구"로 이 땅에 더 많이 몰려 들어왔다. 한민족의 풍토와 습성은 그들에겐 큰 관심리가 되질 못했다.
그들은 우리의 것을 부수고 못쓰게 하는 일부터 우선하였다.
王宮, 官衙, 私邸 등은 그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어 나갔다. 그들은 그 자리에 그들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건물들을 세워 나갔다. 물론 이 시기의 모든 건축이 일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그리고 러시아, 清国에서도 건축가는 왔다. 이 땅은 國際建築「ism」의 한판 角逐場이 되었다.
한국건축의 대세는 국제적 영향권 속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 식민의 와중속에서도 역사는 계속 흘러갔다. 그 사이에 이 近代建築物(1876~1945)들은 하나 둘씩 생명력을 잃고 사라져 갔다.
건축은 그 자신의 기능적 요구에 한계를 갖고 있다. 쓸모있는 점으로만 따진다면 역사의 진전과 함께 그 효용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은 歷史性, 時間性, 空間性이 모두 함축되므로 해서 건축물은 또 하나의 생명을 새로 얻는 것이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건축은 그 조류에 휩쓸리게 된다. 우리는 8·15, 6·25, 4·19, 5·16 등 무수한 역사적 変節点을 겪어왔다. 그것은 우리의 건축적 수난사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건축물도 상황의 汚名을 뒤집어 쓰고 퇴장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물 자신으로서의 한계는 建築技術的 측면에도 있다. 목재와 석재, 철근, Conc, 벽돌조는 그 時限性이 서로 다르다. 건축은 여인네가 가꾸듯, 관리, 보수되지 않으면 무한할 수가 없다.
反帝國的, 抗日의 깊은 현대사에서 우리의 목적, 맹목적 거부감은 컸던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근대건축물을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무단히 철거되는 抗日의 현장, 新教育의 場所들을 보며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타의와 자의에 의한 훼손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새것만 좋다"는 인식은 또 어떤 건물들을 헐어내 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심을 이 영역에 쏟아야 할 것이다. 이 연재는 그 작업을 위한 한 단계로 시도되는 것이다.

## 연구의 방법

調査中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사고는 "건물은 단순한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生命을 갖는 有機體"라는 것이었다. 삶이 담겨져 있는 이 현장들은 또한 몇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것인 것이다. 建築家, 建築主, 所有者의 생명은 유한하나 건축물 자신은 무한한 것이다.

## 제1편 근대건축 1기 (서울, 1876~1910)

### 1. 美国領事館 舘邸

위　　치 : 정동 10번지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고종 20년(1883. 5. 20)
설 계 자 :
시 공 자 :
건축규모 : 구　　조 : 목조
　　층　　별 : 지하, 지상 1, 옥탑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보존상태 : 대보수

德壽宮 돌담길을 끼고 京畿女高 방향으로 넘어가는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도 가장 울창한 숲지대 속에 舘邸는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治外法權 지대라 허락없는 사람의 접근은 절대 금지되고 있다.

貞洞, 領事館의 개설에 대한 기록은 尹致昊의 일기에 처음 나타난다.

尹致昊는 일본에서 Lucicus H. Foote[1] 공사를 만나 그의 영어 통역을 한 바 있었다. 이는 井上 馨, 福澤諭吉의 權告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일본 요꼬하마(橫濱)에서 미국 군함 모노카시호를 타고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공사는 아모 고장 업시 서울에 들어오자 정동에 땅을 얻어 공사관을 개설 하얏소…[2]

미국은 中部 貞洞에 있는 翰林 閔啓鎬判書 소유 私邸를 구입하였는데 그 날은 1883년 5월20일이었다. 이 대지와 건물은 이날부터 미국 정부 소유가 되었던 것이며 새로운 기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3]

…아침에 古愚(金玉均)댁에 가 정동 공사관 가계(집문서)를 얻어다 美國公使에 주다…[4]

이 閔判書의 저택은 조선조 건축양식으로서 이것이 서양인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적응됐는지를 살펴 보는 것은 흥미롭다.

푸트公使가 프래링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한을 보면

… 제가 쓰고있는 公舘은 지은 지도 오랜 韓屋으로 기거와 활동에 매우 불편하며 조정에 가기 위해 실크 해트를 쓰면 대들보가 닿아 모자가 망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 편리한 洋舘으로 짓기를 희망합니다…[5]

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청원에 대해 국무장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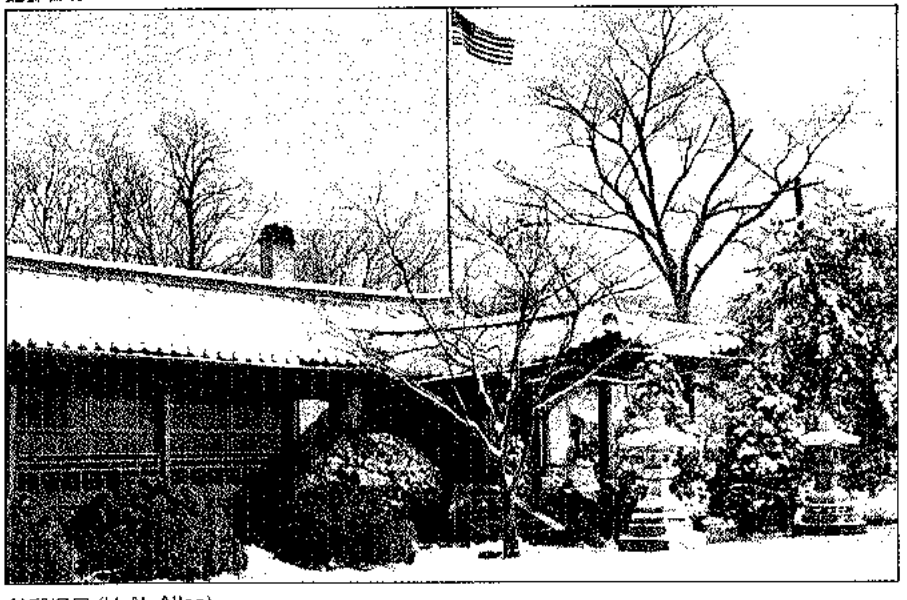
… 내가 알기에는 韓屋이 비록 낮을지 모르나 한국 습관에는 집 안에서 갓을 쓰는 법이 아니랍니다…

라고 점잖게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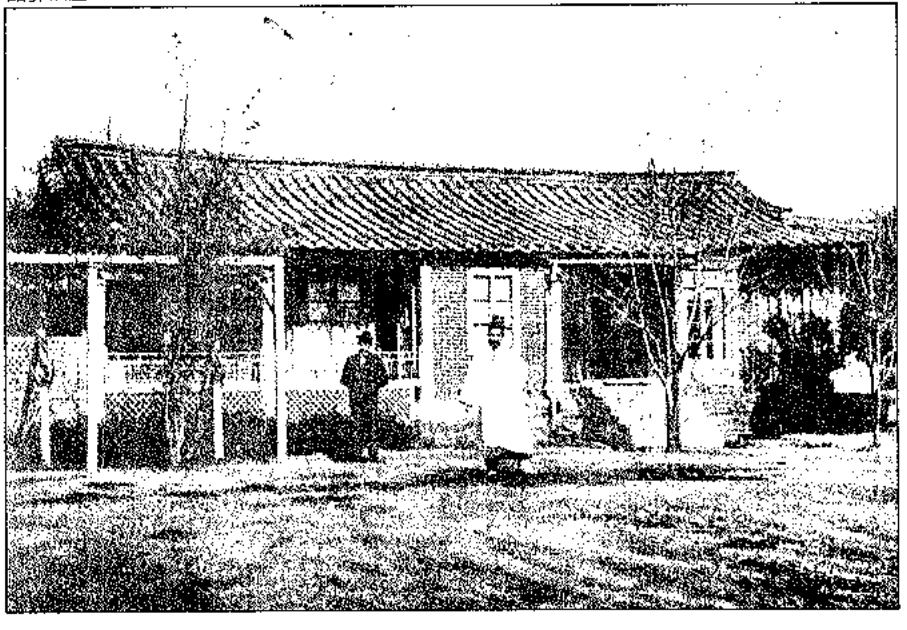
이후 이 官邸에 대해 Allen은 또 다음과 같이 비교적 길게 기록하고 있다.

… 다른 열강들은 각기 한국에서 자기들의 대표자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의 공사관보다 좋은 건물을 갖고 있었다. 우리들은 한때 한국 高官의 집이었던 이상한 모양의 아름다운 방갈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대부분의 공사관들과 새 宮殿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은 넓은 부지와 나무가 우거진 정원에 있었다. 뜰에는 큰 잔디밭이 쭉 뻗쳐 있어서 안락하고 예술적인 거주지를 이루고 있었지만 공사관 건물은 다른 나라가 세운 거대한 공사관 건물에 비교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외교적 대표권의 행사가 끝나고 그 멋있던 공사관 건물들 중의 하나가 공사의 철수와 동시에 팔리고 보니 새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이 잘한 것 같았다. 영국 건물들은 과거 공사에게 쓸만했던 것처럼 지금도 總事의 직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미국의 총영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잘 거처해야 할 것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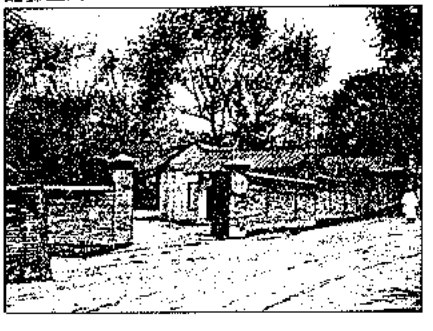
館邸部分



館邸旧屋 (H. N. Allen)



館邸正門



따라서 근대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생명은 지켜지고 보호되어야만 될 것이다.

1) 調査範圍

자료조사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서울 1876~1945)

첫째는, 文獻調査였는데 각종 일반사, 일제시대의 2차 자료, 개별사의 목록, 자료화 작업이었다.

이외에 신문, 잡지류도 참고되었다. 건물은 약 950개가 파일되었다. 이 기본자료를 중심으로

둘째는, 現場調査였다. 현재 원형보존 상태, 파괴, 이전 복원별로 조사했다. 한국근·현대사의 부침이 하도 심해서 건축물도 그 역사에 同列로 따라간 것을 다시 알 수 있었다.

2) 調査分類

조사된 결과는 그 건물의 건축성, 역사성, 장소별로 재분류했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목록은 109개가 되었다. (1차 목록분)

건물별로 재조사를 진행하여 위치, 착공, 준공년월일, 설계, 시공자를 찾아 내고 건축물의 규모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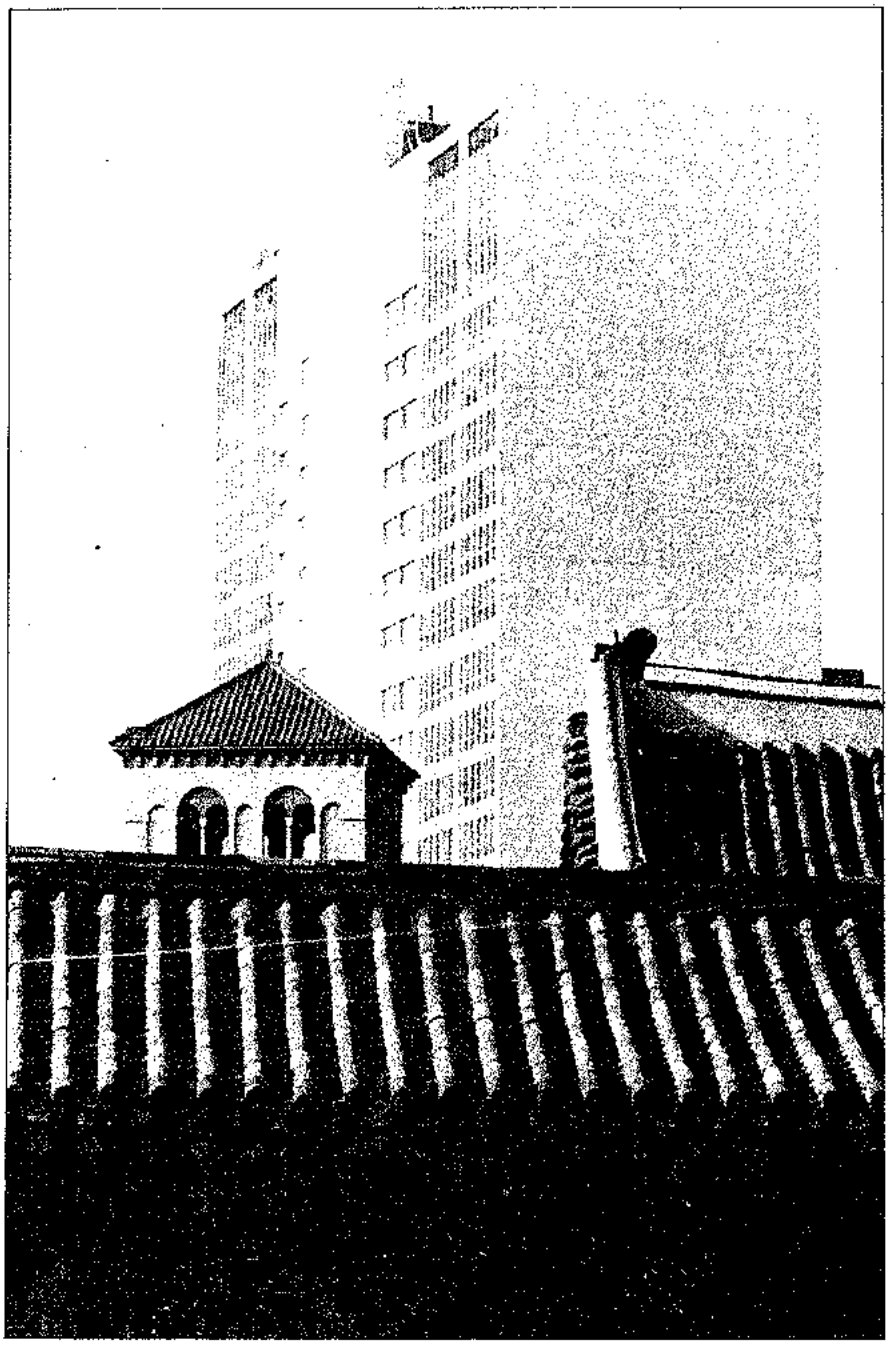
가) 건물은 다시 「年代別」로 분류했다. 준공년도를 중심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 1880년대 : 7개
- 1890년대 : 7개
- 1900년대 : 29개
- 1910년대 : 11개
- 1920년대 : 25개
- 1930년대 : 29개
- 1940년대 : 1개

나) 건물의 「用途別」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관청류 : 22개
- 학교류 : 19개
- 종교류 : 13개
- 금융류 : 12개
- 극장류 : 7개
- 공관류 : 6개
- 병원류 : 6개
- 주택류 : 5개
- 기 타 : 19개

건물의 보존상태 조사도 병행했다. 사진은 b/w 226개, c/1 51개, 도면 51개, 도표 8개를 사용키로 했다. (336종)



韓国近代建築의 상징. 덕수궁 주변

다) 건물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保存狀態」로 나타났다.

- 현존 : 45개
- 원형잃음 : 9개
- 파괴 : 51개
- 이전복원 : 4개

라) 파괴된 연대는 다음과 같다(51개 건물대상).

- 일제하 : 8개
- 8·15전후 : 1개
- 6·25동란 : 4개
- 4·19전후 : 8개
- 5·16이후 : 9개
- 1970년대 : 16개
- 1980년대 : 5개(화신백화점 포함)

3) 綜合

준공년도와 보존상태의 종합표는 다음과 같았다.

| 년대 | 준공 | 현존 | 원형잃음 | 파괴 | 이전복원 |
|---|---|---|---|---|---|
| 1880 | 7 | 3 | 1 | 3 | |
| 1890 | 7 | 3 | | 3 | 1 |
| 1900 | 29 | 7 | 4 | 16 | 2 |
| 1910 | 11 | 2 | | 8 | 1 |
| 1920 | 25 | 14 | 1 | 10 | |
| 1930 | 29 | 16 | 3 | 10 | |
| 1940 | 1 | | | 1 | |
| 계 | 109 | 45 | 9 | 51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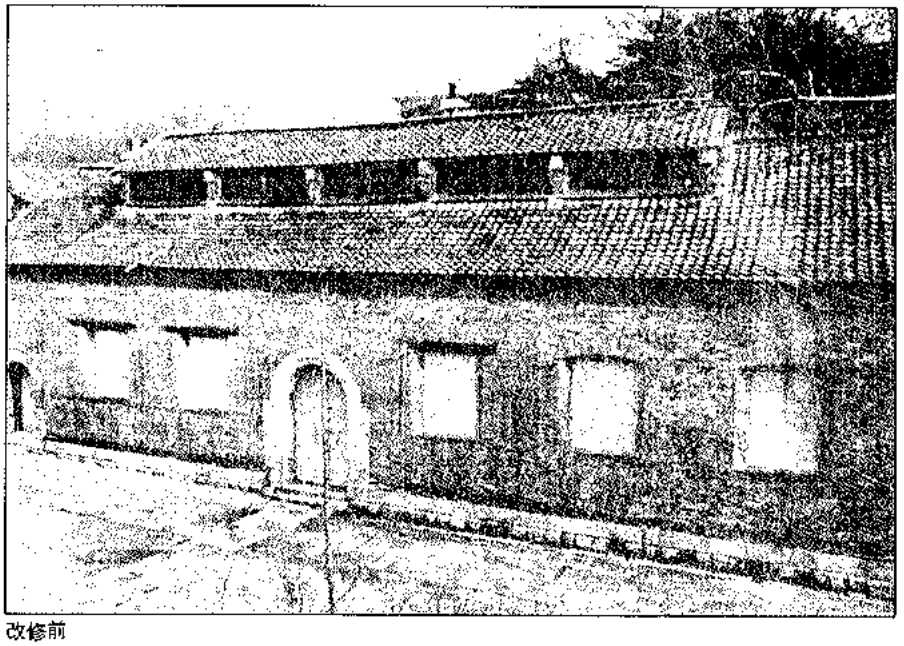
이후 미공사관저는 그 기능을 다해 나갔다. 한 때는 외국인의 체류 장소로 쓰이고 방문객들의 정류소 역할도 했다. 오늘의 美國大使館邸가 되기까지 이 건물은 8차에 걸친 보수, 확장 공사를 거듭했고 1976년 관저를 대수리, 외관은 그대로 純 韓式 기와집이지만 내부는 洋式으로 바꿨다.
이때 마당을 파고 慶州 鮑石亭을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나 관저 외에 閔啓鎬의 집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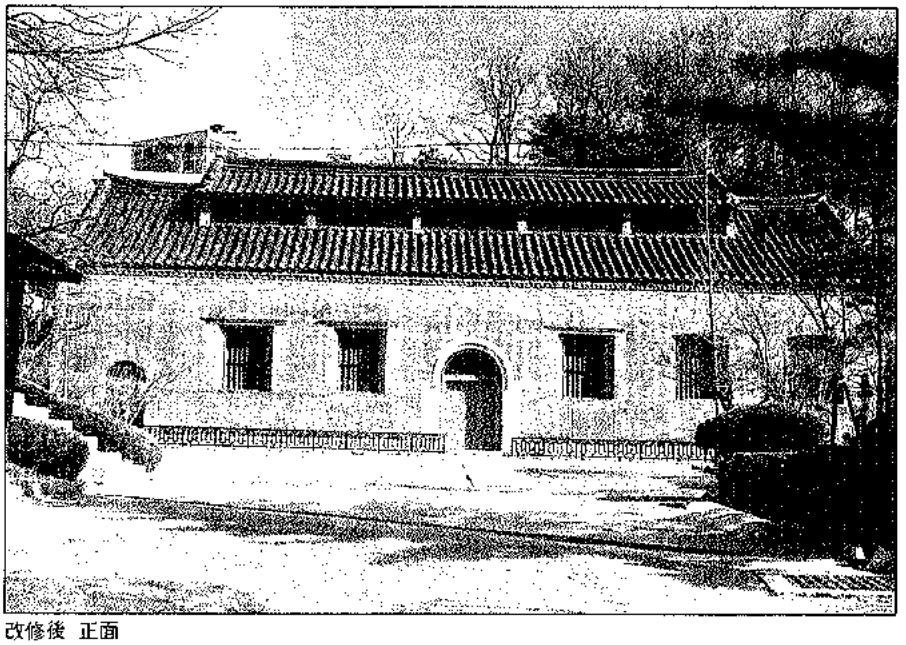
## 2. 飜沙廠

위치 : 삼청동 28－1
착공년월일 : 1883. 5
준공년월일 : 고종 21년(1884. 5 . 16)
설계자 : 金明均(?)
시공자 : 袁榮燦(중국인)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석조
층별 : 지하, 지상 1, 옥탑
대지면적 : 5,710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75평
보존상태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호(1982)

1881년 7월 領選使 金允植이 인솔하는 青年 學徒들이 清國의 권고에 따라 天津에 파견되었다. 이들의 주임무는 新式機器의 학습에 있었다. 유학생은 38명이며 20명이 공학도, 18명이 工匠이었다. 그들은 청국에 건설되고 있는 學堂(水雷學堂, 水師學堂)과 工場(天津機器廠)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도법과 화본에 의한 모형제조법 등을 배웠고[1] 돌아올 때 科學書籍 機器의 형, 설계도를 기증받았고 기기를 구입했다. 이때 4인의 天津 工匠(技師)들도 함께 들어왔다.
이때 이 땅에는 실학과 개화 의식이 움터 나올 무렵이었다.

… 1883년 3월 從事官 金明均이 천진의 공장인 袁榮燦등 네명을 고용으로 데려와서 5월에 서울의 三清洞 北倉에 機器局을 설치하고 金允植, 朴定陽, 尹泰駿, 李祖淵을 總辦에 具德喜, 白樂倫, 安鼎玉, 金明均을 幫辦에 각각 임명하여 함께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8월에 김명균이 烟臺(煙臺, 芝罘)에 갔다가 上海 驗取所까지 가서 기기를 구입하여 수선에 싣고 왔는데, 그 때가지 창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工徒들을 독려하여 벽돌과 돌을 쌓게 하였다.
세워진 廠舍에는 모래 뒤치는 곳, 쇠붙이 불리는 곳, 木樣 만드는 곳, 銅冒 만드는 곳, 그리고 庫房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工匠 10여명이 本地의 공장들을 교습시켰는데 이들은 고용해 온 사람들이다. 지금 뮐렌도르프가 사 온 機器도 바로 그 廠舍에 쓸 것이다. 이 일을 자기 일처럼 끝까지 주선한 사람은 津海의 道臺 周馥이다…[2]


改修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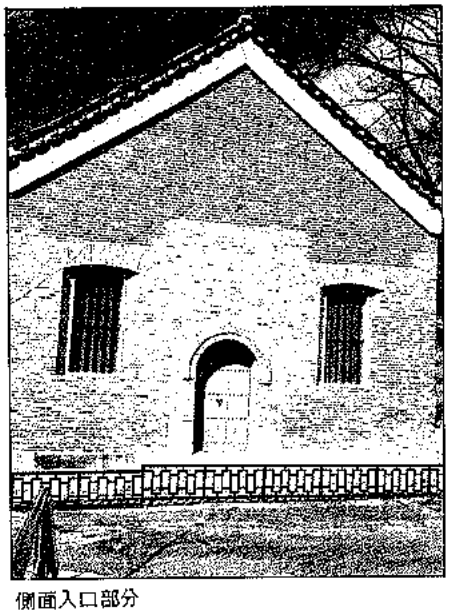

改修後 正面

이 건물은 이후 오랜 세월 잊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하잘것 없는 헛간 창고로 보였던 것이다.
「機器廠」 혹은 「兵器庫」라고만 알려져 왔던 이 건물은 그후 100년이 지난 1984년 5월31일 개수작업 도중 대들보 속에서 그 上梁文이 발견되었던 것이다.[3]
이 상량문에는

… 엎드려 생각컨데 武器를 저장코자 터전을 盤石 위에 정하고 쇠를 부어 흙과 합쳐 건물을 지으니 이를 번사창(飜沙廠)[4]이라 하였다…[5]
「번사창」의 유래를 말하고 이어
… 칼, 창 등 精銳한 武器를 제조, 수선, 보관하는 건물은 기예의 으뜸가는 수준으로 지어져야 함…[6]

을 지적해 놓고 있다.
機器局 소속의 飜沙廠(Armory)은 三清洞의 北倉에 세워진 것이다.
공사는 1884년 5월16일에 준공되었다. 착공(1883년 5월, 추정) 1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공기가 비교적 오래 걸린 것은 그 내부의 기기 시설 설치 등 기술적인 문제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본 건물은 검은 벽돌과

正面入口部分



側面入口部分

石造로 지어졌다.
본체는 長台石과 四塊石으로 土台를 만들고 그 위에 검은색 벽돌을 사용, 벽체를 쌓았다. 또한 붉은 벽돌로 견치형의 띠를 둘렀다. 基壇部와 Arch 문은 석조로 돌렸다. 특히 정문은 화강암으로 만들고 측면문은 붉은색 벽돌로 띠를 넣어 장식하였다. 지붕은 왕대공 지붕틀을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 놓아 맞배지붕으로 하고 그 위에 기와를 올렸다.
대지 5,710평에 건평은 75평에 불과했다. 소규모 공장 건물이었다.
지붕은 高窓을 두어 들어 올렸는데 (Clearstory) 이는 건물이 공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熱·換気·관리를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한국 최초의 본격적 공장 건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이다.
건물의 樣式 자체도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을 절충하여 지음으로써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상량문에는 25명의 건립 위원과 11명의 기술자가 참여한 것으로 적혀 있다.
1984년 4월 解體保修한 바 있다. 이때 벽면과 지붕 창문 등은 모두 개수되었다.
현재 이 건물은 韓國金融硏修院 부지 안에 있다(한국은행 소유, 1982년 서울市 有形文化財 제51호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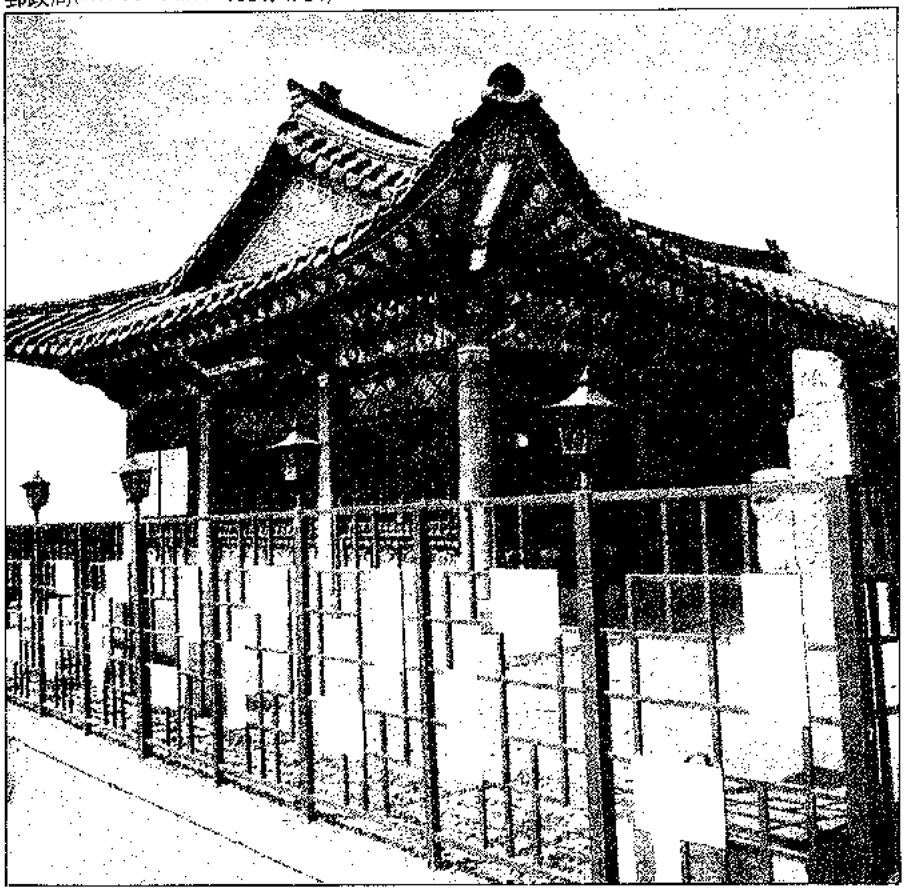
## 3. 郵政局

위치 : 견지동 39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884. 3. 27
설계자 :
시공자 :
건축규모 : 구조 : 목조
층별 : 지하, 지상 1, 옥탑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보존상태 : 史蹟 제213호(1970. 10. 30)
遞信記念館

우정국은 甲申政變이 일어난 혁명적 장소로 더 알려져 있다.
이 건물은 「郵征総局」이라고도 불리어졌다. 원래는 근대식 우편제도를 처음 국내에 도입한 개화기의 한 상징물이었다. 郵政局은 1884년 3월 27일 설립되었다.
개화파들은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대식 우편 제도를 도입키로 했던 것이다. 그것은 국내 우편보다 오히려 국제우편 제도의 도입에 목적이 있었다.
초대 總辦에는 洪英植이 임명되었다.
건물은 典洞 典匠監址에 세워졌다.[1]
기록에는 없으나 건물은 여러棟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 바 直說的 復古主義(Straight Revivalism) 건물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尹致昊의 일기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우정국 앞에는 개천이 있었고 그 개천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다.
1884년 12월 4일(목요일) 그 자리에서 역사적인 개국 연회는 열렸다.

… 저녁 7시에 美國公使, 書記와 우정국으로가 연회에 참석하다. 座首는 洪英植, 上客은 푸트, 座右는 金弘集이었고 나머지는 金玉均, 徐光範, 朴泳孝, 閔泳翊, 韓圭稷, 李祖淵, 閔丙奭, 木人德, 아스톤, 島村 久, 스카더(司各德, Charles L. Scudder) 川上立一郎이 차례에 따라 좌우로 줄지어 앉았다. 나는 푸트公 다음에 있었다.

郵政局(Korea times. 1984. 4. 24)



저녁 연회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이 후면에서 불이 일어났음을 알리었다. 좌석들이 일어나 보매 傳洞 근처에서 화염이 자못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았다…[2]

이날 일어난 사건을 開化黨의 甲申政變이라 부르는데 이 건물은 이로써 건축外的 가치를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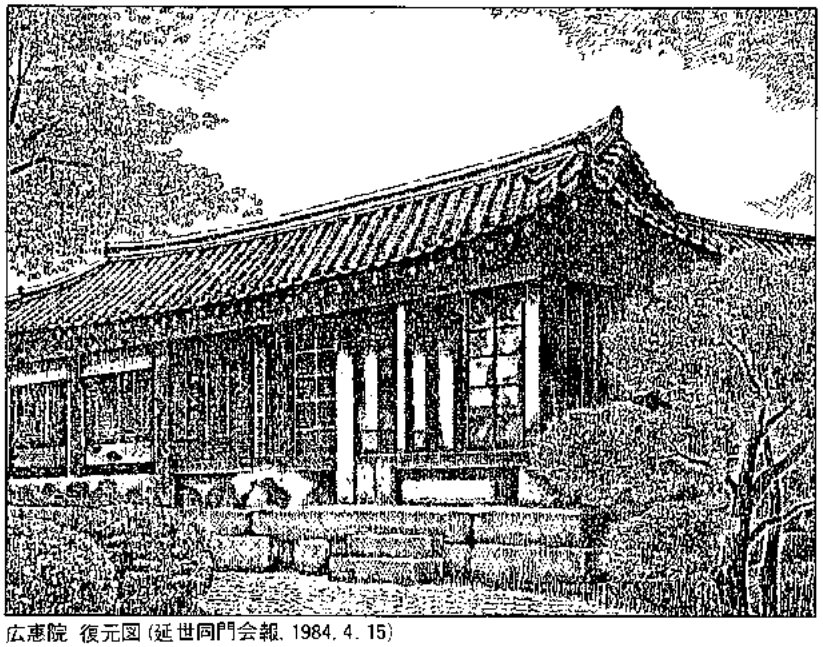
정변이 실패한 후 우정국은 파괴되었고 그 기구는 폐지되어 버렸다. 이 당시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

… 우정국은 내가 받은 우편물과 함께 파괴되었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은 우체 업무와 같은 세계적인 기구를 용이하게 방해할 수는 없었다. 파괴된 우정국의 뒤를 이어 그 보다 더 훌륭한 우체국의 건립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우표 수집가들을 위해 수종의 우표가 발행되었고 근대화 과정에 역행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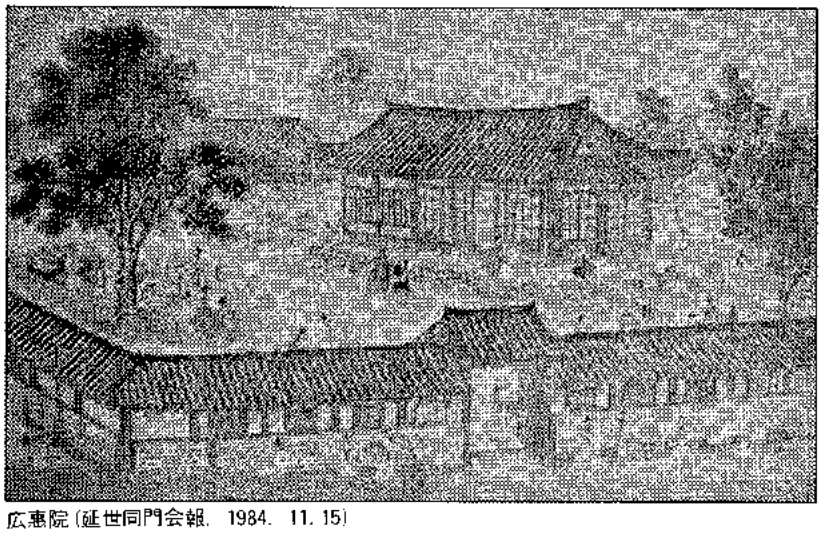
개화 주도자의 의식과 미국인의 인식상의 큰 격차에 새삼 현재를 느끼게 한다.

어쨌든 그 이후 이 장소에는 漢語學校가 들어서기도 했고, 이어 中東學校가 사용하기도 했다.

1970년 史蹟으로 지정되었고 체신부가 인수, 현재의 遞信記念館으로 전용되고 있다.[4]



広惠院 復元図 (延世同門会報, 1984. 4. 15)



広惠院 (延世同門会報, 1984. 11. 15)

## 4. 廣惠院

위치 : 齊洞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고종 22년(1885. 2. 29)
설계자 :
시공자 :
건축규모 : 구조 : 단층팔작집, 목조
층별 : 지하, 지상 1, 옥탑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43.3평
보존상태 : 복원(延世大學校 區內)

1885년 2월29일에 문을 열은 우리나라 최초의 王立 西洋式 病院이었다.[1] (양력은 4월10일)

이 건물은 아직 Hospital이란 명칭은 쓰지 않았으나, 개화기 病院史의 첫 장을 기록하는 값진 장소성이 있는 것이다.

광혜원의 개원 1년 전인 1884년 9월 서울에 들어온 美國北長老教派의 의사이며 선교사인 安連(Allen)[2]은 1884년 발생한 甲申政變으로 인해 하나의 찬스를 얻게 되었다. 즉 郵政局에서 벌어진 이 정변에서 閔泳穆, 閔台鎬 등 大臣 6명은 피살되고 明成皇后 閔氏의 조카인 閔泳翊은 중상을 입게 되었다.

Allen은 그때 그 閔泳翊을 新醫術로 치료하여 목숨을 살려 주었다. 이에 高宗은 그 댓가로 이 현대식 병원을 세워주고 그에게 운영을 맡겼다. 병원 건물은 종로구 齊洞에 있던 李允用의 집을 개수한 것이었다.[3]

이에 대한 기록은 Allen의 의학노트에 남아 있다.

… 나는 환자들을 만나보고 치료할 건물을 요청하였으며 그 요청이 윤허되어 건물 한 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 병원의 이름은 임금님이 濟衆院이라 명명하였다. 그 건물은 갑신정변 때 암살된 관리 중의 한 사람의 주택이었다. 우리가 그 집으로 입주했을 때는 방마다 핏자국이 있었다. 그 집을 잘 수리하였더니 환자들이 수백명씩 몰려 왔고 최초의 한 해 동안에 1만명 이상을 치료하였다. …[4]

광혜원은 현재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재적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도면(그림)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면,

길가 쪽의 외주를 돌아 가면서 행랑채(문지기집)를 끼고 있는 솟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서면 우측으로 본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단층 팔작(합각) 지붕의 이 한옥 기와집은 건평 43.3평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비교적 적은 규모였다(복원자료는 측면이 4칸, 지하 17.49평, 지상 42.9평, 계 60.39평이다).

이 광혜원은 제중원으로 개명한 후로도 대중들의 구제를 위해 봉사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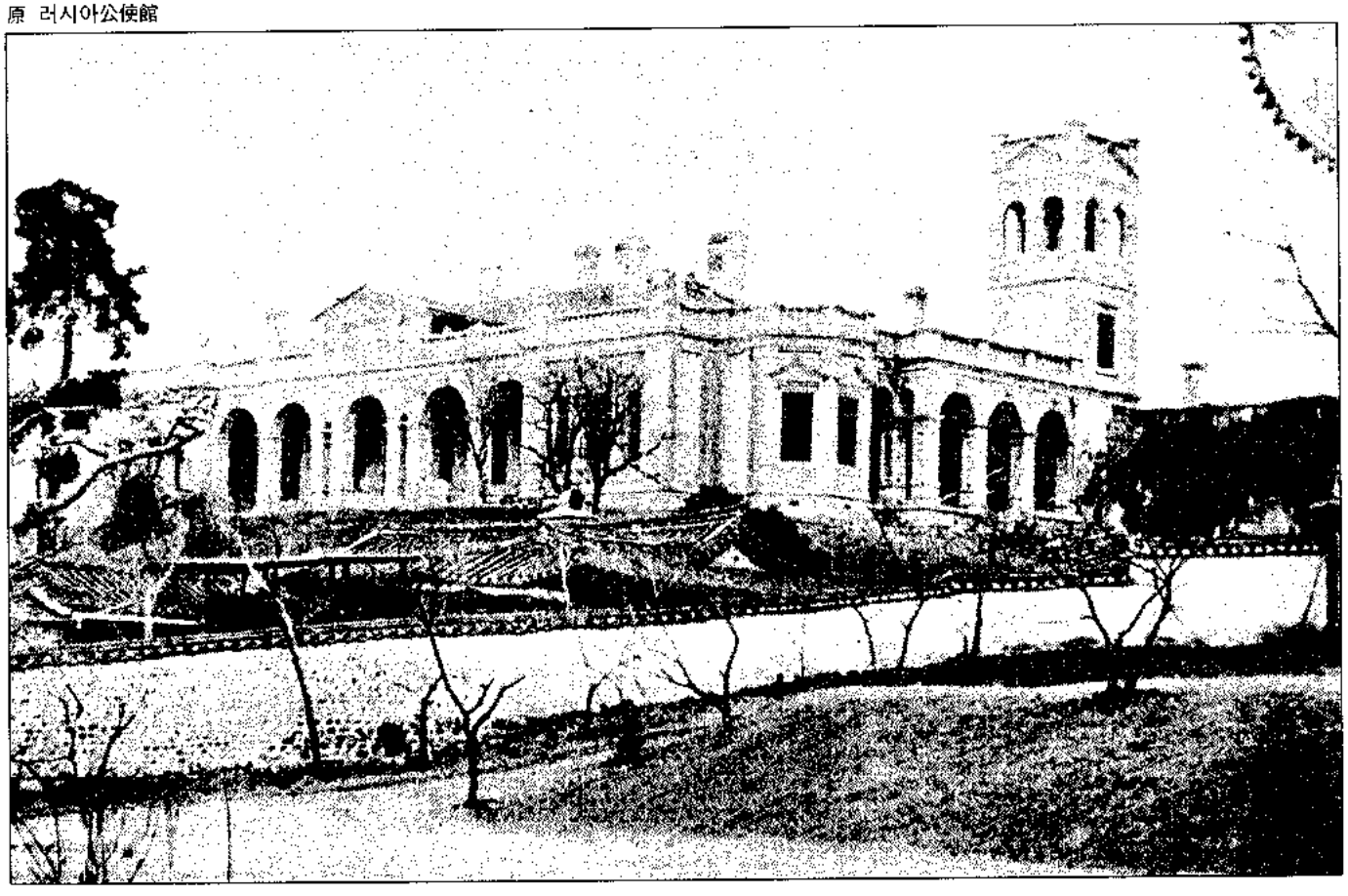
그러나 이 병원은 원래 王立病院이어서 인지 정부 관리들과 양반 계급이 많이 몰려들어 1890년에 개원한 施病院보다는 귀족적인 병원이었다.
광혜원은 1904년 11월 16일 세브란스병원이 개원됨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 나갔다.[6]

## 5. 러시아 공사관

위치 : 정동 15번지 일대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885.
설계자 : Sabatine(러시아)
시공자 :
건축규모 : 구조 : 석재+벽돌조
층별 : 지하 1, 지상 1, 탑부 3
대지면적 : 6,800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평
보존상태 : 史蹟 제253호(1977)

언제나 公使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에 위세좋게 세워진다.
러시아 공사관 역시 덕수궁 서쪽 담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하얀 白塔을 쌓아 올려 高宗의 王宮을 은연중 감시하였다.
1896년 俄館播遷의 비극 즉, 타국 공사관 집정이라는 오욕의 역사도 결국은 러시아 공사관의 장소성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1]
韓露修好條約이 비준된 것은 1885년이다.
러시아 공사관은 그 직후에 세워졌다.
이에 대한 기록은 尹致昊의 일기가 가장 근거있는 것이다.
尹致昊는 上海 Creterion Hotel에서 前駐韓美代理公使 Foulk를 만났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개화당과 각국 사정에 관해서 토론했다.
Faulk는 대화 중
… 러시아 공사가 사천원을 들여 그 공관을 지었다…[2]고 말했다.
이미 Russian Legation은 정동 일대 高地帶에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었다. 정동에 자리잡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공사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技師인 세레덴사바틴(Sabatine)이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건물이 제정 러시아 르네상스 양식이었기에 이의가 없는 것이다.[3]
전체적으로는 석재와 벽돌을 혼용했다.
러시아 공사관의 본관 건물은 사진으로만 몇장 남아 있는데 單層 丁字 건물이었다.
정면과 측면은 Arch Arcade로 둘러 쌓았고 정면에는 Pediment를 붙여 놨다.
공관의 핵심은 탑부에 있다. 공관은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고 탑부는 3층이었지만 서울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었다.
塔의 1層은 本館과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했고, 2층은 Arch 창 한개로 단순히 처리했다.[4]
高宗은 그렇게 큰 공사관의 건물 중에서 제일 좋은 방에 머물렀다고[5]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호화스럽게 실내장식 된 고종의 거실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
커튼, 벽지, 바닥재, 실내등은 화려했고 침대, 소파, 의자류도 帝政 러시아의 수입 家具들로 채워졌다.
또한 공사관의 지하에는 密室과 秘密 通路를 마련해 두었다.
서울시는 1981년 문화재관리국과 공동으로 공사관 유적에 대한 발굴 작업에 착수, 공사관 동북쪽 120m 거리의 지하 3m 지점에서 地下通路와 密室을 발굴해 냈다.
地下密室은 7×4m의 장방형 평면을 갖고 돌과 붉은 벽돌로 조적되어 있었다. 또 이 지하 밀실과 공사관 그리고 탑은 비밀 통로로 서로 이어졌는데 폭은 45cm정도로 매우 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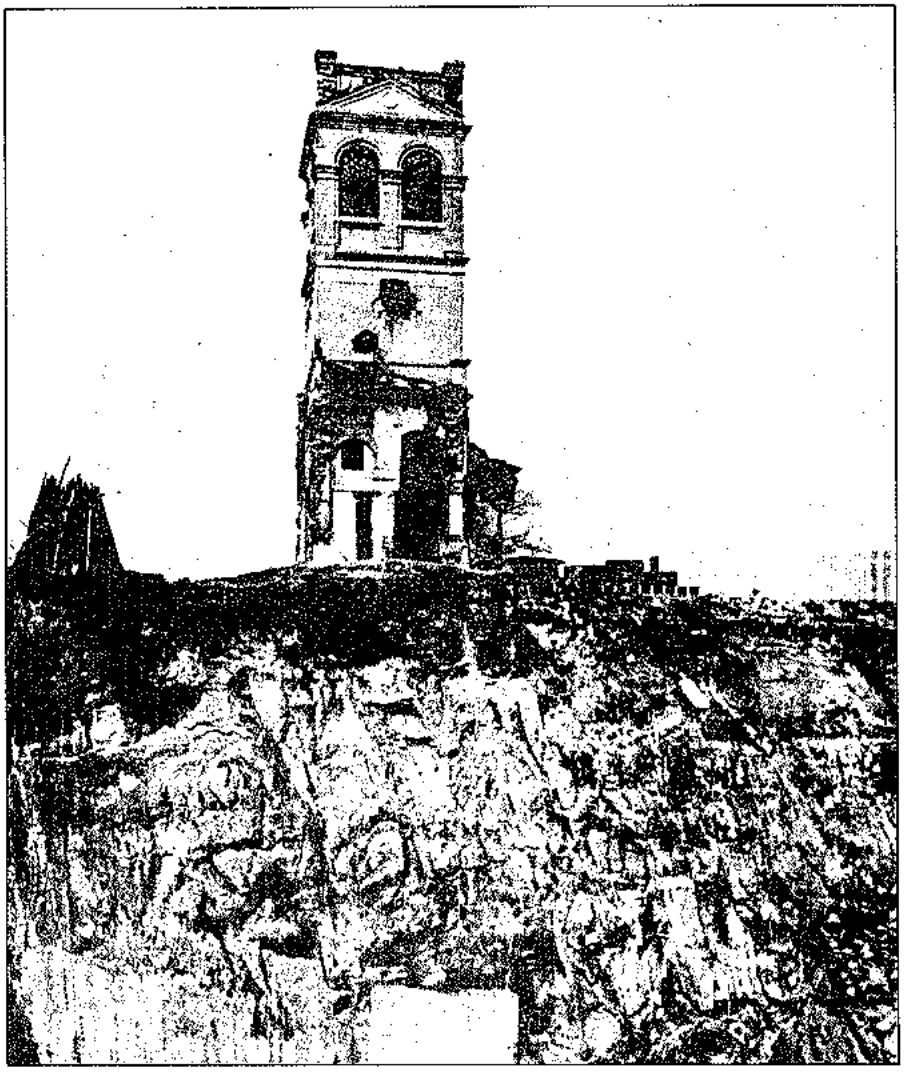
原 러시아公使館



高宗이 居処하던 俄館(러시아公使館)의 屋室(韓国史大系)

것이었다. 그 길이는 20.3m였다.
통로의 중간 지점은 폭 50cm, 길이 5m로 확장시켜 놓고 있다. 이는 통행인이 시급히 왕복할 때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통로는 下部는 45cm, 上部는 1m로 V자형을 취하고 있다. 벽은 벽돌로, 바닥은 재래식의 석회 다짐으로 하였다.
이 秘密 地下 施設은 공사관 신축시 이미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통로 외에도 지상으로는 공사관과 덕수궁으로 통하는 지상구름다리(虹橋)가 가설되기도 했었다.[6]
또한 1896년에 촬영된 사진 자료에서 보면 러시아 공사관의 初入(正門?)에는 한국 최초로 개선문 형식의 Arch 문이 세워졌었다.[7]
이 벽돌조의 문은 정면과 측면 모두 4면을 Arch로 open시켜 놓고 있는데 Rusia의 개선문을 Copy한 형식이었던 것 같다.
Arch 출입문은 1개만 두었고 이 Arch 문으로 부터 공사관 부지의 경계 담장이 시작되었다.
이 개선문도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후 서대문에 독립문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도 이 Arch문에서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공사관은 6.25 당시에 대파되어 본관 건물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탑부는 2층만 남았다.
또한 지하 시설은 황폐된 채로 묻혀 있었다.
1973년 3월 탑은 현재의 상태로 복원되었고 1977년 그 역사성으로 인해 史蹟으로 再指定되었다.[8]
1981년 10월 재보수, 주변 조경을 했다. 이제 영역은 반 이상으로 줄었으나[9] 1890년대의 정치 현장은 시민 공원으로 재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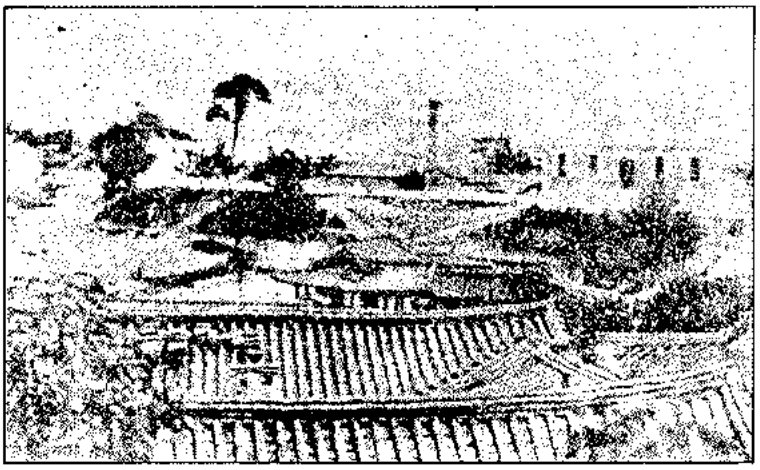
6·25로 파괴된 公使館(韓国史大系)



## 6. 培材學堂

위치 : 貞洞 34번지 일대
착공년월일 : 1887.
준공년월일 : 1887. 9.
설계자 : T 요시자와(吉澤)
시공자 : 沈宜錫+金德甫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하 半, 지상 1, 옥탑
대지면적 : 8,920 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100평
보존상태 : 1932년 헐림, 복원 예정

美國 北監理教會 소속 목사 H.G. Appenzeller는 1885년 4월 來韓하였다. 그는 7월 서울에 들어와 培材學堂(paejae school)을 설립했다. (8월 3일) 학당 교사는 W.B. Scranton의 소개로 구입한 한옥 한 채를 우선 사용했다. 두 칸 벽을 헐고 校室 하나를 만들었다. 처음 교육은 영어, 한문, 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校勢가 늘어나자 韓屋 校舍도 확장 되었다.



培材学堂 주변 (조선일보 50年史)

… 그리하여 貞洞 34번지 현재 학교가 깔고 앉아 있는 교문 수위실 뒷자리에 있던 金奉石이라는 사람의 기와집 100평과 대지 100평을 그때 돈 520냥 미화로는 388불을 주고 사들여서 개축 수리하여 가지고 교실을 옮겨다 놓았다. 그러나 학생의 수는 늘어가고 교실이 좁으므로 그 부근에 있는 초가집과 기와집과 향나무(지금의 東校舍 옆) 까지 겸쳐서 3000냥을 주고 사들여서 수리를 하여 교실을 분산시켜 놓고 수업을 하게 되었다…[1]

학당이 자리를 잡아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보다 크고 편리한 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Appenzeller는 1887년에 들어서면서 이 해에는 두 가지 꿈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 꿈의 하나는 이 땅 위에 처음인 양옥으로 된 학교건물을 세우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학생은 있어도 신식 학교다운 건물은 없었다…[2]

배재학당의 서양식 신교사는 이렇게 하여 세워지게 되었다.

… 1887년 監理教 본부의 경비와 "미국인이 韓國에 주는 膳物"로 지어진 아름다운 벽돌 건물이 봉헌되었다. 그것은 길고 낮은 단층 건물로서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벽돌 건물이었다. 물론 높게 할 수가 없었으니, 높은 건물은 왕국에 외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그 건물이 왕으로부터 품팔이꾼까지의 모든 한국인이 살고 있는 나지막한 전통적 건물보다 더 높았더라면, 그것은 한국의 예절 관념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 이후 정부로 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며 이것은 190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일본인 T 요시자와(吉澤)씨 였다…[3]

이 신교사는 1887년 계획되었다. 공사는 시작되었다. 이때의 공사풍속도가 아펜젤러에 의해 기록되었다.

… 배재학당의 기초를 파면서 일꾼들은 땅 속에 숨어있는 유령과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편없이 떨고 있었다. 사람들을 집에 질리게 했던 것 중에는 또 옛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誌石이 있었다. 아펜젤러는 그 땅에서 지석을 치운 뒤 이것을 역사적 유물로서 간직하였다.…[4]

신교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 1887년 9월 완공되었다.[5]

완공까지 과정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참여했다. 이 과정을 「培材史」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아펜젤러 교장이 인천항에 상륙하였을 때 한국 사람으로서 맨 먼저 알게 된 분이 宋憲成씨인데 어학교사로도 있었으며 무척 친한 편이었고 강당 신축공사의 감독은 송헌성씨가(아펜젤러를 도와 맡아) 하였으며 그때의 도편수 심의석씨가 맡아서 지었다. 이 沈宣錫씨 밑에서 金德甫라는 목수가 있었으며 심의석씨는 배재 강당을 지은 인연으로 하여서 후에 內務衙門 技師가 되었다…[6]

반지하실은 학생들의 技術 訓練을 위한 産業部의 공장이 들어갔다.[7]

이 교사는 직사각형 평면에 현관부를 강조한 단순한 건물이지만, 기단을 두어 (그 기단은 반지하실을 이용한 것이다) 통풍구를 배치한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Context를 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관부는 계단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교실측에는 6개의 비교적 크고 긴 철재 창을 내어 건물에 空間感을 확대시켰다.

현관부는 양측에 수직 돌기둥을 지붕면까지 세우고 그 중앙에 큰 석재 Arch를 중심으로 左右로 작은 双 Arch를 연결 변화감을 주었다.

지붕은 모임기와지붕[8]으로 안정감 있는 스로프를 주었고 정면부의 변형된 時計부착 Pediment가 지붕면의 단조로움을 깨고 있다.

추녀까지의 지붕처마 Parapet 부분은 넓은 철판을 접어 돌리고 일정한 간격의 별모양의 쇠장식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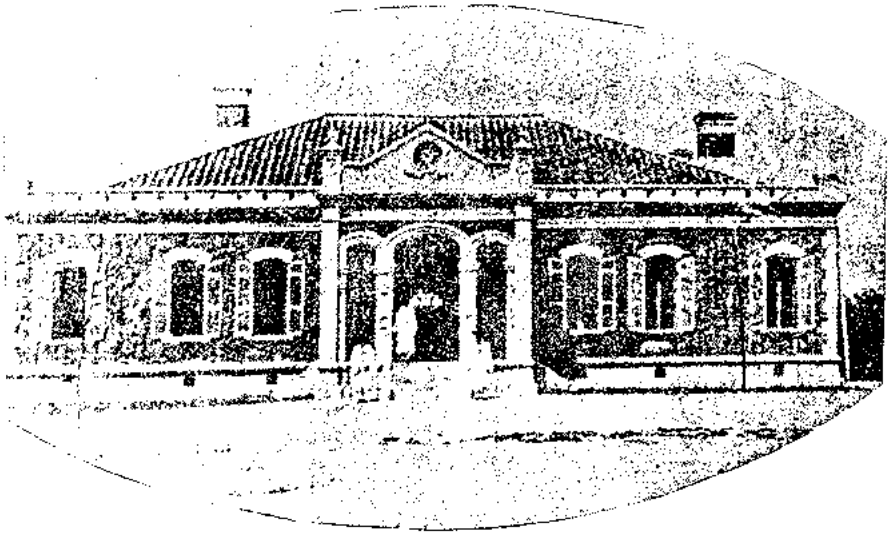
현관외에 후면, 좌우면에도 입구를 두어 학생들의 출입 편의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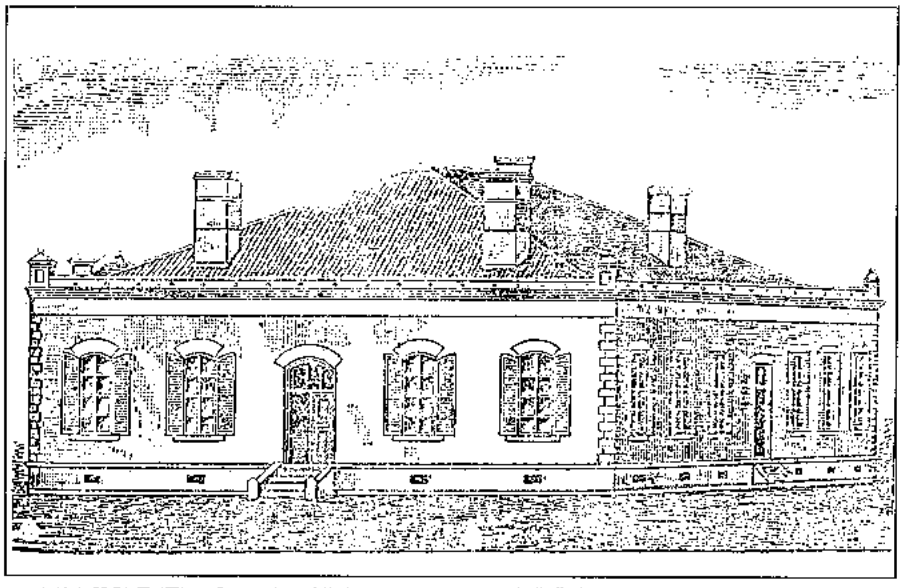
4면 모서리는 석재를 깍지 끼어 쌓아 구조의 완벽성을 기했다. 교사는 서구식으로 설계되었으나 분위기는

신교사는 반지하 1층 지상 1층의 76×52feet 크기를 갖는 벽돌조 건물로 세워졌다. 한국 최초의 미션 계풍의 Renaissance Style로 세워졌다.

교사는 禮拜室이 1개, 교실이 4개, 그리고 図書室, 學堂長室, 事務室이 들어섰다.

培材学堂 校舍 (培材史)





培材学堂設計図 (The Gospelia All Landr, 1890. 3. 아펜젤러)

한국적 정갈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신교사가 계획될 즈음 高宗 皇帝는 「培材學堂」이란 당호를 하사하였다.[9]
이 신교사에서의 수업은 1887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이전의 구교사는 기숙사로 개조되었다.[10]
그러나 이 교사는 1932년 헐리게 되었다. 새로운 대강당이 이 교사가 헐린 자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1932. 9. 20~1935. 5. 30)
1984년에는 培材高校가 江東으로 이전했다.[11] (배재는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이 원교사를 복원할 예정)

**参考文献**


1) 美国領事館 館邸

1. 韓美條約은 1882. 5 체결되었고 Foote는 1883. 4. 10 韓美修好條約의 비준교환을 위해 일단 입경했다. 그때 P. G. von Möllendorff(獨)의 집에 머무르며 公使館邸를 물색한 듯하다.
2. 「尹致昊, 國韓文日記」 P. 342(東亞日報, 1930. 1. 12, 外務衙門에 奉職).
3. 「京城府史」, 제2권, P. 81.
4. 1884. 10. 16, 우리나라 역사상 국내 재산을 외국인에게 팔은 최초의 문서 원본은 현재의 대사관저에 전시되어 있다(林然哲, "韓美百年", 東亞日報, 1981. 12. 12).
5. 앞글
東亞日報, 캘리포니아대학의 팔마교수가 자신의 저서 「韓美關係」에서 밝힌 기록.
6. Allen, 「朝鮮見聞記」, 博英社, 1979, P. 256.

2) 濯沙廠

1. 졸고, "韓國近代建築의 生成過程에 關한 研究", 弘大院, 1982, P. 13.
2. 「尹致昊日記」, 1883. 10. 31(음 10. 1). 탐구당, 1975.
3. 李成洙, 경향신문, 1984. 6. 9 기사(司事 李應翼이 씀)
4. 칼과 창을 만드는 工場이라는 뜻. 단순한 兵器庫는 아니다. 機器局은 1883년 설립되었다("번사"라는 말의 뜻은 흙으로 만든 鑄型에 금속용액을 부어 주조하는 것)
5. 6. 上梁文

3) 郵政局

1. 일본인 澤浦 소유 貸家, 「京城便覽」, 1929, P. 28.
2. 「尹致昊 日記」, 1884. 12. 4.
3. 알렌, 앞책, P. 63.
4. 「文化財」, 제5호, 1971. 2. 25, 문화재 관리국.

4) 広恵院

1. 영문 명칭은 House of Civilized Virtue 혹은 House of Extended Grace.
2. Horae N. Allen(1858~1932)은 美國公使이나 総領事이기도 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될 때까지(1905년) 典醫로 한국에 있었다.
3. 전 日德女高 기숙사 자리. 한달 우정국장 洪英植의 집이라는 설도 있다.
4. Allen, 앞책, P. P. 200~201, 여기서 말하는 濟衆院은 廣恵院이다.
5. 1887년 銅峴(구리개 : 明洞聖堂入口反対쪽, YWCA 바로 옆이며 中央劇場 뒤쪽)으로 옮겼다. 1885. 3. 12 개명, 「貞信75년사」, P. 43.
6. 이 병원이 王立病院이었던 점으로 인해 서울대학병원과 정통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어쨌든 연세대학교는 다시 이 병원을 연대교정(루스채플 앞 수정궁터) 내에 복원(1986년 1월 고려대 朱南哲 교수에 의해 복원설계 되었다) 봉헌했다. 정자각(39평), 비각(4.49평), 담장(100m)도 복구되었다. (1987. 4. 10)

5) 러시아 公使館

1. 1896. 2. 11 아침 7시 왕은 宮女服으로 갈아 입고 王世子, 宮女들과 함께 공사관으로 들어갔다. 1년 전인 1897. 2. 20 다시 德壽宮으로 돌아왔다. (H. B. 헐버트, 「大韓帝國滅亡史」, 申福龍(譯), 평민사, 1984. P. 151).
2. 「尹致昊日記」, 1886. 7. 12.
3. Sabatine은 1895년 10월에 궁중에서 미국인 Dye장군과 함께 閔妃 시해(乙未事變)를 목격하기도 했다.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생활」, 김 철(역), 뿌리깊은나무, 1984, P. 138). 1896~1897년 독립문도 설계했다.
4. 현재는 수리 공사중 막아버린 상태로 되었으나 원상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5. H. B. 헐버트, P. 151.
F. A. 맥켄지, 「대한제국의 悲劇」, 1980. P. 103.
6. 金明守, "이관에 지하통로 있었다(金周泰의 見解)", 경향신문, 1981. 10. 16.
7. 「First Encounters: Korea 1880~1910」, Underwood外, 1982, P. 29.
8. 1973년에는 서울시 地方有形文化財, 제3호로 지정. 1977년 9월에는 史蹟 제253호로 재지정.
9. 현재는 2,500평(8,230㎡)

6) 培材学堂

1. 「培材史」, 1955. P. P. 48~49, 당시는 한성부 서부 皇華坊으로서 安驥泳 소유 又一社자리, 교문 맞은 편에 있었으나 헐렸다.
2. 「정동제일교회구삼년사」, 1977, P. 61.
3. 「아펜젤러」, 이만열(편), 1985, P. 188.
4. 앞 책 P. 288.
5. 대부분의 기록은 1886년 준공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인 아펜젤러의 기록이 맞는 것이다.
6. 「培材史」, P. 92.
7. 産業部를 둔 것은 한국인들이 육체 노동을 천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노동의 숭고함을 고취시키려는 때문이었다. (「아펜젤러」, P. 477).
8. 수리, 개축시에 양철지붕으로 대치.
9. 高宗23년(1886. 6. 8),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10. 「아펜젤러」, P. 331과 「배재사」, P. P. 92~93.
11. 1984. 2 강동구 명일동산30으로 이전했다. 이전 사유는 주위에 법원이 있어 교육상 나쁘고 자동차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교사중 서관(1923. 3)은 이전 복원되었고 대강당, 동관, 도서관은 치안본부에서 임대 사용해 왔다(1986. 6까지). 정동 교지 8,920평 중 운동장 4,700평은 코오롱그룹에 매각되었다. (1982. 2).
旧校舎중 일부는 현재 教育新報 문화센터와 관광쇼핑센터 등으로 쓰이고 있다.

# 나의 집

趙鼎權

내게 소망이 있다면
해인사같이
母性을 느낄 수 있는 방 하나를 갖는 것.

햇빛을 포근히 담아 숨겨주는
窓戶를 하나 내
韓紙같은 마음 붓끝에 오롯이 모우고
생각의 벼이삭을 익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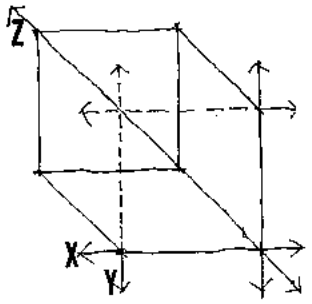
내게 소망이 있다면
神이 흙덩이에 생명을 불어넣었듯
내 육체와 영혼이 그 최초의 숨결을
감지할 수 있는 집을 하나 갖는 것.
그리고, 나의 방은 접시의 형태가 아니라
사발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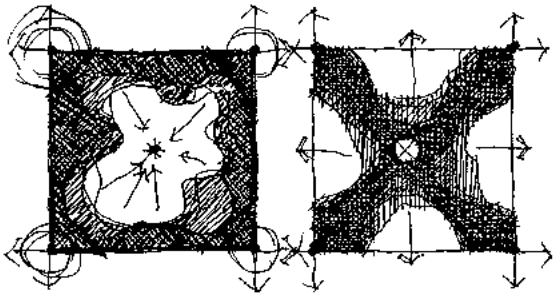
인간의 잔등이란 기대어도 늘 허전한 것이어서
집 뒤로 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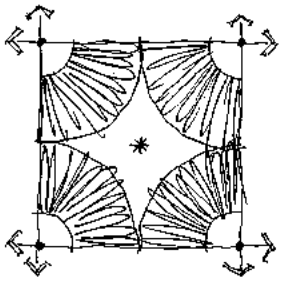
趙鼎權
1949. 서울 출생
1970. 現代詩學을 통해 데뷔
주요시집 "비를 바라보는 일곱가지 마음의 형태"(77), "詩篇"(82), "虛心頌"(85), "풀잎속 푸른힘"(86)
현재 문예진흥원 문학미술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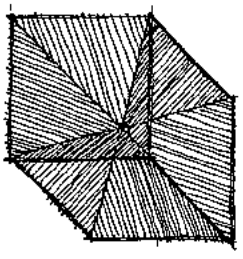
# '86 신건축 주택설계경기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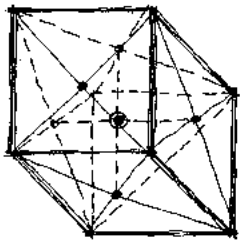
지난해 일본의 신건축사에서 실시한 설계경기에서는 '300/300/300' 이라는 주제로 입방체 안에 주거의 새로운 형태를 창안하는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총 207점이 응모된 가운데 심사결과 1, 2등 각 3점, 3등 2점. 가작 7점이 선정되었다.
그중 한국의 동정근+박연심안이 2등으로 당선되었다. 본지에서는 그 안을 소개하고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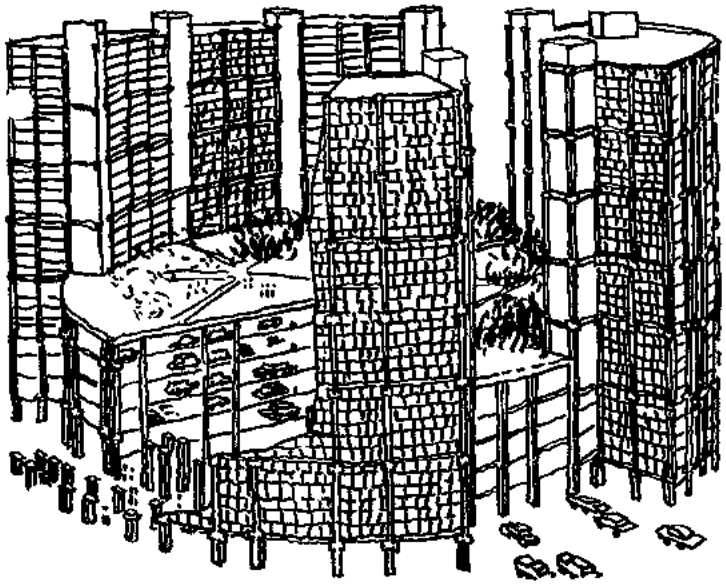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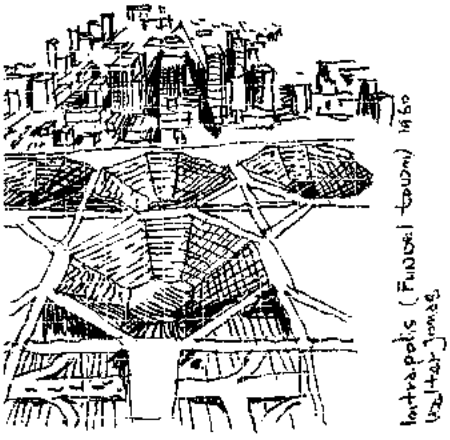


동정근+박연심
환건축+장원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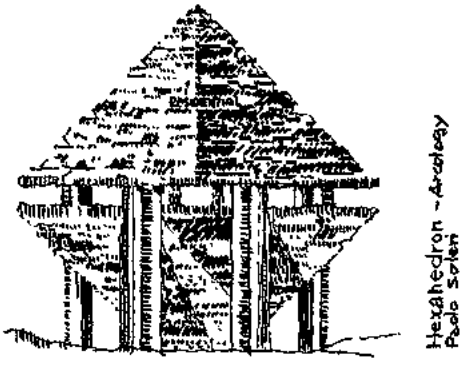
현대인(모더니스트)이라면 보다 개선된 생활조건에 의해서 생활과 사회와 기술의 향상을 믿어야만 한다. 종래의 기능주의 모더니즘은 이런 포션의 비대칭의 결과다.
최근에는 건축과 기능과 구조 형태의 관계 및 예술과 기술과의 탐구에 의해서 추상적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통합을 지향하는 방법론이 제시되게 되었다.
심사위원인 헬무트 얀은 자칭 '로만틱하이텍커'로서 추상주의예술과 기술이 합쳐진 합리적 명세 속에서 전통적 모더니즘 위에 특유한 상징적이고도 로만틱한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가다. 그는 이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를 일종의 역사의 停滯로 본다. 그리고 기술적인 힘이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래서 사회적인 창조성과 결부될 수 있어야 진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도시문화의 집중은 도시생활에 발생되는 거주환경을 매우 복합적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사적 제안이 있을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은 도시생활에서 날로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문화에서는 날로 그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문화에서는



Plan for the Center of Philadelphia, Philadelphia Pennsylvania 1958-1962



Intra-polis (Fundoil Tower) 1960



Hexahedron - Arcology Paolo Soleri

그 생활환경을 설계할 때, 알게 모르게 큐빅한 입방체의 보이지 않는 공간 구분의 한계 속에서 범위를 갖게 된다. 그 한정 속에 완벽한 표현자유를 보장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300/300/300'이라는 과제는 그 도심 속에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틀로서 어쩔 수 없는 슈퍼큐빅 개념속에 인간의 미래 주거환경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어프로치는 물론 현실이 갖는 상황과 거주밀도와 있을 수 있는 제반 법규와 통문제, 현대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주거의 의미론에서 변할 수 없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시성 공생관계, 휴식의 장소, 안전한 장소, 자기만의 소유주를 소유한다는 절대적 내부 중심론적 존재조건인 것이다.

노아(Noahs)의 방주나 바벨(Babels) 탑에서 보여주는 영원한 피난처 혹은 영원한 요람을 찾기 위한 꿈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그 뜻은 상상의 형태로 혹은 공상적 사상으로 나타나 왔고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필요 하면서 현실적 문제로 이상도시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상도시의 바램은 정연한 기하학의 패턴, 즉 원이나 4각형에 의해 특징되고 있으며 이런 도형에 대한 성형은 지적인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만다라(Mandala)의 상징은 원형테두리의 무한한 흐름이며 둘러쌓인 공간의 유한 질서를 역설적으로 결합하며 그것은 조화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원과 대조적으로 각형은 완전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단계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도 사원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안정되고 정지된 각형은 바탕인 지면이 있는 한 완전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하학은 우주 속에 내던져져 고립시킬 때 원형의 형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기본은 보편적 단순한 목표에 의한 것이며 변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자연환경적 요구로부터 논리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로버트 오웬의 사회개량을 통한 마을 계획에서 사각형의 디자인 기본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제레미 벤삼은 원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또한 파울로 솔레리의 신고전주의 전통 개념에 의한 아콜로지(Arcology)에서 생태학과 결부하여 Arcube, Hexahedron Conaparative Arcology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월터 요나스의 내향도시(內向都市), 루이스칸의 필라델피아 계획안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모든 형태는 그 형태가 갖고 있는 내제된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한 점으로 집중되어 있어 중심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 내제된 중심점에서 부터 외곽으로 연결되는 힘의 분포는 그 형태를 지지하는 구조가 되며 각각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흐르는 힘들은 중심점에서 만나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며 그 구조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가장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순수성과 집합의 개념과의 만남에서 개념의 직선적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순수성과 형태의 완결성은 독립된 소우주를 상징하게 된다. 큐빅에 대한 심사위원의 해석은 삼차원과 결구되는 좌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즉 형태/구조/미학일 수 있고 強, 用, 美라고 해석하며 'less is a bore/less is more/more is a bore'라고 정의한다.

■ 寄橋

# 대학도서관의 시설계획

## 国立大学(校) 도서관시설실태 분석을 통한 도서관시설기준 대안 설정 및 改善方向

■
Library Facility Plananning for Colleges and Universities by Hwang, Ji-Hyun

연세대학교 도서관

黃智顯
文教部 教育施設局 建築技佐

## Ⅰ. 序言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상징적이고 중추적인 시설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대학의 目的 즉 교육·연구·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情報써비스를 효과적으로 学生·教授에게 제공하며, 아울러 대학의 질적발전에 기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동안 대학도서관은 시설규모면에서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진 반면, 질적인 성장은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즉 열람실의 좌석수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도서관의 외형적이고 규모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도서관의 질적인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전의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국립대학의 도서관시설 실태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실정에 부합되는 도서관 시설기준의 대안을 설정하고자 하며, 외국대학의 시설기준을 비교·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설기준(案)을 적용한 도서관 시설소요 판단과정을 예시하며, 도서관 설계계획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도서관 시설현황 분석

국립대학(교)의 도서관시설을 열람실, 서고, 개가식서고열람실, 도서준비실, 도서부대시설, 도서관행정시설별로 분류하여 실별 순수면적(Net Space), 열람좌석수, 장서수 등으로 작성하여 集計하였다. 위 자료를 통하여, 학생1인당 도서관 Net면적, 수용율, 열람실 좌석당 면적, 면적구성비율, 열람좌석수의 실별 구성비율, 서고 1㎡당 장서수등을 분석하였다.

### 1. 자료수집 대상학교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시설현황을 크게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5개이전대학, 교육대학으로 분류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 구 분 | 학교수 | 도서관수 |
|---|---|---|
| 종합대학교 | 9개교 | 24 |
| 단과대학 | 4 | 4 |
| 5개이전대학 | 5 | 5 |
| 교육대학 | 11 | 11 |
| 계 | 29개교 | 44 |

### 2. 도서관 시설분류

도서관 시설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시설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열람실(Study Room) : 個人의 공부하는 실로써 책 또는 마이크로 필림, Audio/Visual등을 이용하여 공부하는 장소로써, 일반열람실, A/V실, 대학원열람실, Group Study 실등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서고가 있지 않는 실이다.

나. 서고(Stack Room) : 책, A/V자료, 레코드, Tape등을 보관하는 실.

다. 개가식 서고 열람실(Open Stack Reading Room) : 일반적으로 서고·열람실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混合되어 있는 실을 말하며, 參考열람실, 정기간행물실等을 포함한다.

라. 도서준비실(Processing Room) : 책의 반입·분류·제본 등을 위한 施設로써 수서실, 제본실 等을 말한다.

마. 도서부대시설(Study Facilities Service) : 서고·열람실등의 부대시설로써 복사실, 록카룸, 휴게실 等을 말한다.

바. 도서관 행정시설 : 도서관 직원을 위한 시설로써 도서관장실, 과장실 부속실 등과 도서관 직원들의 회의등을 위한 회의실. 휴게실 등을 포함한다.

3. 시설현황 분석

가. 학생 1人当 도서관 Net면적과 수용율 현황.

'86年 2学期 基準으로 대학특성별 도서관 총Net면적과 열람좌석수를 학생수로 나눈 평균 학생 1人当 Net면적과 수용율은 (표1)과 같다.

1). 1인당 Net 면적 분석

학부학생 1인당 Net 면적의 총 평균은 0.8m²이며, 학생규모가 대단위인 종합대학교가 가장 낮은 0.74m², 5개 이전대학이 가장 높은 1.18m²이다. 즉 학생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1人当 면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대학의 경우에는 향후 학생수 증가를 고려하여 충분한 도서관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열람수용율 분석

대학설치기준령(대통령령제4511호)의 제12조 도서관 열람석 수용율 20%보다 平均的으로 全部 높은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열람석의 확보에 상당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용율을 학부학생 기준으로 평균 24%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특성별로 수용율의 순위는 학생 1人当 Net면적의 순위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열람실 좌석당 면적과 열람좌석수의 구성비율.

대학특성별로 열람실 좌석당 면적과 열람좌석의 설치위치(열람실, 서고, 개가식 서고 열람실 等)별로 구성비율은(표2)와 같다.

1). 열람실 좌석당 면적분석

열람실의 좌석당 면적은 좌석의 종류, 즉 Table(4-6人用), Carrel, 개인열람실, A/V Carrel等의 構成比率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황분석 자료에서는 좌석당 평균 1.62m²으로 대학특성별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대학의 기준에 비해 상당히 밀집되게 좌석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대학설치기준령상 도서관 시설기준을 열람좌석수의 총학생수에 대한 비율(20%)만 규정되어 있고 도서관 시설면적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열람좌석수 확보에 우선하는데 기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열람좌석수 구성비율

대학전체 平均的으로 열람좌석수의 80%이상을 열람실에, 개가식 서고 열람실에 17%, 일부 대학에서는 서고에 열람석을 두는 도서관도 있다. 대부분 폐가식 서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고내에 열람좌석을 두어 대학원 학생과 교수들의 자유열람이 가능하도록 고려한 도서관을 일부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다.

열람실에 좌석을 80%이상 설치하는 현상은 도서관의 기능이 「공부하는 장소」로써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의 도서관인식 및 이용실태 조사('87.4.14(火) 조선일보)」에도 잘 나타난다. 즉 이 조사는 76.3%의 대학생들이 中·高시절 도서관을 「시험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생각은 대학생활에도 이어져 도서관을 「공부하는 장소」라고 응답한 학생이

(표1) 대학특성별 학생1인당 Net 면적과 수용율분석표

| 구 분 | 총학생수 | | 총Net 면적(m²) | 총열람 좌석수 | 학생1인당Net 면적(m²) | | 수용율(%) | |
|---|---|---|---|---|---|---|---|---|
| | 학부 | 대학원 | | | 학부 | 대학원 | 학부 | 대학원 포함 |
| 종합대학교 | 126,279 | 11,544 | 93,618 | 28,065 | 0.74 | 0.68 | 22 | 20 |
| 단과대학 | 9,399 | 345 | 8,581 | 2,442 | 0.91 | 0.88 | 26 | 25 |
| 5개이전대학 | 13,668 | - | 16,173 | 4,243 | 1.18 | 1.18 | 31 | 31 |
| 교육대학 | 12,880 | - | 12,134 | 3,718 | 0.94 | 0.94 | 29 | 29 |
| 평 균 | 162,226 | 11,889 | 130,506 | 38,468 | 0.80 | 0.75 | 24 | 22 |

(표2) 열람좌석당 면적과 구성비율 분석표

| 구 분 | 열람실좌석당 면적(m²) | 열람좌석수 구성비율 (%) | | |
|---|---|---|---|---|
| | | 열람실 | 서 고 | 개가식서고 열람실 |
| 종합대학교 (9) | 1.61m² | 84% | 1% | 15% |
| 단과대학 (4) | 1.44 | 86 | - | 14 |
| 5개이전대학 (5) | 1.83 | 81 | 1 | 18 |
| 교육대학 (11) | 1.60 | 68 | 1 | 31 |
| 평 균 | 1.62m² | 82% | 1% | 17% |

(표3) 면적구성비율 및 서고 1m²당 보유장서수 현황표

| 구 분 | 도서관 면적 구성비율 (%) | | | | 순수서고·열람실면적 구성비율(%) | | 서고 1m²당 장서수 |
|---|---|---|---|---|---|---|---|
| | 열람실 | 서고 | 개가식 서고열람실 | 행정및 써비스시설 | 순수서고 | 순수열람실 | |
| 종합대학교 | 41% | 26% | 19% | 14% | 44% | 56% | 91권 |
| 단과대학 | 39 | 23 | 22 | 16 | 41 | 59 | 73 |
| 5개이전대학 | 39 | 27 | 18 | 16 | 43 | 57 | 44 |
| 교육대학 | 30 | 24 | 33 | 13 | 51 | 49 | 67 |
| 평 균 | 39% | 26% | 21% | 14% | 44% | 56% | 81권 |

39.9%로 가장 많은 수였다고 조사했다.

다. 도서관면적 구성비율

대학도서관을 열람실, 서고, 개가식 서고열람실 그리고 행정 및 써비스시설등으로 구분한 면적구성비율과 열람실, 서고, 개가식 서고열람실을 순수서고와 열람실 면적으로 구분한 비율과 서고면적 1㎡당 보유장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1). 도서관면적 구성비율

대학도서관시설중 평균적으로 열람실의 면적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고가 26%, 개가식서고 열람실이 21%, 그리고 행정 및 써비스 시설이 14%의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대학교, 단과대학, 5개 이전대학의 도서관 시설의 면적 구성비는 비슷한 양상이나,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개가식 서고열람실의 면적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33%로서 도서관 시설 규모가 적은 대학의 경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개가식 서고열람실의 종류 및 규모가 일정함으로써 총도서관 Net면적중 개가식 서고열람실의 면적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고면적과 행정 및 써비스시설 면적의 합계는 대학특성별로 거의 일정한 40%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5개 이전대학의 도서관시설중 서고면적의 비중이 가장 높은 27%와 서고 1㎡당 보유장서수가 가장 낮은 44권으로써 서고의 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장서수의 대폭 확충에 충분한 서고 여유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순수서고, 열람실 면적구성비율과 서고 1㎡당 보유장서수

순수서고면적과 열람실면적의 평균 구성비율은 44%대 56%로써 순수 열람실의 면적구성비율이 높은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교육대학의 경우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대학의 도서관 시설자료와 비교하면 순수서고의 면적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도서관의 장서수 확보 수준이 외국대학에 비하여 낮으며, 상대적으로 열람실 면적비율이 높은 것은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서고 1㎡당 보유 장서수는 종합대학교가 가장 높은 91권, 단과대학이 73권, 교육대학이 67권의 순서이며, 5개 이전대학이 가장 낮은 44권의 수준이다. 서고 1㎡당 기준 장서수는 도서의 종류(책, 잡지, 마이크로 필름, 지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폐가식 서고의 경우 1㎡당 129권에서 160권 정도의 장서기준과 비교할 때 서고면적은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Ⅲ. 대학도서관 시설기준 비교

대학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대학의 특성, 各 나라마다의 여건 그리고 시설기준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설치기준령상에 수용율만 제시하고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도서관의 총시설 면적등은 교사시설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대학의 경우 학생1人当 도서관 소요기준을 제시하는 방법과 세부시설별로 구체적인 면적과 수용율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비교에서는 美国과 英国의 도서관 시설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며, 도서관 시설계획에 필요한 세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New Jersey Public College and University(美国)

美国의 New Jersey 주에서는 열람실의 수용율·좌석당 면적과 서고와 행정 및 써비스 시설면적에 대하여 (표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Maryland Department of State Planning(美国)

美国의 maryland주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New Jersey주와 비슷한 형태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열람실의 수용율중 법학·의학계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3.University grants Committee (英国)

(표4) New Jersey 도서관 시설기준

| 구 분 | | 수용율 | 좌석당면적 | 비 고 |
|---|---|---|---|---|
| 열람실 | 2년제대학 | 20% | 25ft² (2.3㎡) | |
| | 4년제대학 | 25% | 〃 | |
| | 대학원 | 25% | 30ft² (2.8㎡) | |
| | 교수 | 10% | 50ft² (4.6㎡) | |
| 서고 | | 권당 0.1ft² (0.009㎡) | | 1㎡당 110권 |
| 행정및써비스시설 | | 열람실+서고면적의 20%~25% | | |

Maryland 도서관 시설기준

| 구 분 | | 수용율 | 좌석당면적 | 비 고 |
|---|---|---|---|---|
| 열람실 | 학부 | 17% | 30ft² (2.8㎡) | |
| | 대학원 | 30% | 40ft² (3.7㎡) | |
| | 교수 | 10% | 〃 | |
| | 법학계열 | 50% | 〃 | |
| | 의학계열 | 35% | 〃 | |
| 서고 | | 권당 0.1ft² (0.009㎡)<br>권당 0.08ft² (0.007㎡) | | 15만권까지<br>15만권이상 |
| 행정 및 써비스 시설 | | 열람실+서고면적의 20%<br>-최소면적 3,000ft² (288㎡) | | |

University grants Committee 대학시설기준

| 구 분 | 학생 1인당 면적 | 비 고 |
|---|---|---|
| 열람실 | 0.4㎡ | 수용율 인문과학-45%<br>자연과학-10%<br>좌석당면적 : 2.39㎡ |
| 서고 | 0.62㎡ | 5.62㎡/1000 권<br>약 1㎡당 180 권 |
| 행정및써비스 시설 | 0.2㎡<br>(열람실+서고의 20%) | |
| 계 | 1.22㎡ (≒1.5㎡) | |

영국에서는 학생 1人当 約1.5㎡의 도서관 시설면적을 확보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산출기준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4. 미국 서부지역 고등교육협의회 (WICHE)

미국의 서부지역 고등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한 도서관 세부시설 기준은 주정부의 규정이 아닌 권장하는 기준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용율

열람실의 좌석수를 학생수·교수수 등으로 제시한 수용율은 학년·학과 등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학년(1~2학년)의 경우 20%정도, 전공과정의 3~4学年의 경우, 학문의 영역에 따라 20%에서 30%사이의 수용율을 제시하며, 그 세부 수용율은 Humanities, Social Science, Business, Education의 분야는 30%정도이며, Life Science와 Physical Science는 20%정도이다.

대학원의 경우, 수용율은 학부학생의 수용율보다 높은 25%에서 40%사이이다. Humanities, Social Science의 경우 40%, Business Educationg은 30%, Life Science, Physical Science는 30%정도이다.

교수의 경우 약 15%정도의 열람실 좌석수를 확보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수용을 위하여 약 5%정도의 수용율을 제시하고 있다.

## Ⅳ. 대학도서관 시설기준(안)설정

대학도서관의 규모, 기능, 써비스의 종류等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즉 대학의 학생규모, 개설학과 및 과목, 지역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등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 세부시설의 종류 및 규모, 장서수에 차이가 있다.

이 장(章)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기존시설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대학도서관의 확충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방안의 일환으로 외국대학의 시설기준과 국립대학의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자료를 기초로 대학도서관의 시설기준(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기준(안)을 적용하여 대학도서관 시설소요 산출방법을 例示하고자 한다.

### 1. 시설기준(안) 설정

가. 열람실 수용율

대학도서관에 수용할 열람실의 종류, 열람좌석수 및 형태는 대학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도서관)에는 학생정원의 20%以上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문대학 설치기준령 제9조(도서관)에는 학생정원의 1할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략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대학 자체에서 대학의 목적, 도서관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도서관 시설현황의 분석자료와 외국의 시설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열람실의 수용율기준(안)을 제시하면 (표5)와 같다.

열람실의 좌석당 기준면적은 좌석의 종류와 열람실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열람좌석 종류의 배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배분은 대학의 도서관 기능에 따라 적절히 배정되어야 하며, 일률적인 배분비율을 적하기 어렵다. 또한 열람실 한실의 규모가 크면 교통면적과 좌석과 좌석사이의 간격 등으로 좌석당 면적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열람실 좌석당 기준면적을 열람실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표6)과 같다.

나. 서고

서고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도서관의 장서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기본 장서량과 연간 증가량 및 정기간행물의 양적규모는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 3호에 "学生定員 1人当 30권 또는 학과당 5,000권중 많은 수 이상의 수와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이상을 추가한 도서수와 10종 이상(자연계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갖추도록 規定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장서보유현황은 대학설치 기준령의 기준장서수에 비해 상당히 미달한 것으로 연구보고 되었다 (윤두영, 대학의 학술정보 교류체계, 대학교육, 통권23호, 1986.9).

이러한 장서부족 현상은 국립대학 도서관 현황분석한 결과와 같이 서고 1㎡당 보유장서수가 평균 80권으로 서고내에 적정하게 장서가 보유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서보유수를 기준으로 연간 장서

가. 서고 기준 면적

| 서 고 구 분 | ㎡당장서수 | 100권당 서고면적 (㎡) |
|---|---|---|
| 개가식서고열람실 | 86~107 권 | 1.10㎡~0.9 ㎡ |
| 개가식 서 고 | 107~129 | 0.9 ~0.7 |
| 폐가식 서 고 | 129~161 | 0.7 ~0.6 |
| 밀 집 서 고 | 430~646 | 0.2 ~0.1 |

나. 열람실 좌석종류별 좌석당 면적

| 열 람 좌 석 종 류 | 좌 석 당 면 적(㎡) |
|---|---|
| Open Tables & Chair | 1.90 / 2.40 |
| Smal Carrels | 2.40 / 2.80 |
| Research Carrels | 2.80 / 3.30 |
| mircroform & Audio/Visual Carrels | 3.30 / 4.30 |
| Typing Stations | 2.40 / 3.30 |
| Reading Lounges | 2.40 / 2.80 |
| Conference Rooms, Seminar Rooms, Small Group Studies | 1.90/ 2.40 |

(표5) 열람실 수용율 기준(안)

| 구 분 | 현 황 조 사 | 외 국 대 학 기 준 | | | 기준(안) |
|---|---|---|---|---|---|
| | | A | B | UGC | |
| 학 부 | 22~24% | 20~25% | 17~50% | 인문대학 45%<br>자연대학 10% | 20% |
| 대학원 | 대학원학생포함할 경우 20% 내외임 | 30 % | 30 % | - | 30% |
| 교 수 | - | 10 % | 10 % | - | 10% |

증가율을 고려하여 서고의 확충면적을 판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方法이다. 연간 장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연간 3%~25%까지 대학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주요 특징으로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연간 증가율은 3%이내 이며,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은 10%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1979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 5개 이전대학의 경우 15%~24% 정도로 연간 증가율 속도가 빠른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장서수를 보유할 경우 그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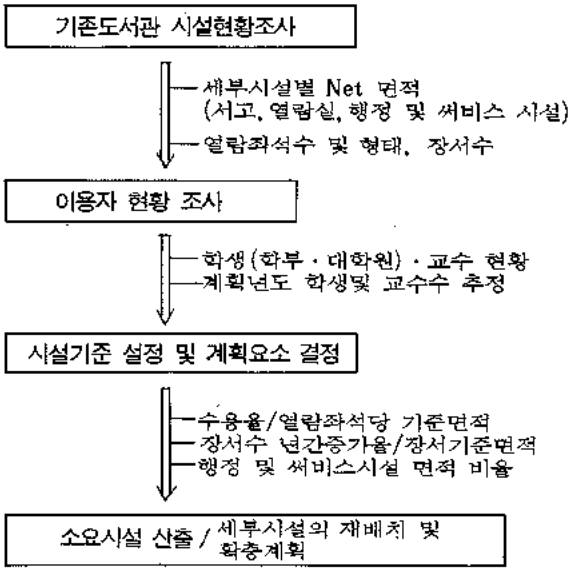
장서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계획년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서수 결정의 계획년도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장서별 서고 기준면적은 장서의 종류와 서고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당 150권 내외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행정 및 써비스 시설

도서관의 행정 및 써비스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도서장서수, 연간도서 취득율 및 도서수,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 빈도수, 특수한 써비스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행정시설은 도서관 행정조직등에 알맞는 시설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정 및 써비스 시설의 종류로는 도서준비실, 도서부대시설, 도서관 행정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림1) 도서관 시설소요 산출과정

실정이다. 현황조사에 의하면 총 도서관 Net면적의 13%~18%수준이며, 외국대학의 기준으로는 서고와 열람실 면적의 20%로 거의 비슷한 면적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표7).

2. 대학도서관 시설소요 산출방법 예시

위에서 제시한 대학도서관 시설기준(안)을 토대로 1개 모형대학을 선정하여 도서관 소요시설의 산출과정을 예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산출과정의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분류하면 위(그림1) 과 같다. (그림1)의 산출과정 단계별로 대학도서관 시설소요 산출방법을 모형대학 1개교를 선정하여 적용한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도서관 시설현황 (표8)

나. 이용자 현황 및 계획년도 이용자 추정

| 구 분 | '86현재 | '91계획 |
|---|---|---|
| 학부학생 | 1) 14,600명 | 15,680명 |
| 대 학 원 | 1,105명 | 1,861명 |
| 교 수 | 562명 | 2) 877명 |
| 계 | 16,267명 | 18,418명 |

1) '86졸업정원의 4배

2) 교수 1인당 학생수 20명을 기준으로 소요 교수수 산출

다. 시설기준 설정

1) 수용율 및 열람좌석당 면적

| 구 분 | 수용율(A) | 열람좌석당(B) 기 준 면 적 | 1인당열람실 (A)×(B) 면적 |
|---|---|---|---|
| 학 부 | 20% | 2.0㎡ | 0.4㎡ |
| 대학원 | 30 | 2.5 | 0.75 |
| 교 수 | 10 | 3.0 | 0.3 |

2) 연간 장서 증가율 추정

'83년부터 '86년까지 : 10%

'87년부터 '91년까지 : 10%추정

'92년부터 '96년까지 : 5%추정

위의 증가율 추정을 근거로 장서수 추정은 (표9)와 같다.

3) 장서수 150권당 1㎡으로 기준설정

4) 행정 및 써비스 시설은 열람실과 서고 합계면적의 20%를 기준설정

라. 시설소요 추정

1) 열람실 소요면적·서고소요면적·도서관시설 소요면적 산출

열람좌석수 및 소요면적, 서고 소요면적 산출, 도서관 시설소요면적을

(표6) 열람실 좌석당 기준면적(안)

| 구 분 | 현황조사 | 외 국 대 학 기 준 | | | 기준(안) |
|---|---|---|---|---|---|
| | | A | B | C | |
| 학 부 | 1.61~1.83㎡ | 2.78㎡ | 2.78㎡ | 1.9~2.4㎡ | 2.0㎡ |
| 대학원 | – | 3.71㎡ | 3.71㎡ | – | 2.5㎡ |
| 교 수 | – | 4.65㎡ | 3.71㎡ | – | 3.0㎡ |

(표7) 행정 및 써비스 시설면적 구성비율 기준(안)

| 구 분 | 현황조사 | 외 국 대 학 배정비율 | | | 기준(안) |
|---|---|---|---|---|---|
| | | A | B | U.G.C | |
| 서고+열람실 | 87~84% (100 %) | 100% | 100% | 100% | 100% |
| 행정및써비스시설 | 13~16% (15~19%) | 20~25% | 20% (최소면적 278.7㎡) | 20% | 20% |

〈표 8〉

1) 중앙도서관(4층 : 총연면적, 6,750㎡)

| 시 설 구 분 | Net면적(㎡) | 열람좌석수 | 서고Unit 형태 | 행정요원좌석수 |
|---|---|---|---|---|
| 열 람 실 | 1,289.3 | 1,024 | – | – |
| 서 고 | 1,579.0 | – | 양면 6~7단 | 5 |
| 개가식서고열람실 | 894.2 | 232 | 양면 3~7단 | 8 |
| 도서부대시설 | 450.5 | – | – | 2 |
| 행 정 시 설 | 539.0 | – | – | 28 |
| 소 계 | 4,752.0 | 1,256 | – | 43 |

2) 제2도서관(4층 : 총연면적, 4,554.8㎡)

| 시 설 구 분 | Net면적(㎡) | 열람좌석수 | 서고Unit 형태 | 행정요원좌석수 |
|---|---|---|---|---|
| 열 람 실 | 1,988.7 | 1,438 | – | – |
| 개가식서고열람실 | 940.3 | 300 | 양면 6~7단 | 9 |
| 도서부대시설 | 169.8 | – | – | 2 |
| 소 계 | 3,098.8 | 1,738 | – | 11 |

3) 도서관 보유Net 면적 총괄표

| 시 설 구 분 | 서 고(㎡) | 열 람 실 | | 행정써비스시설(㎡) | 계(㎡) |
|---|---|---|---|---|---|
| | | 면적(㎡) | 좌석수 | | |
| 열 람 실 | – | 3,278 | 2,462 | – | 3,278 |
| 서 고 | 1,579 | – | – | – | 1,579 |
| 개가식서고열람실 | 1) 685.5 | 2) 1,064 | 352 | 3) 85 | 1,834.5 |
| 도서부대시설 | – | – | – | 620.3 | 620.3 |
| 행 정 시 설 | | | | 539.0 | 539.0 |
| 계 | 2,264.5 | 4,312 | 2,994 | 1,244.3 | 7,850.8 |

①. 개가식서고 열람실의 면적에 열람실과 행정 및 써비스시설의 면적을 제외함.

②. 평균열람 좌석당 면적은 2㎡으로 가정하여 열람좌석수(532석)에 곱하여 계산함.

③. 행정시설은 행정요원 좌석당 평균면적 5㎡으로 가정하여 행정요원수 17명을 곱하여 계산함.

4) 연도별 장서수 현황

| 구 분 | '83 | '84 | '85 | '86 |
|---|---|---|---|---|
| 장 서 수 | 182,114 | 201,182 | 223,158 | 245,278 |
| 증 가 율 | 100% | 110% | 123% | 135% |
| 연간증가율 | – | 10% | 11% | 10% |

〈표 9〉 장서수 추정

| 구 분 | '86현재 | Ⅰ단계('91년까지) | Ⅱ단계('96년까지) |
|---|---|---|---|
| 장 서 수 (A) | 245,278권 | 395,000권 | 504,000권 |
| 증 가 율 | 100% | 160% | 205% |
| | – | (100%) | (128%) |
| 기준장서수 (B) (대학설치기준령) | 438,000권 | 470,400권 | 470,400권 |
| 보유율($\frac{(A)}{(B)}$×100%) | 56% | 84% | 107% |

(표10) 열람실 소요면적 산출

| 구 분 | 열 람 좌 석 수 | | | '91년도 소요좌석수 (B)-(A) | 좌석당 기준면적 | 소요열람실 면적 |
|---|---|---|---|---|---|---|
| | '86보유(A) | '86기준 | '91계획기준(B) | | | |
| 학부학생 | 2,994 | 2,920 | 3,136 | 142 | 2.0㎡ | 284 |
| 대 학 원 | – | 332 | 558 | 558 | 2.5 | 1,395 |
| 교 수 | – | 56 | 88 | 88 | 3.0 | 264 |
| 계 | 2,994 | 3,308 | 3,782 | 788 | – | 1,943 |

91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Ⅰ단계로 '91년까지 도서관 확충소요Net 면적은 2,774㎡이며, Ⅱ단계까지는 소요Net면적이 3,646㎡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 되었다. 이러한 소요판단 자료에 의하여 기존 도서관(2個棟)의 시설을 재배치계획하여 부족시설에 대한 Space Program 작성과 증축 위치를 결정한다.

## Ⅴ. 대학도서관 시설계획시 고려할 사항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생각하기 보다는 교수·학생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교육·연구·사회봉사의 제 활동을 돕는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도모,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도서관 시설계획의 주요한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운영방식의 개선
서고의 폐가식에서 개가식으로 점차 변화
○도서자료 검색정보 시스템
목록대 설치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목록자료 검색
○개인과 Group 열람실 확대
대학원생들을 위한 개인 열람실과 소규모 학생들의 토의·협의를 위한 Group Study Room 필요
○이용자 편의시설 고려
지정도서 열람실 운영, 휴게실, A/V 시설, 전시실, 복사실 등의 확대
○도서의 종류 다양화
마이크로 필림, 마이크로 프린트, 스라이드, Record, 지도 등

도서관 시설계획시 고려할 사항을 크게 ① 도서관의 관리체제, ② 증축계획, ③ Modular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1. 도서관의 관리체제

도서관의 관리체제는 크게 집중제와 분산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종합대학교의 경우 집중형인 중앙 도서관을 확보한 후 필요에 의하여 분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분관

●서고 소요면적 산출

| 구 분 | '86보유 | Ⅰ단계 기준 ('91년 까지) | Ⅱ단계 기준 ('96년 까지) | 소요서고면적 | |
|---|---|---|---|---|---|
| | | | | Ⅰ단계 | Ⅱ단계 |
| 장서수 | 245,278권 | 395,000권 | 504,000권 | - | - |
| 면 적 | 2,264.5㎡ | 2,633.3㎡ | 3,360㎡ | 368.8㎡ | 1,095.5㎡ |

●도서관 시설소요면적 총괄표

| 구 분 | '86보 유 | | Ⅰ단계소요면적 ('91년까지) | | Ⅱ단계시설소요 ('96년까지) | | 비고 |
|---|---|---|---|---|---|---|---|
| | 면 적 | 좌석수 | 면 적 | 좌석수 | 면 적 | 좌석수 | |
| 열 람 실 | 4,342㎡ | 2,994 | 1,943㎡ | 788 | 1,943㎡ | 788 | |
| 서 고 | 2,264.5 | - | 368.8 | - | 1,095.5 | - | |
| 행정및서비스시설 | 1,244.3 | - | 462.3 | - | 607.7 | - | 열람실 +서고 의20% |
| 계 | 7,850.8 | 2,994 | 2,774.1 | 788 | 3,646.2 | 788 | |

설치의 필요성은 대학의 학과 및 학문의 전문화, 중앙도서관의 확장 불가능, Campus의 대규모, 도서관 운영방법, 강의방법, 그리고 이용자의 기대와 요구등이 있다.
중앙도서관과 분관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집중제의 경우, 운영비의 절감, 운영의 간소화, 자료 등의 다양한 보유로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든 학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중앙도서관 까지의 거리 등으로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분관제의 경우 특정학과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 특정정보 및 자료의 수집 등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고, 책·자료 등의 2중 구입,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도서관을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 등의 단점이 있다.
중앙도서관 이외에 분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위의 여러 사항을 비교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전산을 이용한 도서관 자료의 검색정보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다.

## 2. 증축계획

도서관 시설확충 계획에 필요한 제반 요소(학생수, 장서수, 수용율, 운영방법 등)를 장기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장차 필요한 도서관 시설 규모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내부적으로 융통성이 있고 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특정 활동에 적합한 공간보다는 기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증축을 고려하여 기존 도서관의 확장 여지를 계획단계에서 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또는 도서관내에 다른 시설(예, 박물관, 대학행정시설, 교수연구실 등)을 포함하여 장래 도서관 확충이 필요할 때 다른 시설을 도서관으로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도서관의 증축·확장이 어려운 공통요인으로는 기존 도서관 위치상 확장의 곤란, 융통성을 고려치 않은 당초 설계, 구조적으로 서고 등의 적재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 냉난방등의 설비시설의 확장에 어려움 등이 있다.

## 3. Modular 계획

도서관의 열람실과 서고 등의 시설은 항상 변화가 예상되므로, 건축적인 제약조건을 최소한 줄여서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이 요구된다. 도서관의 modular 계획은 반드시 획일적인 공간을 계획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과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기둥이나 고정분할을 적게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닥트, 배관 등의 위치를 처음 계획단계부터 고정시켜 공용부분은 집약적으로 계획하고 그 이외의 공간은 내부의 기능변화 등에 유용성을 제한하는 방법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modular 계획시는 기둥Span의 결정이 중요하다. 통상 개가식 서고 배열과 폐가식 서고배열 둘 다 적용되는 칫수로 Span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modular 계획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둥의 크기와 방향
- 주요통로와 교차통로의 폭과 길이
- 서고의 서가깊이와 통로폭
- 서고의 중축 방향
- 냉·난방 배관 및 기계설비

이러한 점에서 모듈결정은 건물의 전반적인 크기, 각층 높이, 열람좌석수, 장서수 등의 제반요인들에 의해 적정한 모듈을 계획한다.

■ 참고자료


-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서의 학술정보체계" 특집, 대학교육 통권23호, 1986. 9.
- 徐 商雨, "대학도서관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국민대 논문집 14권, 1977.
- 李 炳穆(擇), "대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1980.
- Educational Facilities Lakoratories, "The School Library", 1963.
- Maryland Department of State, "maryland Four Year Public College and University Space Planning Guidelines", 1981.
- New Jersey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Facilities Planning Standards and Approval Pruoedures", 1973.
- Ontari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College Resource Center", School Planning Building Research, 1971.
- University Grants Committee, "Planning Norms for University Buildings", 1978.
- WICHE, "Planning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Facilities Planning and management" management Systems Division, 1971.


질서는 사람속에 사람은 질서속에

# 수선을 멈추고…

金自浩
(주)間·三종합건축사사무소

Working Thinking/ Stops a fuss over…
by Kim, Ja-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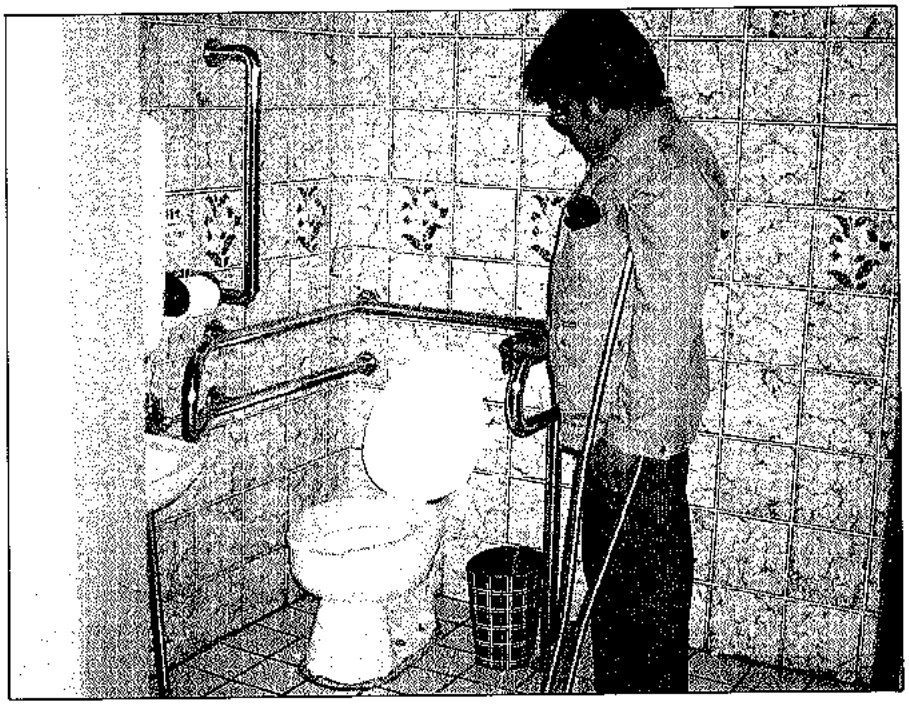
때로는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시달리는 듯 여겨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저 가만히 모든 움직임을 끊고 며칠간 두문불출하고 지내볼까 하는 생각도 한다. 이렇듯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불현듯 내가 아닌 듯한 한 사람이 떠들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싫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내 속에 있어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잊고 싶기도 했었다.

## 언제인가

본 선전 문구가 생각난다.
'제가 하는 일은 아주 특별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직업 형태가 있다. 남들이 생각하는 아주 하찮은 일도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선전 문구는 손님이 드실 와인을 골라준다는 "소멜리아"라는 직업을 선전한 것이었다. 그 "소멜리아"라는 직업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사람의 표정이 이렇듯 일하며 생각하는 시간이면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 새로움을 주는 것이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고, 그리고 남이 알아주는 일을 한다고해서 그것이 직업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학교 공부를 끝내고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자신감 하나로 밀어 붙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갖고자 했던 마음가짐 이었다.
아침에 비껴들어온 햇살 하나에도 오늘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출발을 본 것같아 새롭고, 사무실을 들어오는 순간 부딪친 동료의 눈매로 나를 반기는 그리움으로 생각되어 소중하게 생각되면 거래처의 요구 하나 하나가 내가 도약할 수 있는 층계로 볼 수 있어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론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시달리는 듯 여겨져 모든 것에서 벗어나 그저 가만히 모든 움직임을 끊고 몇일간 두문불출하고 지내볼까 하는 생각도 한다. 이렇듯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불현듯 내가 아닌 듯한 한 사람이 떠들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싫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내 속에 있어 내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잊고 싶기도 했었다.
부산스럽기만 하고 무엇하나 나에게 쌓여지는 것 없이 소모되어지는 것만은 아닌가하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듯한 물밑에서 몇년을 두고 흐르고 있어 결코 썩지않는 호수를 바라보면서 단지 고여있지 않고 언제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마음가짐만이 그 넓은 자연을 내몸 가득 받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심한 듯 하지만 결코 정체되어 지지않는 한 사람, 한 직업인으로 오늘 내 책상앞에 걸려 있는 일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 장애자를 위한 건축의 설계



■
Report
Architecture Design
for a deformed Person
by Park, Yong-Whan

" 살기좋은 풍요한 생활환경"
결국, 장애자나 노인을 비롯하여 사회각층의 허약자에게 이르기까지 존경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 장애자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서 표면화되고 있는 지금, 지금까지의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아량과 이해로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의 모색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朴勇煥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대단히 빠르게 변해가는 우리들 주변의 생활환경은, 특히 도시·건축의 내·외부 공간에 있어서의 물적환경은 일반 정상인에게 있어서까지도 생활능력의 최대한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자에게는 그러한 환경조건이 자신의 생활을 위협하는 핸디캡으로서 점차 더 커다란 장애물로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현실적으로 장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의존과 단절, 그리고 도시 건축공간의 미정비 상태는 앞서 말한 장애자의 일상생활은 물론, 자립에 대한 의지마저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만 할 것으로 안다.

## 1

장애자에 관한 분류방식은 일반적으로는 각 나라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건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분류방식이나 차이점 보다는 오히려 신체장애의 종류에 따르는 특징을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의 동작·행위·행동에 미치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과 공간과의 상호대응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종류나 정도의 신체장애자라고 하더라도 물적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적응결과는 다르며,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장애자가 받는 불편, 부자유 등 일절의 불이익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그 사회가 그러한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태세의 여하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록 장애는 같다고 하더라도 핸디캡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된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장애를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에 의하여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척추 마비자의 경우 지금과 같은 도시·건축 공간의 물적환경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장애자가 외출을 시도한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 반하여 외국에서는 장애의 종류나 정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취직을 하여 통근을 하는 예를 찾아볼 수 있듯이 비록 장애는 같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장애자가 입는 핸디캡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장애자 인구는 총인구에 대하여 약 15%에 해당하는 4억5천만명에 이른다.
그리고 매년 300만명씩 장애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자 인구는 약 100만명(1980년 12월 현재 보사부 표본조사 결과)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인구의 2~3%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장애자 인구의 출현율은 약 24명이며 장애종별의 구성비로서는 지체장애자가 전체의 약 66%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자가 약 12%이며 나머지 각 장애종류별로 대략 각 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1 참조)
이상의 우리나라의 장애자인구의 개략적인 현황에 비추어 장애자를 위한 사회복지의 관련법은 1981년 6월에 공포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1961.12), 아동복리법, 사회사업법 등의 대표적인 법률에 의하여 구빈 구호사업위주의 사회복지를 담당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노인을 포함한 심신 장애자를 위한 관련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1〉 심신장애자 추정인구

| 장애 종별 | 인구(천명) | 출현율(인구 1,000명당) | 구성비 (%) |
|---|---|---|---|
| 계 | 901.8 | 23.74 | 100 |
| 지 체 장 애 | 596.6 | 15.70 | 66.1 |
| 시 각 장 애 | 41.4 | 1.09 | 4.6 |
| 청 각 장 애 | 106.4 | 2.80 | 11.8 |
| 언 어 장 애 | 40.3 | 1.06 | 4.5 |
| 정 신 박 약 | 43.7 | 1.15 | 4.8 |
| 중증장애자 | 9.0 | 0.24 | 1.0 |
| 기 타 | 64.4 | 1.70 | 7.2 |

1980. 12. 현재 보사부 표본조사 결과에따름

〈표-2〉 심신장애 및 노인에 관한 법

| 법 | 대 상 | 시 설 | 비 고 |
|---|---|---|---|
| 생활보호법 (1961년12월31일공포) | 1. 65세이상의 요보호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불구, 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자 | 보호시설, 재활시설, 양로시설 | 생활보호시설 설치 기준령 |
| 아동복리법 (1981년4월13일 공포) | 18세 미만의 자 | 아동상담소,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농·맹·아 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 아동복리시설 설치 기준령 |
| 심신장애자복지법 (1981년 6월5일 공포) |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의 장애자 |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심신장애자요양 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 | 시행령 미제정 |
| 노인복지법 | 65세이상의 자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 시행령 미제정 |
| 의료보호법 |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 | 의료보호지정 진료기관 현황참조 | |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보험법(시행미정)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선원 | | 폐질상태정도 구분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에 준한 근로자 | | 신체장애 등급표 |
|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 | 의사상자 신체장애등급표(주 8) |
| 주택건설촉진법 | | 노인정(복리시설중)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노인정기준) |
| 사회복지사업법 |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시설설치기준 (노인휴양시설) |
| 군사원호 대상자 보호법, 고용법, 임용법 : 군사원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보상급여, 사업자금 대여, 교육비 보조, 직업보호 | | | |

2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장애자를 위한 설계는 그 이전에, 각종 장애의 특징에 따른 동작·행위·행동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축공간과의 대응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장애자를 위한 도시 건축공간의 설계나 계획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에서 휠체어 사용자 및 시각장애자를 중심으로 —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애자 구성에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두가지 종류의 장애자가 건축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시·건축환경이면 동시에 기타 장애자의 이용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이다.—각 장애자의 유형별 동작·행위·행동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행

어느 정도 걸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근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가 많아 전반적으로 다리, 허리가 약해지고 있다.

• 정상인이라도 딱딱한 바닥이나 미끄러운 바닥은 걷기가 힘들다.
• 유아는 장난하면서 걸으므로 주위에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 노인은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기가 쉽다.
• 목발 사용자는 가는 목발 끝에 체중을 지지하므로 넘어지기가 쉽다. 또 목발을 옆으로 내서 걸으므로 보행시 차지하는 폭이 넓어진다.
• 휠체어 사용자는 사행으로 가기가 쉽고, 회전하는데 폭이 필요하다.
• 시각장애자도 사행으로 가기가 쉽고, 보행을 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인도견 등으로 유도될 수도 있다.

□ 오르내리기

오르 내리기에는 계단이 주로 사용되나 긴 계단은 피로감을 주므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승강시에는 곤란이 따르므로 주위가 필요하다.

• 정상인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떨어질 위험이 있다.
• 유아는 계단을 놀이터로 사용할

경우도 있다.
• 유아, 노인, 보행곤란자 등에는 계단에 난간이 필요하다.
• 휠체어로는 계단이나 단이 있는 곳을 오르내릴 수가 없다.
• 시각장애자는 계단이나 단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다. 또 계단 승강중 단 높이나 디딤바닥의 치수가 변하면 혼란이 온다. 더우기 나선계단일 경우에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린다.

□ 갈아타기
갈아타기를 용이하게 하려면 행동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움직이는 것이나 복잡한 것을 바꾸어 타는 것은 곤란이 따른다.
• 정상인이라도 뛰어타기는 위험하다.
• 유아는 새로운 것에 번갈아 바꾸어 타는 것을 좋아한다.
• 노인이나 임산부 등은 빨리 갈아탈 수가 없다. 천천히 탈 수 있는 장치나 손잡이대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
• 휠체어 사용자는 갈아 탈 쪽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으면 갈아타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된다. 여러가지 보조장치가 설치되고 많은 훈련을 통하여만 갈아탈 수 있다.
• 시각장애자는 갈아 타야할 대상을 사전에 잘 알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다.

□ 앉기
앉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은 의자에 앉으면 활동적이나 불안정하며, 낮은 의자에 앉으면 안정되나 활동하기가 힘들게 된다.
• 현재의 의자높이는 재래의 의자보다 낮아지는 경향이다. 앉은 위치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많게 되어 보다 안락한 의자를 요구하게 되었다.
• 유아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 노인은 낮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손잡이 등이 필요하다.
• 휠체어는 그 자체가 의자로서 테이블이나 기타의 기구가 이것에 적합한 치수이어야 한다. 휠체어에서 다른 좌석에 바꾸어 앉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 시각장애자는 앉을 위치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 문출입
• 문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개폐해서 통과할 수 없다면 출입을 할 수 없다.
• 정상인이라도 복잡한 자물쇠를 여는 데는 혼란이 클 때가 있다. 또 많은 짐을 든 채 출입하기는 힘들다.
• 유아에게는 문의 핸들이 너무 높거나 문의 무게가 무겁다든지, 문의 조작이 어려워 사용이 곤란할 때가 있다.
• 노인이나 목발사용자 등은 문의 개폐 조작시에 비틀거릴 때가 있다.
•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개폐할 때는 휠체어가 접근하여 정지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회전식 도어에는 휠체어가 끼워져서 통과할 수가 없다. 문의 폭은 80cm 이상으로 한다.
• 시각장애자는 통로쪽으로 열려 있는 문에 충돌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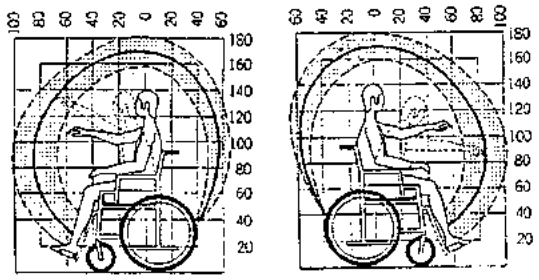
□ 선반의 물품을 잡는다
선반위의 물품을 잡는데는 눈과 손의 운동에 따르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상인일 경우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 높은 선반위의 물품을 잡을 수가 있으나 무거운 것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유아, 노인, 목발사용자 등은 높은 선반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품 같은 위험물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두면 좋다.
• 휠체어 사용자는 손이 닿는 범위가 좁으므로 높은 선반이나 너무 낮은 선반은 쓸 수가 없다. 선반의 치수가 휠체어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만 사용 가능하다.
• 시각장애자는 선반에 놓여진 것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만 필요시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다.

□ Desk Work
책상에서의 글 뿐만 아니라 타자기나 기타의 기기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이것들을 사용하기 편리한 치수로 할 필요가 있다.
• 체격이 좋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과거의 책상으로는 사용하기 힘들다.
• 유아는 성인용카운터만 있는 곳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 노인이나 목발사용자는 선채로의 작업은 계속 할 수가 없다. 전표기입대 등에도 의자가 필요하다.
•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카운터나 책상면의 밑에 무릎이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필요하다. 전화대 등은 낮은 것이 좋다.
•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작업면을 밝은 조명으로 할 필요가 있다.

□ 비가 올 때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쌓이는 등 일기가 나쁘면 더욱 행동이 힘들게 된다.
• 정상인도 우산을 쓰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 유아는 바람에 날려갈 때가 있다.
• 목발사용자는 우산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목발을 사용하기가 더욱 힘들게 된다.
• 휠체어로 비오는 날의 외출은 무리다. 우산을 쓰고 바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모면이 젖어 있으면 차가 미끄러지기 쉽다. 대개 자동차를 이용할 때가 많으므로 건물의 출입구에는 넓은 차량이 필요하게 된다.
• 시각장애자는 기후가 나쁘면 주위에서의 반사음 등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보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 웅덩이에 빠질 위험도 많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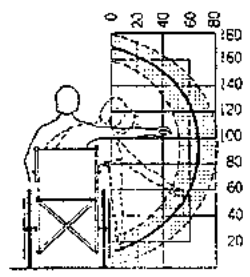
□ 교통안전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 특히 도로의 횡단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 정상인도 방심은 금물이다.
• 유아는 주위의 상황판단을 하지 않고 불시에 뛰어 들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 노인이나 지팡이 사용자는 도로횡단시 시간을 요한다. 녹색신호를 길게 할 필요가 있다.
• 시각장애자는 자동차 소리나 경종을 들을 수 없으므로 실수를 하게 된다.
•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보도와 차도 사이의 단의 차는 큰 장애요인이며 경사면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긴 경사면은 사행이 되기 쉽다.
• 시각장애자는 음향신호나 유도블록이 필요하다.

3
이상에서 살펴 본 장애자별 동작의 특성에 대응하는 동작공간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휠체어 사용자의 동작공간은 수평운동 곡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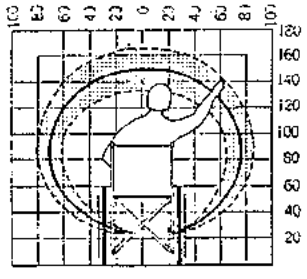


우측과 좌측의 수직인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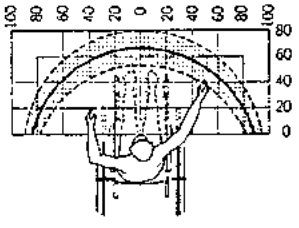
신체를 움직여 앞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상체의 수직동작, 굵게 그린 선은 위에 그려져 있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의 모든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휠체어를 타고 뒤로 향해 앉아 있는 사람이 최대한으로 옆으로 에 수직이 되도록 동작한 상태. 이러한 동작은 주택이나 직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최대한의 동작은 예를 들면 「義手」등 장애자를 위한 기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세워놓은 제도판에 작업할 때의 전면동작



작업대에서의 수평동작의 예

〈그림 1〉

수직운동곡선으로 그림 1과 같다.

참고로 휠체어의 타입과 그 기능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개인적인 요구에 따라 여러가지의 종류의 것이 개발되고 있다. 실내용, 수압식 휠체어, 화장실용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휠체어는 접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관시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고 또 자동차의 트렁크 등에 넣어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 구분하면 큰 바퀴가 앞에 달린 것과 큰 바퀴가 뒤에 있는 것, 그리고 타이어도 전부 고무로된 것과 공기타이어로 된 것이 있다. 이용자의 체중이 90kg을 넘는 경우나 직업, 스포츠 등으로 특히 하중이 크게 가해질 경우에는 보강형이 사용된다. 또 한쪽팔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외팔작동의 휠체어도 있다.

전기로 운전되는 휠체어는 자력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장애자를 위해 개발되어 옥내나 도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옥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큰 바퀴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좋다.

휠체어의 필요바닥 면적과 필요공간에 대해서는 일람표에 있는 치수뿐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개개인을 고려한 보조적인 치수와 회전이나 커브를 돌 때의 기동성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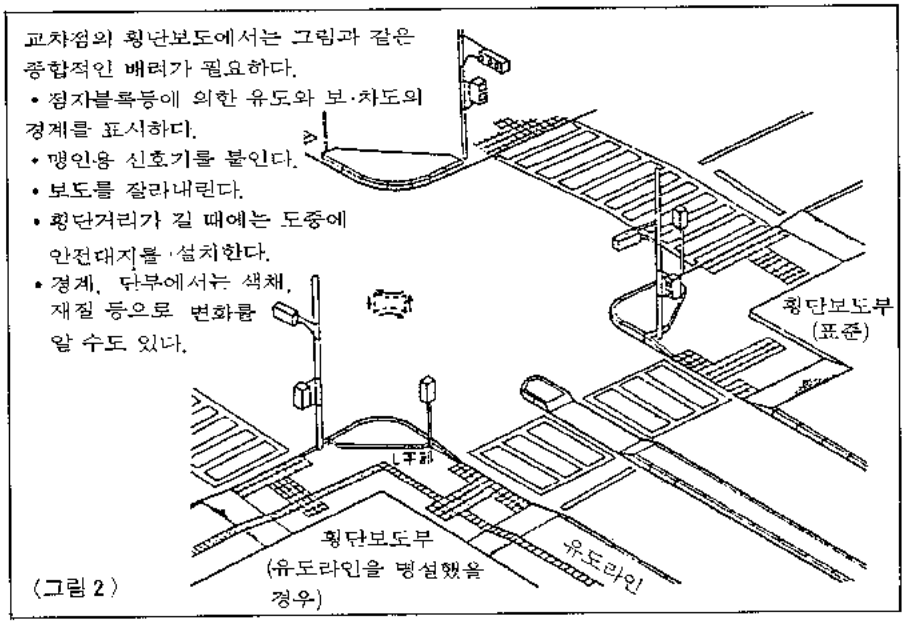
장애자의 동작·행위·행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생활환경으로의 도시·건축 공간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건축의 외부 공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외부공간이 어떤 공공장소나 건축의 특정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동일생활 환경을 구성하는 공간적인 요소로서 서로 끊어진 곳이 없이 순환(Circulation)될 수 있도록 해야만 장애자의 생활 권역을 확대시킬 수 있고, 또한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선 건축의 외부 공간을 (1) 보행로, (2) 교통시스템, (3) 생활의 악세스(Access), (4) 안내(Information)로 구분,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특히 지체장애자를 위주로 배려해야할 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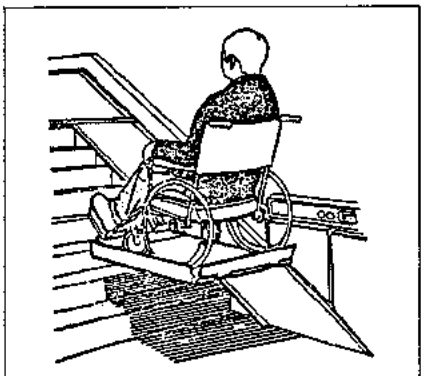
첫째, 보행로는 보통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만든 경우가 많아 차도의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내에 전주, 입간판, 우체통, 교통표지 등과 같은 설치물, 때로는 불법주차한 차량, 상품진열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노면상의 기복등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이 곤란할 때가 있다.

우선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을 살펴보면 휠체어 1대가 통행하는 데는 최소 120cm이나 보도상의 교차나 보행자의 동행을 생각하면 140cm정도가 필요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등과의 교차는 145~180cm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보행로상의




〈그림 2〉



〈그림 3〉 공공의 장소에서의 계단리프트

부대설비의 설치가 보도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도와 보도사이에 공공설비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횡단보도는 휠체어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야 한다.
보도를 경사지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좁은 보도인 경우 경사가 가파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차도쪽의 일부를 도우는 경우도 있으나 차도의 구분이 분명치 않으면 시각 장애자에게는 위험하므로 점자블록 등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차도간의 경계석은 휠체어가 쉽게 넘을 수 있도록 단차는 2㎝이하의 부드러운 형상으로 하는것이 좋다.
기타, 요철이 많은 포장노면을 되도록 평탄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으며 노면에 횡단구배가 있으면 휠체어는 사행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행로에 심한 단차가 있거나 6% 이하의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동판리프트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다. 수직엘리베이터 외에도 외국에서는 경사엘리베이터를 지하도나 지하철 입구에 설치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계단과 함께 설치할 경우보다 활용적이며 실용적이다.
둘째로, 교통시스템은 크게 수직과 수평이동시스템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나 우선 수평이동시스템에 관해서 예를들면 전차나 버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주로 건축적인 환경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면, 우선 버스나 지하철, 혹은 고가철도 등의 정유장(station)에 있어서 대합실이 있을 경우는 휠체어 사용자나 기타 장애자의 이용에 가능하도록 보도와의 경계에는 문턱을 없애거나 그 높이를 2.5㎝ 이하로 해야 한다. 입구의 출입문은 최저 85㎝ 폭으로 하고 문앞에는 반드시 동작 공간을 두도록 해야 한다.
플랫트홈과 차량의 승강구 높이 차가 2.5㎝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찰구의 폭은 최저 80㎝ 이상이 되도록 하며 회전목문식의 개찰구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그밖에 공항이나 주유소, 기타 드라이브·인(drive-in)과 같은 교통시설 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차가 있음을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나 전차의 정류장은 보도의 너비를 가능한한 2.5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세째로, 대지의 악세스(Access)에 관해서는 첫번째의 보행로에 관한 설명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로 예를들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등에 있어서 장애자의 이용권역을 500m 이내로 설정(근접가능 지역)하고 접근수단으로서 표식 및 교통수단으로 구분하여 액세서블·그레이드(Accessible grade)와 같은

〈표-3〉 액세스상의 배려

| 배려하여야할 관점 | | | 배 려 하 여 야 할 사 항 |
|---|---|---|---|
| 보행시설 | 보행 | | |
| | 보도시설 | 차도와의분리 | 가장자리돌, 고저차에 의한 분류, 가이드 레일 등 |
| | | 장애물의제거 | 전신주, 가이드 레일의 돌출, 배수홈뚜껑, 머리위돌출물, 쓰레기 집적지, 점포잡화돌출, 가로수밑뿌리 |
| | | 통로폭 | 휠체어 통행가능한 폭을 평탄면에서 진행방향으로 직선을 확보 |
| | | 가구표시 | 유도바닥재, 가구표시방식의 통일, 촉지도의 도입, 유도신호의 연구 |
| | | 가등 | 조도, 위치, 간격, 가등의 위험성 제거 |
| | | 이용가능전화복스 | 표시법, 설치위치, 간격, 간편개폐장치, 부우스공간, 기기높이, 각종 장애자용 보조장치(볼륨콘트롤 이외) |
| | | 동상포스트 | 높이, 안전현상, 간편한 투함메커니즘 |
| | | 동상자동판매기 | 신문, 담배, 음료수 등 높이, 휠체어 발넣기, 지팡이걸기, 사용법의 통일, 간편한 메커니즘 |
| | | 동상쓰레기통 | 높이, 안전상태, 설치간격, 간편한 메커니즘 |
| | | 동상재털이 | 동 상 |
| | | 동상소화·급수전 | 동 상 |
| | 횡단로 | 연석경사 | 경사정도, 배수처리, 경계의 확인, 횡단하지 않는 휠체어의 배려 |
| | | 횡단표시 | 장소지시, 유도상재, 방향지시, 횡단시지시(촉지신호, 맹도음악타) |
| | | 횡단로 | 백선의 명도, 리벳박히, 스크림블시의 유도, 우회전과의 안전접촉 |
| | | 지하철 보도교 수직교통 | 슬로우프, 에스컬레이터, 승강가, 난간, 배수처리, 바람막이, 낙하방지 |
| | | 소음 | 아나운서, 유도벨, 유도음악, 다른 것과의 균형 |

〈표-4〉 교통시설

| 배려하여야할 관점 | | | 배 려 하 여 야 할 사 항 |
|---|---|---|---|
| 교통시설 | 택시·자가용차 | | |
| | 승차 | 풍설덮개 | 차양·캐노피·해빙장치 |
| | | 수직교통 | 단차의 감소, 슬로우프의 설치, 승강기설치, 옥외용 난간의 연구, 각종 장애자용 2단 난간 |
| | | 표시유도 | 표식의 통일, 차의 속도에 맞는 사이즈·형상·설치위치 |
| | 강차 | 강차공간 | 휠체어 전용강하장의 확보, 주차장과 건물과의 위치, 보조자에의 연락 |
| | | 풍설덮개 | 차양, 캐노차, 해빙장치 |
| | | 수직교통 | 안전지대까지의 단차해소, 슬로우프, 승강기설치, 옥외용난간, 무우브 레인, 보조자에의 연락 |
| | 버스·노면전차 | | |
| | 정류소주위 | 정류소에의유도 | 유도바닥재 |
| | | 표식 | 설치의 위치, 높이, 현상, 크기, 각종 장애자용, 안내판(아나운서, 점자, 촉지도, 기타) |
| | | 수직교통 | 안전지대의 확보, 이프로우치단차의 해소, 스텝의 개량, 난간의 형상 |
| | | 대합 | 벤치, 선반, 차양, 안내, 계통도의 연구 |
| | 터미널승차강차 | 표식 | 유도바닥재, 각장애자용안내판(계통도, 촉지도 등) |
| | | 수직교통 | 슬로우프, 승강기, 구배, 속깊이가 넓은 계단, 난간 |
| | | 수평교통 | 무우브레인, 난간, 폭, 자동문 |
| | | 표식 | 행전표시, 아나운서, 색구분 외 |
| | | 수직교통 | 단차해소, 자동리프트, 난간 외 |
| | | 표식 | 정차역표시법·정차희망표시법의 연구(버튼위치·아나운서·광·색구분 외) |

개념을 도입하여 핸디캡의 계층에 따라 공간적인 배려를 모색하려는 것으로서 이 권역내에서는 장애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루-트(route)를 만드는 경우를 외국에서는 볼 수가 있다. 다음의 표 3, 4는 각각 보행과 교통시설에 있어서 배려해야할 관점과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위와 같은 "루-트"가 보다 발전하게 되면 장래 장애자에 의하여 도시 전역으로 부터의 악세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시스템으로써 기준화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장애자는 먼저 공공시설의 위치나 시설개요에 대하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으며, 한편 장애자가 시설에 향했을 때 시설 주변에는 미리 "도입" 수단으로서 물적, 공간적인 배려가 필요함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네째로, 안내(Information)에 관해서는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한 생활환경은 정상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한다. 환경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그 환경을 인식하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즉 안내가 중요하다. 종래 외국에서 장애자에 대한 정보전달은 여러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정보전달방법의 확립이 장애자나 환경 설계자로 부터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점자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규칙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일부 건물구내를 포함하여 내부에 있어서 장애자를 위한 안내(Information)의 종류를 정리하여 기술할 것이다.

우선 안내는 안내인에 의한 것과 표식에 의한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장애자를 위한 안내는 안내인에 의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은 논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생각된다. 인간이 인간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새삼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나 합리화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의존하게 되는데 그 예로서는 안내판, 모형순로, 그림, 광신호, 음성에 의한 방송들을 들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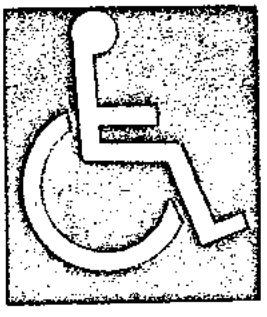
안내인에 의한 안내에 있어서 안내인은 일반적인 안내 이외에 장애자에 대한 이해를 지님으로써 장애자가 그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인이 있는 장소나 위치로서 일반적으로 안내인은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만 안내하는데 도로에서 건물입구 사이, 승용차에 내려서 건물입구에 도달하는 동안의 안내는 장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안내인은 그 위치에서 실내와 동시에 실외까지도 내다보이는 장소에 있는 것이 이 경우에 특히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내소에서 나와 직접 장애자를 도울 필요가 있으므로 입구 가까이에 출입이 용이한 안내소를 설치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① 맹인유도용 벨의 위치나 표식의 위치를 잘 볼 수 있는 곳, ② 휠체어의 보관장소에 가까운 곳, ③ 장애자 전용주차장이 잘 보이는 곳 등에 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표식에 의한 안내의 종류로는 안내용 표지, 유도 및 지시용 표식과 표시용 표식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장애자의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표시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시각장애자에게는 "촉각에 의한 표시"+"방송"을, 청각장애자에게는 "시각에 의한 표시"를, 지체부자유자에게는 "시각에 의한 표시"+"방송"이 적절한 것과 같다. 그리고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정상인용의 표지와 동일한 장소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방법은 이동에 안전하고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장애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통로, 홀(Hall),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지나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표식을 설치하여 장애자의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행동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림 4〉 휠체어 이용자 국제심볼 마크

이상에서 살펴본 외부공간에 대한 (1)~(4)의 각항목 이외에도 공공편의시설, 공원이나 놀이터 등의 각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와같은 제안이 시초에서부터 장애자의 종류나 특징이 다른 장애자의 동작·행위·행동과의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만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애자를 위한 각종시설로서 설치된 것들이 실제로는 전연 이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전연 잘못 설치되어 오히려 불편만을 초래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 5

누구든지 인간 본래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가 신체 일부분의 기능이 쇠퇴, 또는 결여에 의하여 그 전인격이 결코 부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살기좋은 풍요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란 결국, 장애자나 노인을 비롯하여 사회각층의 허약자에게 이르기까지 존경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

장애자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서 표면화되고 있는 지금, 지금까지의 무관심에서 탈피하여 아량과 이해로서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의 모색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건축의 내부공간에 있어서의 장애자를 위한 서클레이션(Circulation)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현관홀부분, 복도, 계단 및 경사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을 들 수가 있으며, 그밖에 단위공간으로서 화장실 부분, 부엌 및 거실과 내부공간에 대한 안내와 표시, 기타 가구류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건축시공상 마감재료의 선택, 설비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건축내부 공간의 각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끝〉

# 都市環境과 色彩

朴暾緖
亞州大學校建築學科 敎授

Report/Urban Surrounding and Color Planning for Building
by Park, Don-Soh

環境色彩問題는 관심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미약하여 設計者 또는 官에서 設計나 行政의 準據로 삼을 만한 자료가 태무한 실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건축과 도시색채의 일반적 計劃原理와 色彩計劃과 設計의 과정을 약술함으로써 문제제기를 겸하여 건축설계 또는 도시설계자들의 참고자료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와 資料蓄積이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이론과 실용적인 기법이 정립되는 것이 건축계의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 머리에

근래 環境色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외국인들에게 좋은 印象을 심어 줌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관계당국과 언론의 先導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에게 잘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같은 기회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들의 環境의 質을 보다 세련되고 풍요롭게 가꾸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쾌적하게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다음 세대에 훌륭한 환경 유산을 물려주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熱·빛·소리·濕度·空氣·물 등 環境因子들은 物理的 測定이 가능하고, 인간에게 가장 쾌적한 상태를 計量化할 수 있으며, 이상적 상태가 되도록 물리적 설계와 制御가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환경구성요소인 形態·色彩·텍스처 등 디자인적 因子들은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 個人差가 심하므로 일률적 적정치에 의한 계량적 조절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定量的인 기준과 설계방법을 모색하고, 한편 定性的인 접근을 시도하여 대다수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는 環境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環境色彩問題는 관심은 상당히 고조되어 있으나 실재 이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이나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미약하여 設計者 또는 官에서 設計나 行政의 準據로 삼을 만한 자료가 태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교는 건축과 도시색채의 일반적 計劃原理와 色彩計劃과 設計의 과정을 약술함으로써 문제제기를 겸하여 건축설계 또는 도시설계자들의 참고자료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와 資料蓄積이 꾸준히 이루어 짐으로써 합리적인 이론과 실용적인 기법이 정립되는 것이 건축계의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 1. 건축색채의 계획과 설계

### 가. 건축색채의 기본원리

(1) 건축색채는 둘러싸는 것

건축색채는 인간생활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둘러싸는 것"이다. 즉 보여주기 위한 색이라기 보다 둘러싸는 색이기 때문에 의식해서 주의를 끄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無意識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색채는 인간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색채는 그 존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바람직하다. 이것은 내장색채에서 더욱 그렇거니와 외장색채도 증화, 포스터, 산업디자인 등의 경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색"의 성격이 약하다.

(2) 건축색채는 배경이 되는 것

건축색채는 前景(figure)과 背景(ground)의 관계에서 배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축색채는 사람이나 물체를 돋보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물체와 함께 있을 때 조화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너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3) 건축색채는 대다수 인에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

건축색채는 부특정 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색채를 다수결로 정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디자이너가 개성을 억제하고 신중히 색을 선정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는 配色으로 하는 것이 건축색채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4) 건축색채는 차분함이 기본 기능에 따라 자극적인 배색, 화려한 배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건축색채의 기본은 차분함이고, 다음으로는 포근함, 따뜻함 등의 느낌일 것이다. 따라서 중·저명도, 저채도, 난색계가 기본이 된다. 저명도는 조명효율을 저하시키므로 함부로 쓸 수 없으나 현재보다는 다소 명도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건축물의 이미지에 맞는 배색 병원은 의료에 걸맞는 청결감과 의학적인 면의 신뢰감을, 국민학교 저학년 교실은 즐거운 학교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각각의 이미지에 합치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색채설계에서 어떤 이미지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배색을 하는 것이 근래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6) 색채의 하이어라키(Hierarchy) 건축은 그 중요도의 순위가 형태→재료→색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결정도 역시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구상단계에서 색채를 맨 먼저 머리에 떠올리든가, 재료를 먼저 생각하고 형태를 구성하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하위의 선택이 상위로 휘드백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 순위는 역시 형태→재료→색채가 옳을 것이다.

나. 조오닝(Zoning)과 그루핑(Grouping)

조오닝은 건축계획이나 도시계획에서 쓰이는 기본적 기법의 하나로, 건축계획에서는 단일건축물이나 일단의 건축물을 기능별 또는 구역별로 나누어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나누어진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통합됨은 물론이다.

색채계획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전체적 통일에서 오는 획일성을 방지하고, 개별적 계획에서 오는 산만함을 없애 줌으로써 통일과 변화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며 기능별, 구역별 식별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은 학교건축에서의 색채 블록프랜의 예이다. 블록별로 주조색을 구별하여 변화도 주고 식별성을 높이며 또한 高·中·低學年別 이미지에도 합치시키는 것이다. 그림 2는 아파트단지의 조닝 예이다. 이 예는 基調色 (主調色의 개념과 구별됨)을 베이지색으로 정하고 각존을 같은 기조색의 단계적 色調變化(Gradation)로 구분 함으로써 시각적 변화와 식별성 제고를 의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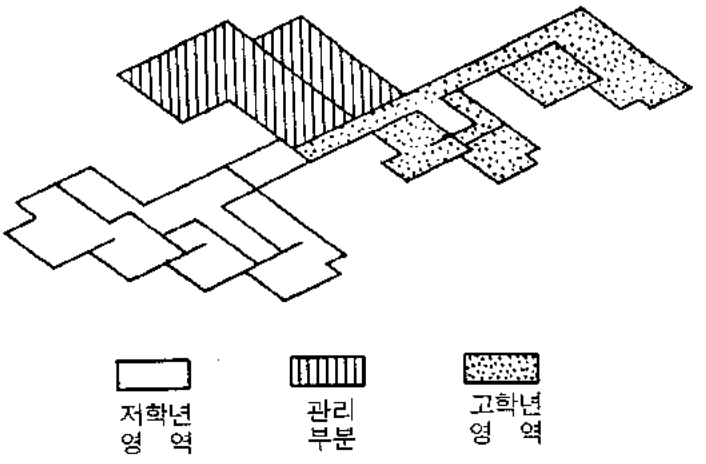


그림 1. 학교건축 색체계획의 블록플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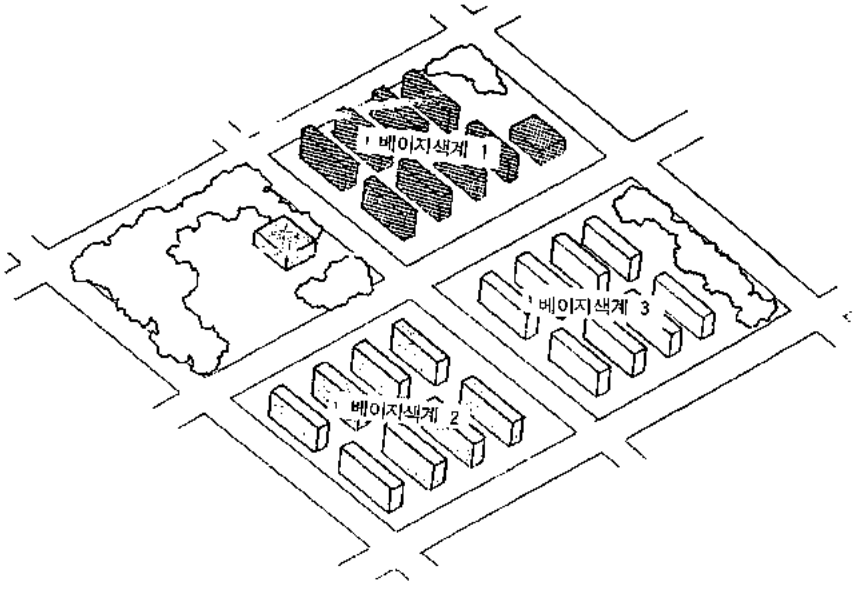


그림 2. 아파트단지 색체계획의 조닝 예

다. 외장배색

건축물의 외장배색은 실내배색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 첫째는, 건축색채는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인간의 생활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둘러싼다고 하였는데, 외장색채는 실내의 색채에 비해 둘러싼다는 성격이 약화되고 그 대신 보이기 위한 성격이 더 浮彫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집합은 역시 둘러싸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이기 위한 배색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경·배경의 관계에서 건축물은 배경이 된다고 하였는데 멀리 있는 건축물은 전경이 될 수도 있다. 원경에서는 건물이 시야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건축물은 사람과 물체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어야 하므로 "前景"으로서의 존재를 강조하는 배색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둘째는, 건축외부의 색채는 자연환경의 색채와 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초록의 녹색을 배경으로 했을 때 명백성의 원리에 가장 맞는 흰 외장색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또한 초록의 녹색은 붉은 벽돌색이나 밝은 석조건물의 외장색과도 잘 어울린다. 녹색 배경에 BG 또는 B계의 지붕을 흔히 보는데 이는 잘 조화되지 않는 배색이며, 기와 素材色 그대로의 회색이나 低明度 高彩度의 B계가 적합하다. B계의 지붕색을 쓴다면 채도를 아주 낮춰야 할 것이다.
셋째는, 건물외부의 색채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주변의 인공환경과의 관계도 신중히 검토하여 배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존가격의 기조색에 맞추는 것이 무난하다. 유럽에서는 거의 주변건물과 동일재료, 동일색채로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경향이다. 반드시 동일색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질서한 색채의 집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세가지 이외에는 거의 기본원리를 그대로 고려에 넣으면 될 것이며, 중요하고 형태가 아름다운 부분은 강조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모양이 보기 싫은 부위는 억제하는 등의 수법은 내외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창호틀을 흰색으로 하여 눈에 띄게 하고, 선홈통은 벽면과 같은 명도로 하여 눈을 끌지 않도록 하는 배색을 들 수 있다.
건축 외장배색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근래 유행하는 수퍼그래피즘 (Supergraphism)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건축물의 부위, 형태, 재료에 관계없이 그래픽 디자인과 같이 벽면을 자유로이 채색하는 것이다. 건물의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는 공간의 분위기를 돋구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디자이너의 재능에 달렸으므로 과학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축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건축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라. 색채설계

(1) 설계의 순서

그림 3과 같은 단계를 밟으면 효과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간략한 순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미지작성 : 이 단계에서는 스맨틱·디퍼렌셜법이나 혹은 더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그 기능을 갖는 실내 또는 외부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작성하고 설계는 그 이미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② 부분과 전체에 대한 고려 : 규모가 큰 경우는 전체적인 통일과 변화의 균형이 중요하다. 조오닝과 그루핑은 유용한 방법이다.

③ 빌딩·엘레멘트의 검토 : 색채결정이전에 각 부위의 중요도, 형태, 면적 등을 검토해서 어느 부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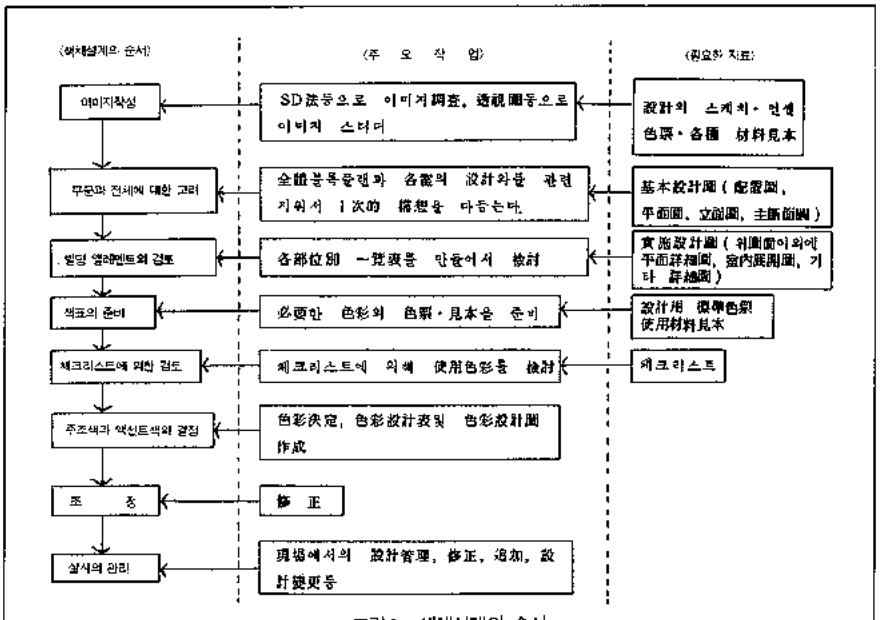


그림 3. 색채설계의 순서

(표 1) 색채설계 체크리스트

| 대 항 목 | 세 부 사 항 |
|---|---|
| 색채의 블록플랜은 적절한가 | 조오닝 (zoning)<br>그루핑 (grouping) |
| 각부위의 색채는 적절하게 선택되었는가 | 각부위의 표준적 색채<br>강조와 억제, 부위의 중요도, 부위의 형태, 부위의 면적, 부위의 명암, 어디서 볼 것인가 |
| 색채이외의 속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광택, 투명도, 텍스처, 바탕의 모양, 패턴, 재질감 |
| 실내배색의 조화는 어떠한가 | 질서, 친근성, 공통성, 명백성, 주조색과 액센트색, 균형점 |
| 색채효과가 바르게 이용되었는가 | 면적효과, 상호반사, 색순응, 색대비, 동화효과, 유목성, 시인성, 가속성<br>온도, 거리, 대소·중량 등의 감각 ·<br>기억·기호·연상·상징·감정효과 |
| K S 는 지켜졌는가 | 안전색채 사용통칙<br>형광안전색채 사용통칙<br>안전색광 사용통칙<br>안전표시<br>배관식별 |
| 조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인공광원의 종류<br>빛의 색, 연색성, 조명효율, 눈부심 |
| 보수는 용이한가 | 변색, 퇴색, 더러움을 타기 쉬운가 |
| 건축색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생활을 둘러싸는 색채<br>사람과 물체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br>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색<br>차분한 배색<br>그 건물다운 느낌을 주는 색<br>색채는 형태나 재료에 종속 |
| 외장배색은 바르게 되었는가 | 외부와 내부의 구별<br>자연환경과의 조화<br>주변 인공환경과의 관계 |

색채를 고채도로 할 것인가 저채도로 할 것인가, 또 어떤 부위를 고명도로 할 것인가 저명도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실전체의 색상을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를 검토한다.

④ 색표와 재료견본의 준비 : 표준색표와 재료 견본을 수집 준비한다.

⑤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 표 1과 같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사용할 색채의 적부를 검토한다. 매항목을 모두 채크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⑥ 주조색과 액센트 색의 결정 : 배색은 주조색과 액센트 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후자는 없을 수도 있다. 주조색은 넓은 면에 침착한 색으로, 여러 부위에 공통성있게 사용되고, 액센트색은 통상 좁은 면에 刺戟이 강한 색으로 배색한다. 여기에 보조색이 추가될 수도 있다.

⑦ 조정 : 일단 색채설계가 끝난 뒤, 비슷한 색을 정리한다든지 전체적으로 矛盾이 없게끔 수정한다든지 하는 마지막 조정을 가한다.

⑧ 실시의 관리 : 색채의 변경, 누락된 부위의 색지정, 설계변경에 따른 색채변경등 색채설계는 건물 준공시까지 계속된다.

(2) 체크리스트

표1의 체크리스트는 건축색채에서 다루어져야 할 거의 모든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색채설계를 검토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거꾸로 이 사항들을 누락없이 반영하면 좋은 색채설계가 될 것이다.

## 2. 도시경관과 색채

가. 시각환경에서의 색채의 의미

이텔슨(W. H. Ittelson)이 주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여섯가지요건 가운데 세가지가 시각에 관계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 세가지는 첫째 스트레스를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오염·소음·교통난 등의 過負荷的 環境에서 오는데 거기에 시각적 불쾌감도 가세되어 사람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므로 시각적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둘째는 도시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미지 형성에는 교통의 수단과 경로, 경계선, 절점, 랜드마크, 특징있는 지구등이 포함되는데, 랜드마크와 특징있는 지구(고궁이 있는 지구, 골동품 거리, 환락가 등)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시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세째는 환경의 농요함인데 다양성, 아름다움, 생동감, 상징적 의미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시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각적 요소들이 도시전체나 가로의 쾌적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각을 통해서 快·不快 또는 美·醜를 느끼게 하는 3요소는 形態·色彩·텍스처이고, 텍스처는 그 재료의 표면 구조 패턴인데, 시각에 감지되는 자극으로서는 가장 약하고 미묘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경관은 단일건물의 외관이나 건물의 인테리어와는 달리, 주로 遠景에서 파악되므로 텍스처는 더욱 그 영향이 약해지며 도시 환경의 시각적 효과는 주로 형태와 색채 그 두가지에 거의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두가지 인자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어떤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 물체를 보았을 때 (의식적으로 시선을 주었을 때) 자극의 강도는 최초에 색채80%, 형태20% 였다가 20초 후에 색채의 비율은 급격히 감퇴되고 2분 후에 색채60%, 5분 후에 색채와 형태가 같은 비율이 되어 그 때부터 그대로 지속된다고 한다. 이 실험대로라면,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본 5분 이내에는 색채 자극이 더 강하고 그 뒤는 같은 비율로 지속되므로, 합쳐서 판단할 때 결국 색채의 자극이 형태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도시경관은 승차하거나 보행으로 이동하면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때, 짧은 시간내의 자극이 더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색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는 그 기능상 요구에 따라 구조, 재료,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태가 색채에 선행되는 것이고, 형태가 색채보다 우위에 선다고 하겠다. 즉 표현을 바꾸면 색채는 형태에 종속되는 것이며, 색채가 형태를 구속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인체와 의복의 관계에서, 체격의 결함을 옷으로 완전히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 결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보이게 할 수는 있듯이, 색채는 형태를 더욱 아름답게 하거나 혹은 추하게 악화시킬 수 있고, 나쁜 형태를 어느 정도 덜 나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형태의 지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결국 시각환경의 질은 모든 환경 구성요소의 형태 디자인에 크게 달린 것이며, 微視的으로 구성요소 하나하나와 巨視的으로 전체적인 시각요소의 형태구성에 좌우되는 것이다. 색채는 그 환경 경관의 시각 효과를 증진시키느냐 악화시키느냐 하는 2차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환경색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고 정부에서도 색채환경 관리지침을 작성, 이를 추진하는 등 관민이 모두 색채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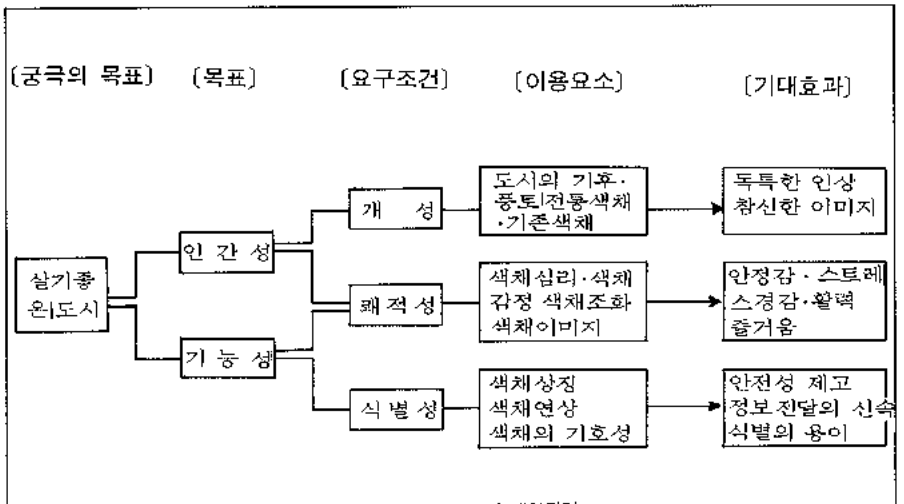


그림4. 도시색채의 계획원리

이는 아마도 형태를 결정하는 변수는 너무나도 복잡하여 그 통제나 관리가 쉽게 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형태보다는 색채의 자극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다는 점, 형태의 개선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색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도시 내지는 환경색채가 混亂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單調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에서 건축물의 크기, 외관등의 그 기능, 위치, 경제적 요인, 공화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은 형태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쉽지 않다. 또 설사 造形上評價가 나쁘게 내려져도 그것을 개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 색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나름대로 평가 하기가 쉽고 또 비교적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들여 고칠 수가 있다. (형태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덜 든다는 뜻이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즉 『環境色彩』는 시각환경을 구성하는 『形態』에 비해, 행정적 또는 제도적 장치, 계몽, 교육 등을 통해 어느정도 통제, 관리,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나. 도시환경 색채의 계획원리

(1) 환경색채의 목표와 요구조건

환경문제의 궁극적 과제는 현재와 미래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점에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환경 가운데도 특히 도시경관에 관해 다루기로 한다.

도시는 복잡한 구조의 有機體이고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다. 인간의 온갖 욕구와 꿈이 集積되어 있는 곳이 도시이다. 이와같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고, 사람들의 많은 욕구와 꿈을 실현하게 하려면 도시기능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이 소외되고 도시는 거대한 기계로 화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는 기능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공간의 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는 실제문제에서 상충될 수도 있으나 지혜롭게 이를 조화시켜가면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의 요구조건을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個性 ② 快適性 ③ 識別性이다. 그 도시의 기후·풍토·기존시설·관습·전통색채 등과 관련지워진 그 도시의 독특한 개성이 도시경관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카나다의 뱅쿠버시는 가로등·신호등·벤치·피크닉쉐어 등의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이 짙은 초록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독특하고 붉은 벽돌건물과 잘 어울리며 (색채이론상의 補色調和에 해당) 가을 겨울 등 녹색이 부족할 때 이를 보충해 주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흰 雪景과의 對比調和로 개성적인 경관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또한 쾌적성은, 소음·진동·먼지·일조방해·공기오염 등으로 부터 도시민을 보호하듯이 우리 시각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어지러운 색채를 추방하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색채사용을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을 소외하는 획일적이고 삭막한 색채환경도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配色이 基調를 이루더라도 번화가나 위락시설등에는 다채롭게 색채효과를 활용하여 활력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계획되어야 할것이다. 식별성에 대해서는, 각종 표지와 시설물의 기능에 맞는 배색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정보전달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색채의 상징성, 연상작용, 이미 알려져 있는 色彩標識등을 토대로 한 색채의 記號性을 활용해야 한다. 그림 4 는 도시환경색채의 목표, 요구조건, 이용요소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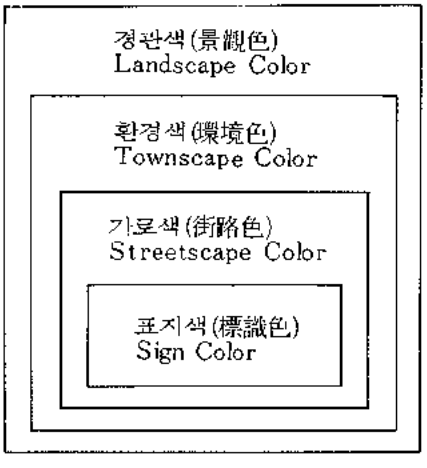
(2) 주변환경색과의 관계

도시 구성요소의 색채는, 개개가 個性, 快適性, 識別性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색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매스가 작고 면적이 좁은 부분에는 자극이 강한 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위의 기존색채와의 색차(색상·명도·彩度별의 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차가 크면 대비효과로 자극이 강해지고 인간에게 과도한 視覺負荷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스가 작은 것은 誘目性과 視認性이 좋게 강한 對比로 배색 (우체통·소화전·금지표시 등)하는 것이 보통이나, 작아도 강조할 필요가 없는 휴지통과 같은 것은 역시 채도를 낮추고 주변색과 차가 적은 배색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특색있고 기념적인 조형이라면 환경색과 대비되는 배색으로 그 형태를 강조하고, 평범하고 형태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환경색과의 색차를 억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경관색의 체계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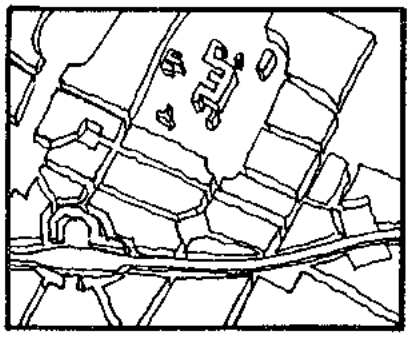
도시경관 색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거기에 대응하는 색채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하나는 視距離에 의한 구분이다. 인간이 주로 그 대상을 보게되는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색의 양태를 遠景色(landscape color), 中景色 (townscape color), 近景色(streetscape color), 近接色(sign color)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레벨에 따라 색채 계획에 그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가 멀어질 수록 채도가 낮아 보인다든지, 여러 색이 하나의 혼합색으로 보이는 문제, 배색면의 크기에 대한 고려등이 계획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근경에서는 배경색이던 것이 원경에서는 하늘, 숲, 강, 바다 등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前景(Figure)이 됨도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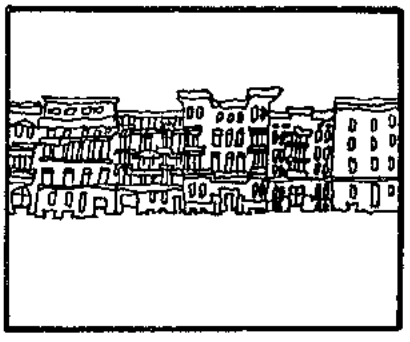



• 경관색(조경) : 가로가 하나의 매스로 의식되는 레벨
• 환경색(중경) : 가로가 개개의 단위로 의식되는 레벨
• 가로색(근경) : 가로가 건축군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의식되는 레벨
• 표식색(근접경) : 표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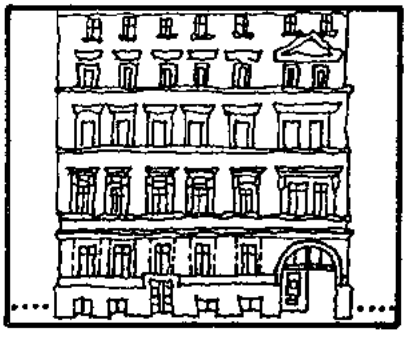
그림5. 視距離 레벨에 따른 도시색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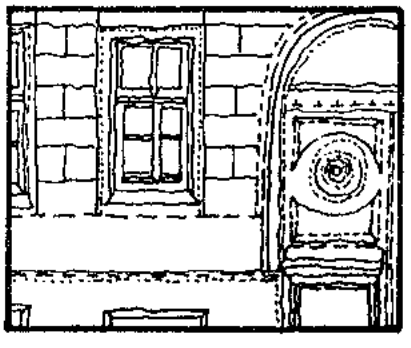
지역의 스케일(경관색)
(Scale of the neighborhood)



가로의 스케일(가로색)
(Scale of the street)



단일건물의 스케일(건물색)
(Scale of a single building)



건물세부의 스케일
(Scale of a building's details)

(그림6) 視距離에 따른 색채경관의 스케일差

그림6은 이러한 視距離레벨에 따른 체계를 도시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영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의 구별이다. 송신탑이나 가로등은 영구적인 것이고 건물은 물론 영구적인 것에 속하며, 가판대나 벤치는 일시적인 것이다. 간판이나 광고물도 일시적인 것이다. 영구적인 것은 환경과의 조화에 더 신중하여야 하며 자기주장을 억제하는 배색이라야 하고, 일시적인 것은 다소 자유스럽고 개성있는 색채도 무방할 것이다.
또 다른 구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건축물이나 광고탑은 고정된 것이고 도시내의 각종 차량, 놀이터의 롤러 코스터 등은 움직이는 것이다. 같은 색채라도 움직이면 자극이 더 강해지므로(고속이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으나 도시내의 차량은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없다) 차량의 색채는 채도를 더 떨어뜨리고 또 단순한 배색이 좋을 것이다.
(4) 색채선호의 공통성
색채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기호 등은 상당한 개인차가 인정된다. 그러나 어느 장소, 어느물체, 어느 조건(기후·계절·밝기 등)을 구분하여 다수인의 선호를 조사해 보면, 어느 범위의 共感帶가 반드시 있다. 百人百色이란 말은 이 경우 적절하지 않으며, 색채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도시경관은 도시민 전체의 것이므로 부특정 다수인이 받아들이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색채선택을 다수결로 한다든지 기호색의 평균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전문가가 자기의 개성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어떤 원리에 의해 신중히 선택하면 대개는 성공하는 법이다.
(5) 背景色으로서의 都市色
도시색채는 게슈탈트심리학에서의 전경과 배경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의 주역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돋보이는 색채가 되어야 한다.
다채로운 原色이 도시공간의 많은 면적을 차지해 버리면 인간의 피부색이나 화장, 衣裳 등이 파묻히고 만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도시민에게 약간의 흥분과 즐거움, 활력을 주기 위한 번화가, 위락시설, 박람회장 등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건물이나 고정된 시설물보다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에 더 풍부한 색채를 사용함이 옳을 것이다.
더구나 국토가 좁고 평지가 적어 자연 지형의 변화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인구밀도가 세계 정상을 다투는 우리나라 대도시는, 광활한 평지를 가진 나라나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보다 더 절제된 색채 사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색채가 너무 단조하고 삭막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하나, 다채로운 유니폼과 갖가지 피부색이 돋보이는 배경으로서 그러한 무채색에 가까운 단순한 벽들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의 유니폼과 피부색뿐 아니라 참가국기, 카드섹숀, 매스게임, 현수막, 아치, 풍선, 애드벌룬, 각종 표지판 등 그야말로 色彩의 祭典이라고 할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시설은, 하나의 배경이 되어 그것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땅하리라고 본다.
(6) 主調色과 補助色

모든 디자인 원리에 지배적인 요소와 종속적인 요소가 있듯이, 배색에도 주조색이 먼저 결정되고 거기 조화되는 보조색,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액센트색이 선택되는 것이 기본적 방법이다.
도시의 색채도 이 원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이와같은 위계(hierachy)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로 또는 도시 전체에도 있을 수 있다.
주조색의 결정은 먼저 그 대상에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그것이 놓여지는 환경색과의 조화를 따져보고 그밖에 전술한 여러 원리들을 적용하여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그 시설물의 이미지 스터디, 또한 그 장소의 환경색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조색은 색의 3속성별로 주조색과 대비 또는 유사가 되는 조화색을 역시 이미지 부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극히 좁은 면적에 국한하여 액센트색이 사용될 수 있다. 액센트색은 유목성이 높고 주조색이나 보조색에 다같이 강한 대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우리나라 도시환경색채의 현상
우리나라 도시의 색채는 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색채 범위가 없다. 물론 국토가 좁아 기후·풍토나 문화가 거의 균일하므로 현저한 특성을 살리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래도 이를테면 강원도 산간지방과 호남의 평야지대는 지세와 지질, 식생 등의 자연조건이 다분이 다르고 또 호반도시·항구도시·공업도시·연구학원도시·고적도시등 특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거리의 색채는 어디를 가나 비슷하고 거리의 분위기도 거의 다를바가 없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문화가 거의 균일해서 지역적 특색이 없다면 우리나라 전체로서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특징적 인상이 있어야 할텐데 실제는 어떤가. 무질서한 색채의 혼재가 있거나 역으로 색채의 부재로 삭막한 경관을 보여주거나 할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다.
이는 특히 인공환경색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환경은 유난히 푸른하늘, 4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색의 다채로움, 바위색과 흙색의 다양성 등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인공환경도 옛날에는 독특한 경관의 색채가 있었다. 전원에는 초가지붕과 흙벽, 또는 회색기와지붕과 흰 벽 등 차분한 가옥의 색들이 사철 변화하는 자연의 배경 속에 잘 어울렸고, 도시는 주로 기와, 돌, 회벽 등의 무채색과 목재색이 주조를 이루며, 간간이 주황색 전돌이 외벽, 담, 굴뚝 등에 장식적으로 쓰여 액센트의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는 여러가지 건축외장재의 발달과 도료의 보급으로 색채사용이 자유스러워져 그만큼 경관의 미를 증진시키기도 하였으나 한편 誤用과 남용으로 색채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도시의 색채경관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건축물보다도 간판이라 할 정도로 난잡한 광고물의 색채가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다 정거장 표지·휴지통·가판대 등의 가로장치물, 현수막, 각종선전판 등이 시각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붙어 있는 간판들은 그 크기, 위치, 배열 상태, 글자디자인, 광택나는 저질의 재료(프라스틱 등) 등이 절제되지 않은 색채와 합쳐져서 건축물의 외관을 훼손하고 나아가서 도시경관의 품위를 매우 손상하고 있다.
또한 배색면적이 비교적 크고 양도 많은 버스·택시등의 차량색채는 세련되지 못하고 도시경관색과 조화도 이루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체 도시 색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차량색은 정지된 물체보다 그 운동성으로 말미암아 자극치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배색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등장한 보라색 시내버스는 그 색이 갖는 이미지, 도시환경색과의 조화, 그 색이 주는 심리반응 등 몇가지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배색의 예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눈에 설어서 거부반응이 있었으나 차차 눈에 익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견해야말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익어서 거부 반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색채감각이 저질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택시의 배색도 점차 고쳐나가야 하겠다. 채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많아 자극이 강하고, 색채와 더불어 차체위의 표시등, 번호, 회사명 등의 글자 디자인이 그렇게 수준이 낮을 수가 없다. 이것은 디자인 不在現狀이라고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근래 자주 지적되어 온 농어촌의 주택 개량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의 처졸한 원색사용도 우리 국토경관을 훼손하는 요인이다.

라. 색채환경의 향상을 위한 개선책
다음 몇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각 도시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건축위원회에 색채 전문가를 보강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색채심의를 강화하며, 미관심의를 받는 건축물 이외에도 주요 시설물의 색채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제도적 조처를 해야할 것이다.
둘째, 官이 시행하는 모든 시설물의 신축, 설치, 개조, 再塗裝時에는 전문가에게 색채설계를 의뢰하거나 적어도 자문은 거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교량, 대형탑, 차량 등 시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배색안을 일반공모에 붙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째, 영화, TV, 홍보책자 등을 통한 색채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 외국의 우수한 도시색채의 예와 우리나라 도시색채의 현상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밝혀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든지 색채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어느 표본지구의 現狀과 개선된 후의 상황을 제시하여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든지 하는 흥미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널리 국민에게 색채환경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네째, 간판 등 광고물은 그 크기, 위치, 수량과 더불어 색채를 제한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 색채나 디자인면에서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도시마다 또는 어떤 행정단위마다 조례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규정이 미비한 탓인지 집행이 미흡한 탓인지 눈에 띄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섯째, 표준색표의 제정과 보급이 시급하다. 색채의 선정과 전달은 말이나 부호로는 정확을 기할 수가 없으므로 실제의 색채로 칠해진 색표가 없이는 모든 이론이 공론에 불과하다. 연구, 디자인, 시공관리, 통제 어느면에서나 표준색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시내의 각종 버스들의 도색을 보면, 같은 종류의 시내버스 또는 좌석버스의 색이 비슷하기는 하나 똑같지가 않다. 엄밀한 의미의 동일색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는 정확한 色票로 색이 지정되거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색채는 형태에 종속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형태디자인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모두 가질 필요가 있다. 좋은 디자인을 선택할 줄 알고, 機能性과 함께 造形美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교육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그 만큼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색채를 포함한 환경의 질은 결국 그 나라 국민의 전반적 문화수준의 반영이므로 소수의 전문가가 주장한다고 해서 또는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단시일에 색채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래 일기 시작한 색채환경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 붐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다음 세대에 수준높은 문화유산을 물려 줄 책무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겠다.

〈끝〉

■ 會員動靜

## 변경

□ 서울지부

▲조영민 / 건축사사무소 다운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85－1 / 547－9178

▲김두호 · 박선홍 · 이장백 /기전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68－18/553－8248

▲백진석 / 건축사사무소 산림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72－32/540－4250

▲서양원/청수건축사사무소/서울시 중구 신당동101－7/252－1150

▲방승대/건축사사무소 간/서울시 강남구 서초동245－15 / 567－5973

▲김영래 / 송림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서구 목동731－1 / 697－3111

▲김인하 / 정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395－166 / 333－6181

▲홍순명 / 홍명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499－50 / 973－4806

▲강신관 · 김현식 / 건축사사무소 예건사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 가368 / 313－3511

▲구정광 · 조정상/건축사사무소 요셉 건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54－4 / 545－5045

▲김인배 / 건축사사무소 엘림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54－4 / 545－1703

▲김성래 · 안준수 · 임승무 / (주)예종합 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 566－6007

▲허 진 / 진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97－1 / 385－9528

▲김정호 / 정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1390 / 236－3797

▲권영선 / 은광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 구획 1 / 866－7601

▲김학경 / (주)석우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795－8 / 591－4623

▲김대로 / 김대로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 1 동140－3 / 718－8289

▲김인환 / 건축사사무소 명정건축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314－36 / 488－7139

▲임급주 · 송정현 · 엄기철 / 경일거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1669/532－9051, 7921, 7922

▲구제창 / 기림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414－1 / 322－3930

▲김창용 / 건축사사무소 동서환경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586－5/540－6196

▲강신관 · 김현식 · 박규영 / 종합건축사 사무소 예건사 오성

▲김진규 / 삼창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103－6 / 253－2324

▲박서홍 / (주)동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1－1038 / 364－4441

▲방수일 · 하학수 / 반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936－8 / 584－6634

▲이홍수 · 정원영 /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일정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817－3 / 543－6326, 542－8168

▲허 경 / 유정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97－18 / 922－1363

▲김인철 · 한영제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04－4 / 549－1104, 549－1176

▲김일영 / 정·이화·동신종합건축사 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252－16 / 444－2335

▲우남용 · 김정문 · 이원형 · 김서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 · 세종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637－5 / 586－6993, 587－4320

▲김연배 / 건축사사무소 가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132 / 542－7181

▲김종택 / 복음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1060－11 / 583－9283

▲석정훈 / 건축사사무소 태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1000 / 552－4245

▲이근주 / 삼명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도봉구 수유 3 동174－14 / 907－7300

▲박창배 /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80－1 / 545－9964

▲박찬정 · 김영국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90－7 / 549－0996

▲오양근 / 오양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17－2 / 541－1290

▲진추경 / 건축사사무소 자연명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40-9 / 545-4656, 542-9301
▲유지현 / 국원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98-23 / 94-2345
▲한 홍 / 우전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302-45 / 567-4379
▲김만성 / 삼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275-5 / 269-5333
▲진옥윤 · 김종운 / 예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831-28 / 567-0159
▲김기철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82-7 / 556-4582
▲곽성문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90-7 / 549-2701
▲김용엽 · 김재승 / 태양건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01-4 / 547-5382, 540-0408
▲오 완 / 서한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91-1 / 267-8161
▲서충석 · 정효환 / 정이화동신종합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252-16 / 444-0022, 445-5105
▲남기범 /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53-12 / 782-4625

□ 부산지부
▲이영진 / 다다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 부전동347-29 / 804-7922
▲심종세 / 덕산건축사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593 / 54-3402
▲추교준 / 환경건축사사무소 / 동래구 명륜동401-3 / 554-9991
▲김진태 /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 동구 초량동1156-1 / 462-4711
▲박형태 / 성심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 동래구 수안동593 / 552-2023
▲이성원 / 삼미건축사사무소 / 동래구 복천동380-7 / 53-8648
▲천창길 / 양지건축사사무소 / 북구 괘법동835-6 / 92-2087
▲김철재 · 이민우 · 이홍기 / 종합건축사사무소 미조 / 동구 초량3동1164-5 / 44-0068~9
▲조상전 · 김명필 · 윤석환 /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조·필·환 / 동구 초량3동1164-5 / 463-5656, 23-5546, 23-9395

□ 대구지부
▲이연억 / 이연억건축사사무소 / 동구 효목1동962-2 / 955-1171
▲최강호 / 건영건축사사무소 / 남구 대명동1136-8 / 66-5403
▲석용길 · 박현일 · 이경용 / 건축사사무소 우진 / 중구 동인2가62-3 / 44-2396, 45-7009, 422-5713

□ 인천지부
▲조남수 / 진양건축사사무소 / 북구 부평동441-30
▲채수헌 / 대헌건축사사무소 / 남구 도화359-4
▲문수일 / 동양 건축사사무소 / 남구 도화359-4

□ 경기지부
▲연진명 / 연진명건축사사무소 /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71-27 / 2-5583
▲정득명 / 정득명건축사사무소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461-1 / 82-0394
▲김회중 / 동양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198-22 / 42-5162
▲박태신 / 명성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198-22 / 3-4116
▲안영준 / 삼예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198-1 / 2-6594
▲박수현 / 보성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198-1 / 42-2903
▲황창구 / 평해건축사사무소 / 평택시 평택동66-1 / 2-2224
▲안일남 / 안일남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권선지구21-7 / 44-2374

□ 충북지부
▲홍록표 · 류대현 · 최호진 / 대호 · 동구 건축사사무소 / 청주시 북문로2가116-154 / 2-4273, 3-5643

□ 충남지부
▲전응구 / 전응구건축사사무소 / 조치원읍 교동16-3

□ 전남지부
▲양동범 / 양동범건축사사무소 / 741-7711
▲박금식 / 건축사사무소 진남 / 741-7255

□ 경북지부
▲최병민 / 청산건축사사무소 / 경산군 경산읍 중방동506-13

**재입**
□ 경기지부
▲박노선 / 선진건축사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10-77 / 32-0404

**휴업**
□ 서울지부
▲김영일 / 동건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822 / 566-3563/87.3.1~87.8.30 (6개월간)
□ 경기지부
▲박수현 / 화덕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 의정부동193-12 / 42-2903 / 87.3.7~87.7.1

**폐업**
□ 서울지부
▲백영철 / (주)선진엔 · 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14-11 / 783-5301

**결혼**
□ 서울지부
▲김창익 / 장녀결혼 / 87. 3. 14, 14 : 00 / 신궁전예식장
▲임용택 / 장녀결혼 / 87. 3. 19, 12 : 00 / 갈보리교회
▲신명수 / 장남결혼 / 87. 3. 22, 12 : 00 / 영빈예식장
▲이춘수 / 2남결혼 / 87. 3. 22, 11 : 00 / 귀빈예식장
▲김재경 / 삼녀결혼 / 87. 3. 28, 15 : 00 / 현대예식장
▲구경주 / 장녀결혼 / 87. 3. 28, 13 : 00 / 신천천주교회
□ 경기지부
▲심태섭 / 차녀결혼 / 87. 3. 14 / 동궁예식장
▲김세재 / 차남결혼 / 87. 3. 22 / 평택동양예식장

**별세**
□ 서울지부
▲이만재 / 아세아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신설동92-17 / 87. 3. 25
□ 경기지부
▲한진택 / 모친별세 / 87. 3. 2 / 성심병원(강남)
▲김동만 / 부친별세 / 87. 3. 17 / 자택

# 질서교향곡

강경모
한미은행 압구정지점 지점장

질서는 아름다운 조화이고 약속이다.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광경을 상상한다. 앞에 선 지휘자의 손짓과 악보에 맞추어 한사람 한사람의 연주자는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 비록 연주시간이 단 1분도 되지않는 심벌즈 연주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자신의 연주를 다하고 나서도 교향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자와 또다시 연주자와 호흡을 함께하고 연주하는 마음을 갖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주어진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한 그들에게서 우리는 질서를 발견하고, 감명을 얻으며, 박수와 찬사로 존경을 표시하게 된다.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질서가 필요없는 단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사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그 사회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규범을 만들었고 그것은 나와 타인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나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사회는 아름다운 조화속에 파라다이스일 수 있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무질서한 지옥일 수 있는 것이다. 질서는 하나의 line을 통해 얻어지는 상품과 같이 획일되고 규격화 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몇년전 눈오는 겨울날 택시를 타려고 택시정류장 긴 행렬의 마지막에 서게 되었다. 그날은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한줄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복잡한 도심의 횡단보도 저편에 빈택시 한대가 정차하고 있자, 언제 줄을 서고 기다렸냐는 듯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줄을 이탈해 먼저 타려고 아우성이였고 행렬은 이미 없어진것과 다름 없었다. 그다음 순간 택시 운전사는 그들(행렬 이탈자)을 한사람도 태우지 않은채 정류장까지 와서 맨앞에 기다리던 사람을 태우고 떠났다. 나는 그순간 택시 운전사의 훈훈한 질서 의식을 목격하였고, 또한 겨울날씨보다 더 추운 무질서를 보았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는 무엇엔가 쫓기는 사람처럼 조급함에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나하는 느낌이 든다. 거리에 나가면 한뼘 만큼이라도 먼저가려고 경적을 울려대고,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쏜살같이 질주하며, 쉽게 흥분하여 욕설을 내뱉고, 야구공이 날아야할 운동장에 소주병이 날아가고……. 분명 우리는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좋지 못한 생활상이 심심하지 않게 눈에 뜨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나 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다. 그래서 내 어머님이 아니고 우리어머님 이였고, 내 나라이기 보다는 우리나라 였다. 하나 하나의 개체보다는 공동의 조화를 가꾸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수탈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몸으로 겪으면서 우리보다는 내가 먼저 생존하고 편해 보려는 이기심이 싹트고,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흡수로 어느틈엔가 우리의 공동의식은 좀먹고 주인의식은 퇴색되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좋은 유산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다가오는 서울올림픽을 맞아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의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우리의 생활습관을 과감히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 우리는 언제 무질서했냐는 듯이 많은 외국인 앞에서 정돈되고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준 바도 있다.

얼마전 우리가 생계를 위해 조급하고 흥분되어 왔다면 이제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지금 보다 차분한 의식을 되찾고 훌륭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연주자의 자세로 되돌아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며 모두와의 약속을 지켜야겠다.

# 竗洞마을 조사 연구(Ⅰ)

임충신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Report/A Suvey on a Myo-dong Vilage
by Lim, Choong-Sin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진들이 한국의 전통취락 및 주택 연구에 있어서 초석을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현지조사와 실측작업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으나 실측부분의 작업이 워낙 까다롭고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되어 해석을 충분히 가하지 못했다.
본지에서는 2회에 나누어 게재하며 1회는 연구개요와, 인문 환경조사, 마을 조사를 다뤄 보았다.

## 머 리 에

본 연구의 대상지인 묘골마을은 행정구역상 慶尙北道 達成郡 河濱面 竗洞으로서 현재 30여가구가 주로농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대구에서 제법 가까운 마을이다. 이마을은 15세기 후반에 順天朴氏들이 入鄕하여 그후 同族部落을 형성해 지금도 주민의 절반이상이 순천박씨로 이루어져있다. 묘골은 桐谷과 倭舘을 잇는 지방도상에서 약 1km거리의 진입로를 통하여 동내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도로부터는 굽어진 골짜기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므로 마을이 보이지 않아 아늑하고 피난에 알맞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같은 행정부락에 속하는 마을로 道菜와 坡回가 있다. 도채는 국도쪽에서 볼때 묘골보다 더 깊숙히 자리하였고 파회는 지방도에서 더 가까와 바로 이 마을을 볼 수 있다. 파회는 묘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묘골에서 이주한 박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묘골마을은 조선초기 死六臣의 한분인 忠正公 朴彭年의 遺服孫인 朴臺珊이 개척한 마을로서 그후 박씨일가가 번성하여 6.25전까지도 他姓을 합하여 100여호의 가옥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30여호에 지나지 않고 인구도 차차 줄어들어 가는 추세이다.
이마을에서는 조선시대에 많은 學子, 官史가 배출되었으나 지금은 옛날의 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한식 기와집들이 몇채 남은 정도이다. 또한 마을을 지키는 이들도 임차농이나 영세농이 대부분이다.
본연구의 대상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당초에 설정된 몇가지 조건은 첫째 전통주택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을 것, 둘째 독립된 취락으로서 군집되어 있을 것, 셋째 거리상이나 규모상, 경비상으로 장기 조사에 적합할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경남 및 경북의 3개 마을(칠곡군 왜관읍 매원, 산청군 단계리, 묘동)에 대한 예비답사를 행한 결과 본 대상지인 묘동이 위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묘동은 사육신이라는 역사적 인물과 연결되어 거주인의 맥락이 끊기지 않고, 마을 공간구조로 볼 때 축과 위계가 분명하며 반상의 위계질서에 대한 장소적 구별이 뚜렷한 점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취락 및 주택연구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연구진들의 계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실측조사에 있어서 본 대학 학생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조사의 첫단계로부터 마무리까지 묘동 마을 박도덕씨의 헌신적인 도움을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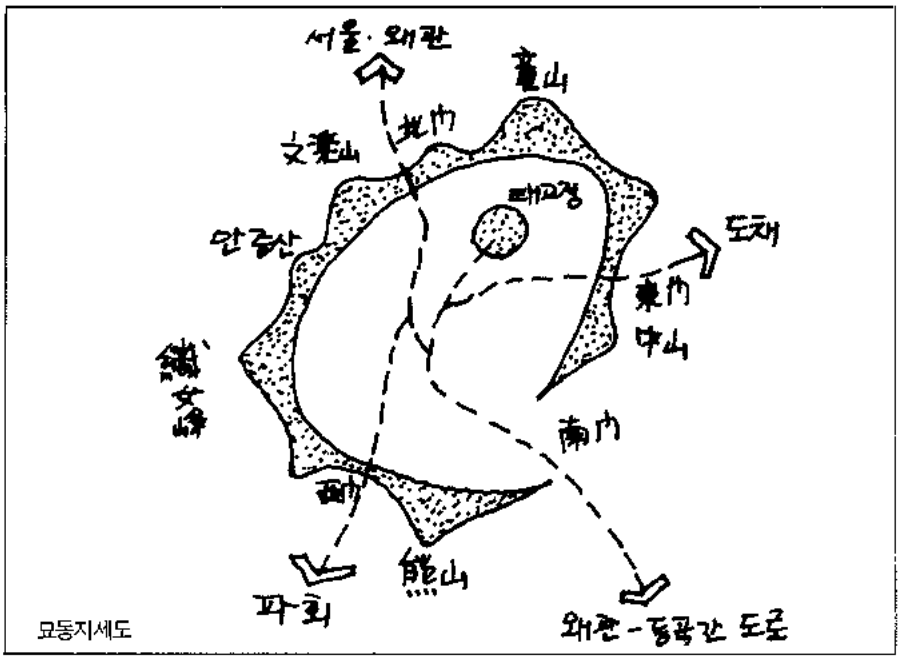
##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계속되어 온 한국의 전통건축연구의 한줄기를 이어받은 것으로 의인. 섬마을 (1976), 남사(1983)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두개의 조사보고서는 한국건축연구에 있어 전통취락 및 주택의 자료축적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도 그러한 맥락에서 행해졌지만 약간의 방향전환을 꾀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앞선 두 조사보고서가 건축도면의 충실한 작성이라는 데에 주목적을 두었다면 금번의 조사연구에서는 도면은 도면대로 충실히

작성하되 解析作業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운위될 수 있으나 가장 평범하게 들 수 있는것이 대상에 대한 실측과 이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측의 경우 경비와 시간때문에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경비와 시간이 모처럼 허락되어 실측작업이 가능할 경우에도 차후의 해석에 대한 고려가 없는 채로 실측을 행하면 실측된 자료가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민가 평면 채집의 경우 가옥의 평면. 입면을 아주 정확하게 도면화 하였으나 방의 명칭을 조사자의 자의대로 호칭하여 기입하였다면 후의 해석단계에서 민속분류 ( Folk Taxonomy )에 의한 연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가 이상적이기로는 실측과 해석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점을 특히 염두에 두고 현장에서의 해석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됨에 따라 의미가 적은 도면이나 數値가 대폭 생략되었으며, 현장에서의 해석을 서술형식으로 도면과 함께 실게 되었다. 각 주거의 평면도도 종전의 도각중심에서 각 세대 중심으로 바뀌게되었다.
물론 해석의 궁극적인 모습은 건축론으로서 정리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실측부분의 작업이 워낙 까다롭고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되어 해석을 충분히 가하지 못한 점이 있다.

연구는 크게 나누어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실측 및 해석작업(마을조사)이며, 둘째는 인문환경에 대한 記述作業이다.
마을조사에서는 마을의 배치도·각 세대별 평면도 등을 도면화하고 해석을 가했고 마을 안이나 주변의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입면과 단면도에 대한 조사를 보완했다.

1. 조사방법



묘동지세도

● 예비답사
1985년 6월 21일 연구원 2인이 이틀에 걸쳐, 대구시내에 있는 달성군청과 縣內里에 있는 하빈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측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여, 「달성군 전통가꾸기」 책자의 복사, 현지의 지적도 복사 등의 협조를 받았다.
또한 마을을 면밀히 답사하고, 농장, 마을유지 등을 만나 성씨분포, 마을연혁 등 마을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제반 인문 환경을 조사하고 85년 7월초에 시작되는 현지 실측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妙洞의 행정구역상 범위는 묘골, 道菜, 坡回에 걸쳐 있으나 실측의 주대상은 묘골로 한정하기로 하고, 인문환경조사에는 묘골을 중심으로 하되 지리적 한계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 실측조사
1985년 6월 26, 27 양일에 걸쳐 실측 참가 학생들은 실측방법을 연습했다. 6월 29, 30 양일 동안 측량사 1인과 보조인 3인이 동원되어, 현지에서 평판측량으로 마을 배치 평면도를 축적 1/600로 작성하였다.
7월 1일에서 5일까지 5일간 실측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아서 조사방법 교육, 실측에 대한 실습, 측량도면의 확대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측량도면은 1/100로 확대하여 집의 위치만 나타난 도면에 현지에서 건물의 평면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8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7박 8일동안 교수 3인, 학생 22인 (건축학과 21, 가정학과 1)이 현지의 崇節堂과 박형기씨 댁에 숙식하면서 실측 및 인문 환경조사를 행하였다.
일반적인 건물들은 배치 평면도만 축척 1/100 연필제도로 작성하였고, 중요건물들은 입면도와 단면도를 축척 1/50로 작성했다.
건축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먼저 현장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축척을 고려하지않아도 되었고, 2인이 칫수의 실측을 하는 동안 1인이 스케치에 칫수를 기입하게 되므로 보통의 실측조는 3인으로 구성되었다.

● 도면화 작업 및 보완조사
현지에서 실측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자료를 토대로 1985년 8월 건축학과 설계실에서 당시 3학년 학생 10인과 연구원 3인이, 마을배치도·도각평면도·세대별 평면도 등의 인쇄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1985년에 행한 작업만으로는 중요건물에 대한 건축도면이 미비되었으므로 1986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간 연구원 3인과 학생 5인이 다시 현지에서 보완조사를 행하였다.
이 보완조사에서는 중요건물의 평면도, 입단면도들의 실측과 이들의 도면화 등이 주요 작업이였지만 아울러 이미 이루어진 도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수정, 사진촬영, 인문환경에 대한 보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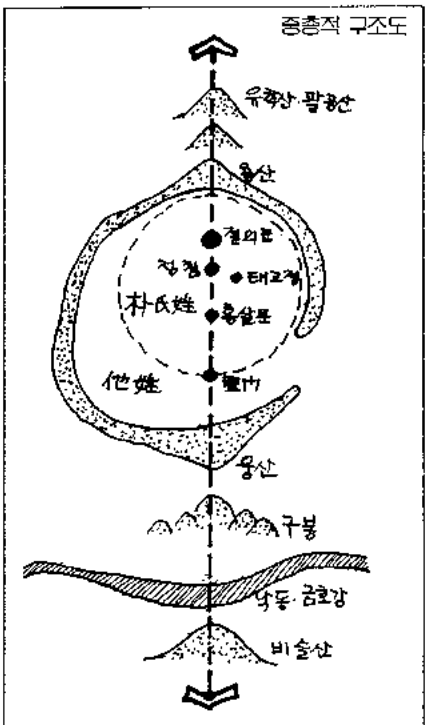
● 인문환경조사

인문환경에 대한 조사는 묘골마을의 역사적배경, 지리적환경, 공간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진 조사를 말하며, 현지에서의 관찰, 주민에 대한 인터뷰, 각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문헌에 의한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관찰, 인터뷰, 설문조사는 실측 기간동안 현지에서 소수의 인원이 시행했고, 문헌조사는 「順天朴氏忠正公派世譜1권」과 「달성군내고장 전통가꾸기」를 중심문헌으로 하여 주로 연구실에서 시행되었다.
인문환경은 마을沿革, 地勢와 形局, 住民, 習俗, 마을의 空間構造, 주요장소, 중요건물, 중요인물의 8개 항목으로 기술하였는데 실측으로 나타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되었으나 문화인류학의 여러 관찰·기술방법을 도입해 문화의 일반적 서술을 시도했다.

2. 인문 환경조사

● 마을의 연혁

妙洞은 대구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 20km, 현재의 대구시 경계에서는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농촌마을로서 達城郡 河濱面에 속해 있다.
달성이라는 이름은達句伐의 들불성(達弗城)에서 생겼다고 하며 이 성에 있던 지역은 현재 대구직할시의 달성공원 근처였다. 따라서 현재의 달성군은 달성이라는 이름의 연원지를 대구에 빼았기고 대구시의 서남쪽 주변부와 경계를 이루며 대도시의 주변지역으로 머물게 됨에 따라



중추적 구조도

경제와 문화를 대구시에 의존하고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배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빈면의 河濱은 요순시절 舜임금이 도자기를 굽던 중국의 지명과도 같은데 신라 경덕왕때 壽昌郡의 領縣으로 있던 하빈현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面의 소재지는 현내리로서 묘골에서 4km 동쪽에 있는데 縣內라는 이름은 현의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다. 1830년경 이루어진 達城·大邱古圖를 보면(고지도 참조) 그 당시에 하빈이 河東, 河西, 河南, 河北의 4개 方面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빈현은 본래 多斯只縣(또는 畓只)에서 신라 경덕왕때 개명되었다고 하며, 이때 하빈현은 壽城郡에 속하여 있었다. 고려때에 경산부 관내로 내속되었다가 대구에 이속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일제 침략 후 식민정책 수행의 일환인 1913년의 총독부령의로 도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대체로 지금의 명칭과 규모로 정해졌는데 하빈현의 경우 현내리에 중심을 두고 하동, 하서, 하남, 하북을 합하여 하빈면을 이루었다. 이때 하빈면은 달성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대구는 축소되어 府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후 대구시의 팽창에 의한 주변지역 흡수가 여러 차례 일어났으나 하빈면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
묘골은 동네의 입지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묘한 형국으로 이루어졌다하여 妙洞이라 하였는데 儒學人들이 유교적 관념에서 女를 立으로 고쳐 妙洞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마을이 처음 이루어지게 된 것은 1470~80년 경인데 入鄕祖는 順天 朴一珊이라고 한다. 그는 忠正公 박팽년의 遺服孫으로서 근처에서 태어난 후 묘골에 맨처음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후 이 마을은 충신과 학자들이 배출되는 유서있는 양반 동족마을로 발전되었으며, 임진왜란때 전쟁의 혹심한 피해를 입어, 현재 마을의 골격은 그후에 이루어졌다.

● 地勢와 形局

묘골의 형국은 소위 回龍顧尾形이라고 하는데(朴氏世譜1권 p.44) 龍山이라 불리우는 낮으막한 산이 묘골 주위를 둥글게 싸고있어 용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골짜기에 의해 떨어지되 서로 마주보는 모양에서 이렇게 불리운 듯하다. (묘동지세도 참조)
현재 마을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을 풍수에 대한 개념은 매우 빈약하며 순천박씨세보에서나마 그 편린을 엿볼수 있다.
이 마을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주한 박노만씨에 의하면 묘골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며 풍수상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한다. 즉 八公山에서 뻗은 맥이 칠곡의 架山, 仁同의 遊鶴山 등을 거쳐 龍山을 이루는 文樂山, 織女峰, 熊山등으로 이어져 내려와 묘골에서 明堂을 이루는데 이때 주변의 산들이 모두 묘골을 따르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1].
世譜의 事實, 古蹟, 碑誌行狀의 기사들에서는 忠正公派의 본거지인 묘골과 파회에 대하여 박씨 가문의 명당으로 의식하고 있었으며, 글을 써준 외부인들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2].
현재 崇正祠[3]를 포함한 주변의 대지에는 지금의 숭절당 자리까지

포함하여 99間의 宗宅이 있었다고 하는데 太古亭은 그 저택에 딸린 정자였다고 한다. (세보 p.37 太古亭記 참조) 이 집에서 살던 大宗家는 18세기 말경 領北(충주부근)으로 이주함에따라 일가들이 그후 그터에 여러집을 짓고 살아오다가 1971년에 시작된 정화사업에 의해 집들이 헐리게 되었다.

● 주 민

묘골의 주된 성씨는 順天朴氏이다. 순천박씨는 최초의 입향조 박일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500년간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며, 터가 좁아 파회로 분가하기도 하였다. 많을 때에는 마을전체 가구수가 100여 가구에 달할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1985년 8월 현재 박씨만 19가구, 전체 가구수는 34가구이다.
따라서 아직도 동족부락의 면모가 남아 있어서 박씨가 他姓보다 의사결정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입향조 박일산은 박팽년의 손자이자 그 아들 朴珣의 유복자이다. 1456년 6월 丙子之禍로 박팽년을 포함한 死六臣과 박씨의 온가족이 화를 당하여 죽고 귀양갈 때 박팽년의 丁婦인 李氏(성주)는 임신중이었는데 숨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가 朴婢였다. 16세 되던 해에 성종임금에게 자수하여 사함을 받자 이름을 박일산으로 고치고, 묘골에 甁基하였는데 그때가 1480년경으로 추측된다.
그후 99間이 되는 큰 저택을 짓고 차차 자손이 번성함에 따라 묘골은 박씨의 동족부락으로 발전 하였으며, 韓末當時에는 300여 호의 가옥이 있었다고도 하나[4] 1945년까지 약 100호가 있었고 지금은 퇴락, 철거 등으로 30여호의 작은 마을로 변하였다.
이 마을에서 타성의 위치는 박씨에 대해 보조적, 주변적 지위를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여타 동족부락의 경우와 유사하다[5].

● 습 속

묘골의 전통적 행사나 풍습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빼고는 거의 다 퇴화되었다. 정월 대보름에 묘골과 파회간에 줄다리기 습속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며, 예전에 성행하던 굿도 거의 행하지 않는다. 영조때 세워진 三忠閣 때문에 堂祭, 洞祭, 巫俗등이 미신시되어 삼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사는 빈도가 잦으며 순천 박씨 전체의 묘사(時祭)가 음력 10월 13일에 있는데 가문 중에서 번갈아가며 有司를 맡는다. 그 중 육신에 대한 제사는 春秋로 일자를 지정하여 현창회에서 지내는데 유림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이다.
환란시에 돕기 위한 계가 몇개 있어 그 중 하나가 喪主집에 불을 켜주는 호롱계이다.
부녀자들중 불교 신자가 일부 있고 한얼교신자도 몇명 있으나 기독교신자는 없다고 한다.
새로운 조직으로 청소년회, 부녀회 등이 생겼으나 반상회가 열리고 86년 여름의 경우 현지에서 관찰한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동장이 확성기를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 사항과 협조 요청 사항을 알리고 있었다.
추석때 쯤에 열리는 국민학교 운동회는 어른들도 참석하는 흥겨운 행사가 된다고 한다.

● 마을의 공간구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묘골은 지방도로 나가는 부분을 제외한 3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쌓인 아주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제법 완결된 공간감을 준다. 피난지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지세는 외부에서 마을이 들여다 보이지 않으며 내부에서도 둘러싼 용산의 줄기때문에 바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유교의 위계 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확립되었던 묘골의 공간 질서는 유교문화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고한 새 문화가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공간 질서도 흐트러졌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마을이 유교문화 속에서 번성하던 때의 공간 질서를 상정하여 해석해 보았다.
현재 마을에 진입할 때의 시각적 의미적 중심은 숭정사 건물이나 원래는 99間宗宅, 태고정, 六臣節義墓(祠堂)등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다른 전통마을이나 풍수지리설의 명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묘골에서도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의 층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층은 활처럼 휘어져 남북을 관통하는 軸上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층의 위계는 남에서 북으로, 지형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장소가 전개되며 박씨성의 집들은 마을의 윗쪽을 차지하였고 타성의 집들은 아랫쪽에 위치한다.
위계상 최상위의 중심은 宗家의 正寢이 되는데 몇개의 층을 중심의 축을 따라 연결하면 里門—紅箭門—宗宅—節義墓의 순서가 된다.
정침 이외의 중심은 절의묘와 태고정이다. 절의묘는 유림에게 忠과 學의 中心을 상징하며, 태고정은 선비들이 詩作, 閑談, 공부를 하는 장소로서 주변경치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비교적 질서가 잡힌 小世界는 더 큰 질서의 일부가 된다. 뒷쪽의 용산을 거쳐 유학산, 팔공산으로 맥이 연결되고, 앞쪽으로는 곰삿골과 九峰으로 연결된후 洛東江, 琴浩江을 건너 달성의 최고봉인 琵琶山으로 이어진다. (마을 중심을 둘러싼 층구조도 참조)
원래 이 마을은 가장 높은곳에 위치한 宗家로부터 세 아들이 分家하여 첫째, 둘째, 셋째아들 순으로 東岸, 中岸, 西岸의 영역을 이루며 宗家밑의 세 부분을 평행하게 구성하였다고 한다. 복원배치도상에서 상정되는 바와 같이 규모로도 가장 큰 東岸과 점차 작아지는 中岸, 西岸은마치 아버지 밑에 앉은 형제들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현재는 東岸만이 옛모습을 어느정도 보존하고 있을뿐 서안은 이미 쇠락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 다만 동안과 중안 사이의 통로가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소집단으로 군집돼 있는 아랫마을은 본시 윗마을 박씨가문의 임차농이나 사역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는 타지에서 들어온 타성받이들이 소작이나 작은 농사를

경영하고있다.
비록 흔적으로 남겨졌지만 이 마을의 공간구조와 역사적 맥락을 결부시켜 볼 때 조선시대 신분구조의 의인화처럼 배치의 개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묘골은 하나의 城으로서 파악되어 4대문을 비정하기도 한다. 東門은 도채로 나가는 길, 西門은 파회로 나가는 길, 南門은 현재의 지방도에서의 진입로, 北門은 뒷산을 넘는 길로 각각 도채재, 파회재, 북의 문악재를 일컫는다.

● 주요장소

文樂재(무네기 고개) :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 풍악을 울리며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며 마을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소로중에 있다. (묘동지세도 참조)
龍山 : 묘골의 주산으로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C字形의 산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숭정사 뒷 부분의 봉우리만을 일컬을 때도 있다. 전체를 말할 때 그 안에는 中山, 문악산, 안중산, 직녀봉, 웅산 등의 봉우리들을 포함한다.
宗宅터 : 현재 숭정사, 태고정, 숭절당 등이 차지한 일곽에 99간 종택이 있었는데 평면이 興字를 닮았다고 하며 각각의 획에 따른 건물명칭이 태고정기에 적혀있다. (세보 p.37)
織女峰과 베틀바위 : 전설에 의하면 직녀가 남편이 과거보러 간 사이에 남편을 기다리며 베를 짰는데 이 베틀바위에 베틀을 올려 놓았다고 한다.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참조)
아들바위 : 하빈고개를 넘는 길목에 있는 바위로 아들바위 또는 장군바위로 불리운다. 임진왜란 때 明의 장군 이 여송이 전국을 다니면서 인물이날 지맥을 끊어버리던 중 이곳에 왔는데, 바위에 의해 큰 장수가 날 것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붓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렸다 한다[7].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참조)
九峰 : 하빈고개에서 남쪽의 霞山里까지 낙동강변에 뻗어 있는 산을 말하며 봉우리가 아홉이라 하여 이러한 이름을 가졌다.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참조) 武夷九曲形과 흡사하다고 한다. (대구, 달성지)
洛東江 : 묘골의 서쪽에 있다. 시각적으로는 묘골에서 보이지 않으나 定位上 중요한 요소이다. 강줄기가 동서로 이동하는데 하빈쪽으로 흐를때 박씨가에서 정승이 난다는 口傳이 있다.
琴湖江 : 대구로 나가는 길에 건너게 되는 낙동강의 지류로서 지리적 정위상 중요한 요소이다.
錦西간은 금호강의 서쪽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며, 하빈을 다른 이름으로 금호 또는 錦水라고도 한다.

八公山 · 遊鶴山 · ●瑟山 : 팔공산은 대구 · 달성의 鎭山이며, 마을뒤의 용산의 맥이 유학산을 거쳐 祖山인 팔공산에 연결된다. 비슬산은 묘골과 구봉을 통해 연결되는데 풍수상의 朝山에 해당된다.

● 중요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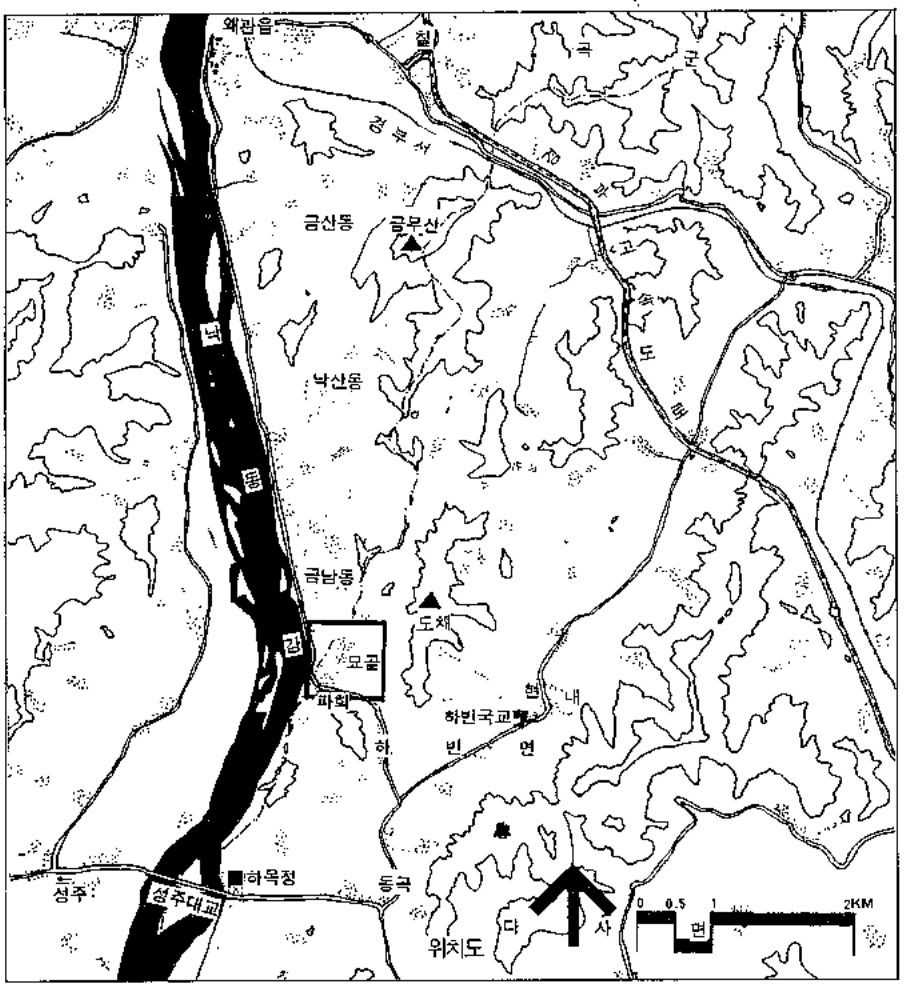
崇正祠 : 1974년 신축된 콘크리트조 한옥형 건물로 종가댁 터에 세워졌으며 현재 이 마을의 시각적 의미적 중심을 이룬다.
太古亭 : 99간 종택에 속하여 같이 지어졌던 정자로서 임진왜란때에 사당만 남기고 집과 정자가 회진되었다고 한다. 같은 터에 현재의 정자를 짓고 新亭으로 부르다가 朴崇古때 太古亭으로 불렀다고 한다. (세보 p.37)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陶谷齊 : 충정공의 14대손 서정공 朴文鉉(1978—1858)의 弟宅이었으나 지금 건물은 19세기 중엽의 것이다. 1800년대에 서정공의 傍祖인 忠正公 6대손 도곡(朴宗祐)의 재사로 지정됨. 지방 유형문화제 제49호(74. 12. 10지정). 1980년 달성군에서 보수하였다. (전통가꾸기 p.428)
追慕齊 : 1983년 西岸(또는 서편이라고도 함)의 방조인 朴崇煥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세보 p.41)
三忠閣 : 박팽년과 子 및 孫의 3대에 걸친 충성을 표충하기 위하여 1775년(영조 51년) 정려된 건물로 마을의 어귀에 있다. 1832년에 記實碑를 세웠다. (세보 p.54)
洛濱書院 : 사육신을 모시던 서원인데 지금 건물은 1924년에 지어졌다. 낙빈서원 이전에는 하빈사을 세워 봉사하다가 1691년에 별묘로서 서원을 지었고 1964년에는 숙종 친필로 쓴 현판을 하사하였으며 1866년(고종 3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됐다. 1924년 유림에서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낙빈이라 명하였다. 1960년에 보수하였다.
三可軒 및 荷葉亭 : 파회에 있는 朴秉圭氏家의 사랑채와 별당채를 말한다. 삼가헌은 원래 초가이던 것을 1826년(순조 26년)에 지금 건물로 지었다. 하엽정은 1874년(고종 11년), 안채는 1869년, 대문채는 1911년 지금과 같이 중건되었다고 한다.
묘골에서 파회로 이사오게 된 것은 삼가헌 朴聖洙공이 차남인 光錫을 分家시킨 데에 연유하며 집의 모양을 사돈집인 밀양의 孫兵使宅에서 따왔다고 한다.
錦西軒 : 1664년 충정공 8대손 박중마가 건립하였는데 1909년 금서헌 朴光輔공의 재사로 지정되었다. 현재 건물 한채만이 남아 있다.
霞蔦亭 : 하빈명 하산리의 낙동강변에 위치한 정자로서(위치도 참조) 1604년(선조 37년) 낙포 이종문 현감이 창건하였다. 평면이 T字形으로서 지금의 건물은 그후 중건된 듯 하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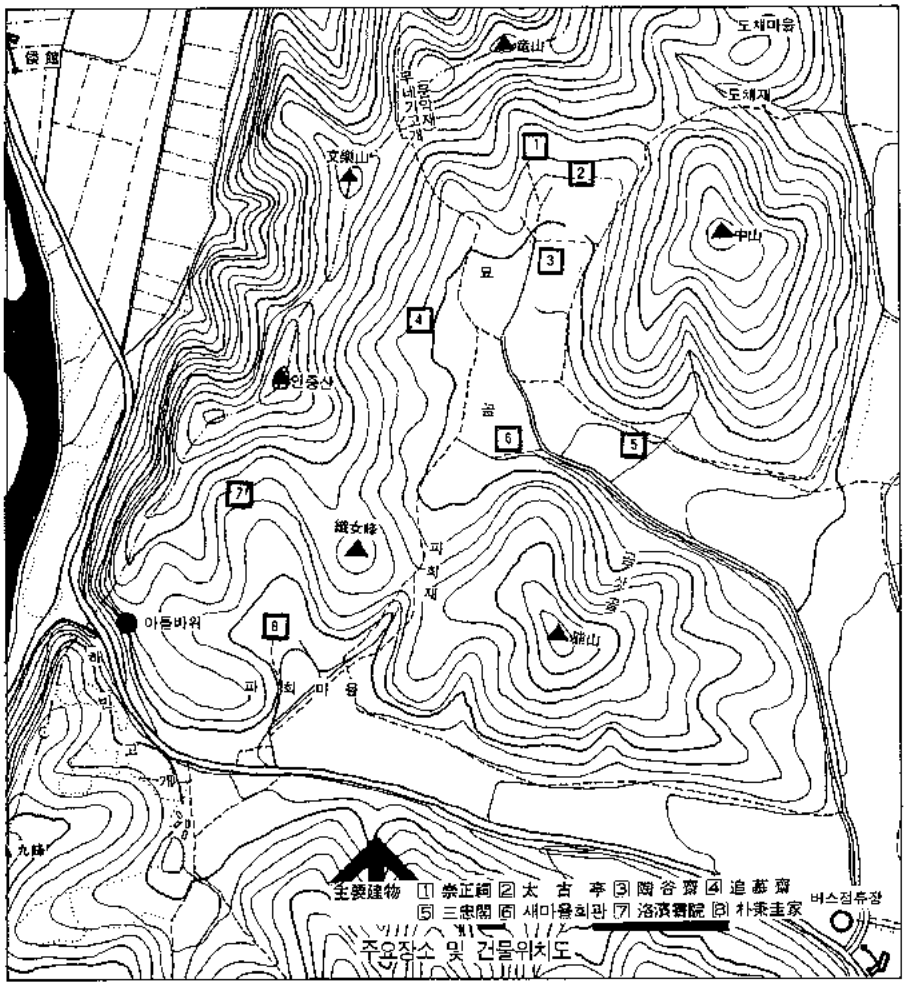
● 중요인물

朴彭年 : 1417~1456, 충신, 자는 仁叟, 호는 醉琴軒, 시호는 忠正. 본관 順天이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四六臣의 한사람으로 후에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으며 낙빈서원에 향사되었다. 묘골에서 살지는 않았으며 순천박씨 충정공파의 시조이다.
朴仲林 · 朴珣 : 중림은 충정공의 부친으로 대사헌, 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아들과 함께 단종을 복위시 키려다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호는 閑碩堂, 시호는 文愍이다. 순은 충정공의 아들로 같은 사건으로 처형되었다.
朴堂珊 : 단종 복위기도가 실패함에 따라 박 중림, 박 팽년, 박 순이

몰사되었는데 이때 박 순의 처 이씨는 유복자를 가지고 있었다. 조정에서 명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連坐하여 그 아들을 죽이게 하고 딸이면 관비로 삼으라"고 하였다.
마침 그집의 종이 또한 임신중이었는데 "주인이 딸을 낳으면 다행이요, 비록 나와 함께 아들을 낳더라도 종이 낳은 것을 대신 죽게 하리라"고 하였다 한다. 해산을 하여 아들이었는데 같은 날 종은 딸을 낳게 되어 둘은 아이를 바꾸어 기르고 朴婢라 이름하였다.
성종때 박 순의 同婿인 議政 李克均이 경상감사로 와서 박 비를 불러 만나보고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미 장성하였는데 어찌 자수하지 않고 끝내 조정에 숨기는가?"하였다. 이에 박 비가 한양에 가서 자수하니 임금이 특별히 명하여 용서하였고 후에 이름을 고쳐 일산이라 하였다.
일산의 外祖父 李鐵根은 일산의 모친 이씨 외에는 자녀가 없어 3만석지기 땅과 재산을 일산에게 물려주게 되었는데, 박 일산은 후에 묘골로 이주하니 묘골의 入鄕祖가 된다.
朴忠後 : 1552~1611,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많은 적을 무찌른 공으로 原從勳에 녹훈되었다. 五衛都摠府副摠管을 지냈고 동생인 忠乳, 忠緖도 왜군과 싸움.
朴宗祐 : 1587~1654. 호는 陶谷 또는 河濱鈞 로 寒岡 鄭逑의 門下에서 배움. 문장이 뛰어나고 행실이 바르기로 이름이 있었다. 達城의 十賢中 1인이다.
朴光輔 : 1761~1839, 호는 錦西軒, 영남의 큰 선비로 칭송됨.
朴光錫 : 1764~1845, 호는 老甫, 금서헌의 동생, 漢城府右尹 등 많은 벼슬을 했으나 청백리로서 칭송받았다. 묘골에서 파회로 분가하여 파회의 박씨 입향조가 된다.
朴奎鉉 : 巴山書堂(하엽정)을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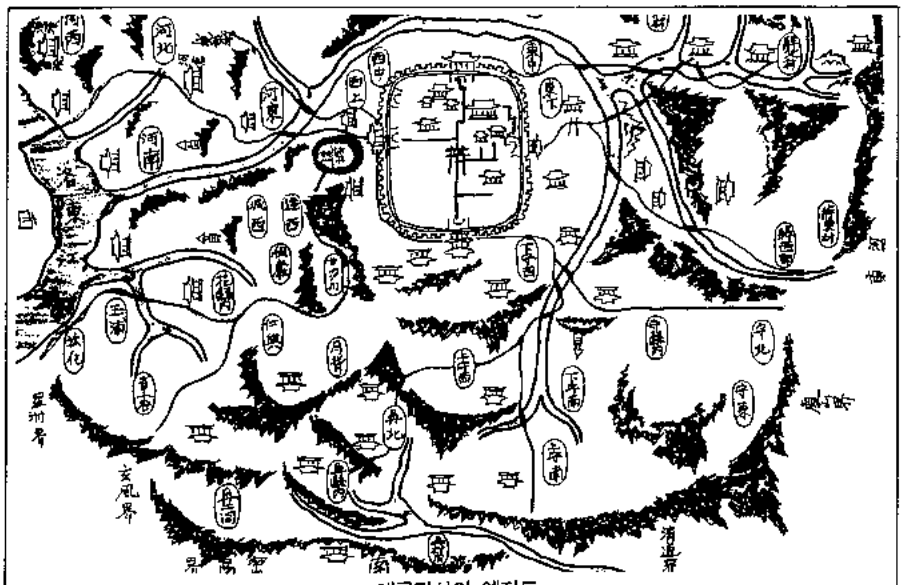
□ 위치도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984년도판 1 : 500,000지형도(도엽번호 NI 52-2-03 왜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재축소하였다. 굵은 실선으로 된 정사각형 부분은 사방 1km범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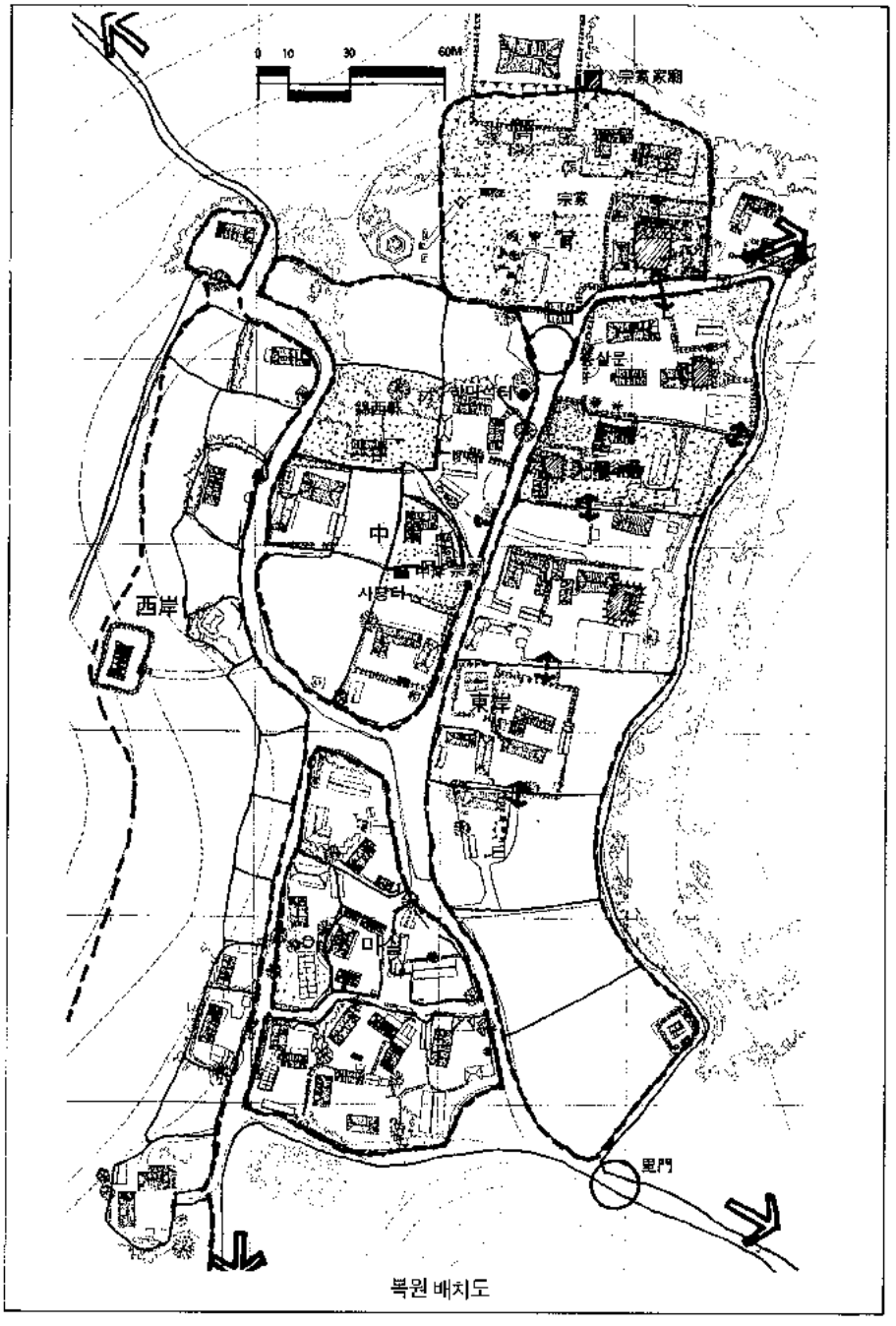
묘동을 구성하는 세 마을인 파회·묘골·도채의 영역을 나타낸다. 묘동은 왜관—동곡간을 잇는 907번 지방도로상에 위치하여, 왜관으로부터 12km지점에 위치한다. 4km남방인 동곡에서 상주—대구간의 986번 지방도와 접속되며 이 도로망을 따라 대구로부터 20km, 상주로부터 15km의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면소재지이며 국민학교가 있는 현내까지는 4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주요장소 및 건물위치도
이 도면은 국립지리원 발행(1980년 편집) 1 : 5,000지형도에서 발췌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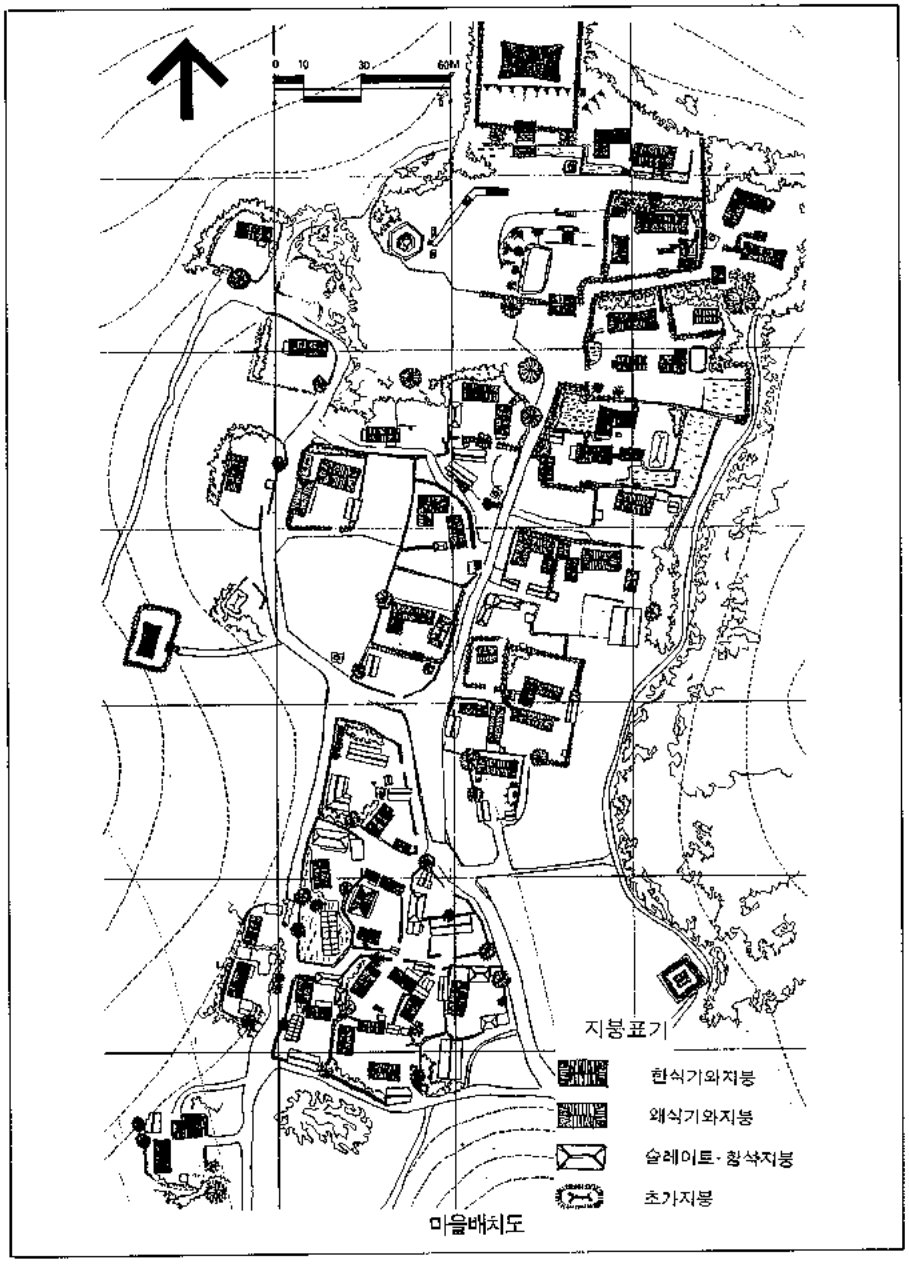

대구달성의 옛지도

□대구·달성의 옛지도
여기에 실린 지도는 조선조 순조 말기(1830년경) 경상감사인 朴岐壽가 제작하여 嶺南輿誌에 수록된 것을 筆寫한 達城·大邱古圖이다. 대구도호부를 중심으로 성주·현풍·밀양·청도·경산·하양·영천·신령과 경계를 맞대며 이루어진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속현중 하서·하북·하남·하동의 4方面이 하빈현을 이루며 현재의 하빈면은 이 중 하서·하북면에 해당한다. 묘동의 위치는 대구·달성권에서도 가장 변방에 자리하여, 많은 씨족마을과 마찬가지로 관청의 영향이 크게 작용되지 못한 채 독자적인 양반촌으로 성장해 왔다.

□복원배치도
한국의 많은 농촌 마을들이 그러하듯이 묘골도 일제기 어후 많은 변형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 마을의 원형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선조말기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의 복원적 배치도는 宗家가 없어지기 이전인 1850년대의 구조를 가능한 범위까지 추정해 본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집터들을 기초로 각종 문헌과 村老들의 고증을 참고로 작성했다.
전체 마을은 종가집을 머리로 하여 東·中·西岸으로 이루어지며, 소작인 집단인 아랫마실이 존재한다. 각 영역의 경계는 도로로 소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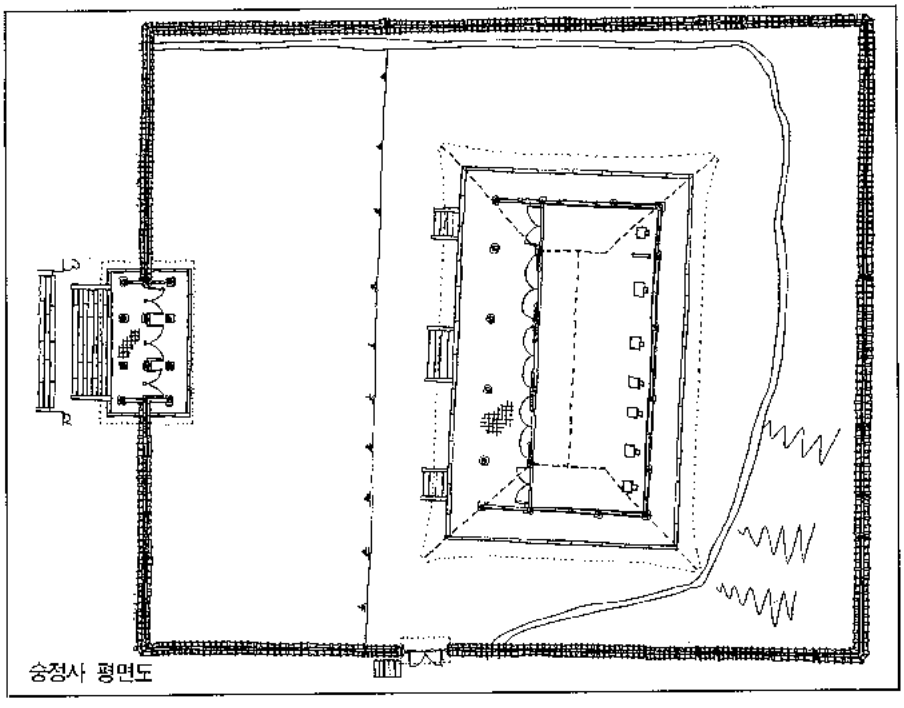
복원 배치도



마을배치도

四大門이라 일컫는 고갯길들이다. 東岸의 집들은 長孫系이므로 집의 규모도 크고 제법 班家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추정되며, 각 집에 모두 蓮塘을 팠고, 아래 윗집 사이에 편문이 설치 돼 내부적인 통로가 있었다.
中岸의 집들은 전형적인 富農家였다고 생각되며 집의 규모도 東岸에 비해 작다. 지금은 없어진 錦西軒이 中岸의 小宗家였으며, 파회마을의 박 병규 가옥도 이 계열에서 分家한 집이다.
西岸의 집들은 小農層의 집들로서 대개 살림채 한 동 정도만을 가진 소규모의 민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단도 順天朴氏의 門中이어서 소작인 집단인 아랫마실과는 구별이 뚜렷했다.
마을 어귀에는 里門이, 종가 앞에는 홍살문이 설치돼 유서있는 班村임을 상징했었다. 19세기 중엽의 총호수는 대략 60~80여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을 배치도(현황)
1/1,200지적도(일제시대 작성)를 바탕으로 1/6000 정밀측량을 하여 도로와 각 집의 경계를 표시한 뒤, 각 집을 1/100실측하여 각 도각평면을 완성했다. 각 도각을 사진축소하여 조합하여 마을 배치도를 완성했고 주거 평면 대신 지붕평면도를 표기했다.


숭정사 평면도

□숭정사(崇正祠)
건립연대 1974년
구　　조 R·C 조, 다포계 모사
재　　료 콘크리이트위 단청칠
1971년부터 묘골에 일기 시작한 死六臣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태고정·삼충각·낙빈서원등이 중수됐으며, 그 마지막 사업이 바로 숭정사의 건립이었다.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정화 추모사업과 발맞추어 진행된 이 사업의 결과 묘골내 주도로가 1차선 폭으로 정비돼 콘크리트 포장이 됐으며 구종가터의 뒷산 경사지를 깎아 웅대한 이 사묘건물이 세워졌다. 건물내에는 六臣의 위패와 박팽년의 부친인 대제학 仲林선생의 위패가 별도로 봉향돼 총 7위의 위패가 있다. 따라서

사당의 이름을 六臣祠로 하지 못하고 崇正祠로 하게 됐다. 서남쪽 언덕 위에 육각형으로 된 돌거북비가 세워져 六臣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다. 콘크리트조로 다포계 목조건축을 모사했으나 칸 넓이와 높이의 스케일은 목조건축 고유의 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크다. 내부에 마루를 깔고 7위패를 봉안했다. 전면 퇴만 개방되고 3면은 막힌 감실형 평면으로 전통적인 사당건물의 평면 유형이다. 그러나 겹처마 팔작지붕을 갖음으로써 박공지붕이 일반적인 사묘건축의 경건성이 감소된 것이 아쉽다. 그 규모로 보아 향교의 大成殿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으면 더욱 좋을 뻔했다. 주변에 축대·계계단·담장등을 정비하고 산디를 깔았으나 주변마을 가옥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마을의 역사성과 세월이 이룩한 건축 환경에 부합하는 계획이 아쉽다. 또한 무리하게 석비례층을 깍아 내려 지하수의 맥을 노출시켜 대지 전체를 음습하게 한 것도 고려됐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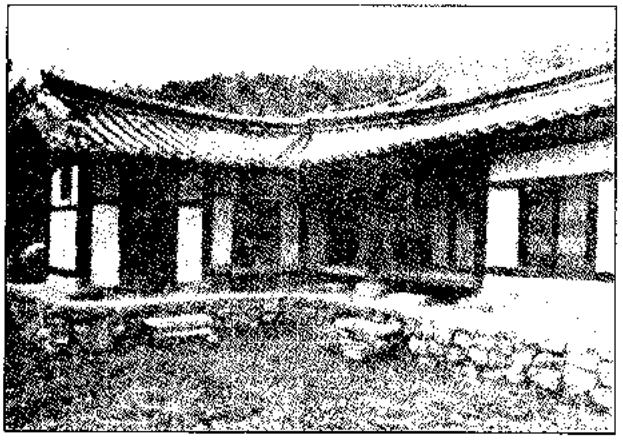
□ 태고정(太古亭)

건립연대 안채 1880년대
정자 17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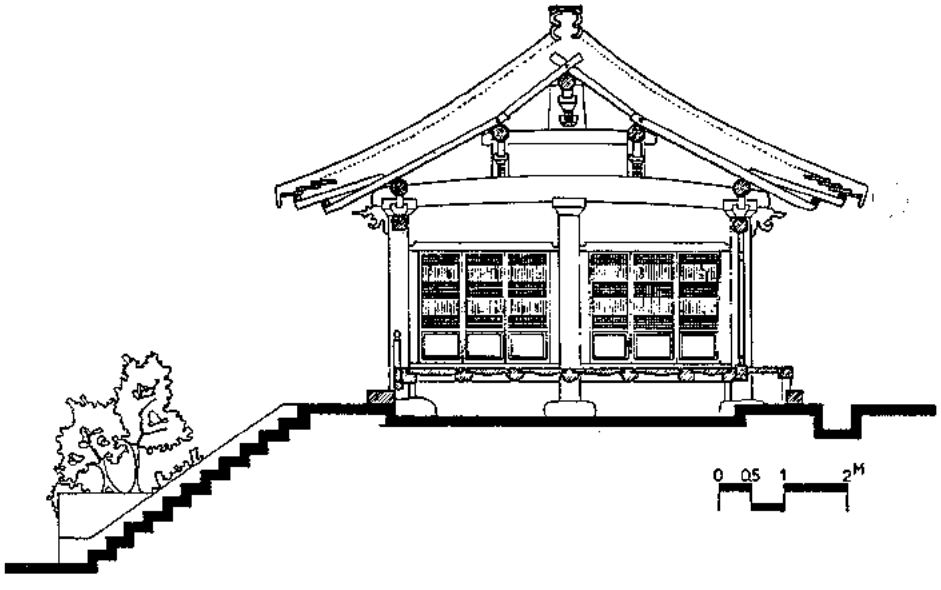
구 조 목조·기와

보물 554호 지정된 조선 중기의 귀중한 정자 건물이다. 순천 박씨가 입향하여 현재의 태고정과가 숭정사 일대에 宗宅을 지어 그 규모가 99칸에 이르렀다 한다. 그때 종택에 있던 정자를 舊亭이라 부르고 태고정은 임진난 이후에 세워진 新亭을 이른다. 임진왜란때 종택 모두가 불타 사당만 남게 됐으며 난후에 종택을 재건했는 바, 이때 종택 동편에 세운 정자가 태고정이다. 종택은 18세기 말 종손이 충주로 이주한 후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문중의 무관심으로 소멸되고 말았으나 太古亭記에 종택의 규모와 모습이 꽤 자세히 묘사돼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 숭정사의 정문인 삼문 자리 남쪽에 홍살문이 세워졌고 下馬碑가 있어 절도사 이하의 신분은 모두 걸어 들어와야 했다. 집 전체는 興字型으로 배치돼 16칸의 안채·4칸인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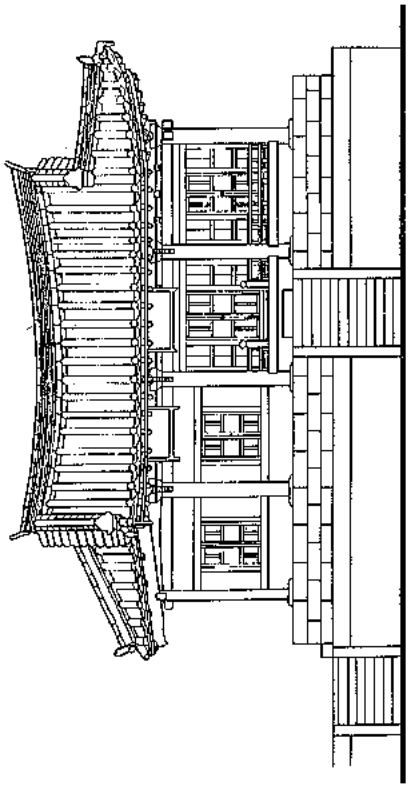
태고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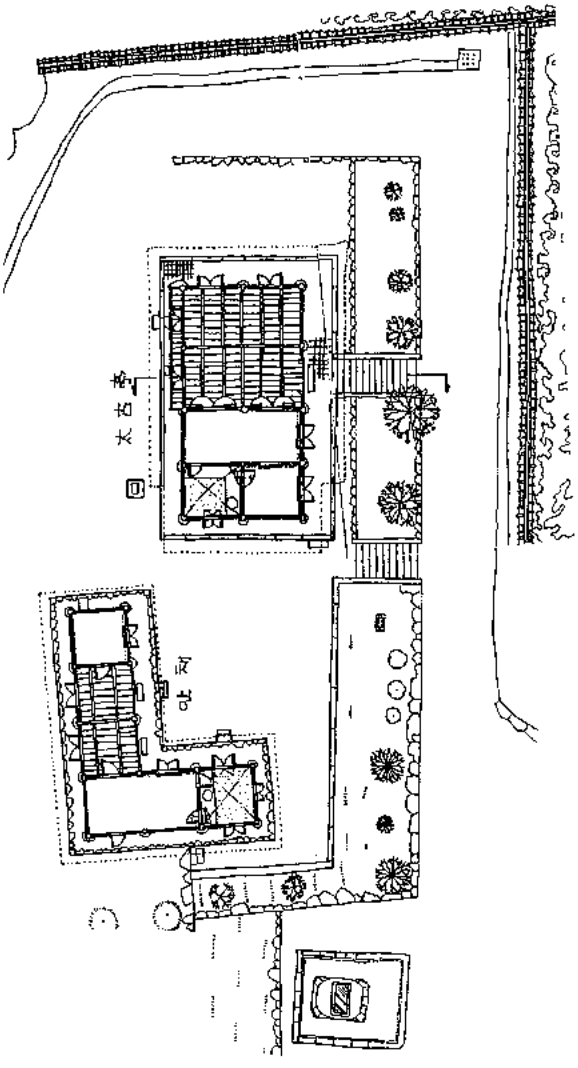
태고정 안채




태고정 단면도



태고정 입면도




태고정 배치도

점화루 · 6칸의 정자(태고정). 정자에 부속된 3칸 복도 · 3칸의 2층각(부엌용도) · 9칸의 창고 · 10칸의 2층루각(피서용) · 3칸 방 (문서 · 약제 보관) · 26칸의 긴 행랑채 · 6칸의 2층 곡랑(매방) · 13칸의 곡간 총 99칸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태고정과 ㄱ자 안채가 남아있다. 안채는 종택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택 철거 후 이 터에 10여호의 살림집이 있었다 한다. 그 중 한 채로 추정되며 숭정사 건립 후 봄 · 가을 제사때 숙소로 쓰는 등 관리사의 성격이다. 따라서 태고정과 유기적 관계도 없고 거주인도 없다. 그러나 묘골에 있는 여러 ㄱ자 안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대청의 대들보는 활모양으로 휜 것이 3칸에 걸쳐 있다. 부엌 위에 다락을 두었고 어골 천장을 꾸몄다.

태고정은 원래 2×3칸의 6칸이었으나 서쪽 2칸인 방과 부엌은 후에 첨가된 것이다. 지붕 모양도 대청쪽은 팔작 지붕, 방 부분은 박공지붕에, 확장된 부부은 다시 부섭지붕이다. 한 집의 지붕이 이처럼 다른 것은 살림집에 딸린 정자건물에 종종 나타나, 월성 독락당의 지붕에서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박공지붕쪽에 안채와 연결되도록 일반적으로 복도등을 부설한다. 부연을 단 겹처마에 날카롭게 초각된 초익공집이다. 원래 부분은 원름, 첨가된 부분은 각주를 썼고 대청 양 귀퉁이 추녀부분은 선자서까래를 달았다. 합각부분의 천장은 충량 위에 우물반자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연등 천장이다. 대공은 사다리꼴 판 위에 포를 얹은 복합대공이다.
방 앞에는 「太古亭」, 대청 앞엔 「一是樓」의 현판이 걸려 있고, 대청 안에 題名錄 · 明나라 장수의 詩文 · 重修記등으 현액이 걸려 있다.

〈다음호에 계속〉

연구진
자문위원 : 임충신, 성인수, 김선범, 유호천, 최 일, 강석봉
연 구 원 : 이규성, 강규환, 김봉렬

# 제4회 理事會 開催

제4회 이사회광경

4월 14일 오후 2시부터 安箕泰 회장 主宰로 본협회 회의실에서 제4회 理事会가 개최되었다. 協議된 主要内容은 다음과 같다.

**○부의사항**

**分所管轄区域변경**

광주직할시 지부가 신설됨으로써 전남지부 관할구역이 종전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었으나 전남과 광주지부가 分離되면서 관할구역이 9개 시·군으로 축소되어 現 전남지부 작할구역을 인접분소인 목포분소로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 조정 요청이 있었으나 일단 부결토록 하고, 전남지부작할분소 소속회원 3명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하여는 지부를 통하여 절차에 따라 건의가 되도록 조처키로 결의.

**特別研修費用 支援**

2급건축사 특별연수에 따른 所要費用중 일부 비용을 교육훈련비에서 지원키로 결의.

**사무실임대 승인**

한국태양열에너지학회의 사무실 임대요청에 대해 2층 사무실 배치가 완료되고 여유공간이 있을 시 결정키로 결의.

**회관임대관리비 징수기준 제정**

사무처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토록 위임함.

**○기타사항**

**회관2층 사무실 임대부분 명도소송 제기 승인**

제반사항을 鄭秀煥감사와 俞景哲 서울支部長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

**○협의사항**

**단독주택 종별 적용사항**

단독주택의 종별 적용시 연면적은 지하실 면적에서 제외키로 하고 종별적용은 2종으로 하며 감리도 2종으로 적용토록 협의.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제3차 서울대회 개최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 및 협의**

분과위원회 지정과 사무국 직원 증원에 대하여는 회장, 국제위원장, 연수위원장이 협의 결정토록

**춘계체육대회 개최**

지난 5월 9일 화창한 봄날씨에 경기도 서오능에서 安箕泰회장을 비롯한 본부, 서울지부, 서울건축사복지회 任職員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87建築士研修 開幕

'87건축사연수

'87建築士研修가 4월14일 1기를 시작으로 본협회 강당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최, 올해 건축사연수의 막을 올렸다.

'87建築士研修 履修現況

| 기 별 | 기 간 | 인 원 |
|---|---|---|
| 제 1 기 | ('87. 4. 14~4. 15) | 349명 |
| 제 2 기 | ('87. 4. 21~4. 22) | 302명 |
| 제 3 기 | (87' 4. 28~4. 29) | 312명 |
| 제 4 기 | ('87. 5. 6~5. 7) | 262명 |
| 제 5 기 | ('87. 5. 12~5. 13) | 328명 |
| 제 6 기 | ('87. 5. 19~5. 20) | 358명 |

# 慶南建築士會舘 開舘

경남건축사회관 현판식

4월17일 오후2시 본협회 安箕泰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각시도 지부장 金正洙경남지부장, 회원 다수가 참석하고, 경상남도부지사, 국회의원, 각시장, 군수,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인사 등 200여명의 저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관앞 광장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

속에 오색테이프가 커팅되며 개관식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이어 경상남도지부사무소 이전(경남건축사회관3층)에 따른 현판식이 있었으며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관에 따른 지부장의 개관사, 본협회장의 격려사, 경남지사의 축사(대독)가 있었다.
내빈의 축사가 끝난 다음 칵테일 파티로 오찬을 겸한 자축연이 벌어졌다.
또한 익일(4월19일) 오전 9시 이규효건설부장관의 개관 축하 내방에 따라 본 협회장을 비롯 각 시도지부장, 회원 다수, 마산시 부시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약 30분간 간담회가 있었다.

〈회관건립 경과〉
1985. 4.26/제20회 총회에서 회관 건립을 결의
1985. 9./대지매입
1986. 2./설계확정
1986. 6./대원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처로 확정
1986. 7.16/기공식
1987. 4.17/준공

〈건물개요〉
대지위치/마산시 중앙로3가3번지
대지면적/278평
바닥면적/지하20평
1층 136평
2층 142평
3층 142평
연면적/64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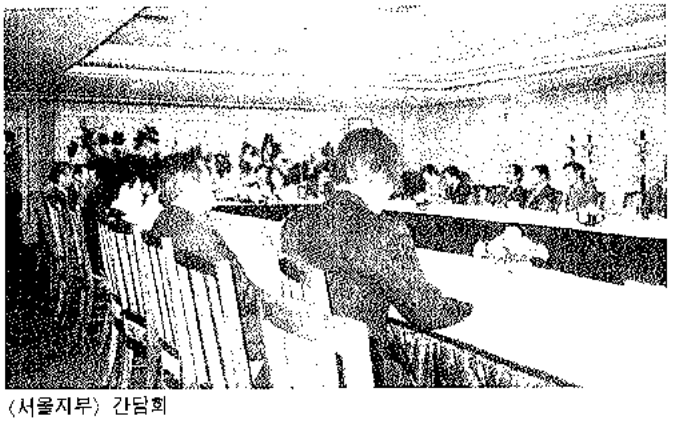
# 支部消息

##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 懇談會 開催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4월23일 지부장외 지부임원 및 17개지역 감리자사무소장과 우명규 건설관리국장, 변영진 서울시 건축지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건축관계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날 懇談會에서는 최근의 建築行政(감리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서울지부〉 간담회

### 會員親睦낚시大會 開催

서울특별시지부는 지난 4월24일 회원다수가 참석하여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짐했다. 命지부장 등 회원이 참석한 이날 낚시대회는 충남 아산군 소재 냉정저수지에서 열렸으며, 장원상(월척)에는 김형석회원(피·에이 건축사사무소)이 차지 동료의 축하를 받았다.

##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 월례골프동호회 개최

부산직할시지부는 지난 4월14일 제주 오라칸트리크럽에서 월례골프 동호회를 개최하고 친목과 단합을 도모했다.
지부장외 동호회 金主泰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골프대회는 메달리스트에 梁山釜회원, 우승에 柳光熙회원, 준우승에 李宗憲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부산지부〉 골프동호회 제주도 오라경기

## 大邱直轄市支部

지부장 黃鏞周

###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캠페인

대구직할시지부 소속회원 및 직원 일동은 지난 4월24일 桐華寺에서 자연보호운동을 겸한 행락질서 캠페인을 벌였다.
회원 및 직원 106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현장의 질서를 계도하고 桐華寺 주변의 오염된 자연환경을 말끔히 청소하였다.

〈대구지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캠페인

##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憙

### 建築士 補助員敎育 實施

광주직할시지부는 지난 4월7일 8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부산하 건축사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회원건축사사무소에 재직중인 91명의 건축사보조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는데 지부장의 지부소개

〈광주지부〉 건축사보조원 교육

및 정신교육에 이어 이춘식 광주직할시 건축과장의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정신교육, 이재택 광주직할시북구청 건축과장의 공사감리 요령과 건축법규해설, 질의응답은 진경선 광주직할시동구청 건축과장이 각각 교육을 담당하 하였다. 또한 이날 교육수료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으로 수성볼펜을 전달하였다.

### 세미나 開催

광주직할시지부는 지난 5월8일 광주관광호텔 7층에서 회원8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용 특수연소기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스보일러에 관한 기술일반, 가스 온풍기에 관한 기술일반 등의 내용으로 3시간에 걸친 세미나는 회원업무의 많은 참고가 되었다.

## 京畿道支部

지부장 趙相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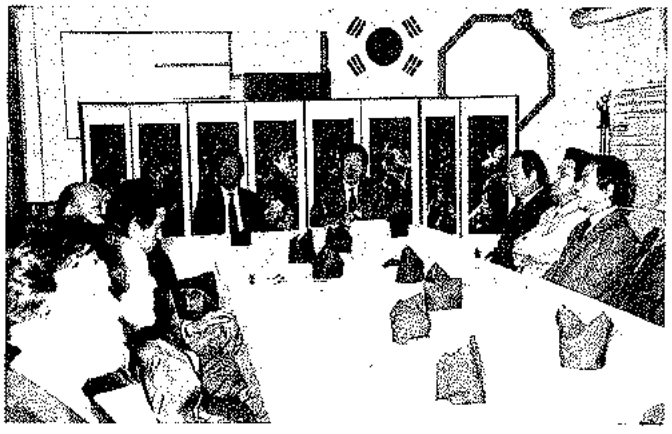
### 懇談会 開催

경기도지부는 지난 4월28일 지부회의실에서 건축민원업무처리 및 제반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對 관청과의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부임원과 경기도 건설국장외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부의 건의사항 및 건축업무추진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폭넓게 토의되었다.

### 체육성금 전달

경기도지부 회원 일동은 지난 5월11일 경기도지사에 체육성금 1백2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한 체육성금은 '87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 5일간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들을 성원하는 뜻으로 회원 1인당 5천원씩의 기금을 모아 선수단의 격려금으로 전달하였다.

〈경기지부〉 간담회 개최〉



##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金仁模

### 체육대회 개최

전라남도지부(지부장 金仁模) 순천분소(분소장 鄭南朝)는 지난 5월2일 체육주간을 맞아 회원 친목 단합을 위한 분소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순천 삼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분소회원 12명과 보조원 71명이 참가한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 경기와 배구경기, 릴레이경기 등의 경기종목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전남지부〉 체육대회

## 慶尚北道支部

지부장 金永吉

### 자율정화결의대회 및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지부(지부장 金永吉)는 지난5월1일 회원58명과 배성열 도 주택과장, 김재호 행정계장, 김형직 경상군부군수, 김재우 경산군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화결의

〈경북지부〉 자율정화결의대회 및 간담회

대회 및 주택 건축행정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산군 남산면소재 상대온천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중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대수선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모든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요망 건 등 여덟가지의 건의사항이 폭넓게 논의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당면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委員會消息

## 建築委員會

위원장 李文雨

제2회 건축위원회가 지난8일 오후4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위원회 산하에 있는 각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1987년도 분과위원회 연구사업에 대한 토의 및 각 분과위원회의 현재 추진중인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 國際委員會

위원장 宋基德

제6회 국제위원회가 지난달 9일 오후 4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ARCASIA 제3차 서울대회 예산에 관한 사항과 ARCASIA 제3차 서울대회 준비 및 집행사무국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일본 건축사회 연합회 협조요청사항 등이 논의 되었고 또한 UIA총회와 연계하여 회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천토록 협의하였다.

## 設備分科委員会

위원장 朴容漢

설비분과위원회(위원장 朴容漢)의 두번째 회의가 지난31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사보수 교육에 대한 주재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가스공급 및 사용확대 추세에 따라 건축물의 가스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회원의 업무에 숙지되어야 할 사항중 가스에너지정책, 가스에너지 사용기술, 가스사용에 있어 안정을 위한 규제사항, 가스연소기기의 종류와 성능등의 내용으로 주재를 결정하였으며, 기타 사항의 논의가 있은후 회의를 마쳤다.

## 都市環境分科委員會

위원장 李永熙

도시환경분과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오후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실에서는 "건축용·표준색체"에 관한 사항을 박돈서위원이 전담하여 연구 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고 건축외장용 표준색의 추출, 건축외장색의 색채체계별 분류정리, 건축외장조화색 유형의 제시등의 연구내용으로 중점협의 되었다.

## 編集委員會

위원장 安將元

제5회 편찬위원회가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오후3시부터 열렸다. 회지 편집·발간을 위한 이날 회의에서는 4월호 강평과, 5월호 편집계획(안)확정, 6,7,8월호 편집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6월호 협의에서는 탐방취재 활성화방안연구와 한국의 민속마을 시리즈등 연구논문게재계획 등이 협의되고 기타사항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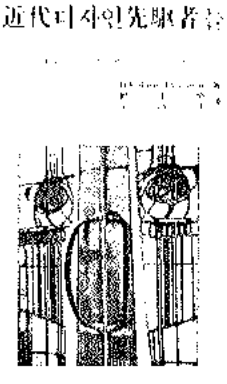
건축위원회

국제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정구영회원 「근대디자인 선구자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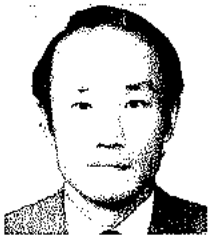
본회 경기도지부 회원인 鄭求榮 회원이 「近代디자인의 先驅者들」이란 책을 출간했다. 니콜라우스 페브스너 원작을 鄭회원이 번역한 것인데 윌리암모리스에서 그로피우스까지의 건축가들의 건축창작생애를 다루었다.



河東哲
1946. 3. 2
부산대학교 건축과
三圓건축사사무소
경남 창원시 용호상업지구73-60
85-2438

李大遠
1953. 4. 15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209
714-7938

朴茂弘
1952. 6. 12
경남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신흥·가인
부산시 부산지구 부전동261-1
808-1237



李鐘宣
1941. 8. 26
한양대학교 건축과
대원창건사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101-7
923-1091

康榮変
1955. 6. 10
전북대학교 건축과
우전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302-45
555-5645

朴桂洙
1919. 4. 15
서울대학교 건축과
법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예관동70-7
269-8151

姜泰鳳
1956. 3. 11
건국대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異空)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1031-28
587-2020

徐鎭達
1954. 10. 18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異空)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1031 28
587-2020

金亨杰
1915. 6. 3
동경공업대학 건축과
(주)우보기술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10-1
549-6011

趙榮寬
1953. 9. 1
인덕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현대미건
서울시 강동구 잠실본동313-7
417-9703

安基錫
1951. 2. 9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라인건축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317-5
553-9515

徐在權
1954. 8. 5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과
원남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중앙동48-9
32-2291~2

申宗洙
1952. 12. 2
영남대학교 건축과
신명건축사사무소
경북 구미시 원평1동964-243
53-0615

崔炯植
1952. 12. 17
송원실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예향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471-22
525-2454

# 新入會員

康原容
1956. 12. 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합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42브럭19롯트
434－4922

林昌洙
1951. 2. 26
부산성지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赫進
부산시 동구 초량동1162－9
44－1285

□ 準會員

金尙謙
1956. 9. 30
충남대학교 건축과
대전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대전시 동구 용운동96－3
252－0231

崔昌一
1950. 6. 1
연세대학교 건축과
대한주택공사 과장
대전시 중구 용문동250－1
522－3935

李康周
1955. 6. 5
경기공업개방대학 건축과
조달청 건축과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520－3
553－8360

黃政夏
1949. 9. 3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과재
조달청 건축과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520－3
553－8360

金斗淵
1953. 6. 7
대전개방대학 건축과재
부천시 교육청 계장
경기도 부천시
63－2823

# 展示會

## 공기조화설비 전시회

**INTERCLIMA－1987**

1987년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8일간 프랑스 파리의 Porte de Versailles에 있는 전시장 Parc des Expositions에서, 건설부문에서의 공기조화 및 열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전시회이며 매2년마다 열리는 "국제 공기조화설비 전시회. (INTER CLIMA-1987)"가 제10회째 개최됨을 알리오니 많은 참관바랍니다.

동 전시회는 모든 형식의 에너지에 관한 기술 및 설비분야의 전문전시회로서, 재래식으로부터 신소재 에너지에 이르는 모든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목적에 부합되는 관리를 위해 최신에 개발된 기술 및 장비가 전시되며, 전시되는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읍니다.

－난방시설
열펌프, 보일러와 부품, 버너와 부품, 바닥 및 벽면 이용 난방시스템, 전기난방, 가스난방, 태양열난방, 수조, 온수처리, 단열재, 부식 및 스케일링 방지기술, 신소재에너지, 폐열회수 시스템, 열처리기술에 관계되는 자재 및 공구

－주방 및 욕실용 온수기
온수 보일러(전기, 가스, 기름, 태양열)

－냉각 및 공기조화시설
저열생산 및 이용을 위한 장비와 시설, 공업용 냉각 시설, 냉각수기, 제빙시설, 증류 및 냉각설비, 온풍 발생기, 열교환기, 환풍시설, 공기조화장비, 열펌프, 에어덕트 및 분배설비, 공기정화설비, Controlled Mechanical Ventilation, 공업용 건고설비, 에어 필터, 기타 설비.

－조절측정 및 제어시스템
온도조절, 제어 및 안전시설, 측정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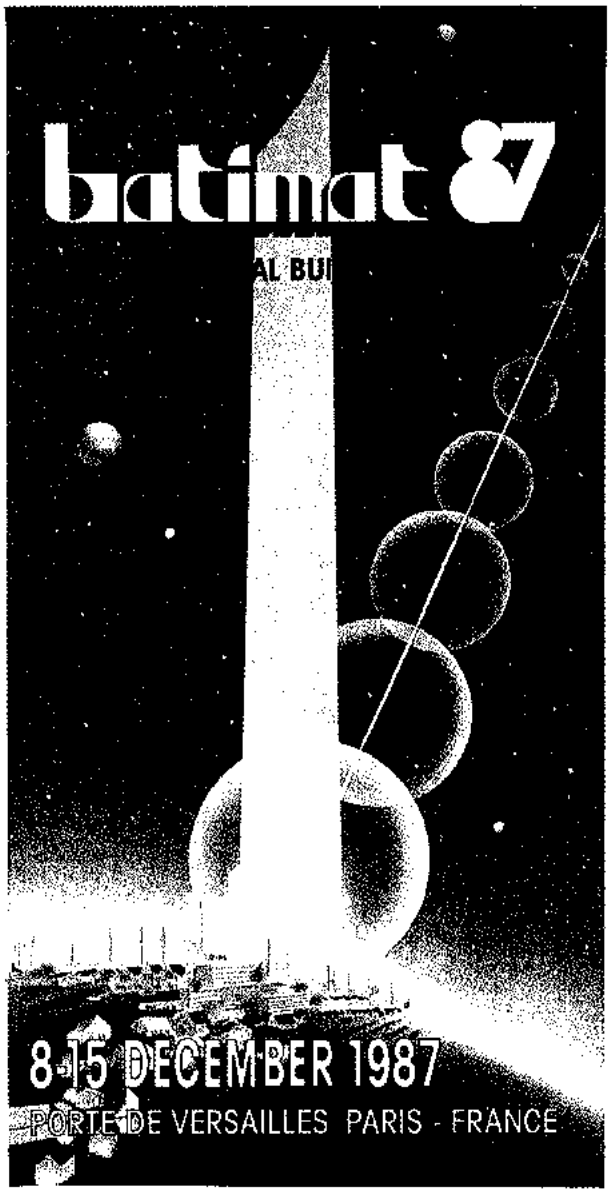
동 전시회의 9회(INTERCLIMA-1985)때 규모를 보면, 전시장의 면적은 52,800평방m이었으며, 전시 참가업체수는 프랑스를 포함한 22개국으로부터 808개에 총 참관인수는 92,714인이었읍니다.

■ 문의처 :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실

# 국제 건축자재 및 설비전시회

(BATIMAT – 1987)

1987년 12월 8 일부터 12월15일까지 8 일간 프랑스, 파리의 Porte de Versailles에 있는 전시장 Parc des Expositions에서, 세계적인 평판과 명성을 갖고 있는 주택건설 부문의 전문 전시회이며 매 2 년마다 열리는 "국제 건축자재 및 설비전시회 (BATIMAT – 1987)"가 제16회째 개최됨을 알리오니 많은 참관 바랍니다.




■ 전시회 관련 문의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상무관실
전화 : (02) 732 – 4951

동 전시회에는 빌딩의 신공법과 기존빌딩의 관리 및 개수를 위한 자재, 기술장비, 소도구 및 연장들이 선보이며, 출품되는 품목과 기술의 주요항목별 분야는 다음과 같읍니다.

- 기초재, 가공재, 방수재, 조인트재
- 단열재, 방음재
- 천정재, 칸막이재
- 수영장 자재 및 설비
- 구조재 및 천정재
- 목제, 철제 혹은 프라스틱제 창틀, 간막이, 유리 제품과 기타 목제, 철제품
- 샷터, 들창
- 벽 및 바닥마감재, 목제 혹은 목제피막처리 판넬, 벽지, 도료
- 실내장식 제품 및 재료, 벽난로 자재 및 키트
- 전기시설 및 조명설비
- 정수 및 정화설비
- 타일
- 위생설비
- 데이타 프로세싱 기법 및 장비와 시스템
- 공사장 장비 및 작업장 설비
- 기타 연장, 도구 및 철물

동 전시회의 금년 출품업체수는 3,500개 정도로 예상되며(1987년 1 월초까지 신청된 출품 희망업체의 수는 약 1,900개) 프랑스를 제외한 30여개국에서 1,200개 정도입니다. 지난번의 동 전시회(BATIMAT-1985)의 개최규모를 참고로 살펴보면 총면적 27,000평방M (부스면적 : 100,104평방M)의 전시관에, 부스의 수는 2,155개이었으며 출품업체의 수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서독, 이태리, 벨지엄, 미국, 영국, 스위스… 등 36개국으로 부터 3,381개이었읍니다. 총 참관인수는 130개국으로 부터의 26,444명을 포함하여 모두 530,239명에 이르렀으며, 방문객의 종사분야도 설계, 계획분야(건축가, 실내장식가, 기술용역자, Prime Contractor, Quantity Surveyors…), 공공 및 개인 자격의 프로모터, 기술계통의 공직자 및 근로자, 자재공급업, 하청업, 제조업 등 다양한 점으로 보아서, 본 전시회가 정보 및 자료교환의 세계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큼을 알 수 있읍니다.

한편 동박람회의 기간중 인접전시관에서는 "국제 공기조화설비 전시회(INTER CLIMA-1987)"가 개최됩니다.